

산성에 얽힌  
역사적 사건보다  
더 역사적인  
백성들의 풍자와 해학이  
새겨져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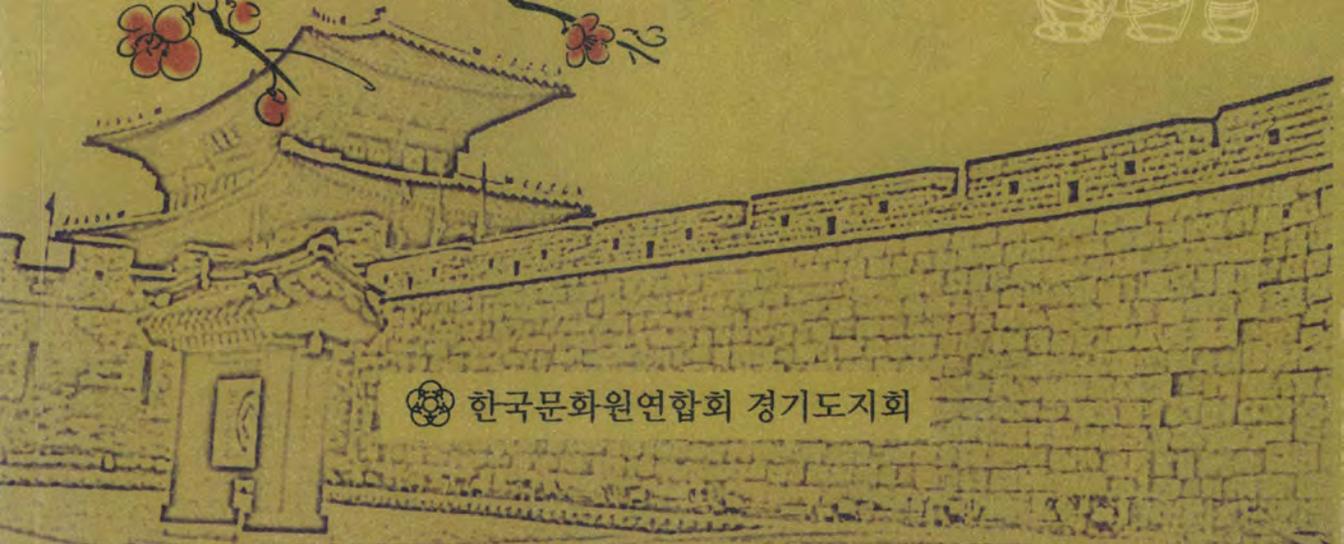
# 동화로



산성편

## 읽는

# 경기도설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동화로

산성편 읽는

경기도설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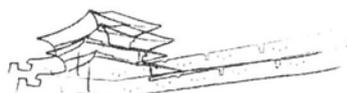
## 발간사



경기도에는 많은 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성곽입니다. 산성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리적 요충지에 축조하는 시설물이자 지방행정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 북한산성, 행주산성, 설봉산성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명한 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에는 많은 옛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울려 있는 곳에는 이야기가 전해내려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산성처럼 전쟁을 경험한 곳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설화로부터 전생설화, 효자설화, 애정설화, 보은설화, 매개설화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역사이자 문화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산성과 이곳에 얽힌 옛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동화로 읽는 경기도 산성설화』는 자칫 돌 더미로 남아있거나 문헌 속에 묻혀있을 뻔 했던 소중한 문화 유산들을 우리의 삶과 소통시키려는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이야기는 문화적 생명의 원천입니다. 문화는 이야기를 통해 기억되고 그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옛이야기를 누구나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화'로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아직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경기도 산성의 설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로



읽는 『경기도 산성설화』는 자라나는 세대들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흥미롭게, 때로는 진지하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지역문화의 보존과 현대적인 계승을 위해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도와 변화들이 모여 지역문화와 세계문화가 공존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가능하게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기까지 책임을 맡고 고생해주신 건국대학교 박혜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오 용 원

## 머리말

경기도 역사의 일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옛이야기들로 전해내려 온다. 학문적으로는 민담·신화·전설을 지칭하는 설화지만 소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져 온 옛날 이야기인 것이다. 경기도 설화엔 경기도 사람들의 삶과 이 지역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런 경기도의 이야기들 가운데는 산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더불어 구비 전승되어 오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라져 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러는 문헌 속에 수록되기도 하고 더러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화려하게 부활하기도 하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작업은 아직도 부족하다. 경기도 곳곳에 남은 이끼 낀 성곽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지금도 역사의 흔적이 되살아날 듯하다. 무단으로 침입해 온 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산성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그것뿐이겠는가? 산성 주변에는 우정과 사랑과 연민에 대한 인간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전해져 온다.

이 책은 경기도의 산성설화들을 모아 재미있게 읽힐만한 이야기들을 전래동화로 재화한 것이다.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경기도의 산성설화들을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



고 있다. 잘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부가가치 높은 문화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방송 드라마, 캐릭터 산업 등 훌륭한 스토리가 거느리는 영토는 끝이 없다. 그리고 이런 밑바탕에 설화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 수록한 경기도 산성 동화들도 그런 자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의 서두 부분은 경기도 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와 현황, 분포 설화 등 개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뒤이어 편집한 산성 전래동화는 역사동화 집필 경험이 있는 작가들에게 의뢰했던 작품들이다. 또한 외국인들도 이 책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문 해설을 수록하였다. 산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곳에 모은 책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이제 이 책 하나로 지금은 허물어져 이름 알 수 없는 잡풀로 뒤덮인 성곽들에도 잊혀졌던 이야기 꽃이 만발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기도의 산성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준 한국문화원협회 경기도지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9년 12월

건국대학교 교수 박혜숙

## 차 례

\* 발간사 / 2

\* 머리말 / 4

---

### I. 경기도의 산성과 설화

1. 산성의 기원 / 12
2. 경기도 산성의 축조시기 / 14
3. 경기도 산성설화의 양상 / 50

### II. 동화로 읽는 산성설화

1. 고봉산성 - 산성위에서 밝힌 사랑의 봉화(烽火) / 86
2. 독산상성 - 권율 장군과 세마대 / 90
3. 화성 - 정조임금과 능참봉 / 101
4. 화성 - 간촌 이생원의 벼락 과거 / 110
5. 남한산성 - 장경사를 짓게 된 사연 / 121
6. 문수산성 - 평양감사와 용골대 / 134
7. 북한산성 - 효자리와 박효자 / 143
8. 북한산성 - 노적봉과 밥 할머니 / 150
9. 행주산성 - 행주산성에 얽힌 이야기 / 157
10. 남한산성 - 은혜 깊은 느티나무 이야기 - 행궁터 느티나무 / 167
11. 남한산성 - 수어장대 매바위 전설 / 176



12. 남한산성 - 효자 우물 / 186
13. 남한산성 - 임금의 곤룡포를 받은 서훈남 / 193
14. 이성산성 - 사리고개 석불 / 202
15. 군자산성 - 군자봉 이야기 / 210
16. 남한산성 - 적장의 편지 / 216
17. 남한산성 - 벌봉의 기운 / 223
18. 보개산성 - 무너진 신념 / 228
19. 영랑산성 - 돌아온 돌거북 / 234
20. 처인성 - 처인성전투 / 238
21. 죽주 산성 - 오누이 성 쌓기 내기 / 245
22. 파사산성 -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 259
23. 파사산성 - 꾀로 두 나라를 얻은 왕 / 275
24. 효양산성 - 은혜 갚은 사슴 / 283

### III.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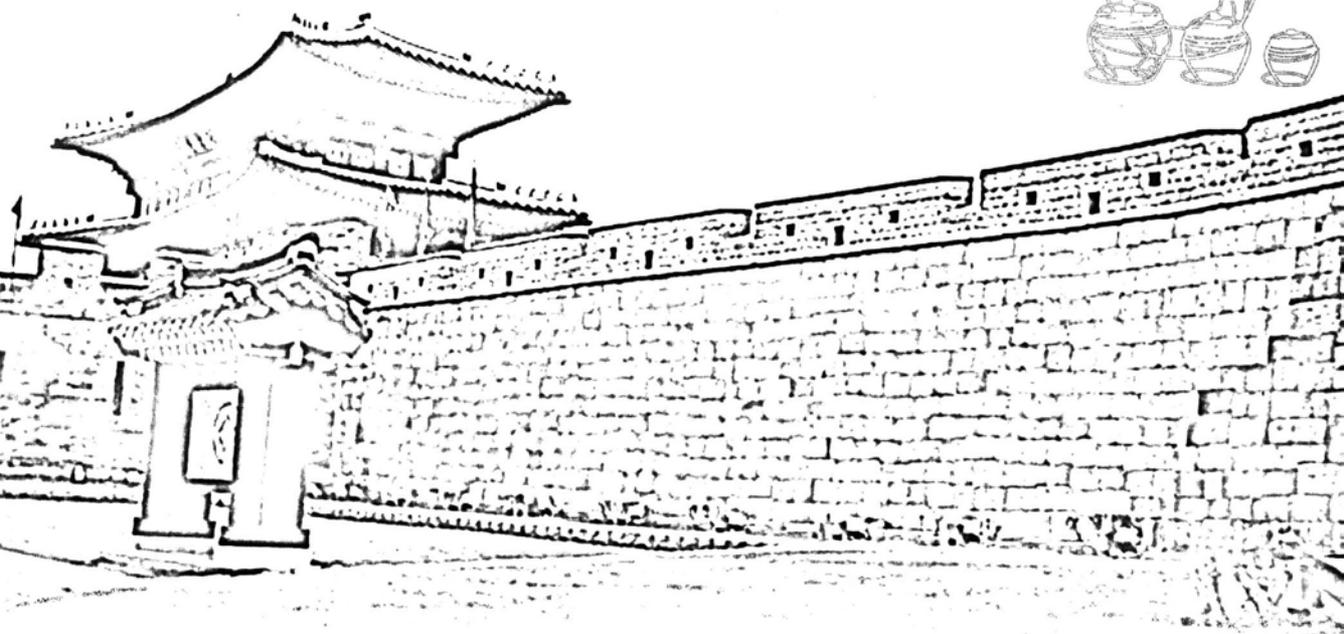
1. 원문으로 읽는 산성설화 / 294
2.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산성 / 312

### IV. 영문 초록 / 342

여 백

동화로  
산성편 읽는  
경기도설화

I. 경기도의 산성과 설화



## 1. 산성의 기원

한국 산성의 기원은 명확히 제시된 바는 없다. 다만 덕전(德田)에 의하면 사기(史記)에서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산성은 위씨조선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 무제가 위씨조선을 공격할 때 왕검성에서 1년 가까이 저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의 왕검성이 산성이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은 덕전(德田)이 제시한 산성의 단서들이다. 이를 따라가면서 산성의 면모를 살펴보자. 비록 산성의 기원은 추측만 가능하지만, 삼국지(三國志)에 이르면 확신할 단서가 보인다. 부여조에는 “성책(城柵)은 동글게 만들어서 마치 감옥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구려조에는 “이 성을 책구루(책溝루)라 부른다. 구루란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부르는 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옥저에는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고 하였으며, “동부도위를 설치하고 불내성(不耐城)에 치소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북옥저는 일명 치루(置溝)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에 의거하여 산성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곽은 산성이다. 산성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리적 요충지에 축조하는 시설물이다. 산성을 쌓고 지키게 되면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서 보장왕 6년 조에 “고구려는 산을 의지하여 성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록이나 고려사(高麗史)의 “당감에는 고려에서 산을 이용하여 성을 축조하는 것을 상책이라 하였으니, 외방의 평지에 성을 축조하는 것을 마땅히 정파시켜야 합니다.”라고 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성의 용도와 기능은 단순히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요새만이 아니었다. 때에 따라서는 지방행정 통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이상으로 덕전(德田)의 견해를 따라 산성을 살펴본 결과 산성은 지방 행정 통치의 중심지이자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씨 조선 말에서부터 조



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산성의 축성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산성의 축성방법은 산성의 위치, 축성 재료, 형태에 따라 구분가능하다. 산성의 위치에 따른 축성방식은 테뢰식과 포곡식이 있으며, 축성재료에 의한 방법은 토성과 석성이 있으며, 형태에 따른 방법으로는 고로봉식, 산봉식(蒜峯式), 사모봉식(紗帽峯式), 마안봉식(馬鞍峯式) 등으로 구분된다. 자, 그럼 하나씩 차례차례 살펴보자.

산성의 위치에 따른 축성방법인 테뢰식은 정상부가 평활한 산정부를 선택하여 정상부를 돌아가면서 성벽을 쌓는 방식이다. 포곡식은 성벽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 계곡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성내의 가용면적을 넓히고 성내에 수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생시 거주하거나 지구전이 가능하도록 한 산성이다.

축성재료에 의한 축성방법인 토석혼축성 또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든 책성도 있지만 산성의 기본적인 축성재료는 흙과 돌이다. 토성은 그 물질적인 속성상 급경사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토성은 산의 정상부나 능선상에 구축하는 데 토성의 축성법으로는 주변을 깎아내는 삭토법과 주변의 흙을 파서 둔덕을 만드는 성토법, 그리고 일정 한 두께로 흙을 다져서 견고한 성을 만드는 판축법이 있다. 석성은 흙에 비하여 쌓기는 힘이 들지만 한 번 쌓으면 오래간다는 특징이 있다. 석축성의 축성방법은 산의 사면에 의지하여 한쪽성벽만 지상에 노출되도록 하는 편축식과 양쪽성벽 모두 지상에 노출되도록 쌓은 협축식 성벽이 있다.

형태에 따른 축성방법은 입지하는 지세에 따라 고로봉식, 산봉식(蒜峯式), 사모봉식(紗帽峯式), 마안봉식(馬鞍峯式) 등으로 구분된다. 고로봉식산성이란 포곡식산성이라고도 하며 대나무나 버들가지로 만든 광주리처럼 가장자리가 높고 중앙이 꺼진 지형에 자리잡은 산성으로서 방어에 가장 유리하다. 고구려의 환도산성이나 신라의 이성산성, 백제 부소산성, 광주 남한산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봉식산성은 마늘처럼 산정상은 평탄하고 넓으며 가장자리는 두절된 산봉우리에 위치한 산성으로 흔히 산정식산성 또는 테뢰식산성이라고도 한다. 산봉식산성은 주로 백제토성이나 소규모 보루의 축조에 적합한 형태이다.

사모봉식산성은 사모처럼 앞이나 뒷부분에 장대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고 한쪽부분은 낮은 지형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형에 자리 잡은 산성이다. 마안봉식산성이란 산의 양쪽이 높고 가운데 허리부분이 말의 안장처럼 고개 형태를 갖춘 산에 입지한 산성을 가리킨다. 이처럼 산성은 각기 다른 축성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각 지형에 맞춰, 용도에 맞춰 선택되었던 것이다.

## 2. 경기도 산성의 축조시기

그동안 산성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정리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편리상의 구분법이지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실제적인 구분이 아니기에 아쉬움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구역과 축성시기를 중심으로 산성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산성의 축성시기는 역사를 전제로 한 문화적인 구분이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정치, 문화, 일상 등 다방면의 문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산성은 삼국시대에는 주로 백제와 고구려에서 축조되었으며, 통일신라는 거의 전무하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축조 및 개조 되었다. 그 구체적 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설명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2.1.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있어서 경기도는 주로 백제와 고구려의 접점지였다. 물론 신라에서 축조한 산성도 있지만 양으로 측정할 경우 백제와 고구려에 미치기에는 어렵다. 경기도를 장기간 먼저 점유했던 백제에 의해 많은 산성이 축조되었으며, 이 축조된 산성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고구려가 점유했던 시대에는 고구려의 입장에 따라 새로운 산성이 축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산성은 위치나 방향, 지형세를 살펴보면, 그 역할이 드러나기도 한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의 시작을 명백히 찾기는 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산성 분류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시대구분이 명확히 국가,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외의 것은 삼국시대 산성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한다.

## 1) 백제

### (1) 설봉산성(雪峯山城)

설봉산성은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마장면 장암리에 축조된 산성으로서, 석성 1079m인데, 관고리성지(官庫里城址) 또는 무안산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설봉산성은 1995년 8월 7일에 기념물 제156호로 지정되었다.

설봉산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으로부터 시작된다. 문헌에 따르면 설봉산성은 조선 전기 이전에 폐성된 듯하나, 그 초축국가와 축성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최근 출토된 다량의 백제토기로 인해 그 축성시기를 백제로 짐작하고 있다. 설봉산성의 축성시기를 살펴보는 데에는 방유리의 「이천 설봉산성 출토 백제 사기 연구」가 유용하다. 방유리의 추적을 따라 설봉산성의 축성시기를 어름잡아 보자.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설봉산성이 있는 경기도 이천지역을 최초로 진출한 국가는 고구려이다. 그러나 고구려보다 백제가 먼저 이천지역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또 다른 사서(史書)는 전한다. 비록 백제가 이전에 진출한 시기는 명백하지 않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에 온조왕대에 경기도 일대를 이미 석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고구려보다 백제가 먼저 경기도 이천을 관할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제가 경기도 이천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는 근거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제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된 설봉산성이외에도 이천시 전역에는 백제토기 산포지가 여러 곳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제토기가 확보되는 대표적인 성곽유적은 설성산성, 제요리 반월성, 효양산토성, 망이산성 등이다. 이처럼 백제의 유물이 다량 확보된다는 것은 경기도 이천이 백제의 주 활동무대였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설봉산성은 해발 394m의 설봉산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325m의 봉우리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테뫼식 산성이다. 산성의 전체 지형은 평면상으로 남북의 길이가 약 380m, 동서 길이가 226m의 장방형의 형태로 서벽의 북쪽과 중앙부분이 돌출되어 있다. 단

면상으로는 남고북저(南高北低), 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설봉산성은 이천 지역 내에 분포한 산성, 즉 원적산성, 설성산성, 장암리토성, 진가리토성, 중일리토성, 해룡산토성, 노성산토성, 망이산성 등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번에 걸쳐 수축과 개축의 과정을 겪으며 이천 지역의 주성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 (2) 반월산성(半月山城)

반월산성은 경기도 포천 시가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구읍리 산 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283.5m의 청성산 정상을 중심으로 7부에서 9부 능선 상에 있는 퇴폐식 산성이다. 전체 둘레는 1,080m로 동서 490m, 남북 150m의 규모이다. 또한 전망도 좋고, 교통이 좋아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지이기도 하다. 반월성지는 1983년 9월 19일에 문화재자료 제48호로 지정되었다.

포천반월산성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열리고 있는 포천, 그곳에는 반월산성이 여전히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동안 고구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반월산성의 비밀, 그 허와 실을 찾아가 보자.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자리잡은 반월산성은 궁예가 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상 백제가 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5년여 동안의 발굴조사 결과 3세기 무렵 백제의 둥근 사발 모양의 토기가 출토되면서 반월산성이 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셈이다. 백제의 성터가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면서 고구려 건축물이 세워져 그동안 고구려 궁예가 축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흔적은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라는 고구려 명문이 새겨진 기와이다. 그런데 최근 성안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신라 토기로 인해 백제, 고구려를 이어 신라의 진흥왕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반월산성은 신라의 북방진출의 전초기지였던 것이다.

이처럼 삼국의 역사를 품에 안은 반월산성은 고려시대에 와서 수도가 개성으로 변경되자 정략적 가치가 없어져 폐성되고야 말았다. 그 뒤 한동안 산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하였는데, 조선 광해군 때에 와서 청나라 침략에 대비하여 산성을 개축하고 절도사의 직할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반월산성이 있었던 구읍리에 포천현의 관아도 있었으며, 이 지역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뿐인가. 1950년대의 한국전쟁 당시 적의 퇴로를 막아내면서 오늘날까지 군사요충지로서의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마실 수 있는 우물, 배수시설이었던 수구, 남쪽과 북쪽의 문터, 성벽 바깥쪽에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치성,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망대를 만든 터, 장수들이 지휘를 하던 장대터 등으로 옛 자취를 느낄 수 있다.

#### 4) 북한산성

북한산성은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산성이다. 산악인들에 의해, 역사학자들에 의해, 건축학자들에 의해, 고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는 산성이다. 이 같은 북한산성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산성은 여러 봉우리를 연결하여 축조한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북한산성은 1968년 12월 5일에 사적 제162호로 지정되었다.

북한산성이란 명칭은 『삼국사기』에서부터 나타났다. 북한산성은 백제가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한 뒤 도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북방의 성이다. 개루왕 5년, 132년에 축조되었다. 백제시대에 축조된 이 산성은 고구려의 남진을 막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초고왕 시절에는 북진정책의 중심요지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삼국의 접전지이자 치열한 쟁탈지가 될 정도로 군사요지로 인정되었다.

이 성을 함락한 왕들과 접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개루왕을 전사시키면서 빼앗았다. 두 번째,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하류로 진출할 당시 북한산성을 갖고 그곳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세 번째, 고구려의 진평왕이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하고 빼앗으려 했으나 실현시키지 못했다. 네 번째,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군과 함께 공격했을 때 성주 동타천(冬陀川)이 주민들과 함께 지켜냈다.

북한산성은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증축되기도 했다. 고려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북한산성을 증축하였으며, 우왕이 1387년에 고종이 몽골군과 격전을 벌였던 북한산성을 개축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양난의 충격으로 외곽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강해지자 효종 10년(1659) 송시열(宋時烈)에게 명하여 수축하게 하고, 숙종 때에 다시 대규모의 축성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증축, 개축으로 인해 현재 북한산성은 삼국시대의 토성의 모습은 미약하게 남아있고, 조선시대 숙종 때 쌓은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 (5) 남한산성(南韓山城)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접하고 있는데,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다. 남한산성도 북한산성과 동일하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이름이 있는데, 신라 문무왕 때 처음 성을 쌓고 이름을 주장성(晝長城)이라 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일장산성(日長山城)이라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백제의 시조인 온조(溫祚)의 성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첫 축조가 백제냐 신라냐 라는 의문이 남아 있는 남한산성은 인조 2년, 1624년에 왕이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로 하여금 성을 개축하게 하여 1626년 공사를 끝마친 것으로 최종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남한산성은 오늘날까지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거치며, 1971년와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 아픔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이 산성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더더구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삼전도(三田渡)에서 청나라에 항복하기에 이르렀으니 남한산성에 걸쳐진 인조의 아픔이 깊다고 하겠다.

이같은 남한산성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남한산성도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럼 경기도남한산성도립공원의 공식적인 설명에 귀기울여 보자.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24km 떨어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경기도남한산성도립



공원은 동경 127도 11분, 북위 37도 28분 지점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있으며 성 내부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속해 있다. 남한산성이 위치한 광주시는 약 80%가 산이며 나머지 20%가 평야부에 속하는 경작지이다. 높고 낮은 산이 많으며 좁고 긴 하천이 한강을 향하여 북 또는 북동쪽으로 흐른다.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성은 성스러운 대상이자 진산으로 여겨졌다. 남한산성 안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인 숭열전이 자리잡고 있는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기도남한산성도립공원은 남한산성이 국방의 보루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 조선왕조 중에서도 인조는 남한산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남한산성의 축성, 몽전, 향전 등의 역사의 현장으로 남한산성을 겪었던 것이다.

인조 2년(1624)부터 오늘의 남한산성의 축성 공사가 시작되어 인조4년(1626년)에 완공한 데 이어, 산성 내에는 행궁을 비롯한 인화관, 연무관 등이 차례로 들어서 수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1894년에 산성 승변제도가 폐지되고, 일본군에 의하여 화약과 무기가 많다는 이유로 1907년 8월 초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그 이후 주인을 잃은 민족의 문화유산들은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다가 하나 둘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말았다. 그렇지만 남한산성 주변에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에서 터만 남아있거나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최근 들어 남한산성이 더욱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6) 고모리산성(古毛里山城)

경기도 포천에 소재하는 고모리산성, 이 산성의 이칭은 노고산성(老姑山城)이다. 고모리산성은 지리지 등의 문헌기록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광개토태왕비와 중원고구려비

의 비문에 남아 있는 고모루성이 아닐까 하는 견해로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2001년도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그 성격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경기도 기념물 185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산성의 전체둘레는 1.1km 정도이다. 이러한 산성 성내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조선시대 백자 단 한 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물 810점이 백제시대의 유물이어서 백제의 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백제 토기류의 기종을 보면 양이부호·고배류·뚜껍류·심발형토기류·장란형토기류·호·옹류가 있는데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의 출토유물과 유사한 점이 많아 주목된다.

고모리산성의 축성시기는 대략 3세기 전반을 상한으로 하고 하한은 5세기대로 추정되는데 한성시기 백제 산성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산성은 남한 지역에서 최고 오래된 산성이므로, 철저한 실사가 필요할 것이다.

#### (7) 광전리산성

광전리산성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의 퇴묘산에 있는 것으로 이 산성에는 여러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다. 첫째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쌓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퇴묘산에 석광이 있는 이곳에 묘를 쓰면 석달 열흘동안 가뭄이 계속되다가 그 후에 천자가 태어나 장차 왕이 된다는 전설이다. 이 석광은 무학대사가 자리를 잡아 놓았다고 전해지는데, 그 위치는 알 수가 없다.

이 광전리 퇴묘산성에 대한 기록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고적조에 풍양폐현의 뒷산에 고성(古城)이 있다. 둘째, 『조선고적조사보고서』(1916)에는 “퇴계원북산성”이라 기록되어있다. 셋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의하면 퇴묘산성의 둘레가 약 300칸(540m)인데, 외측 사면의 높이가 약 1칸으로 자연석으로 쌓았다. 이처럼 광전리 산성은 사료가 기억하는 성이다.

광전리 산성에서 채집되는 토기와 기와들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까지 걸쳐지는데, 출토유물과 이 주변지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축장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기원을 추적해 보면, 백제시기의 산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8) 독산성(禿山城)

독산성은 일명 독성산성(禿城山城)이라 불리기도 하는 사적 제 140호이다. 독산성의 축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백제가 쌓은 성으로 통일신라와 고려와 조선에 걸쳐 계속 이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독산의 본 명칭은 석대산, 향로봉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독산성이라 불렸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펼쳤던 병법전략에 기대어 “세마산” 혹은 “세마대”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도 산 정상에 “세마대”라는 현판을 친필로 써서 누각에 게시했다.

독산성은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이 선조 26년 1593년에 근왕병 2만명을 모집하여 북상하다가 이곳에서 진을 치고 왜적을 물리친 유명한 영웅담과 더불어 백성이 합심하여 왜적을 무찌른 역사적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 성은 권율장군의 공로와 함께 산성의 중요성이 주목되어 왔다. 그래서 선조 35년 1602년에 변응성(邊應星)으로 하여금 수축하게 하였다. 또한 정조 20년 1796년에도 수원성의 축조와 함께 개축하게 하였다.

독산성은 세마대지(洗馬臺)의 전설로도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93년 권율 장군이 독산성에 주둔하고 있을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끈 왜군이 이 벌거숭이산에 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 한 지계를 산위로 올려 보내 조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율은 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백마를 산 위로 끌어올려 흰 쌀을 말에 끼얹어 목욕시키는 시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본 왜군은 산꼭대기에서 물로 말을 씻을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고 오관하고 퇴각하였다고 한다. 권율장군은 독산성의 단점인 물의 부족을 자신의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해 왜군을 물리쳤다. 오늘날에도 이 세마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세마대는 1957년에 복원되었다.

### (9) 무양산성(舞陽山城)

무양산성은 경기 안성시 양성면 신방리 고령산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무한성(無限城)이라 불리기도 한 향토 유적 2호이다.

무양산성은 『문화유적총람』에 의거하면 무양이라는 사람이 쌓았다 하여 무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안성군 양성면 방신리 산 42 소재의 운수암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이라고 한다. 운수암이라는 절을 보호하기 위해 산성을 쌓았다는 것이 평범한 일은 아닌 듯 하다. 그만큼 운수암이 당대적 의미가 깊었던 것이었을까. 운수암은 조선시대 영조 26년, 1750년에 선약명이 창건하였다는 또다른 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이 무양산성을 증건하면서 “운수암”이라는 현판을 친필로 하사하였다.

#### (10) 당성(唐城)

당성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위치한 성으로 당항성(唐項城)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당성은 백제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사적 217호로 지정되어 있다. 당성이 위치한 이곳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번씩 차지한 바 있는데, 신라시대에 와서는 당나라와의 왕래하는 길목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처음 이곳은 백제의 영역으로 당항군(唐項郡)으로 불리다가 고구려가 이 지역을 관할할 때 당성군(唐城郡)으로 지칭되었으나 6세기 이후 신라 영역이 되었다. 신라 경덕왕 시절 당은군(唐恩郡)으로 불리다가 다시 당성으로 바뀌었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영류왕이 덕예문학(德藝文學)의 선비를 뽑아 보내달라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었는데, 당나라 태종이 홍학사를 비롯한 8학사를 보내었다고 한다. 홍학사가 처음 머문 곳이 바로 이 당성이 위치한 이곳이고, 이곳에서 동국의 풍속이 널리 개척되었다는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고구려가 패하고 신라가 이곳을 점령했을 때에도 선덕여왕이 홍락사를 우대하여 당신(唐臣), 당동선생(唐東先生)이라 존칭하였다고 한다. 문무왕은 홍학사가 처음 상륙한 이곳인 당곳(唐串)에 구봉산성(九峰山城)을 쌓고 성의 이름을 당성(唐城)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당성은 거의 다 허물어지고 성벽 일부만이 남아 있지만, 이곳이 이 나라의 문화 발상지 구실을 하였다는 사료에 의거하여 1971년 4월 15일에 국가 문화재 사적 217호로 지정받았다.

오늘날 당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동, 남, 북문지와 우물터, 건물지이다. 당성은



백제시대에 테퇴형 산성으로 축조되었다. 그런데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한 뒤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복합식, 즉 테퇴형과 포곡형이 결합된 복합신 산성으로 축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형태가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은 포곡식 산성이다. 테퇴형 산성의 흔적은 서남쪽의 제일 높은 곳을 둘러서 축조한 흔적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포곡식 산성으로 증축된 후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당성에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효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이다. 다음은 그 일화를 소개한다.

서기 650년, 원효는 승려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당나라엔 고승이 인도에서 배워온 유식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고승이 누구인가. 그는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로 통하는 승려이다. 그가 배워온 유식학은 당대로서는 최신 학문이자 최고의 불교학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것이다. 그 유식학을 배우기 위해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로 떠나야 했고, 신라시대 당나라 뱃길은 당성에서 출발했었다.

원효와 의상은 배를 타기 위해 당항성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고 날이 저물어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원효와 의상은 주변의 감실을 찾아 들어갔다. 잠을 청하던 원효가 갑자기 심한 갈증으로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떠 주위를 살펴보니 웬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갈증에 답답했던 원효는 그 물을 맛있게 먹고 잠에 들 수가 있었다. 이것이 웬일인가. 아침에 일어나니 그들이 감실이라 생각했던 곳이 사실상은 무덤이었으며, 간밤에 원효가 맛있게 먹었던 바가지의 물은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던 것이다. 이에 갑자기 원효는 구역질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효는 하나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라는 것, 다시 말해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던 원래 계획을 바꾸어 경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원효는 더 이상 당나라 고승법사로부터 유식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험한 해골바가지의 물에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11) 양주대모산성(楊州大母山城)

대모산성은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유양동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시도기념물 제143호이다. 대모산성은 대모산성, 양주대모산성, 양주산성(楊州山城)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해발 212m의 대모산 정상에 있다. 분지형을 이룬 대모산의 꼭대기에 돌아가면서 돌로 쌓은 테피식 산성이다. 이곳은 북서 방향의 유일한 통행로인 교통의 요지이자 의정부 쪽으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래서 이곳은 삼국이 탐내는 곳이기도 했다.

삼국시대에 들어 양주산성을 포함한 이 일대는 5세기 중엽까지 백제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이 시작되자 고구려 땅으로 넘어갔다. 6세기 중엽까지 고구려에 속하였다가 이후 신라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산성 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이나 유구 역시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의 유물로는 백제, 신라계의 유물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구려계의 유물은 비교적 희박하다.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로는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물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이 산성이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관방시설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양주 대모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5년,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995년은 동문지, 1998년에는 서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작하였다. 유적으로는 10여개 소의 건물지가 발견되었으나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유물은 대부분 건물지 내부와 추정 저장공, 문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무기류, 농기류, 마구류, 건물부재, 일반생활용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건물지 하층의 풍화암반층 주변에서 반월형 석도나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도 확인된다. 또한 대모산성 내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크게 뚜껑, 시루, 기대, 벼루, 소잡이편 등이다. 이밖에 德部, 德部舍, 富部 등의 명문이 양각된 기와편과 청자편, 백자편이 발견되었고, 화살촉, 낫, 도자, 못, 차관 등 다양한 종류의 철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대모산성은 삼국시대인 백제시대에 초축되었지만, 여러번의 보수와 개축을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라의 대당



(對唐) 항쟁 이래 대외 항쟁의 주요 거점으로 이용되었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대모산성의 민족사적의 의의까지 드러내는 것이다.

## (12) 망이산성(望夷山城)

망이산성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와 이천군 울면 산양리에 있는 산성으로, 1993년 6월 3일에 경기도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었다. 망이산성은 마이산성(馬耳山城)이라 불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망이산성은 차령산맥의 한 줄기인 망이산(望夷山)에 축조되었는데, 망이산이 마이산으로도 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망이산성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그 첫 번째는 1977년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03년 4월에 충청북도가 망이산성 중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와 대사리 일대에 위치한 부분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 한 것이다. 이 두 번의 조사로 인해 망이산성 일부가 충북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되었다.

망이산성은 토축식(土築式)인 내성(內城)과 석축식(石築式)인 외성(外城)으로 나누어지는데, 봉수대가 있는 내성을 주성(主城)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망이산성은 남쪽의 적군을 대비하여 쌓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산성 꼭대기에서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와 멀리는 진천군 일대의 평원이 내려다보이며 남쪽의 산세는 절벽으로 험준하고 북쪽은 낮은 평원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망이산성 안은 지대가 낮고 평지가 넓으며 물이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살기에 좋지만 군사시설을 갖추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따라서 철제 단갑(鐵製單甲) · 주조 철부(鑄造鐵斧) · 토기류 · 와편 · 청자편 · 백자편 등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백제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시대에 걸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로 미루어 보아 중요한 군사기지였음을 추측할 수도 있다.

## (13) 오두산성(烏頭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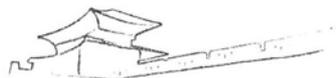
오두산성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대동지지』에는

조두성, 여지도서에는 오두산성,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오조성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오도성산성(烏島城山城), 오두성(鰲頭城)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날 광개토태왕릉비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관미성이 오두산성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는 관미성이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오두산성은 삼국시대 백제에 초축이 된 성으로서 사적 제3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두산성에 대한 문헌 기록은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역사서나 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두산성의 명칭에 대한 기록은 이렇하다. 초기에는 오도성(烏島城)으로 표기되었는데, 이후 오도성산성(烏島城山城)·오두산성(鰲頭山城)·오두성(鰲頭城)의 순서로 음과 뜻이 약간씩 변화하였다. 조선초기에는 까마귀 모양을 지닌 섬이라는 의미에서 오도성(烏島城)이라 불렸다. 조선시대 중·후기에는 지형이 자라머리를 하고 있다는 뜻에서 오두성(鰲頭城)으로 불렸다. 이처럼 지명은 산성이 입지한 지리적 조건이 삼면에 둘러싸여 있으며 돌출된 산이란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만 기록하는 과정에서 음의 변화에 따라 한자의 오기로 파악되기도 한다.

오두산성은 경사가 가파르고 서쪽은 임진강, 남쪽은 한강, 동쪽은 농경지, 북쪽은 산으로 이어진다. 이 산성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서해에서 한강 혹은 임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된다. 이 산성의 정상부에서는 남서쪽으로 김포일대가 조망되며 서북쪽으로 개풍군 일대가 한강하구와 함께 조망된다. 그렇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 산성에는 통일전망대가 들어서 있다. 민간인들이 통일전망대까지 올라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전망대 시설 이외의 지역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망권이 좋기에 군사시설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오두산성은 통일전망대에 의해서만 확인가능하다.

오두산성에 대한 발굴은 1990년~1991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당시 토기, 백자, 기와, 철촉 등 다수 발견하였다. 축조방법은 기초석 위에 지대석(5-15cm)을 들여쌓기 하여 내측은 전



부 돌로만 채운 뒷채움석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큰 암반을 채석으로 이용하고 그 단면을 성벽으로 이용한 성곽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백제시대 성곽 연구에 중요한 산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14) 월룡산성(月籠山城)

월룡산성은 경기도 파주시 월룡면 덕은리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경기도 지정문화재 196호로 지정되어 있다.

월룡산성의 자연세는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의 자연지형을 이용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산성 안의 정상부에 오르면 동서남북의 조망권이 좋다. 북동쪽으로는 파주 일대의 평야와 임진강 연안이 보이며, 서쪽으로는 교하 일대의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모양이 보인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고양 일대와 북한산과 관악산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의 조망권이 좋아 여러 가지로 유용한 산성이다.

월룡산성은 월룡산의 정상부와 9부 능선을 중심으로 축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산성의 성벽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북동쪽은 자연절벽을 이용한 천연지세임을 알 수 있고, 동남쪽은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군사용으로 좋은 참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엿보인다. 현재는 체육공원이 들어서 있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월룡산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월룡산성은 3~4세기 삼국이 한강 유역에서 대치할 때 화강암 등 자연석으로 축조된 백제의 석성(石城)이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돼 있고 내성벽 길이 1.315km, 면적 1만평, 외성 높이 20m에 이르는 천연 요새라고 한다. 특히 북방 세력이 남진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경제적 전략지로, 백제의 외교와 북방 영토확장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석 금광시설과 체육공원, 한국이동통신 기지국, 각종 군사 시설로 성벽이 상당히 훼손돼 있고 유적, 유구도 대부분 손상됐으며 일부 성벽은 붕괴위험

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월릉산성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57억원을 투입하여 샅샅이 조사하고자 한다. 월릉산성에서 이미 백제 토기편을 많이 발굴하였기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주시에서 2011년까지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월릉산성을 3구역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발굴 조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표조사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조사 계획을 완수하고 나면 산성의 성격, 구조, 규모, 내부 시설물 유구(遺構)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파주시는 월릉산성의 발굴조사 작업과 함께 또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0년까지 발굴 조사 이후 보수작업과 동시에 석축이 확인되면,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키 위해 내벽(內壁)을 복원할 예정에 있으며, 월릉산성 내,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참호, 차량 대피호 등의 군사 시설물도 함께 제거하여 유적을 보존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굴과 정비가 완료가 되면 2012년 즈음 군 시설물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도보전용 탐방로로 전환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역사교육 전망대와 LCD단지과 월릉산성 인근의 오두산성, 기관봉산성 등을 전망할 수 있는 전통건축물 형태의 LCD전망대(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파주시 내에서는 월릉산성을 문화적 유산으로 재 생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15) 육계토성(六溪土城)

육계토성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에 위치한 산성으로 육계성(六溪城)으로도 불리는 시도기념물 제217호이다. 또한 육계토성은 임진강유역의 남안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백제의 토성이다.

육계토성에 대한 문헌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동지지』와 『여지비지』에 “치소 서쪽 7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7,692척(약2,300m)이며 장단의 호로고루(瓠蘆古壘)와 상대한다”고 하였다. 『적성현읍지』에는 “육계토성 북변 강가에 소둔대가 있었는데, 속전에는 옛 궁궐의 종을 매단 곳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허목의 『기언별집』 권 15기행 무술(1658) 주행기?에는 “날이 저물어 돛을 올리고 호로탄으로 올라가니 여기는 호로하이



고, 그 위에는 육계이다. 또 옛날 진루가 있었는데 앞의 여울은 아주 험하여 사미천이 여기에 들어온다. 상류에 옛 성이 있고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대하여 있는데 석벽으로 인하여 요새를 삼았다. 강가의 부모(父老)들 사이에 전하여 오기를, 옛날 만호(萬戶)의 진루였다고 하나 이것을 알 수 없고, 고려 때에 여러 번 거란의 병화를 입었으니 이곳은 전쟁터로 오늘날까지 옛 자취가 이와 같은가?”라는 기행문이 남아 있다.

이처럼 고대 문헌에 남아 있는 육계토성은 군사지역으로도 주의를 해야하는 곳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육계토성은 임진강이 사행곡류하여 북쪽으로 돌출해 있는 만곡부로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 도하지점의 하나인 가여울과 서쪽의 두지나루를 조망하고 제어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가여울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전차부대가 도하작전을 감행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육계토성은 중요한 곳임이 틀림없다.

육계토성은 아직 유물 발굴 조사가 조직적으로 수행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육계토성 성내·외부는 대부분 논과 밭 등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성내부에 예전 군부대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조사 이후 주거지, 구덩이, 유구,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초백제시대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 2) 고구려

### (1) 당포성

연천당포성(漣川堂浦城)은 사적 제 468호로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에 위치해 있다. 당포성은 35,174m<sup>2</sup>의 면적을 지닌 고구려시대의 성이다.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는 당포성에 대한 기록이 전무할 지경인데, 허목의 『기언별집(記言別集)』에 짧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마전 앞의 언덕 강벽 위에 옛 진루가 있었는데 그 위에 총사(叢祠)가 있고, 그 앞의 나루를 당포라고 한다. 큰 우물이 흘러 진로가 소통된다.”

이처럼 간략한 소개만이 전해지는 당포성에 대한 조사가 1995년 이후에 와서 비로소 시

행되었다. 그 조사 결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의 성으로 추측되고 있다. 왜냐하면 고구려 토기 일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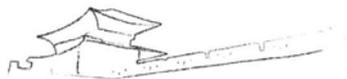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연천 당포성에 대한 정리를 알기 쉽게 잘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해 연천 당포성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포성은 당포나루로 흘러 들어오는 당계셋강과 임진강 본류 사이에 형성된 삼각형 절벽 위 대지의 동쪽 입구를 가로막아 쌓은 석성이다. 호로고루 및 은대리성과 함께 연천군의 임진강·한탄강 북안에서만 발견되는 강안평지성으로, 쌓은 시기는 이곳에서 수습되는 유물들이나 축성술 등을 고려할 때 고구려가 임진강 남쪽의 백제나 신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최초로 쌓은 것으로 보이며 신라가 점령한 후 개축하여 북방세력을 막는데 사용한 전초기지로 보인다.

당포성의 특징은 첫째, 보축벽이 3~4중이며 높게 쌓았다는 점, 둘째, 성벽 밖에 폭 6m, 깊이 3m의 대형 해자가 있다는 점, 셋째, 성벽 상단부위에 이른바 ‘구멍기둥(柱洞 또는 石洞)’ 등이 확인된다는 점, 넷째, 성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홈이 파여져 있고 그 끝에 동그랗게 판 확(確)돌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넷째, 전체 둘레 450m, 서쪽 끝에서 동쪽 성벽까지의 길이가 200m이며 현재 남아 있는 동쪽 성벽은 높이가 6m로 임진강과 주변을 조망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다섯째, 여러 번에 걸쳐 흙을 다져 쌓은 위에 돌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으며 성벽을 보강하는 보축벽도 높게 쌓은 것인 점이다. 특히 다섯 번째의 특징은 고구려의 축성술과 유사하여 남한지역에서의 고구려 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2) 포천반월성지(抱川半月城址)

반월성지는 사적 제 403호로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산5-1에 위치한 고구려 산성이다. 산성의 길이는 1,080m인데, 이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및 단국대 사학과에 의한 조사결과 후고구려가 아닌 고구려 때 쌓은 성으로 밝혀졌다.

반월성지는 여러 문헌을 통해 ‘고성(古城)’, ‘산성(山城)’, ‘반월산성(半月山城)’, ‘청성



(靑城) 등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대동지지』에서는 광해군 10년(1618)에 고쳐 쌓고, 인조 1년(1623)부터 헐파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연려실기술』에서는 포천군읍지에는 반월산성은 돌로 쌓은 것으로, 돌레가 1937적이고, 가운데 우물이 2개소 있고, 사방으로 갈라지고 가파르며, 광해군 무오년(1618)에 산성을 개축하여 주진으로 삼았고, 중군을 설치하였다가 계해년(1623)에 헐파하였으며 지금은 폐해졌으나 수축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같이 다른 설명이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반월산성은 여러 문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포천군읍지』, 『견성지』 등이다.

현재 반월성지의 옛 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쪽과 북쪽의 문터, 치성 4개소, 건물터 6곳, 수구터, 장대터, 망대터 등이다.

### (3) 연천호로그루(漣川瓠蘆古壘)

호로그루는 사적 467호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에 소재한 성이다. 호로그루는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구려 유적임을 밝혔다. 호로그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효종 7년(1656)에 편찬된 『동국여지도』인데, 이 책에서 호로그루가 삼국시대의 유적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조선고적조사보고』를 발간하였다.

호로그루는 『三國史記』와 조선 후기의 여러 지리지, 『長湍誌』 등에 ‘瓠蘆河·瓠蘆灘·瓢川·瓢蘆河·匏蘆古壘’ 등의 임진강과 관련된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호로그루의 어원에는 여러 이견이 있다. 호로그루를 ‘임진강 호로탄(瓠蘆灘)의 위에 있다 하여’ 또는 ‘이 부근의 지형이 표주박·조롱박과 같이 생겼다 하여’ 라는 한자 풀이식의 유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호로그루의 본뜻은 ‘강 유역의 성(城)’이라는 의미로 쓰인 북방계 여진족어(女眞族語)인 ‘홀고루’이다. 그런데 이 ‘홀고루’가 세월이 흘러 한자 지명으로 음차되어 ‘호로그루’가 되었다.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유물은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

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호로고루는 삼국 초기부터 지정학적인 이유로 격전장이 되었다. 그래서 삼국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격전을 겪고, 여러 나라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만든 성이지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과 석재가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구려 기와류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도 출토되었다. 외편은 굵은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전형적인 고구려 적색기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백제·신라계의 외편과 어골문(魚骨文)·집선문(集線文) 등이 시문된 후대의 외편들도 일부 보인다. 토기는 시대가 앞선 연질, 경질편들과 고려 옹기, 조선 백자편들도 소량 수습되고 있으며 삼국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용 솥들도 수습되었다.

#### (4) 석성산성(石城山城)

석성산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위치한 산성이다. 석성산성은 석성산 7부 능선에 축조되어 있는데, 이는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에 백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축조한 산성이다.

성벽은 동쪽과 남쪽면에만 석축하였다. 다른 곳은 토, 석축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서쪽 정상은 군부대가 주둔하여 있어서 성벽이 온전히 남아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경사가 가파른 북서쪽은 자연지형 그 자체를 성벽으로 이용하였고, 석축은 장대석을 다듬어 쌓아 올렸다. 성문은 동쪽과 남쪽에 내고, 동쪽을 정문으로 삼았다. 현재 이 동쪽문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성안에는 5곳의 우물터가 있는데 확인가능하다. 그러나 북쪽 정상에 봉수 터가 있는데 거의 멸실되어 알아볼 수가 없다.

석성산성에는 옛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석성산에는 샘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에 사는 벼슬아치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모실 명당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침 석성산에서 명당을 발견하여 묘를 쓰려고 자리를 잡았다. 날을 잡아 가묘를 쓰려고 땅을 팠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 물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 아래까지 홍수가 났다. 그러자 벼슬아치는 크게 놀라 지관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지관은 산형상이 호랑이 형상인데 호랑이의 눈인 눈물샘을 건드려 물이 쏟아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냥 두면 산 아래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이 일을 막으려면 큰 바위로 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위로 물을 막았더니 물은 막히고 바위틈에서 조금씩 물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 물이 현재의 석성산성의 약수터라는 것이다.

용인시민들은 매년 해돋이를 석성산성에서 맞이할 정도로 용인시민들과 석성산성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더구나 매년 산악인들이 시산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곳 석성산성에서는 용인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일 정도로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

#### (5) 연천 은대리성(漣川隱垞里城)

연천 은대리성은 경기도 연천군 전국읍 은대리 577에 위치한 산성으로 사적 제469호이다. 현재 연천 은대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연천군사료집』(1995)에서 비로소 연천 은대리성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은대리성은 고구려 토기 일부가 발견되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성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연천 은대리성은 연천호로고루, 연천당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는 2003년에 은대리성 발굴 조사에 나섰다. 그들의 조사에 의해 은대리성의 전모가 대략적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그 조사 내용이다. 은대리성의 평면은 삼각형 형태로 남벽과 일부 북벽은 한탄강과 차탄천이 형성한 자연단애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쪽 평탄지에는 토석 혼축으로 동벽을 축조했다. 또한 은대리성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구조이다. 외성의 전체 규모는 동서 400m, 남북 130m에 둘레가 총 1천5m이고 면적은 2만6천479㎡이다. 내성의 둘레는 총 230m로 내부면적은 2천770㎡이다. 내성이 있다는 것은 당포성과 흡사하지만 내성에서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성과 외성의 선후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 내부 시설물로는 문지(門址) 3개소, 대형건물지 1개소, 치성 3개가 확인됐다. 문지가 개설된 지역은 지형이 비교적 낮은 지역이다. 북벽에서 확인된 2개의 문

지는 배수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는 은대리성의 축조가 고구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구려 토기에 대한 편년이나 고구려가 이 지역에 진출했던 역사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5세기 이후에 축조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보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제시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신라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후 일단 폐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은대리성은 호로그루성이나 당포성과 같은 축조양상을 보이지만 당포성과 호로그루성이 동벽의 축조방식을 각각 석축, 판축 위에 석축을 취한 것에 비해 은대리성은 석심토축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백종오 경기도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언급과 동일하다. 백종오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은대리성의 축조방식은 지금까지 발굴된 토성이나 토석혼축성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으로 축조돼 주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단국대 매장문화재 연구소는 은대리성, 호로그루성, 당포성, 이 세 성은 모두 한탄강 이북의 전곡평야 일대를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입지이지만 은대리성은 마땅한 도강로가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교통로 위에 자리잡은 호로그루성(고랑포)이나 당포성(당개나루)에 비해 출토유물의 빈도가 낮고 점유시기가 짧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백종오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밝혀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성벽의 기저부를 조성하기 위해 구지표층 위에 점토+모래의 다짐을 사용했으며 중앙부는 2열의 석렬을 쌓아 만들었다. 동벽의 내벽부분에서는 성벽 축조시 기둥을 설치했던 흔적이 발견됐고 2회 이상 성을 고쳐쌓은 흔적도 확인됐다. 한편 동벽 내부에서는 토성의 내면에 고이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구(溝)가 확인됐다. 구의 규모는 동서 폭 2m 정도이며, 깊이는 약 30cm 정도이다. 이 시설은 동벽을 축조하면서 같이 조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은 토기편이고 철제 유물도 소량 출토됐다. 비교적 그 종류와 시대가 일정한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 삼국시대 성에서 흔히 출토되는 기와가 단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특이성을 보인다. 유사한 형태의 호로그루성이나 당포성의 경우 후대까지 시



간적으로 긴 폭을 가지고 유물이 출토되는 상황과 비교할 만하다.

토기편은 크게 백제 토기와 고구려 토기로 대별된다. 이중 95% 이상이 고구려 토기이고 백제 토기는 극히 소량이다. 고구려 토기는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돼 기형(器形)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토기는 표면에 새끼줄 문양인 승문이 시문된 것으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로 편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토기들이 초축과 관련된다면 은대리성의 축조시기는 4세기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은대리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양식적으로 한강유역 출토품과 유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 3) 신라

#### (1) 수안산성

수안산성은 경기도에 있는 몇 안 되는 신라의 산성이다. 수안산성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 산 117이다. 이는 테뫼식 산성으로 578.5m인데, 1996년 1월 18일, 비교적 늦게 기념물 159호로 지정되었다.

경기도문화재단에서는 여러 문화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안내를 토대로 수안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안산성은 수안산의 정상부에 쌓은 테뫼식의 석축산성이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685m이며 성 내부의 면적은 약 1,000m<sup>2</sup> 정도이다. 성벽과 내부는 1985년까지 군부대가 주둔하여 많은 부분이 인위적으로 파괴된 상태지만 남쪽 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내의 건물 터는 현재 4곳이 남아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성내에서 우물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약수터가 있고, 수안산에 발원하는 하천이 3개나 되는 만큼 물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안산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삼국 시대의 토기 조각과 기와 조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토기 조각은 단각고배류, 인화문토기 합, 완, 등이 주류를 이루며, 단경호와 시루 등도 발견된다. 기와는 격자문, 어골문, 선문, 복합문의 순으로 수습되는데 대체로 신라~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발견되는 유물이나 쌓는 방법으로 보아 이 성은 신라 진흥왕 때 한강 하류지역을 장악하고 쌓은 성이라고 판단되며, 통일신라시대

까지 서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성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시대 김포에 설치되었던 봉수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수안산성이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서 복원되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 선인들의 공간이 유물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들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안산성에서 맵도는 도마뱀이라 불리는 무덤과 도장군이 타고 다니던 애마가 묻혀 있다는 설화가 유물이 아닌 전통으로 전해질 것이리라.

#### 4) 삼국시대

##### (1) 행주산성(幸州山城)

행주산성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덕양산에 있는 산성으로, 해발 124.8m의 테피식 산성이다. 1963년에 사적 제56호로 지정된 바 있다. 성은 남쪽으로는 한강이, 동남쪽으로는 창릉천이 산성을 돌아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 행주산성은 1990년 12월 서울대 박물관에서 조사한 바 있다.

행주산성은 우리 역사에서 자주 들춰지는 산성이다. 이 산성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어지러웠던 시기에 권율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곳이다. 즉 1593년에 권율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을 맞서 승리한 행주대첩의 현장인 것이다. 행주대첩 당시 여인들이 앞치마에 돌을 담아 던져 도움을 줬다고 하여 행주치마라는 용어가 생겼다는 뒷이야기도 있는데, 그 전에 행주치마가 있었다는 설도 있어 신빙성에 있어서는 가름하기 어렵다. 이 큰 사건으로 인해 1603년에는 행주대첩비가 세워졌다. 이 행주대첩비는 1963년에 다시 세웠는데, 이 비의 전면 글씨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 또한 1970년에는 이 같은 공과를 남긴 권율장군의 사당, 충장사를 짓기도 하였다. 그 후 대대적인 정화공사를 하였는데, 이 때 권율장군의 사당인 충장사를 다시 지었다. 또한 1845년에는 행주서원 기공사를 세워 경내의 대첩비를 충장사 옆으로 옮겼다.

현재 행주산성은 선인장시험장, 행주나루먹자촌, 호수공원, 은지연못, 원흥동신라말고려



초기청자요(元興洞新羅末高麗初期靑磁窯), 서오릉(西五陵), 두루마(단정학) 등을 준비하여 관광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 (2) 아미성(阿未城)

아미성은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산26번지와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산1번지와 경계지점에 위치한 산성이다. 아미성은 감악산에서 뻗어내린 줄기에 형성된 포곡형 산성이다. 이 성은 이명이 있는데, 각 시대에 따라 한자음의 변화만 있을 뿐 확연히 달라진 것은 없으므로 확인된다. 그것은 阿未城, 阿彌城, 아眉城, 老姑城 등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할미성’으로도 불리곤 한다.

이 산성의 초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기록은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조선초기 『世宗實錄』의 地理志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리지에서는 아미성에 대한 기록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발간한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을 근거로 살펴보면 아미성에 관한 사적 기록은 다음과 같다.

조선 중기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아미성은 현동쪽 18리지점에 있으며 석축으로 둘레는 1,937척’이라 하였다. 『東國輿地志』에는 성의 명칭만 ‘阿未城’에서 ‘阿彌城’으로 글자만 바뀌었을 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輿地圖書』에서는 성의 둘레가 당시의 地尺으로 1,215尺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京畿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輿圖備誌』와 『大東地志』, 『京畿邑誌』 등도 『여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으며, 『增補文獻備考』에서는 ‘阿彌城은 阿未城 이라고도 하며 東으로 18리에 있는데 石築이다. 邑誌에 이르기를 둘레 1,275尺으로(적성현의 수철성) 楊州의 水鐵城과 마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阿彌城을 水鐵城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편찬자들이 아미성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이 성이 七重城을 보조하는 보조성으로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鄕土史料集』에는 이 지역에서 구전되어 오고 있는 축성설화와 연관시켜 이 성의 명칭을 종전의 ‘阿未’가 아닌 ‘老姑城’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아미성의 안쪽에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평탄지가 여러 곳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 둘레에 구덩이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기와 조각, 고구려 토기 조각, 고구려 기와 조각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신라계의 토기 조각도 발견되었다. 또한 통일신라 전후 유행했던 인화문토기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출된 자료들에 의해 짐작컨대, 고구려의 보루(堡壘)가 먼저 만들어진 후 신라가 현존하는 성벽의 모습으로 재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미성은 고구려 토기조각과 고구려 기와조각이 고구려군의 이동경로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사적 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성 가는 길은 전곡읍 늘목리 군 훈련장 입구까지는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지만, 산성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할 지경이다.

### (3) 이성산성(二聖山城)

이성산성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에 위치한 산성으로 예성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사적 제 422호이다.

이성산성은 한강 주변이 한눈에 보이고, 가까이에는 평야가 있으며, 아차산성을 비롯한 강북의 적으로부터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점에 있다. 그리고 이성산성의 주변 5km 반경의 거리에 서쪽으로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남쪽으로는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특징은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성산성과 춘궁동을 백제의 도읍지로 보는 근거가 됐다.

이성산성은 백제 축조설과 통일신라 축조설로 이분되고 있다. 먼저 백제의 축조설은 백제 근초고왕 대의 도읍지 남한성이 이성산성이라는 설에 의한 것이다. 이는 한춘섭 광주문화권협의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의 설명으로 살펴보자. 한성시대의 백제 도성은 하남위례성이라 불렀는데, 몇 차례 도읍을 옮기면서 단편적이기는 하나 단서들을 제공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왕 13년 한산 아래에 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겼다고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온조왕이 국도(國都)를 위례성(慰禮城)에 세웠



다가 13년에 “한수(漢水) 남쪽의 땅이 기름지고 걸으니, 마땅히 여기에 도읍을 세워서 장구한 계교를 도모하고자 하노라.”하고, 드디어 한산 아래에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기며, 궁궐을 짓고, 14년 정월에 도읍을 옮겨 남한성(南漢城)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376년을 지나 근초고왕 24년에 도읍을 남평양에 옮겨 북한성(北漢城)이라 했고, 백제가 망하고 신라 문무왕 3년에 한산주로 고치고, 8년에 남한산주로 했다가, 경덕왕 15년에 한주로 고쳤다.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목간(木簡) 중에는 ‘남한성(南漢城)’이라 쓰여진 것이 확인돼 이성산성이 『세종실록』에서 언급한 ‘남한성’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최근 발굴조사 결과 이성산성이 백제유적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유물의 조합으로 보았을 때, 신라가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한강유역을 확보한 후에 신주를 설치하면서, 이 신주의 주성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양대 박물관에 의해 10여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에 의하면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체로 신라 토기와 경질의 기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아직 발굴이 완료된 것은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이 통일신라시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신주(新州)를 설치할 때 이 신주의 주성으로 이성산성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이성산성에 대한 문헌 기록은 축조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태종 임금이 16년(1416) 10월 7일에 “상왕을 모시고 광주(廣州) 위요성(慰要城)에서 사냥하고, 수릉을 돌아본 후 다음날에 환궁하였다.”고 한 것과, 바로 1417년 9월 3일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광나루(廣津)를 건너 위요성(慰要城)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녁에 석도(石島)에 머물러 잤다.”고 한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광나루 건너에 있다고 한 위요성이 이성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846년(헌종 12)에 편찬된 흥경모의 『중정 남한지』에 이성산성에 대한 자료가 있다. “이성산은 금암산 북쪽에 있으며, 온조의 성지(城址)가 있다.”, “위례는 당시의 방언인데, 무릇 성곽으로 사방을 에워싸는 것을 일컬어 위리라고 하며, 우리는 위례와 서로 비슷하

다. 목책을 심고 흙을 쌓아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례라고 부른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한춘섭 광주문화권협의회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에 의하면 이성산성과 매우 흡사한 성이 일본에도 있다는 것이다. 그 성은 구마모토현의 기쿠치(鞆智)성이다. 1967년부터 72동의 건물터가 발견됐는데, 건물 복원에는 모두 구마모토현에서 생산된 재료들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팔각형 건물은 일본 내 고대 산성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성산성이 유일하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7세기 후반 백제에서 만들어진 길이 12.7cm, 폭 3cm의 청동제 보살입상이 1.5m 땅속에서 발굴됐다. 일본에서 백제의 청동 불상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기쿠치성은 663년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에 대비, 백제에서 건너온 귀족의 기술 지도로 축성된 것으로 『일본서기』에 적혀 있어 정설로 인정됐지만, 그 동안 입증할 만한 유물은 없었는데 구마모토현 교육위는 “보살상 발견으로 축성에 백제 기술이 이용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성산성의 축조시기는 언제인가. 유물에 의하면 통일신라와 가깝고, 일본에 흡사한 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백제시대에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이성산성의 축조시기는 더 많은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 (4) 죽주산성(竹州山城)

죽주산성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에 위치한 산성으로 고죽주성(古竹州城)으로도 불리는 경기도기념물 제69호이다.

성의 축조연대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며, 고려시대에 보강하여 수축하고 방호별감을 두었다. 이 당시 죽주산성은 죽주성이라 불렸다. 그리고 조선시대 다시 성을 보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죽주산성에 관련된 전쟁기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통일신라 말인 진성여왕 때에는 기훤(箕萱)이 죽주산성에서 군사를 모아 크게 세력을 떨친 것이다. 두 번째는 고종 23년(1236년)에 몽고의 침입이 있자 이곳의 방호별감 송문주(宋文胄)는 백성들을 이끌고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였다. 송문주는 이미 지난날 몽고군의 공격방법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어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몽고군은 지속적인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갔다고 한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이곳 죽주산성에서 변이중(邊以中)·황진(黃進) 장군의 부대가 왜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는 것이다.

죽주산성은 내성, 본성, 외성의 중첩된 성벽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외성이다. 내성과 본성은 훼손이 심하게 되어 성벽 구조만으로는 축조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기까지 한다.

죽주산성 안에는 몽고 침입 때 큰 승리를 이끈 송문주 장군의 사당이 있다.

#### (5) 파사성(婆娑城)

파사성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9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사적251호이다. 파사성의 축성 시대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검증 중이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사성은 신라 파사왕(재위 80~112) 때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파사성이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산도 파사산이라 이름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헌적 근거는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대 파사국의 옛터로 구전되어오고 있으나 이 역시 근거는 없으며 성의 초기 상황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파사성 기원 조사와 복원을 위해 파사성 조사팀을 결성하였다. 여기에서 발견된 것 중 하나가 출토된 삼국시대 유물의 대부분이 신라로 추정되는 토기류였다. 또한 축성 기법도 신라의 산성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파사성의 위치가 강언덕에 자리잡은 교통의 요지임을 감안할 때 백제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굴조사자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동여지도』이다. 여기에 파사성이라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 성을 증축하였는데, 이는 임진왜란 때 승려 의암이 승군을 모아 성을 늘려 쌓았다고 한다. 그래서 옛 파사성의 실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남한산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파사성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파사성의 성곽 일부는 한강 연안에까지 돌출되어 있어 상류와 하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산정에 오르면 눈 아래에 사방이 조망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천연적 요새라 할 수 있다. 파사성의 정상부 서북쪽 바로 밑에는 축성의 주인공인 옛 장군의 초상석각이라 일컫는 조각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마애여래상이라고 한다. 이 마애불 부근에는 평평한 대지가 있어 기와편이 수습되는데 이 파사성과 관계있는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6) 서운산성(瑞雲山城)

서운산성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북산리에 소재한 산성으로 우살성, 홍계남토성(洪季男土城), 북산리성으로도 불리우는 경기기념물 제81호이다.

서운산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홍계남(洪季男)과 이덕남(李德南) 장군이 이 성을 근거지로 하여 왜군을 격퇴하고 안성을 지켜내었다. 오늘날까지 그 공을 기리기 위해 두 장군의 전승비가 성 안에 세워져 있다. 홍계남은 서운산 정상에 우산성을 쌓았고, 이덕남은 좌산성을 쌓았다. 그리고 홍계남 장군이 산 아래에서 싸운 곳에 토성이 있었는데, 그 토성이 바로 우살성, 홍계남토성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서운산성의 축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이 지역의 의병장으로 활약한 홍계남 장군이 북상하는 왜적을 막기 위해 선조25년, 1592년에 축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전에 있었던 산성을 개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2.2. 고려시대

### 1) 별망성지(別望城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6에 위치한 별망성지는 고려의 유적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 73호로 지정되어 있다. 별망성지에 대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와 안산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준하여 정리한다.

별망성지는 남양만을 연하여 해안으로 침입하는 몽골군을 막기 위해 만든 요새이다. 이



산성은 독립봉의 배면 정상에서 해안선을 따라 양쪽 골짜기 사이를 돌로 쌓아 만든 해안산성이다. 평지에는 군영지(軍營地)로 보이는 터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청자 및 도자기 조각들이 상당히 출토되었으며, 능선 끝에는 선사 시대의 패총 일명 조개 무덤도 발견되었다.

별망성지는 역사 기록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당나라 사신의 왕래가 있었던 곳으로 우리나라 영접사가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기록은 조선왕조 『문종실록』이다. 『문종실록』에는 이곳에 수군 만호영이 있었으나 갯벌에 밀려 선박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사곶(沙串)으로 영을 옮겼다. 그러나 조선 문종 때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의 능인 소릉(昭陵)이 인근 목내동에 있으며 바다가 다시 깊어져 선박의 출입이 가능해지자 다시 영을 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 번째 역사적 출현은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파괴된 흔적이다. 이같이 별망성지는 인근의 목내산성, 군자산성과 같이 삼국 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남양만을 방어하는 서해안의 요충지였음을 드러내준다.

현재 별망성지는 시대와 전란의 흔적이 복원되어 높이 2.5m, 길이 300m 규모가 되었다.

## 2) 수원 고읍성(水原古邑城)

수원고읍성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산 1에 위치한 시도기념물 제 93호이다. 읍성이란 지방 군현의 행정중심지에 쌓은 치소성(治所城)으로서,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 행정적인 기능을 함께한 성을 지칭한다.

수원고읍성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 백 년 동안 읍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부터 꼭 사용되었던 수원고읍성이었지만, 조선 정조 13년(1789)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을 양주 배봉산(拜峰山)에서 이곳 별망성지로 옮기면서 읍성을 팔달산 아래로 옮겼다. 고로 현재 수원고읍성은 토축(土築)의 옛 수원(水原) 읍성(邑城)자리이다. 이처럼 수원고읍성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의 사도세자에 의한 것이다. 조선 정조가 자신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고읍성으로 옮기면서 한층 더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별망성지는 낮은 산능성을 이용하여 계곡 아래의 평지까지 에워싼 성이나 성터의 대부

분은 무너지고 남아 있는 토성의 길이는 500m 정도이다. 현재 수원고읍성 성터는 수원대학교 도서관 건물 동쪽 도로 건너에 길이 약 270m, 안쪽 경사면 약 4.5m, 상폭 2m, 바깥경사면 7.6m가 남아 있다. 옛 문헌에 의하면 둘레가 270보 혹은 4,035척이고, 성안에 두개의 우물이 있다고 한다. 읍성 내에는 관아와 객사(客舍), 군영(軍營), 운금루(雲錦樓)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굴한 결과 관아 터로 추정되는 건물터 일부만이 발굴되었다. 또한 다른 건물들은 이미 훼손되어 배치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망성지 내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기와와 자기류가 많이 출토되었다.

### 3) 용인보개산성(龍仁寶蓋山城)

용인보개산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麻城里)에 있는 고려시대의 산성(山城)이다. 용인보개산성은 해발 349.7m인 보개산(寶蓋山)의 정상부에 있다. 보개산성에 대한 기록은 『문화유적총람』에 남아 있는데, 성벽의 일부분은 돌을 쌓아 지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자연 경사면을 이용하였다.

용인보개산성은 현재 보존 상태가 다른 산성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둘레는 1,650m 정도이며, 전체적인 규모는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축조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 안에서 성문과 건물 터 등이 확인되었으며 도기 조각과 자기 조각, 기와 조각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원래는 더 많은 성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용인보개산성이 혹 할미산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의 진산(鎭山)으로 불리는 석성산의 또 다른 이름 “보개산성(寶蓋山城)”이 “할미산성”의 본 이름이라는 것이다. 향토사학자 이인영씨가 옛 문헌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215로 지정된 할미산성을 보개산성으로 수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할미산성의 이명이 마고산성이다. 그 이유는 마고 할머니가 외침 때 치마에 돌을 담아 성을 쌓았다는 전설 때문이다. 이 같은 할미산성을 보개산성으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인영 씨는 보개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8세기의 용인현읍지와 19세기의 용인군지도읍지, 그리고 대동지지에



보개산성이 할미산성을 추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석성산과 할미산성이 모두 석축이고, 봉수대에 대한 거리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할미산성은 지역 특성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강남대학교 홍순석 교수님(현재 문과대학장님)은 “할미산성은 성산과 함께 용인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안식처”라며 “용인시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온 동서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관광자원의 보고이며, 이천시의 설봉산성은 이천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고, 남한산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귀중한 자산”이라면서 이처럼 할미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처럼 용인보개산성은 할미산성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명칭이란 사물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중요한 사안이다. 용인보개산성이라 불리는 것과 할미산성이라 불리는 것은 그 역사적 의미와 초점을 달리 보이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 4) 비파산성(琵琶山城)

비파산성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산 6-1외 24 필지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경기도 기념물 제204호이다. 비파산성은 설창마을과 원덕마을 경계에 위치하여 용성리 뒷골까지 포함한 포곡식 토성이다.

최근 단국대 매장문화연구소의 조사단에 의해 삼국시대에는 상흥현(上忽縣) 혹은 차성현(車城縣), 고려에서는 용성현(龍城縣)으로 불린 지역의 치소(治所 관청소재지)가 지금의 경기 평택시 안중면 용성리(龍城里) 소재 비파산성(琵琶山城)임을 밝혔다. 또한 평택 일대 고대 성곽 5곳을 조사한 결과 비파산에 축조된 비파산성에서 ‘車城’(차성 혹은 거성)이라는 글자가 적힌 기와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박물관이 비파산성 일대를 조사한 결과 ‘乾德三年’(건덕3년, 고려 광종 7년(965))이라는 절대 제작연대가 적힌 명문 기와를 출토해 냈다고 한다.

현재 비파산성이 위치한 차성현은 고구려시대에는 상흥현(上忽縣) 혹은 차흥현(車忽縣)

라 불리었는데, 통일신라 때에는 당은군(唐恩郡)에 소속된 현이었다. 그리고 경덕왕 때에 차성현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용성현(龍城縣)이 되었다. 이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비파산성은 북고남저(北高南低)·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형태이다. 서벽과 북벽은 비파산의 능선을 따라 진행되고, 남벽과 동벽의 일부는 얇은 능선이 감싸며 돌아가고 있다. 이 양 능선사이의 계곡을 막아 동벽을 축조하였다. 성벽의 길이는 동벽 약 124m, 남벽 339m, 서벽 430m, 북벽 682m로 전체길이는 약 1,622m에 이르고 있다.

비파산성은 여러 산성과 거리적으로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다. 북쪽에는 자미산성이 약 100m 거리에 있으며, 남쪽에는 용성리성지가 약 500m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비파산의 남서향하는 지맥에서는 석정리장성(石井里長城)이 약 7~8km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러 산성 사이에 둘러 있기에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파산성은 고려 초기 현성으로 축조되었다. 당대 행정치소 및 해안방어 등의 기능을 담당한 성이었다. 현재 성내 시설물로는 문지 5개소와 치성 4개소, 건물터 14개소, 음료유구 5개소가 찾아볼 수 있으며, 성내외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기와편과 토기편, 자기편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출토된 것들을 중심으로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04년 5월 18일자 연합뉴스이다. 그 기사내용을 따라가보자.

비파산성에서 출토된 기와는 주로 성벽 절개 트렌치에서 출토되었는데, 특히 내외성벽 하부의 와적층에서 다양한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기와의 대부분이 고려시대의 기와라는 것이다. 비록 토기류의 대부분이 잔존상태가 작아서 파편형태에 지나지 않아 전체 기형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또한 비파산성 동벽에서는 성벽 판축층과 외벽 기초석렬의 양상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며 판축층 하부에서는 축성 시기를 반영하여 주는 고려시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비파산성이 고려시대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확실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비파산성이 고려시대 축조된 것이라기보다, 고려시대 토성의 판축공법이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이다. 고려시대의 산성으로 최초로 발견된 산성이라는 사적의의만으로도 비파산성은 주목받아야 한다.

또한 비파산성 동벽에서 채집된 “乾德三年” 명문기와도 고려 광종 7년(965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동벽 관축층에서 출토된 기와편과 함께 비파산성의 축조시기를 규명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비파산성은 “임경업장군설화”, “남매축성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설화와 산성의 밀접함이 다시 한 번 역설된다.

## 2.3. 조선시대

### 1) 수원화성(華城)

수원화성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장안구에 걸쳐 있는 성인데,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 성은 현존하는 조선 시대의 읍성(邑城)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성으로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공심돈 등이다.

수원화성은 조선 후기 정조 때 착공 및 준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794년에 착공하여 1796년 9월 10일에 준공되었다. 이 화성에 대한 발상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사도세자에게 비롯된다고 한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최고의 명당터로 옮겼다. 그리고 그 인근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여 화성을 세운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당파정치의 근절 및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셋째는 수도 남쪽의 국방 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방어 기능과 성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도록 설계하였다고 한다.

수원화성은 기존에 성을 화강암으로 쌓았던 방식이 아닌 벽돌로 쌓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돌을 이용한 성은 수원화성이 첫 작품이다. 그래서 수원화성은 다른 성들과 다르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지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돌을 날라야만 하는 수고가 동반되었다. 여기에 여러 과학적인 기술을 도입했는데, 바로 정약용이 고

안한 거중기 사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수원화성 축성시 여러 부속시설물을 함께 건립하였다. 그것은 화성행궁, 증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에 화성행궁의 일부인 낙남헌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

수원화성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성곽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손실되었다. 그러나 1794~1796년까지의 축성한 자료를 『화성성역의궤』(1801)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대부분 축성 당시의 모습대로 보수 또는 복원하였다. 이처럼 『화성성역의궤』에 축성계획, 제도, 법식, 동원된 인력의 인적 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건축사에서 대단한 자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록이 건축사의 가치를 넘어 역사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데 한 몫을 하였다.

당시 조선시대의 성곽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읍성과 전시의 피난처인 산성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였지만, 수원산성은 팔달산을 중심으로 산성과 평지형을 결합하여 읍성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은 산에 세워져 있지만 화성만은 수원시내에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읍성, 평지형의 전모이다. 또한 그러나 실제 전쟁에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우리나라 성곽에서 흔치 않은 경우이다. 또한 일본,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경우로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 평을 얻고 있다.

## 2) 덕포진(德浦鎭)

덕포진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大串面) 신안리(新雁里)에 소재한 사적 제292호이다. 덕포진에 대한 정보는 덕포진 전시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덕포진은 서해로부터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진입되는 어구인 손돌항에 천연의 요새로 세운 군사요충지이다. 창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의 쓴 경험을 토대로 조선왕조 선조 때가 아닌가 추정한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현종 7년(1666년)에 광성보, 덕포진 용두돈대와 함께 새롭게 진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덕포진은 역사적 자료에 의거하여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숙종 5년, 1679



년에 강화의 광성(廣城) · 덕진(德津) · 용두(龍頭)의 여러 돈대(墩臺)와 함께 이곳에도 돈대가 축성되었다. 둘째, 고종 3년, 1866년 9월에 병인양요(丙寅洋擾) 당시 프랑스 함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다. 셋째, 1871년 4월 신미양요(辛未洋擾) 당시 미국함대와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현장이었던 덕포진이다.

덕포진에서는 사적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여러 유물을 찾아낼 수 있었다. 1980년의 발굴조사에서는 포대 · 돈대 및 파수청(把守廳) 터에서 고종 11년, 1894년에 만들어진 중포 4문과 소포 2문이 포대에 걸려 있는 채 발굴되었으며, 조선시대의 화폐 상평통보와 주춧돌과 화덕 등을 출토되었다.

### 3) 문수산성(文殊山城)

문수산성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석축산성으로서 사적 제 139호이다. 김포시에서 가장 높은 문수산의 험준한 줄기에서 시작하여 해안지대를 연결하고 있는데, 숙종 20년 1694년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수산의 명칭은 두가지의 설이 있다. 하나는 신라 해공왕 시절에 창건된 절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산 정상에 문수사(文殊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이름에서 산의 명칭을 얻게 되었고, 결국 조선시대에 축성된 산성의 명칭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강산은 예로부터 문수보살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포의 이 산이 금강산처럼 아름다워 문수산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수산은 김포의 금강산이라 알려질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 동쪽으로는 한강과 서울의 삼각산이 보이며, 서쪽으로는 인천 앞바다가 보이며, 북으로는 개풍군이 보이는 절경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산의 성이 바로 문수산성이다. 그러나 아름다움만 갖춘 산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숙종 20년에 산성을 건립할 것을 명하였지만 당파싸움에 곧바로 수행되지 못했다. 또한 흉년이 찾아와 산성 건립이 미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고비를 이기지 못하여 172년 후 프랑스의 침입으로 이곳의 군사적 임지가 굳어지게 되었다.

문수산성은 숙종 20년 1694년에 쌓고, 순조 12년 1812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고종 3년 1866년에는 병인양요가 일어나 프랑스 군이 침입하여 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당시의 격전으로 해안 쪽의 성벽과 문루가 모두 파괴되었다. 해안 쪽 성벽이 없어지자 마을이 들어섰으며, 현재는 문수산 등성을 연결하는 성곽만 남아 있다. 서문과 북문은 오늘날에 와서 복원되었다. 북문은 1995년도, 남문은 2002년도에 복원 완료되었다. 또한 구한말에는 외세 침략에 강하게 저항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 3. 경기도 선행설화의 양상

#### 3.1. 전생 설화

##### 1) 수각시주 김풍연

삼막사는 관악산에 있는 절로서, 신라 문무왕 때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중건되었는데, 첫 번째는 신라말 도선국사(道洗國師)에 의해, 두 번째는 고려시대 왕건에 의해 중건되었다. 그런데 삼막사는 중건될 때마다 절 명칭이 바뀌었다. 신라말에는 관음사로 지칭되었고, 고려 왕건 이후에 와서 오늘날에 사용되는 삼막사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중건과 명명이 지속된 삼막사는 조선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수가 되었다. 이때 ‘삼막사마애삼존불상’이라는 경기도 유형문화재가 세워지기도 하였으며, 거북이 모양의 석조(石槽)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삼막사의 이야기는 바로 거북이 모양의 석조에서 비롯된다. 삼막사 막사 앞에 커다란 돌수각이 있다. 그 돌에 형성된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막사 앞에는 돌 거북의 등을 파서 물을 담아 놓았는데, 그 돌에 “수각 시주 김풍연”이란 글자가 썩어 있다. 그렇다면 수각 시주 김풍연이 누구인가. 김풍연은 경기고등학교 뒤편 고개, 황토마루재에서 살았는데 대단한 불교신자였다. 그는 삼막사에서 정성을 다해 참배하고 재가 생활 중에도 신행을 지켜온 독실한 염불도였다. 그런데 김풍연은 1916년, 병



진년에 죽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김풍연이 경북 영양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경북 영양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김풍연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경북 영양에서 태어난 아이의 등에 “三幕寺 水角施住 金豊淵”이라 써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풍연이 경북 영양의 李氏 댁에서 새롭게 환생했음을 알려준다.

사정은 이러하다. 경북 영양 李氏가 아들이 없어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후에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 때 이씨의 나이 48세의 노산이었으니 얼마나 간절하였겠는가.

일단 아들을 얻었기에 기쁨이 넘쳤겠지만 등에 쓰인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연’이란 글이 맘에 걸려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다. 경북 영양에서 살았기에 경기도 삼막사의 김풍연을 알 턱이 없다. 그래서 아들 등에 적힌 신비를 풀고자 긴 나그네 길을 떠났다. 나귀를 타고 뚜벅 뚜벅 과천에 이르러 삼성산을 찾아 삼막사에 이르렀다. 이씨가 찾았을 당시 주지스님은 지주화(池柱華) 스님이였다. 지주화 스님의 안내로 수각을 찾아 갔다. 그런데 분명히 수각시주 김풍연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이씨는 지주화 스님께 찾아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풍연이라는 수각시주가 살고 있는 집을 묻고 찾아가게 되었다.

마침내 이씨는 황토마루재 김풍연의 집까지 찾아갔다. 김풍연의 집에 나그네로서 묵으며 집안을 살펴보기에 이르렀다. 그 집에는 상청(喪廳)이 차려져 있었다. 그래서 이씨는 누구의 상인가 물었는데, 바로 가친 김풍연이라는 것이다. 이때 이씨의 놀라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씨는 김풍연의 아들에게 자신이 왜 이 곳에 왔는지를 상세히 말하게 되었고, 김씨 댁에서는 놀라움과 기이함에 자신의 아버지의 후신(後身)을 보고 싶어했다.

김씨 집안에서의 오랜 숙의를 거쳐 아버지 후신을 만나기로 결정을 했다. 두 나그네는 며칠에 걸쳐 영양에 도착한 김씨는 또 수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노산 가운데 갓은 귀한 아들이기에 남에게 보이는 데에도 신중함이 필요했으리라. 결국 만나게 되었다. 아기가 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인 아기는 영금영금 기어서 김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기가 된 아버지는 무릎에 기대어 엎드렸다. 얼마나 편안한 정경이었는지... 이에 김씨는 아기 옷을 들치고 등을 보았다. 등에는 정확하게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연”이라 새겨져 있었다. 나그네

김씨는 비로소 일어나 의관을 고치고 아기 앞에 정중히 두 번 절하였다. 비록 아기이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생전에 절을 좋아하고 염불을 좋아하더니 결국 환생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에게는 아버지의 후신, 이씨에게는 아들, 이 두 사람의 연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된 두 집안에서는 서로의 호칭을 정할 수 없는 사이였지만 정신적인 동기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김씨의 재산이 좀더 여유가 있었기에 논 이 백석 지기를 이씨에게 나눠 주었다. 결국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재산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린 셈이다. 그래서 두 집안은 한 동기와 같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다 한다.

### 3.2. 전쟁 설화

#### 1) 동산리의 고속할머니 · 고속할아버지

동산리능모탕이(혹은 능모랭이, 혹은 능모통이)에는 고속할머니, 고속할아버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북한산성까지 몰려 있던 군사들을 구원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이를 기념하기위해 비석까지 세워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설화를 따라가 보자.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군사들은 왜군에 쫓겨 북한산성으로 도피하게 되었다. 그러자 왜군들은 북한산성을 포위한 채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다 잡은 조선군을 내버려두고 가자니 북한산성이 신의주로 통하는 길목이기에 놓치지 아깝고, 공격하자니 산세가 너무 험하고 성이 견고하여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왜군들은 덕수교 앞에 진을 치고 장기전으로 나가기로 했다. 즉 성안의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성안에 있는 조선군들은 노적봉에 가마니를 둘러 마치 군량미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러 성 밖으로 흐르는 물에 흰가루를 풀어서 쌀 씻은 물인 듯 보이게 하였던 것이다.

마침 당시 성 밖에서 고속할머니와 고속할아버지가 왜군에게 잡혀 그들의 먹거리를 마련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북한산성 내의 조선의 군사들이 흘러



내린 물이 횃물인 줄 알면서도 쌀 씻은 물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왜군의 말에게 그 횃물을 먹였다. 또한 왜군에게도 그 물로 밥을 지어 주었다. 그러자 모든 왜군 병사와 말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속은 것을 안 왜군은 두 사람을 처형시켰다.

훗날 조정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공을 알게 되어 능모탕이에 비석을 세워 주었다. 그런데 구한말에 일본인이 그 비석의 내력을 알고 비석의 갓머리를 부셔버렸다. 그래서 한 동안 비의 머리가 없었으나 근래에 새로 만들어 얹혔다.

이 같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리는 비석의 머리 위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노적봉(露積峯)과 밥할머니

노적봉의 밥할머니는 앞서 언급한 고속할머니와 고속할아버지의 설화와 연계된다. 그러나 상황이 좀 상이한 데가 있다. 이를 정효남(45세), 이예용(60세), 이형재(70)의 口述과 고양문화원의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밥할머니의 신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견이 있다. 하나는 명문거족 중의 하나인 밀양박씨(密陽朴氏) 집안에서 태어나, 이웃 마을 명문가인 남평문씨(南平文氏) 집안으로 시집을 간 여인으로서, 시댁은 부유하여 풍족하였지만 근검절약으로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보내주는 선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떡장사였다는 설이 있다. 본 정리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따르면서 전개해보고자 한다.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밥할머니가 살고 있던 곳까지 쳐들어 왔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여 명나라 이여송이 연합군을 이끌고 총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양군 박제면의 남쪽 숫돌고개 전투에서 연합군이 왜군에 참패를 당하여 북한산으로 뿔뿔이 패주하게 되었다. 이 때 이여송과 일부 장수들은 노적봉 밑에 집결하게 되었다. 당시 왜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여송은 “길은 이제 두 갈래 뿐. 이대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적에게 투항하여 목숨이라도 살려 달라고 애걸하느냐.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낮겠는가?”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조선관군의 총사령관 격인 도원수 김명원은 “길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적에게 총반격을 가하여 이번 패전의 수치를 씻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혈로를 뚫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흩어진 병력을 재정비하는 길이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여송은 “김원수의 말씀이 좋기는 하나 아다시피 아군은 이번의 패전으로 다수의 병력을 상실했고, 적군은 의기양양하여 날뛰면서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굳히고 있으니, 혈로를 뚫기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 빠져 나갈 구멍조차 찾기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조선의 군사와 연합군은 망연자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상이한 밥할머니가 등장하게 된다. 먼저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인 밥할머니를 쫓아가 보자. 당시 49세의 장년이었던 밥할머니는 피난짐을 꾸리던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왜적과 싸우기로 하였다. 그때 건장한 6척 장신으로 통이 큰 여장부였던 밥할머니는 남편에게 밤중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북한산 노적봉을 짚으로 둘러 노적가리처럼 위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낮에 밥할머니는 함지박을 이고 창릉천(昌陵川)으로 갔다. 일부러 왜병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마침 왜병들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물이 뿌였자, 할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밥할머니는 북한산 노적봉(露積峰)을 가리키며 군량미를 쌓아둔 노적가리라고 말하였다. 조선군 수만 명이 주둔해 있으니 군량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조선군들에게 밥을 지어 먹여야 하니 쌀 씻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하였다. 더 나아가 쌀이 남아서 가져가라기에 가져오는 길이라며 함지박의 쌀을 보여주곤 총총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왜적들은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더는 갈증을 견디기 어려웠던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 다투어 물을 마시고 끌고 왔던 말에게도 물을 먹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물을 마신 왜적들은 배탈이 나서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고통스러워 오만상을 다 찡그렸다.

밥할머니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의 군사는 이때를 놓칠세라 군사들을 독려하며 진군의 북을 치고 나아갔다. 이리하여 모두 물리쳤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밥할머니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으로 남편인 할아버지와 미리 짜고 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자, 그럼 떡장사 밥할머니의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김명원이 이여송의 말에 할 말이 없어 장박으로 나왔는데, 한 노파가 “장군께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하고 다가갔다. 이 노파는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밥할머니인데, 이 노파는 솫돌고개 남쪽의 진거리에서 떡장사를 하는 밥할머니였다. 이 밥할머니가 김명원 장군의 귀에다 뭔가 소곤거리자 김명원의 안색은 밝아졌다. 김명원이 밥할머니가 한 이야기를 이여송에게 전하자 이여송은 “하늘이 우리를 도우려고 보낸 여신인지도 모른다.”하면서 동의 했다고 한다. 이여송은 “이 근처 마을에 내려가서 짚단이란 짚단은 있는 대로 다 모아 오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얼마 후 노적봉 기슭을 휘돌아 진거리 앞으로 흘러가는 냇가에는 수많은 왜병들이 모여 술렁거리고 있었다. “목이 타서 죽겠는데 마실 물이 있어야지.” “글세 말이야. 저 냇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지만 물빛이 저렇게 뿌여니...” 왜병들이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냇물은 어떤 까닭인지 흐려 있었다. 그 때, 한 노파가 합지박에 흰쌀을 수북이 담아 이고는 산에서 내려왔다. 조금 전에 아군 진영으로 김원수를 찾아갔던 그 떡장수 할머니였다. 한 왜병이 노파를 불러 세워 물었다. “여보시오 할멈! 이 냇물이 왜 이렇게 흐리오?” 노파는 그 왜병이 바보스럽다는 듯이 톱 쏘아 주었다. “아무리 남의 나라엘 쳐들어 왔기로 그까짓 것도 모르고 무슨 싸움을 한다는 거요? 저 산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데다 군량미가 남아서 처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오. 그 흔한 쌀을 씻어 수많은 군사들의 밥을 지으니 당연히 냇물도 흐려질 게 아니요?” “저 산에 그렇게 군량미가 많소?” 왜병들의 눈이 휘둥그레 졌다. “이르다 뿐이요. 정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저길 똑똑히 보시오” 노파는 손을 들어 노적봉을 가리켰다. “저기 저 산봉우리처럼 쌓여진 짚단이 뭔지 아시오? 그게 바로 노적가리란 거요” “노적가리가 뭐요?” 왜병들은 고개를 가우뚱했다. “아따 무식한 왜 나라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니깐. 우리나라에선 밖에 쌓아둔 곡식더미를 노적가리라 부른단 말이오” 노파는 왜병들을 핀잔하고 나서 “자, 이걸 또 봐요.” 하고는 머리에 이고 이는 합지박을 왜병들 앞에 내밀어 보였다. “마침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군사들이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옥같이 흰 쌀을 퍼주는구라.” 왜병들은 기가 막혔다. 노파는 그들을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 보고는 종종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튿날 왜적은 멀리 도망가 보이질 않게 되었다. “그 노파의 계략이 들어 맞았군. 아군의 병력과 군량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여 도망친 것임이 틀림없어.” 도원수 김명원은 회심의 웃음을 지었다. 왜병들의 눈에 노적가리처럼 보인 것들은 노적봉에 둘러 쳐진 짚단들이었다. 그리고 냇물이 흐려진 것은 회를 탄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이었다. 이 모두가 노파가 제안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아군은 즉시 혈로를 뚫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상이한 두 밥할머니가 있다. 밥할머니는 북한산의 노적봉의 주인공으로서, 은평지역과 일부 인접 경기지역 주민들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밥할머니, 밥보시(布施)할머니, 팔죽할머니, 떡장수할머니, 고석(古石)할머니 등 여러 애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밥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석상을 세웠는데, 이 석상은 처음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번지 삼환석재 입구에 세워졌으나 1993년 통일로 확장공사로 인해 고양시 삼송동 도화공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동산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2005년 10월에 다시 동산동 창릉 모퉁이공원으로 옮겨졌다. 석상을 옮겨온 해, 즉 2005년 11월 11일에 동산동 밥할머니 보존위원회 차 동규(78·車東奎) 위원장을 비롯한 노인 15명이 북한산이 보이는 밥할머니 석상 앞에서 1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밥할머니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4일에 드디어 고양시 향토문화재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희웅)에서는 밥할머니상을 고양시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국문학자 김열규는 목포의 유달산, 경주군 서면 천포리의 오봉산 등이 북한산의 노적봉과 함께 동일한 내용의 전설을 갖는 지명이라고 연구한 바 있다. 사실 목포 유달산에는 노적봉 비가 있다.

### 3) 고봉산 한씨 미녀

고봉산에 얽힌 한씨 미녀 설화는 우리나라 여러 이야기와 맞물려 있다. 정몽주의 단심가, 춘향전 등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요근래에는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소리극 ‘몽연연가’로 무대에 올리기까지 한 바 (達乙省縣)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한씨 미녀



설화는 고구려 22대 안장왕과 달을성현에 살았다는 한주 처녀와의 애뜻한 사랑이야기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에는 지금의 고양시에 포함되는 왕봉현(王逢縣)과 달을성현이라는 2개 고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중 왕봉현은 ‘한씨 미녀가 안장왕을 맞이한 지역이라 왕봉으로 불렀다’, 달을성현은 ‘한씨 미녀가 높은 산마루에서 봉화를 올리고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기 때문에 뒷날 고봉(高烽)이라 이름하였다’라는 지명유래가 적혀있다. 이처럼 사서에까지 전해지는 고봉산의 한씨 미녀 설화를 운명예씨의 설명과 함께 따라가 보자.

옛날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한강 유역에 우치한 고양군(高揚郡)(당시 계백현)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세 나라는 서로 이곳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처음 이곳은 백제의 땅이었으나 후일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침하여 백제의 세력을 한강유역에서 몰아내고 고구려의 땅으로 만들었다. 한강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신라와 손을 잡고 나제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를 다시 한강유역에서 내몰았다.

그러나 고구려는 빼앗긴 이곳을 다시 찾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었다. 백제도 또 다시 이곳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통같은 수비를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 고양시의 한 마을에 한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미색이 출중하여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딸이 있었다. 부자 한씨는 아름다운 딸이 나이가 들자 훌륭한 신랑감이 나타나 주길 바라고 있었고, 그 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 날, 한주는 하도 날씨가 좋아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 이 때 한 청년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그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 있었다. 그 청년의 옷차림은 천민의 옷차림이었으나 그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귀한 인상이었다. 한참동안 한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청년은 용기를 내어 가까이 접근하여 “남자”하고 불렀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본 한주는 비록 천민의 복장을 하고 있으나 준수한 풍모와 능름한 자세에서 풍기는 청년의 위엄에 한 순간 압도되고 말았다. “남자,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무례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남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몇 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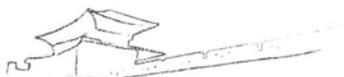
주십시오.”하고는 숲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주는 당황하고 망설였으나 자기도 모르게 그 청년을 쫓아 갔다. 숲 속에서 청년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 그는 고구려의 태자로서 오랫동안 통치해 오던 한강유역을 백제에 빼앗긴 후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 이곳에 몰래 들어와 정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한주와 태자는 몇 차례나 몰래 만났다. 어느 날 태자는 “나는 이제 내 임무를 끝냈으니 이곳을 떠나 고구려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이곳을 쳐서 정복하고 남자를 아내로 맞이할테니 기다려 주길 바랍니다.”하고 한주에게 말하고는 고구려로 돌아갔다.

태자는 얼마 후 고구려의 임금자리에 올랐다. 바로 그가 안장왕(安藏王)이었던 것이다. 안장왕은 한주에게 약속한 대로 여러 차례 군사를 내어 백제를 공격했으나 번번이 성공하지 못하여 한주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웠다. 그러는 중에도 한주의 아름다움은 소문을 더하여 이 지방의 태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태수는 사람을 보내 청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주는 이미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어 청혼을 승낙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태수의 화를 돋구었다.

태수는 한주를 강제로 붙잡아 들이고는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한주가 대답을 하지 않자, “네가 장래를 약속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니 적의 첩자와 장래를 약속하고 내통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는 한주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고구려의 안장왕은 크게 낙심하여 부하들에게 큰 상을 걸고 개백현을 회복하고 한주를 구해 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안장왕에게는 안화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을밀(乙密)이라는 장수가 안화공주를 마음 속으로 사모하고 있었다. 을밀은 임금이 한주를 구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장왕 앞으로 나아가 자기가 개백현을 회복하고 한주를 구해올 터이니 안화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하자 을밀은 20여명의 용감한 병사들과 함께 무기를 옷 속에 감추고 평복을 입고 춤추며 광대놀이를 하는 무객으로 변장한 후 개백현에 잠입하였다.



한편 옥에 갇혀 있던 한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낫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하고 일편단심가를 지어 부르니 태수는 한주의 굳은 결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태수는 한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일 잔치 때에 옥에 갇혀 있던 한주를 끌어내어 다시 청혼을 하였다. 한주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태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한주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바로 이때 무객으로 가장한 채 잠입해 있던 을밀과 그의 부하들이 몸속에 감추고 다녔던 무기를 꺼내 들고 일제히 뛰쳐나와 “고구려 대군이 이미 이곳에 쳐들어 왔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백제의 군졸들을 쳐 죽였다. 백제의 군졸들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사태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다. 을밀은 백제군을 몰아내고 한주를 구했으며, 이 소식을 안장왕에게 전했다. 대군과 함께 국경에 주둔하고 있던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크게 기뻐하며 한시바빠 한주를 만나고자 하였다. 을밀에 의해 구출된 한주도 빨리 안장왕을 만나고 싶은 심정에 높은 산에 올라 봉화를 밝혔으니, 이 산이 바로 고봉산이다.

고봉산은 벽제, 일산, 원남에 걸쳐 있으며 그 높이는 해발 208.8m이다. 이 산은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격전지였는데, 그 때 이 고봉산에다 돌덩이로 보루를 쌓았다고 한다. 그래서 돌 쌓을 때 부르는 한 테미 두 테미 등에서 그 이름을 따서 테미산이라고도 불리운다. 또한 멀리서 고봉산을 바라보면 중턱부터 정상까지 피를 두른 듯 보이므로 피둘레라하여 대위산(帶圍山)이라고도 한다.

마침내 안장왕과 한주는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며, 한주를 구출한 을밀도 안학공주를 안내로 맞게 되었다 한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한주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설화에서 한주가 옥에서 부른 단심가는 정몽주의 단심가의 전신이요, 안장왕과 한주의 결맞지 않은 신분체계 내의 애틋한 사랑과 이를 방해하는 권력가의 구조는 춘향전과 비교될 만하다. 한편 이 설화를 통해서 그들의 애틋한 사랑만을 기억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백제입장에서는 적인 고구려의 왕자를 사랑하고 산에 봉화까지 밝힌다는 것은 한주의 정체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다. 역시 설화는 승자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

이 나온다.

#### 4) 병자호란과 직결된 별봉 이야기

예부터 별이 바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발암, 별바우, 별봉이라 불린 바위가 있다. 그 바위는 멀리서 보면 마치 별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 바위는 동장대지 동북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인데, 이 바위는 포개어져 가파르게 솟아 있고 그 아래에는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나 있다. 그런데 이 별봉은 예부터 영험이 있는 바위라고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성을 드리고 있다. 오늘날에도 무속인들이 많이들 찾아온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바위 주변에 제단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경기도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는 별봉에 깃든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에 기대어 다음을 소개한다.

청나라 태종(태종의 고모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은 용골대를 조선에 비밀리에 보내어 남한산성의 지도를 그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용골대는 남한산성에 이르러 보니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산성이라 판단하여 지도를 대충 그려서 청나라로 돌아갔다. 용골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태종에게 바쳤다. 그러자 청 태종은 용골대에게 강의 위치, 조선 도성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대충 둘러보고 간 용골대는 “강은 산성 서쪽에 있고 도성은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고 대강 설명을 했다.

그러자 청 태종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네 말과 같이 강과 도성이 서편에 있으면 남한산성의 산세가 응당 남북이 길고 서북이 짧거늘 어찌 반대로 서를 길게 하고 남북을 짧게 그려왔는가. 빨리 다시 그려 오거라. 만약 명대로 하지 않으면 네 목을 베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용골대는 다시 조선에 들어가 남한산성의 성곽, 바위, 골짜기, 언덕 등을 빠짐없이 살피고 지도에 그렸다. 그리고 다시 청나라 태종에게 가서 지도를 바쳤다. 태종은 용골대가 그려온 지도를 받아보고 별봉을 가리키면서 “이곳은 별봉이라는 바위가 있는 곳이다. 이 바위는 천상 벽력성의 정기가 깃든 바위이다. 이 벽력성은 남극성이 범하게 되면 망하고 만다. 그런데 나의 주성이 곧 남극성이니, 만일 조선 국왕이 별봉을 안에다 두고 성을 쌓았다더라면 우리 청나라가 쉽게 남한산성을 공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별봉이 성 밖에 있다. 장래에 우리가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 국왕은 남한산성으로



피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 청나라 군사가 산성 밖에 있는 벌봉으로 가서 바위를 먼저 깨트리고 벽력성의 정기를 멸하면 산성은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조선 침략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청 태종은 조선을 침략하였으며, 당시 조선 임금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다. 청 태종은 계획대로 군사를 벌봉으로 데리고 가서 바위를 깨뜨렸다. 그러자 바위 위로 연기가 나면서 벌봉에 갇혀있던 벽력성의 정기가 흩어져 마치 벌떼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한 달 후 태종이 남한산성을 공격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아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는 임금이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벌봉 밖에다 성을 다시 쌓았다고 한다. 지금 벌봉이 마치 쪼개진 것처럼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은 병자호란 때 청 태종이 벌봉의 정기를 날려 버리려고 깨트린 자국이라고 한다.

#### 5) 충성된 뱃사공 손돌공

현재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 광성진 사이의 해협에서 고종 때 충성된 뱃사공이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몽고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종의 실화이자 내려온 이야기이다. 다음은 덕포진에 세워진 비에 의거하여 손돌공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1231년 몽고(원나라)가 고려 땅을 침입하매, 고종은 화친을 내세워 일단 회군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부당한 조공(朝貢)을 요구하므로 결사 항전할 것을 결심하고, 1232년 몽고의 2차 침략 때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었다.

고종은 조정을 이끌고 개경을 떠나, 사공 손돌의 배를 타고 예성강 벽란도를 거쳐 임진강과 한강 하류를 지나 강화도로 가고 있었는데 현재의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 광성진 사이의 해협이 협소하고 급류인 목에 닿게 되었다.

이곳은 앞이 막힌 듯이 보이는 지형으로 처음 가는 사람은 뱃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지라, 천도하는 고종도 심기가 불편한 나머지 뱃길도 없는 곳을 향하여 노를 젓는 사공 손돌을 의심하여 수차 뱃길을 바로 잡도록 하명하였으나, 손돌이 아뢰기를 “보기에는

앞이 막힌 듯 하오나 좀더 나아가면 앞이 트이오니 폐하께서는 과념치 마옵소서”라고 아뢰었다.

고종은 마음이 초조하여, 손돌의 흥계로 의심하고 신하들에게 손돌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손돌은 죽임에 직면하고도 임금의 안전 항해를 바라는 충성에서 바가지를 물에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뱃길이 트일 것을 아뢰어 후 참수되고 말았다. 이후 왕의 천도항해는 손돌의 바가지 안내대로 험한 협류를 무사히 빠져 나와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왕은 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손돌을 후히 장사지내주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당도 세워주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 뱃길목을 지금도 손돌의 목을 벤곳이라 하여 “손돌목”이라 부르며, 공(公)의 기일인 음력 10월 20일쯤이면 손돌의 원혼이 바람을 일으킨다 하였다. 이때의 거센 바람을 “손돌이바람”, 이 무렵의 추위를 “손돌이추위”라 전해온다. 손돌공의 묘는 이곳 손돌목 협류가 보이는 덕포진 북쪽 해안 언덕 위에 있다.

다시 공의 제사는 조선조말까지 계속 되어오다가 일제 강점 후 중단되었으나, 1970년 이후 계속 지내고 있다. 묘는 1977년도에 박일양(朴一陽)씨와 덕포진 발견자인 김기송(金基松)씨를 비롯한 면민들이 사초하면서 크게 단장하고 묘비를 세웠다. 이 때부터 매년 음력 10월 20일에 손돌의 제사를 후하게 지내고 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충성이 있었기에 오늘날 손돌공의 충성이 전해질 민족과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본다.

#### 6) 비봉산의 장수와 여자 미륵의 비극

비봉산에는 비봉산성이 있다. 그 산성 주변에 장수바위가 있는데, 그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한 비범한 장수가 있는데, 그는 비봉산에서 한발로 알미산까지 뛰어내린다. 다시 뛰어 올라 도구머리의 탑산에 두 발을 내려놓는 대단한 장수이다. 이 장수가 누워 있던 자리와 칼을 놓아두었던 자리가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범한 장수가 알미산을 한 발로 디디고 다시 비봉산으로 돌아가려다



아롱개에 있는 쌍미륵 중 여자 미륵을 발로 차 미륵의 머리를 부러뜨리게 된 것이다. 그러자 여자 미륵의 노여움을 받아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 7) 은산의 토성과 은산별신굿

은산은 백제의 토성이 위치한 산이다. 이곳은 백제 장군들이 백제의 부흥을 기대하며 싸우다 전산한 곳이자 전염병이 돌았던 곳이다. 이 은산에 얽혀 있는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가 망한 뒤에 마을 일대에 전염병이 돌았다. 수백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90세가 된 마을 노인의 꿈에 갑옷 입은 장수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는 백제의 장수로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서 죽었는데, 나와 많은 부하들의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이를 거두어 주면 병마가 사라질 것이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꿈에서 백제의 장수가 부탁한 대로 장수와 부하들의 유골을 정리해 주자 전염병이 사라졌다.

그 뒤 마을에서는 이들을 위해 제사지낼 별신당을 만들었다.

## 3.3. 효자 설화

### 1) 남한산성의 효자 우물

남한산성 북문 안에 효자 우물 혹은 효자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의 사연은 효자의 간절한 기도와 우물 속의 잉어와의 만남이 주 내용이다. 그럼 그 설화를 쫓아가 보자.

남한산성 북문 안에 12살의 정남이와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가난한 집에서 가장이 눕는다는 것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제 정남이가 구걸이라도 해서 아버지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더욱이 정남이는 아버지를 간호까지 해야만 했다. 효자 정남이는 구걸하여 얻은 식량을 아버지에게만 정성껏 드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남의 집 앞을 지나던 행인이 아버지의 진맥을 잡고 하는 말이 아버지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잉어를 고아 드리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정남은 그날로부터 잉어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는 겨울, 잉어는 잡히지 않고 생선 장수도 없었으며 낚시꾼도 찾을 수 없었다.

정남은 잉어를 구하러 다니다 지치고 목도 말라 산기슭 우물곁에 앉아 쉬게 되었다. 정남은 우물곁에 앉아 아버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잉어 한 마리만 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하였다. 하늘에 간절히 기도를 한 후 눈을 뜨니 우물 속에서 잉어 한 마리가 보였다. 우물 속에 있는 잉어를 보고 정남은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 하늘에 엮드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물 속에 있는 잉어를 끌어올렸다. 너무도 큰 잉어였기에 끌어올리는데 힘이 많이 들었다. 그래도 정남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잉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씻은 듯이 낫았던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정남의 효성에 감동받은 하늘이 잉어를 보내주셨다며 칭찬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그 우물은 효자를 알아보는 우물이라고 해서 효자 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3.4. 애정 설화

#### 1) 죽주산성의 오누이 성 쌓기 설화

죽주산성에는 유명한 송문주 사당이 있다. 송문주는 칭기스칸의 후에 세력중의 하나를 쳐부순 고려의 장군인데, 1236년 음력 9월에 죽주산성 대몽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일은 조선 후기에 그의 사당을 중수하고 비석을 세울 정도로 대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단한 송문주와 얽힌 설화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문주에게는 누이 동생 송희가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송문주만을 편애하자 송희가 이를 시기하여 오빠에게 내기를 걸었다. 그 내기 내용은 자신이 성을 쌓고 있는 동안 오빠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당시 서울이었던 개성에 갔다 오는 것이다.

송희가 열심히 성을 쌓았기 때문에 거의 다 쌓아가고 있었다. 남문만 달면 성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자 어머니가 콩을 볶아 송희에게 건넸다. 왜냐하면 콩을 먹는 동안 흑 아들 송문주가 올라 해서 이다. 그러나 송희가 콩을 먹고 남문을 달려고 하자 오빠 송문주가 돌아와 버렸다. 그러자 송희는 그 자리에서 자결했다고 한다.

문제는 송희가 자결을 하자 푸른 새 한 쌍이 목에서 나와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날아갔다는 것이다. 더욱 기이한 것은 송문주가 몽고군에게 패한 날도 이 새가 와서 똑같은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또한 결국 송희가 만들지 못한 남문, 지금의 죽주산성에도 남문이 없으니 이 어찌 기막힌 우연이라 아니 하겠는가.

그러나 사료에 의하면 송문주는 몽고군에게 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리를 했다. 송문주는 몽고군이 쳐들어오기 1년 전에 방호별감으로 임명을 받고 죽주로 내려와 주민을 어질게 다스리고 더 나아가 훈련도 시켜서 몽골군의 침략을 대비하였다고 전해진다.

## 2) 화성에서 송충이를 깨문 정조

『구비문학대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한 영혼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전달된 이야기, 사도세자와 정조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시 화성으로 이장해 놓고 자주 참배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지대 고개에서부터 화성 일대까지 각종 나무를 심어놓고 종자를 파종하며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세워 조림 사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소나무를 다수 심었지만 송충이가 다 갉아먹어버려 조경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송충이를 잡아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정조가 친히 산에 납시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송충이 하나를 잡아 “너희 같은 미물이 정성들여 가꾼 솔잎을 갉아먹어서야 되겠느냐”고 야단을 치며 씹어 드셨다 한다. 정조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에 있던 송충이들이 다 떨어져 죽었다 한다.

## 3.5. 보은 설화

### 1) 효양산성의 은혜깊은 사슴

아직도 효양산에는 “금송아지와 은혜 깊은 사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효양산전설문화축제’는 효양산의 전설과 사적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로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얽힌 은혜 깊은 사슴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은혜 깊은 사슴이야기”는 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말기 아간 벼슬을 하던 서처사(서신일)이 조정의 권력암투에 환멸을 느껴 이곳 효양산으로 낙향하여 농사일을 하는데 화살에 맞은 사슴이 쫓겨와 이를 숨겨주고 사냥꾼을 돌려 보냈다.

그날 밤 산신이 현몽하여 사슴이 아들임을 밝히고 생명의 보은을 하겠다며 사슴이 일러준 곳에 묘를 정하라 했다.

그 후 서신일이 죽고 후손으로 서필(고려 광종), 서희(고려 성종) 등 유명한 인물이 대대손손 이어졌다.

서신일은 이천 서씨의 시조이다.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신라 창엽의 원훈인 서두라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라 효공왕 때 신라의 국운이 다했음을 깨닫고 이천의 효양산으로 내려왔다고 전해진다. 그는 효양산 기슭에 희성당(希聖堂)이라 칭하는 사당을 짓고 은거하면서 후진 양성에 여생을 바친 인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신일에게 화살 맞고 쫓기는 사슴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화살에 맞은 사슴을 구해주었다. 그러자 꿈속에서 선인이 나타나 낮에 당신이 구해준 사슴은 나의 자식이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당신의 은덕으로 내가 당신 자손들을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하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서신일은 80세의 노부였지만 선인이 나타난 이후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고려 초기의 재상인 서필이며, 손자는 서희였으며, 증손자는 서눌...이들은 모두 재상이 되었다.

## 2) 적장 용골대가 벽암대사에게 갚은 은혜



남한산성과 용골대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 용골대와 관련된 설화는 최소한 3가지 정도가 된다. 그 중의 하나인 보은설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남한산성을 지키는 신으로까지 인식되어 있는 한 장군이 있다. 이름하여 벽암대사이다. 그는 병자호란 때 임금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병자호란의 주범인 용골대를 이긴 장군이다. 이 같은 벽암장군의 인생사는 다음과 같다.

충남 보은에 사는 김진사 내외는 결혼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 부인이 새벽녘에 꿈을 꾸었다. 그 꿈 내용은 한 스님이 들어와서 김진사 부인에게 거울을 주면서 항상 잘 닦아서 지니라고 일렀다고 한다. 김진사 부인은 꿈에서 깨어나서 이상한 꿈이라 생각되어 남편 김진사에게 말했다. 남편 김진사는 태몽이 아닌가 하여 후원에서 정성껏 백일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김진사 부인은 임신을 하였으며, 옥동자를 보았다. 태어난 아이의 기골이 장대하고 울음소리 또한 우렁차 이름을 '각성'이라고 지었다. 각성은 자라면서 총명함을 드러냈고, 기운도 세었다. 김진사 부부는 집안의 후계를 이을 외아들이기에 심열을 기울여 키웠다.

그런데 그토록 건강하던 각성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김진사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이 집 아들을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지금 이 집이 잡귀에 시달리고 있으니 빨리 아들을 절에 데려가 불공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갑작스럽게 스님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김진사 부부는 쉽게 응할 수가 없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자, 외아들이기 때문에 망설였다. 그러나 각성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김진사 부부는 스님께 아들을 내어 줄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각성을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자신의 암자로 데리고 와서 이름을 '벽암'으로 바꾸어 보호하였다. 벽암은 다시 건강도 찾고 더욱 총명해졌다. 이윽고 스님은 장성한 벽암에게 한양으로 내려가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하였다. 벽암은 스님의 말씀대로 한양을 향하여 자신의 부모를 찾아 갔으나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이후 벽암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던 무과 시험에 응했다. 그 시험에서 응당 최고전을 치

르고 있었다. 당시 마지막까지 남은 무사 한 명이 벽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벽암은 그를 차마 내리치지 못하자 쓰러진 무사는 도망가 버렸다.

훗날 벽암이 당시 왕인 광해군에게 남한산성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광해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벽암은 삭발을 하고 다시 절로 들어갔다. 그런데 꿈에서 자신을 키워주셨던 스님이 나타나 “벽암아 너는 어찌하여 내 뜻을 모르느냐? 너는 빨리 세상에 내려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라.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니 나라를 구하도록 성부터 쌓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벽암은 다시 세상에 내려왔다. 당시 광해군에서 인조로 왕이 바뀐 상황이라 벽암은 인조에게 북쪽의 오랑캐를 예비해야한다고 다시 진언을 드리고 남한산성을 쌓게 되었다.

벽암이 남한산성을 쌓고 난 후 얼마지나지 않아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벽암은 의병을 일으켜 청나라 군사와 여러 곳에서 맞서 싸웠다. 그런데 부평벌에서 강력한 군사와 맞부딪혔다. 그때 벽암은 대장끼리 싸우자고 소리를 쳤다. 당시 적진에서 장수 한 명이 나왔다. 그리고는 벽암에게 “장군의 본명을 말해보시오.”라고 외쳤다. 그러자 벽암이 “원수끼리 만나서 본명은 알아서 무엇을 하지는 것이오,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으시오.”라고 응하였다. 그러자 적장이 “장군의 본명이 혹시 김각성이 아니시오?”라고 묻자 벽암은 “그렇소만 어찌 묻는 것이오?”라고 응했다. 적장은 즉각 대답지 않고 있다가 “하! 내 눈이 틀림없구나. 하! 내 눈이 틀림없구나.” 하였다. 그리고는 적장은 벽암에게 “혹 옛날 과거장에서 칼을 잃고 도망갔던 사람을 기억하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내 이름은 용골대라 하오. 그 때는 조선의정세를 염탐하러 갔다가 조선의 인재를 알아보려고 과거장에서 무술 시험을 해봤던 것이오. 그러다가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 했었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벽암이 “그럼 이제 다시 무술 시험을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적장 용골대는 술 한 잔 할 것을 청하였다. 벽암은 이긴 자가 진 자의 간을 빼서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적장 용골대는 하는 수 없이 “좋소, 그럼 싸움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벽암도 말머리를 돌렸다.

다음 날 싸우려 벽암이 나가자 청나라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던 때



에 용골대가 쓴 편지 한 장이 창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내용인 즉, “김각성 장군! 나는 이대로 물러가고, 우리 군사들은 장군의 군사들을 한 순간에 몰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그 옛날에 장군이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만 물러가는 것이오.”

이처럼 용골대는 남한산성과 깊은 연을 맺고 있다. 만약, 벽암이 무술시합에서 용골대를 처리했다면 남한산성의 별봉과 인조의 수치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까.

### 3) 사도세자를 세운 농부

조선 정조 때 전해 내려오는 한 미담이 있다. 이는 수원 나그네로 변장한 정조대왕과 밭에서 일하던 농부와의 훈훈한 이야기이다.

정조대왕은 지극한 효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 문헌 능을 행차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는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안녕리로 암행을 떠났다. 이 안녕리는 지금의 수원고읍성에 사도세자의 능이 옮겨지기 전에 있었던 곳이다. 여기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의 수원은 이 당시 수원과는 다른 수원이다. 지금의 수원은 정조 17년, 즉 1793년에 화성으로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 화성이 다시 수원으로 바뀌게 된 것은 고종 23년, 1895년이라고 한다. 수원의 명명의 역사가 그렇다고 한다. 하여간 사도세자의 능이 처음에는 안녕리에 있었다.

정조대왕이 암행을 떠난 그 때에 마침 밭에서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다. 정조는 당시 민심이 사도세자에 대해, 사도세자의 능에 대해 어퍼했는가 상당히 궁금했었다. 그래서 정조는 농부에게 천연덕스럽게 사도세자의 능을 가리키며, 저곳이 어떤 곳이야고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저곳은 뒤주대왕의 애기능이라고 대답했다. 사도세자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뒤주 속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뒤주대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했기에 애기능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조는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했다. 그동안 대신들의 반대로 사도세자를 추존하지 못했기에 맘이 아팠는데, 한 농부의 입에서 뒤주대왕 애기능이란 말을 들었기에 명분이 생겼던 것이다. 이에 정조는 농부가 너무도 고마웠다. 그래서 자신이 농부를 돕고자 여러 가지를 물었다. 정조는 농부에게 글을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물었다. 이에 농부는 과거에 책도 많이 읽었으며, 과거도 본 적이 있는 선비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번번이 낙방하였기에 농사를 짓고 있노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다시 한 번 과거를 보라고 설득을 하였다. 그러나 농부는 다시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끝끝내 농부의 마음을 설득해내어 다시 과거를 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조는 급히 궁으로 돌아와 과거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농부는 이 과거시험의 공고를 보고 과거를 보았다. 그런데 시제가 바로 응능 근처에 있었던 자신과 어느 선비의 대화를 적어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정조가 자신을 도운 농부만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이에 농부는 답을 잘 작성할 수 있었고, 과거 급제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을 배알하였는데, 그 왕이 바로 그 선비, 정조였던 것이다.

#### 4) 정조와 능참봉

정조와 능참봉,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사이에는 사도세자의 묘가 있다. 다음은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간추려 본다.

어느날, 정조가 화산릉을 참배하고 환궁하기 위해 화성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침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조는 성내에 있는 행궁에 머물게 되었다. 밤새도록 비가 오자 땅 속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즉시 가서 묘를 살펴보게 하였다. 능을 지키는 능참봉이 능에서 불이라도 켜놓고 있으면 관찰하겠지만 편안히 자고 있으면 엄벌에 처할 것이니 압송하라는 것이다.

군졸들이 즉시 사도세자의 능에 갔다. 그런데 마침 능참봉이 정장을 하고 엄청난 빗속에서도 묘에 엎드려 있었다. 이에 군졸들이 정조에게 돌아가 사실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정조가 기뻐하며 능참봉에게 관복을 내리고 상금과 벼슬을 주었다.



그런데 사실 능참봉에게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뒷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능참봉이 길 가던 초라한 사람을 잘 대접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서 아무날, 아무시만 잘 넘기면 된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능참봉은 묘에서 열심히 엮드려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정조 임금의 행차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환궁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정황을 미리 알려준 초라한 행인의 보은이었던 것이다.

### 3.6. 매개 설화

#### 1) 매바위 설화

남한산성 수어장대 앞마당 한쪽 모퉁이에는 “매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 비록 지금은 매형상은 없고 사각모양의 흔적만 있지만 그 곳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남한산성의 축성 책임을 맡았던 이회 장군은 성격이 꼼꼼하고 애국심이 강하여 남한산성 축성시 공사의 완벽을 기했다. 그러다보니 정해진 날짜 내에 완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용도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자 말 많은 사람들이 이회 장군이 공사비용을 주색잡기에 탕진하였다는 말을 만들어 오해를 받게 하였다. 기어코 이 사건으로 인해 이회 장군은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다.

이회 장군은 참수 당하기 직전 하늘을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죽은 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그 후 이회 장군이 참수 당하자 장군의 목에서 매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근처 바위에 앉아 슬피 울었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이 다가오자 멀리 날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매가 앉았던 바위에 매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더라는 것이다. 그 이후 사람들은 성곽을 살펴보니 아주 견고하게 쌓여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회 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회 장군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회 장군의 목에서 나왔던 매가 앉았던 바위를 ‘매바위’라 칭하고, 그 바위를 신성시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관리가 그 매 발자국을 보고 신기하여 도려내어 가져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취만 남아 있다.

## 2) 금송아지 설화

이천시 효양산에는 금송아지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 이는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서 중국천자가 사람을 보내어 가져오라는 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은 이천시지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책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이천 효양산에는 금송아지가 있다는 소문이 중국 천자에게까지 알려졌다. 중국 천자는 사람을 시켜 효양산의 금송아지를 찾아오라고 명하였다. 신임이 두터운 관리를 뽑아 그 일을 맡겼는데, 천자의 명을 받은 신하는 수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와 경기도 땅을 밟았다. 온갖 고생 끝에 용인읍을 지나 오천까지 왔다. 그날도 하루 종일 걸어서 오천까지 왔는데 해가 이미 저물어 어두워졌다.

어두운 길을 헤매며 효양산을 찾아 가다가 제일역(제일리)을 지나 지금의 작별이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천자의 명을 받은 신하는 반가워서 그 노인을 맞이하며 융성하게 대접하였으며, 그들이 효양산을 찾는 이유도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노인도 효양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그 노인은 백발에 수염이 길게 내려져 있었으며, 손에는 짙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중국 신하는 성급하게 효양산에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오천역(五千驛)을 지나 억만리(億萬里)를 거쳐, 보름다리, 억억다리(億億橋)를 건너야 되며, 이천역(二千驛)을 지나 구만리(九萬里) 별판을 넘어 길 하나 건너면 그 산이 효양산입니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중국 신하는 매우 당혹하였다. 중국에서 조선까지 온 것도 수 개월이 걸렸는데, 여기서 다시 오천역, 억만리, 억억다리, 보름다리, 이천역, 구만리를 가야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게다가 노인이 지닌 쇠지팡이는 원래 석자가 넘었던 것이 짙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중국 신하는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노인에게 거듭 확인하고는 작별하며 헤어졌다. 중국 신하와 노인이 서로 작별하고 헤어진 곳을 ‘구천동 작별’이라 했는데 지금은 ‘작촌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하는 말로는 중국 신하에게 길을 가르쳐 준 노인은 효양산의 산신령으로 금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효양산 쌍굴 중 한 개의 굴속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전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선이라는 존재는 아주 친근한 존재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인 듯하다. 우리나라 설화에서는 신선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금도끼, 은도끼 설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것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려는 민족의식이 드러난 설화이다.

### 3) 거북바위에 얽힌 예언

경기도에는 유명학 5악이 있다. 이는 송악산, 감악산, 심악산, 북악산, 관악산이 그것이다. 이 중 심악산은 교하면에 있는데, 이 산의 상봉과 중봉과 끝봉이 북에서 남쪽으로 나란히 솟아 있다. 봉우리마다 자그마한 내령이 뻗어있는 산이다.

이 산이 있는 교하면 산남리에서 홀로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송사련이 있었다. 송사련이 어느 여름날, 중봉상에 있는 거북바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거북되(고양 구산리)에서 두 마리의 청룡과 황룡이 올라와 자기 가슴에 안기어 감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송사련은 그날 밤 동네 정승대에 기고가 있어 일을 도와준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비녀 연일정씨가 제사 음식을 가지고 송사련이 홀로 있는 방으로 들어오자, 송사련은 그녀를 마음에 담고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해 겁탈했다고 한다. 그 후 같이 살게 되어, 송사련과 연일정 씨 사이에 두 아들을 보았다. 그들이 바로 당대 유명한 대학자 송익필, 송한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거북바위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만난 청룡과 황룡을 보게 된 것이다.

### 4) 심악산의 천자지지 전설

심악산은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산 주위로 물이 흘러 한강 가운데 있는 섬이 되었다 하여 ‘수막산’으로 불리웠다. 그러나 조선조에 와서 언제나 홍수 있을 때에는 한강물과 조수

물이 넘쳐 수막산이 물 속에 잠기게 됨으로 깊은 물이 들어갔다고 하여 '심악산'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또 조선 숙종대왕 시절, 왕궁에서 학 두 마리를 키웠는데, 이 두 마리의 학이 심악산에 들어갔다고 하여 '심학산'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수막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여간 이처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심악산에 여러 흘러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교하면에 소재하는 심악산 주위는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심부 10여평 남짓한 편편한 곳이 있다. 이 자리는 수십자를 파도 비세황토 흩이 나온다. 그런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곳은 천자가 나올 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안에서 천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밤중에 남몰래 수차례 시체를 암매장하곤 하였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리에 시체를 암매장 하고 나면 산이 울고 동네에 갖은 병고가 일어나 동네 사람들이 시체를 파해쳤다는 것이다.

때는 조선조 말에 김포에 살던 예안이씨 이지열이 심악산 주변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 곳에서 훈학에 전념하였는데, 자신의 부친께서 돌아가시자 남몰래 아버지의 시신을 암매장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이 동네에 사는 김면제 성균관박사 댁 하인이 미쳐 날뛰다 이지열이 여기서 산소를 썼다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무덤을 파해쳤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늘날에도 이곳에는 묘를 쓸 생각도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전설이 맞는 것인지, 이 심악산 주변에서 조선 시대에 유명했던 송구봉선생이 태어났는데, 일설에 의하면 송구봉선생이 출생할 때 산의 정기를 흡수하여 심악산 초목이 일시 고사(枯死)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 5) 타지 않는 불경과 남한산성 내 개원사

남한산성 남문 근처에는 개원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은 두 차례의 큰 불로 인해 1986년 말에 복원되었다. 이 절에는 불경과 관련된 놀라운 옛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경기도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이트에 기대어 소개한다.

조선 인조 때, 한 척의 배가 서울 삼개 나무에 닿았다. 그런데 그 배에는 사람은 없고 불



경이 담긴 궤짝만 실려 있었다. 그리고 궤짝 위에 “중원개원사간”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었다. 이를 발견한 삼개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라 여기고, 그 궤짝을 관가로 가지고 갔다. 그러자 관가에서는 이를 다시 왕에게 올렸다. 삼개에서 보내온 궤짝과 그 사연을 들은 인조는 “사람도 하나 없는 배가 삼개에 이른 것만 해도 정말 기이하고 신령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불경 궤짝이 중원의 개원사에서 관각하고 찍은 것이라니, 이는 반드시 인연이 있어 우리나라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시 우리나라에 개원사라 불리는 절이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라. 내가 보기에는 불경 궤짝 위에 쓰여진 글로 보아, 그 불경 궤짝을 우리나라 개원사에 보내 길이 보관하라는 뜻인 것 같다. 서둘러 개원사라는 절을 찾아보시오.”라고 명령을 하였다.

이에 ‘개원사’라는 절을 찾아보니 광주 남한산성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인조는 그 불경 궤짝을 귀중하게 잘 싸서 남한산성의 개원사로 보냈다. 불경 궤짝은 한동안 별 탈 없이 잘 보관되었다.

어느날 절의 화약고에서 불이나 절 전체가 타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의 반대편에서 거센 바람이 일어나 일순간에 불이 꺼져 버렸다고 한다.

후에 개원사에 다시 큰 불이 일어나 궤짝을 보관하고 있던 누각까지 불이 번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무섭게 타고르던 불길이 잡혀 궤짝이 무사히 보관되었다고 한다.

이 처럼 두 차례에 걸친 불난리에도 불경이 무사하자, 개원사는 부처님이 지켜주시는 절로 여기게 되었다.

## 6) 도라산과 경순왕

도라산에는 여러 왕과 공주의 이야기로 물들어 있다. 그 내용을 따라가보면 다음과 같다.

도라산은 장단 읍내 뒤 백학산 서맥내령의 맑고 맑은 사천내가 흐르는 곳, 그 냇가 벌판 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 156m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라산 고지는 주위에 수목이 우거져서 경관이 아름답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름에 자주 오르는 명산이다.

신라 경순왕이 그의 치세 10년(879)째에 폐망하자, 경순왕의 11명의 왕자가 사분오열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경순왕은 어쩔 수 없이 신라 도읍인 경주에서 떠나 먼 천리길 송도를 찾아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는 왕건의 딸 낙랑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유화관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정승을 봉하는 한편 경주를 식읍으로 하여 사십관을 파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낙랑공주는 비운을 맞은 경순왕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도라산 증덕에 암자를 짓고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영원히 이곳을 지키겠다는 뜻에서 영수암이라고 이름지어 주었다. 그러자 경순왕이 조석으로 이 산마루에 올라 신라의 도읍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경순왕이 신라의 도읍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이 산을 도라산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고려 경종 3년(935)에 경순왕이 돌아가시니, 경순왕을 고랑포 뒷산 아늑한 골짜기의 남향인 자좌오향에 안장하였다. 이에 낙랑공주는 영수암이 훼손되어 있어 아담하게 새로운 절을 건립하여 경순왕의 화상을 모시고 명복을 기원하였다. 또한 영원히 번창하라는 뜻에서 창화사라 호칭하였다. 이 절을 임갑진 스님이 조선조 말까지 수호 관리하였다.

또한 이 도라산에 조선조 개창 이후 도라산 마루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군인들을 주둔시켰다. 국난시에는 봉화 신호로 송도와 파주 봉수대를 거쳐 한양으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쓰였다. 현재 도라산은 남북이 갈라진 38선을 지키기 위하여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국군들이 수호하고 있으며, 제3땅굴과 아울러 신히민과 여러 지역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창화사는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그리고 경순왕릉은 영조대왕이 복원한 후 민통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군인들이 수호 관리하고 있다.

## 7) 혜음령과 두 도둑

파주시에 혜음령 고개를 넘어가는 두 도둑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혜음령 고개는 옛



날에 혜음사가 있었던 곳이다. 이 혜음령은 광탄면 용미리 벽제관을 넘어 다니는 고개이자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 고개 주변에는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 있어서 도둑들이 쉽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어느 날, 힘이 센 두 도둑이 작당을 하여 많은 장물을 숨겨 놓았다. 그리고 두 도둑은 이 장물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 그러나 도둑에게는 신의는 없고 욕심만 있었다. 이는 그들에게 화근으로 도래하였다. 욕심 많은 도둑들은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한 도둑은 술을 나누어 먹고 분배하자고 하면서 독살할 계획을 가지고 독을 탄 술을 갖고 산에 올랐다. 다른 한 도둑은 칼로 베어버리고자 칼을 준비해서 산에 올랐다. 그런데 칼을 준비한 도둑이 한 발 먼저 일을 시행했다. 술을 가지고 오르는 도둑보다 빨리 산에 올라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술을 가진 도둑이 올라오자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선 자신이 홀로 장물을 가질 생각에 기분이 좋아 술을 가지고 온 도둑이 놓친 술병의 술을 마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술은 독을 탄 술이었기에 이 도둑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

지금도 혜음령 고개를 넘어가다 죽은 두 도둑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8) 수레넘이고개와 쉰명

파주시 주변 법원읍 갈곡리에는 수레넘이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양주군 가래비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명칭을 한자로 표기하면 차유령인데, 이는 ‘쉰 넘어 고개’라는 것이다. 이 곳에 전해지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이 곳은 험악하여 도적들이 들고 날던 곳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갈 때에는 한 두 사람만으로는 넘어 갈 수 없었다고 하였다. 최소한 쉰 명, 즉 50명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리 쪽에서도 쉰명, 가래비쪽에서도 쉰명이 함께 넘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재 이름이 “쉰 넘어 고개”라는 것이다. 이 “쉰 넘어 고개”가 차츰 변하여 “쉰 넘어이”, “수레넘이”, “차유령”로 불리게 된 것이다.

## 9) 봉서산의 우물과 바위 전설

경기도 파주시에에는 봉서산이 있다. 이 봉서산은 봉황새가 깃들여 즐기며 노래하던 곳이기에 봉서산이라고 한다. 이 봉서산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여기에 흘러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봉서산 정상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다. 하나는 장사우물이고, 다른 하나는 전대우물이다. 장사우물이란 장사가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전대우물은 수원이 많은 약수로 현재 문산과 파주읍 주민들이 즐겨 마시고 있는 우물인데, 그 깊이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타래를 풀어도 닿지 않는다고 하여 전대우물이다.

또한 봉서산 산마루에는 장사가 가지고 놀았다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몇 개를 포개 놓은 듯한 공기바위와 용마바위 등이다.

이같은 봉서산은 별판 가운데 우뚝 솟은 해발 300미터 가량의 산으로 산림이 우거진 아름다운 명산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문산 포구를 바라보는 군사 요충지로 쓰이던 산성이 있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승전을 거두고 이 산성으로 돌아와 수비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봉서산에는 두 개의 우물 전설과 바위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10) 검단사의 유적

검단사는 『전등사본말사지(傳燈本末寺誌)』 『검단사지(黔丹寺誌)』조에 보면 오두산(鰲頭山)에 자리하고 있다. 신라 문성왕 9년, 847년에 진감국사 혜소(眞鑑國師 慧昭)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혜소는 얼굴색이 검어 흑두타(黑頭陀) 또는 검단(黔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검단사라는 사찰의 이름은 혜소의 별명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설에는 사찰이 있는 오두산이 검은 편이라 검단사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이 검단사에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다음은 그 전설을 정리한 것이다.

검단사에는 석불이 있다. 이 석불은 검단도사의 작품이라고 전해진다. 이 검단도사는 바로 검단사를 창건한 혜소이다. 혜소의 작품인 이 석불은 등신좌상으로 1,00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천에서 있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금산리 보현암으로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한 검단사에는 높이 3자의 금부처가 있었다. 그런데 황해도 개풍군 죽면에 사는 해적들이 훔쳐 팔아먹으려 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팔지 못하고 도로 반환하였다 한다.

이같이 사찰에 얽힌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 검단사의 창건 이후 조선 중기까지의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전등사본말사지(傳燈本末寺誌)』 「검단사지(黔丹寺誌)」조에 보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검단사는 한 번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단사가 처음 창건되었을 때에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있었는데, 정조 7년, 즉 1731년에 인조대왕과 인열왕후의 장릉(長陵)을 탄현면 갈현리로 옮기면서 검단사도 함께 옮겨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호 스님이 1936년에 법당을 중수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사찰령이 반포되어 전등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는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로 재편되었으며, 천오스님에 의해 주법당인 법화전(法華殿)을 해체 증건하였다. 그리고 해송스님에 의해 오늘날 가람 정비 및 법당 보수, 요사채 신축을 위해 불사를 진행 중이라 한다.

오늘날 검단사는 통일의 염원이 서린 자들의 공간이 되고 있다. 검단사는 북한의 송악산과 덕물산이 한 눈에 보이며, 남쪽으로는 북한산과 삼각산을 조망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 전망대와 함께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 11) 현리산성 주변의 백정고개

현리산성 주변에는 행현리가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서낭당에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제를 올렸다.

어느 날 한 백정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먹을 수 없었다. 백정의 신분상, 경제적인 이유로 고기를 단 한 점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백정은 너무도 고기가 먹고 싶었다. 그것도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기까지 했다.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다. 제를 올리기 전에 백정은 너무도 고기가 먹고 싶은 나머지 사람들 몰래 고기 한 점을 훔쳐 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백정의 머리에 쳐서 단번에 죽고 말았다.

그 후 사람들은 고기를 훔쳐 먹은 백정에게 산신령이 노하여 벌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그 고개를 백정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 12) 현리장성의 망두메기고개 전설

옛날 한 농부가 한밤중에 소를 끌고 망두메기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소를 이끌고 가던 농부는 고개 중턱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호랑이가 농부를 향해 다가오자 소가 달려들어 호랑이를 받아 넘어뜨렸다.

이 때 어디선가 다른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다. 그리곤 농부를 공격하기 위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농부는 겁이 나서 망두 옆 산소 뒤에 숨었다. 새로 나타난 호랑이는 망두 옆에 숨은 농부가 자신의 짝을 죽인 자로 생각하였는지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다. 이에 농부는 황급히 옷을 벗어 망두에 걸치고 옆으로 가 엎드렸다. 성난 호랑이는 자신의 짝을 죽인 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여 옷이 걸쳐진 망두를 향해 돌진했다. 호랑이는 망두를 사람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어리석은 호랑이는 사람으로 오인한 망두에 머리를 부딪쳐 피 흘리면서 죽었다.

그 후 농부는 이곳에서 죽은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 팔았고, 그 이윤으로 부러진 망두를 다시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망두를 기억하며 이 고개를 망두메기고개라 부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13) 고성산과 덕봉산의 유래

고성산에는 고성산성이 있다. 이 산성내에 전해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



음과 같다.

옛날 조그마한 마을 뒤편에 고성산과 특왕산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산에는 봉우리가 아주 많았다. 그런데 어느 해에 큰 장마가 있어서 산사태를 유발하였다. 산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봉우리들이 떠내려가고 무너졌는데, 이 마을 뒤에 있는 고성산만은 떠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이 산이 덕이 많아서 떠내려가지 않은 것이라 하여 고성산을 덕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4) 군자산과 경순왕 넷째 부인인 안씨 부인

안씨 부인은 군자산 밑 구주정(구지정) 출신이었다. 그런데 훗날 안씨 부인은 경순왕의 네 번째 부인이 되었다. 안씨 부인과 관련된 전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전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순왕이 함께 하겠다는 현몽

어느 날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경순왕은 안씨 부인을 친정으로 보냈다. 그런데 경순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씨 부인은 군자산에 올라 망곡을 했다고 한다. 망곡에 감탄한 경순왕의 혼령이 와 있겠다고 현몽하자 안씨 부인은 움막을 짓고 조석으로 상식을 올렸다.

안씨 부인과 어머니 흥씨 부인이 죽자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당집을 짓고 모셨다고 한다.

##### (2) 몸중의 병이 나은 현몽

경순왕의 부인 순흥 안씨가 난을 피해 군자봉 밑에 있는 친정으로 옮겨 왔다. 안씨 부인은 친정에서 경순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안씨 부인은 군자산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안씨 부인의 꿈에 경순왕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의 명복을 빌어준 것을 치하하

며 한 가지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안씨는 평소 반신불수인 몸종을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몸종을 보니 몸종의 몸이 낳았다는 것이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군자봉 정상에 성황당을 짓고 경순왕의 위패를 모시며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 (3) 경순왕이 소박한 부인

어느 날 경순왕이 나쁜 짓을 해서 피신을 다녔는데, 이곳, 군자산의 경치가 좋아서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경순왕이 한 여자를 이곳에서 또 얻었는데, 마나님이 얼굴이 박색이고 못 생겨서 하룻밤만 자고 내쫓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긴 여자와 엄마가 정착한 곳이 장모리이다. 어쩔든 어머니인 안씨와 따님인 흥씨 부인이 경순왕을 군자산에서 모셨던 것이다. 그래서 대왕님, 경순왕이 부인의 얼굴이 박색이라 하여 소박을 했는데, 그 모녀가 소박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전설에서는 안씨와 흥씨가 모녀관계로 나온다는 것이 이색적이다.

### (4) 서희 꿈에 현몽한 안씨, 흥씨 부인

신라 경순왕이 부인을 소박했다는 데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소박당한 부인들이 원혼이 되었다. 원혼이 된 흥씨 부인, 안씨 부인, 친정 엄마까지 원혼이 되어 버렸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 6대 성종 때 서희가 사신으로서 중국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서희가 그날따라 하루 종일 꿈을 꾸며 잠에 들었다. 꿈 속에서 안씨 흥씨 부인이 현몽하기를 “신라말 흥씨 부인인데, 영혼귀가 되어 떠돌아다니니 안전한 자리에 자리를 잡아주면 당신이 편안히 다녀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서희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당을 짓고 안씨 부인, 흥씨 부인을 위로하고 모셨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니 풍랑이 멈춰서 잘 다녀왔다고 한다.

서희가 만든 당이 오늘날의 잿머리당이다.



(5) 서희가 만난 안씨 부인과 성황당

신라 56대 경순왕이 신라의 천년사직을 다하자 경주를 떠나서 충북 제원군을 거쳐서 강원도 원성군 고자암에 미륵불상을 조성한 후 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 마을에 이르러 안씨 부인과 생활하며 아들 덕지(德摯)를 낳았다. 그리고 경순왕이 죽자 안씨 부인이 마을 뒷산인 군자봉에 매일 올라가서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얼마 후 서희가 사신으로서 송나라로 출항을 하는데, 그 때 안씨 부인의 영혼이 나타나 사행(使行)길을 도와주자 서희가 그 은공을 갚기 위해 군자봉 정상에 당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당에 경순왕의 영정과 안씨 부인의 소원당을 지어주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2월에 성황신인 경순왕과 안씨 부인, 장모 흥씨의 영정을 모시고 마을로 내려와서 제를 지낸 후 유가(遊街)를 돌다가 삼월 삼짇날이 되면 다시 당에 모셔 올렸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 군자봉 정상에 있는 성황당에서 신곡맞이 행사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일 천여 년 동안 빠짐없이 지내오고 있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도당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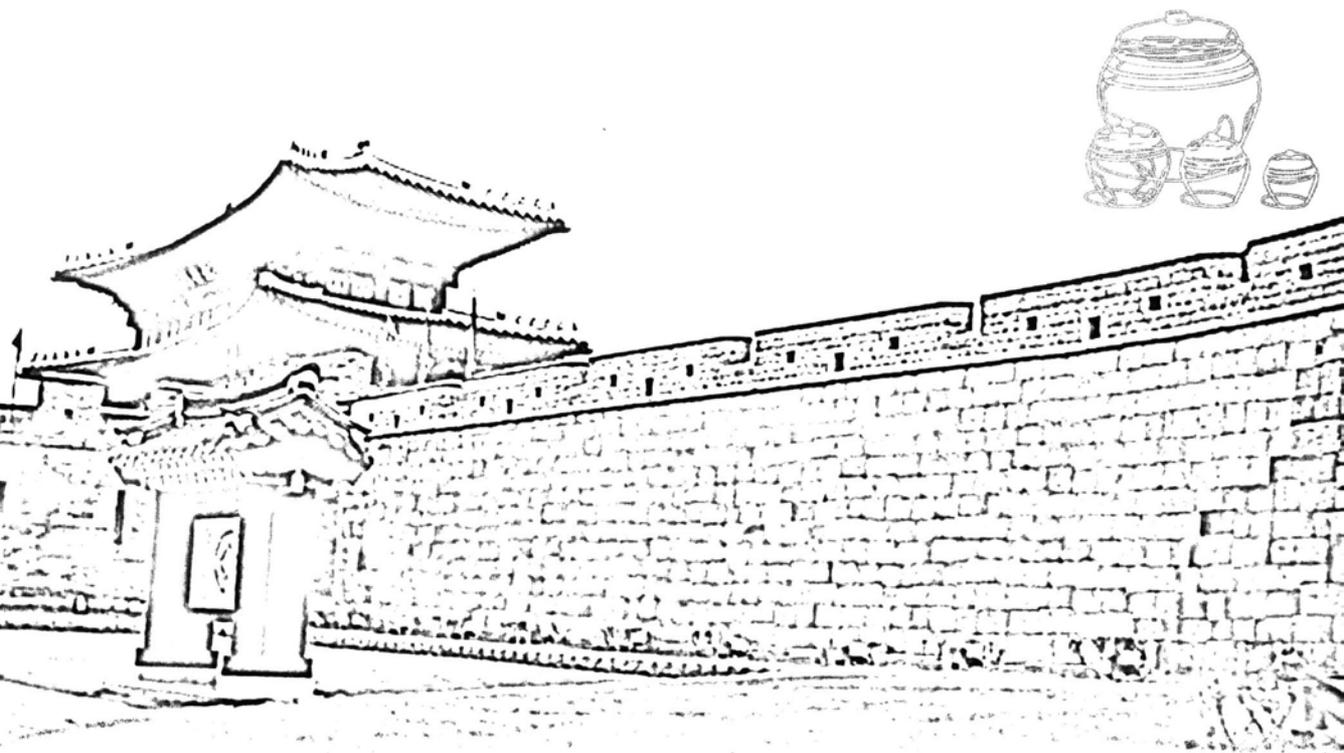
■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bhjang3/140090683822>  
방유리의 「이천 성봉산성 출토 백제 사기 연구」, 단국대 석사, 2001.  
월간불광 <http://www.bulkwang.org>  
전주이씨능원대군과 [cafe.daum.net/neungwon2](http://cafe.daum.net/neungwon2)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001.  
<http://blog.naver.com/tcasuk/40020120507>  
<http://www.nahansansung.or.kr>.  
한국관광공사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경기도박물관  
구리문화원향토사연구소  
권도경,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전승의 역사적 변동 국면」,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여름.  
강현모, 「백제 설화의 연구」,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2001. 2.  
장장식,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2004. 12.  
양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여 백

동화로  
산성편 읽는  
경기도설화

II. 동화로 읽는 산성설화



## 1. 고봉산전망 위에서 밝힌 사랑의 봉화

박혜숙

구슬 아씨 한주(韓珠)는 오늘도 고구려 북쪽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슬아, 매일 그렇게 백날을 기다려 보아야 소용없어. 좋은 혼처 나왔을 때 어서 시집을 가야지.”

“싫어요, 어머니, 태자께서 나를 꼭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기다릴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면, 너 쫓겨 날려구 그래?”

이름처럼이나 아름다운 구슬아씨 한주가 기다리는 사람은 고구려의 태자 흥안이었습니다. 백제 땅인 개백현(현재 고양시)에 살고 있는 한주가 적국인 고구려의 태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을 기다린다니 어머니의 마음은 조마조마 하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집안 망할 일이라고 딸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해 있었던 일입니다.

달이 밝아서 그리 어둡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달밤이 너무 좋아서 뜨락에 나와 있던 한주는 잘못하면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이어 밖에서는 뒤쫓는 듯한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어지러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잠시만 숨겨주세요. 부탁입니다.”

젊은이는 몹시 다급한 듯 말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젊은이의 얼굴은 예사롭지 않은 광채가 있었습니다. 한주는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마룻장 밑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재빨리 별채의 마룻장 밑으로 숨었습니다.

곧 이어서 병사들이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혹시 이 집으로 뛰어 들어온 수상한 사람 없소?”

“아무도 못봤는데요.”

“아니 이놈이 그렇다면 어디로 갔담. 자, 나가서 다시 찾아라.”

우두머리가 병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이 고을 호족의 집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서야 한주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 누구 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주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마루 밑에 숨었던 젊은이가 나와 한주 앞에 다가섰습니다. 한주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며칠간만 나를 숨겨줄 수 없겠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요.”

무엇에 흘린 듯 한주는 이 젊은이를 위해서 숨을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녀에게 시켜 곡식들을 보관해 놓는 곳간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젊은이는 고구려의 태자 흥안이었습니다. 한강 하류인 개백현은 전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흥안은 지세를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염탐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한주의 집에서 머무는 사흘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늙름한 모습의 흥안에게 한주는 첫눈에 반했고, 흥안도 아리따운 남자 한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흥안은 떠나기 전날 밤 한주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소. 그리고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나는 고구려의 태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다면 다음날에 내가 고구려의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당신을 고구려로 데리고 가 왕후로 맞이할 것이니 기다려 주시오.”

두 사람은 이제 당분간 만날 수 없다는 슬픔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주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태자님을 기다릴테니 저를 꼭 데리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다던 흥안 태자는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 해 봄이 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적국의 태자와 사랑에 빠졌다면 집안이 온존치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한테는 이야기

를 했지만 아버지한테는 이 비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고을에 새로운 태수가 부임해 왔습니다.

이 고을 호족의 딸인 한주의 미모를 소문으로서 알게 된 태수는 청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승낙을 하였지만 딸은 죽어도 태수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네가 내 말을 거역할테냐?”

혼인 문제로 집안 분위기는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한주와 흥안 태자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도 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 한숨만 쉬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청혼을 거역한 한주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주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한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태수는 화가 나서 한주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냐?”

“말할 수 없습니다.”

태수는 약이 올라 한주를 고문하면서, “네가 말을 안하는 것을 보니 필시 적의 첩자와 내 통한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고구려 땅에서 이 소식을 들은 흥안 태자는 몸이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한주를 살려야 할텐 데 어찌해야 할지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흥안태자는 아버지인 왕이 서거하자 뒤 이어 즉위하였습니다. 그가 안장왕입니다. 어서 한주를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고구려의 안장왕은 개백현을 쳐서 이기고 한주를 구출하는 장수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안장왕의 누이 안학공주를 사모하는 을밀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을밀은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한주를 구출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안학공주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계책이라도 있소?”

“제가 용맹한 군사 20명을 데리고 바닷길을 이용하여 먼저 개백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왕께서는 뒤에 남아 있다가 봉화를 올리면 군사를 이끌고 육로로 밀고 들어오십시오.”  
왕의 허락을 받은 을밀이 개백현으로 들어 왔을 때, 마침 태수는 자신의 생일잔치에 한주를 끌어내어 수청 들기를 요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자초할 것이냐?”

태수는 옥에서 끌려 나온 가엾은 한주에게 다그쳤습니다.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뉘, 뉘라구? 그래도 이년이--- 저 년을 매우 쳐라.”

화가 난 태수의 명령으로 구슬아씨 한주가 형틀에 묶여 매를 맞는 순간 을밀과 그의 용감한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을밀은 형틀에 묶인 한주를 풀어준 후 말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대왕께서 아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봉화를 올리면 이리 쳐들어 오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그럼 어서 봉화대로 갑시다.”

한주는 을밀과 군사들을 고봉산 정상의 봉화대로 단숨에 이끌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턱까지 찼지만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봉화가 밝혀지기만 기다리며 강 건너에서 진을 치고 있던 안장왕은 봉화를 보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곧 군사들을 인솔하여 강을 건너 개백현의 백제군을 초토화 하고 고구려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수를 끝까지 거절했던 구슬아씨 한주의 사랑은 안장왕의 승리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뛰어 넘는 ‘흥안왕자와 한주’의 사랑 이야기는 ‘은달과 평강공주’,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등과 함께 고구려의 3대 사랑 이야기라 합니다.

#### ■ 참고문헌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성곽 길라잡이』,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5.  
신채호, 『조선상고사』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 2. 오산시 독산산성 - 권율 장군과 세마대

김단아

### 1) 전라도 순변사 권율

조선은 온통 희뿌연 화약 연기와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임진왜란 때문이었지요. 얼마 전에는 나라의 수도인 한양까지 왜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왜병들은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했습니다.

“임금도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간 꼴이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권율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순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왜병들은 한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권율이 군사들을 이끌고 용인으로 가서 싸웠지만 아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권율의 부대는 다시 광주로 돌아와 금산에서 왜병들을 무찔렀지만, 용인에서의 패배로 한양을 빼앗긴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식혀지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권율이 한숨을 푹 내쉬자 조용히 타고 있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군사 현덕이 방문을 열어 재겼습니다.

“명나라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군사 오만 명을 이끌고 왔다고 합니다. 오만의 병사와 우리 조선 병사들이 힘을 합쳐 평양성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권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양을 다시 되찾으려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권율은 기쁜 마음에 당장 군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내일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명나라 군과 합세할 것이다! 모두 준비를 해라!”

한양을 찾기 위한 길을 떠난다는 소식에 김천일이 이끄는 의병들도 합세했습니다. 권율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군사들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전투에 나서는 의병들을 보니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2) 독산산성

이튿날, 권율의 부대가 왜병들과 싸우기 위해 길을 나서자 백성들이 모두 나와 배웅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군사들은 일제히 창과 칼을 쳐들며 기운 찬 소리를 내지르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수원까지 올라오는 긴 여정 중, 권율과 군사들은 곳곳에 숨어 있던 왜적들에 맞서 여러 차례 싸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병사들은 가까스로 승리는 거두기는 했지만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또 왜병들이 어딘가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한 기색이 영력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한양입니다. 이제 좀 쉬고 군사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병장 김천일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가면 독산이 있으니 거기서 진영을 치도록 하자.”

권율은 김천일과 함께 군사들을 독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산을 오르다 말고 권율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벼랑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가 없어 험벗은 산이라…….’

권율과 군사들이 도착한 곳은 독산이라는 별거숭이 산이었습니다. 평지위에 우뚝 솟은 독산에서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뾰족하고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있고 낭떠러지로 가팔랐습니다. 산이라기보다는 바위에 가까워보였지요. 산세가 험하고 길이 비탈져서 군사들은 빠른 걸음으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장군, 이런 곳에 산성을 왜 지었을까요?”

헉헉거리며 권율을 뒤따라오던 김천일이 물었습니다.

“독산산성은 산세가 험하고 험곡이 많아서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지. 백제시대 때 지어진 이후로 이곳에서 많은 왜병들을 물리쳤다네.”

권율의 부대가 독산산성에 다다르자 해가 저물어 캄캄해졌습니다. 권율은 지친 군사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권율은 병사들과 똑같이 적은 양으로 허기를 채운 뒤 김천일을 불렀습니다.

“이 산성에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 한양으로 전령을 보내 우리가 독산산성에 있다는 것을 명나라 군에게 알리도록 하여라.”

권율은 명나라에서 지원군이나 식량을 보내줄 때까지 독산산성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권율이 성곽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붉은 불길의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불이 뭐가? 가서 알아보고 오게.”

마을로 내려갔던 현덕이 다급한 모습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장군, 왜병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약탈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식량이 없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 쓰레기 같은 왜놈들.”

권율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집을 불태운 왜병들과 싸워 모두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성으로 돌아온 병사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이 처참히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구걸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권율은 그런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내려와 군사들이 다시 힘을 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권율의 희망과는 달리, 며칠 전 한양으로 떠났던 전령이 가져온 소식은 군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장군, 한양으로 내려오던 명나라 군사들이 왜적을 만나 싸움에서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양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 우리 병사는 고작 일만 명도 안 되는데, 어찌한단 말인가.”

권율의 군사들은 힘이 빠졌습니다. 명나라 군사들과 힘을 합치지 않으면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율은 한양이 코앞에 있는 수원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올 수 없다면 권율의 군대라도 할 수 있는 한 한양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독산산성에 머물며 왜적들을 유인하도록 한다. 내일부터 군사들을 성 밖으



로 내보내 공격하도록 지시하게.”

“넵, 장군!”

권율의 지시대로 군사들은 주변에 있는 왜병들을 유인했습니다. 독산산성에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횃불을 켜서 환하게 밝혔습니다. 권율의 예상대로 왜적들은 독산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협곡에 숨어있던 권율의 병사들은 왜적이 산성에 오르기 전에 덮쳤습니다. 가까운 곳에 조선 군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왜병들은 한순간에 전멸당하고 말았지요.

### 3) 일본의 무장, 가토 기요마사

“권율이라고? 도대체 그자가 누구란 말인가?”

가토 기요마사는 부하 병사의 먹살을 잡고는 소리쳤습니다. 조선의 한양성을 차지한 가토 기요마사는 이번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왜병의 대장이었습니다.

“대장, 조선의 병사는 고작 일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한번에 무찌를 수 있지 않습니까?”

가토 기요마사는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는 부하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어찌 나의 부하라고 할 수 있겠나?”

“대, 대장,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한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야. 그리고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 지금 우리 군사들에게 식량을 보급해줄 지원군이 오고 있는데, 권율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도 오랜 전투로 인해 식량이 거의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이 있는 것을 보고 식량을 빼앗으려고 왔으나 조선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의 권율이라는 장수가 독산산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군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병사들을 내보냈지만 그 때마다 돌아오는 병사는 없었습니다.

‘권율이 떡 하니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지원식량을 받지?’

가토 기요마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식량이 들어오는 육로를 권율이 막는다면, 그 식량은 모두 조선군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식량을 빼앗긴 병사들은 모두 굶어죽거나 권율의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다를 이용하여 식량을 보급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다는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는 전라좌수사인 이순신이 지키고 있고, 육지는 권율이 지키는 꼴이 되었으니 가토 기요마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식량만으로 한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가토 기요마사가 결심을 했는지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방법은 단 하나다, 권율의 군사를 무찌르는 것, 당장 독산산성으로 진격한다!” 가토 기요마사의 고함 소리에 병사들은 일제히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무기를 점검하고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 4) ‘독산’ 을 이용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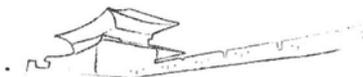
권율은 장수들과 모여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장수들은 권율이 펼친 지도를 꼼꼼히 살펴 보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처음에 권율이 독산산성에 진영을 펴자고 할 때에는 반대하는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율이 시키는 대로 협곡에 숨어 있다가 왜적을 덮치고 낭떠러지로 유인하여 손쉽게 무찌르게 되자 장수들도 독산의 지형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다, 왜놈이 쳐들어왔다!”

망을 보던 병사가 소리치자 권율이 칼을 빼 높이 쳐들었습니다.

“모두 목숨을 바쳐 성을 지켜라, 성을 빼앗기면 우리는 지는 것이다!”

권율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군사들은 재빨리 성곽 밑으로 달려드는 왜병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성벽으로 달려들었던 왜놈들이 떨어져나가자 갑자기 조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왜놈들이 쉴 세 없이 쏘아대는 조총소리에 권율의 군사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화살만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왜놈들이 성벽에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권율의 명령에 군사들에게 화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적군의 무기에 불을 붙여 모두 태울 수 있는 불화살이었습니다. 권율의 군사들은 일제히 화전을 준비하고 시위를 당긴 채 장군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이닷!”

권율이 소리치자 군사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은 빗발처럼 왜병들에게 날아갔습니다. 왜병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려고 갖고 온 사다리가 온통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시 불화살을 쏘아라!”

권율의 명령에 병사들은 다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을 맞은 왜병들이 소리를 지르며 성에서 멀어져갔습니다. 전세가 유리해지자 권율은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화통을 메고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군, 말도 타지 않고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김천일이 말리자 권율이 군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높고 험난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말을 타면 오히려 넘어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독산을 이용해서 이참에 왜병들을 모두 무찔러라!”

권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군사들은 권율을 따라 모두 칼과 화살을 든 채 성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독산을 이용해라, 험한 산길과 바위를 이용해라!”

권율의 군사들은 지도를 보고 파악해 두었던 지름길로 돌아가 협곡이나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오는 왜놈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권율도 왜놈들을 일부러 낭떠러지로 유인하였습니다. 군사들은 화살을 맞고 죽어나가는 왜병들을 보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장군, 왜병이 모조리 도망갔습니다.”

현덕이 기쁨에 차 소리쳤습니다.

“군사가 적다고 기죽지 마라, 독산을 이용하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

### 5) 조총을 이용해라

“대장, 큰일입니다. 계속 공격해도 우리 군사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보거라.”

“대장, 빨리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후퇴할까요?”

“가만있어 보라도!”

гато 기요마사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군사들이 성 가까이에도 못 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 주변이 온통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낭떠러지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미처 지형을 생각지 못한 것도 후회되지만, 자신의 군사 수에 비해 적은 수의 군사에게 당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모두 조총을 꺼내라, 사격 준비!”

기요마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왜병들은 일제히 조총을 꺼내 성을 향해 겨냥했습니다. 조총은 서양에서 수입한 무기로 조선군은 조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 활이 전부였지요.

“사격!”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조총 공격에도 조선군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군 성 안에 숨어서 화살공격을 하는 바람에 성 밑에서 조총을 쏘는 군사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대장, 이제 정말 후퇴하는 것이…….”

“조용해라! 다시 사격!”

기요마사는 신식 무기인 조총을 이용하면 조선군도 꿈쩍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다, 따다다다다.”

왜병들은 다시 조총을 쏘지만 조선군을 맞힐 수는 없었습니다. 조총을 피해 다시 날아드는 화살 세례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을 뿐이었습니다.



“대장, 이제 총알도 다 써버렸습니다.”

“으흐, 분하다.”

악에 반친 기요마사가 주먹을 쥐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후, 후퇴하라, 후퇴!”

왜놈들은 기요마사가 후퇴하라는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숨어있었는지 모를 권율의 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쑥 나타나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기요마사의 진영에 살아서 도착한 병사들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 6) 가토 기요마사의 계략

가토 기요마사는 남아있는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 전투는 산성의 지형을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실수 때문에 졌다. 하지만 저 산성의 지형은 조선군에게 계속 유리할 수만은 없다.”

기요마사는 사방이 바위뿐인 독산산성에는 분명이 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과 양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권율이 항복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지금쯤 양식과 물이 몽땅 떨어졌을 거야. 군사들은 지쳤을 테고, 밖으로도 나올 수 없으니 꼼짝없이 독 안에 갇힌 쥐 꼴이지. 하하하”

그런데 왜병들은 기요마사의 말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요마사의 말을 못 믿겠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또다시 싸우게 될까봐 겁난다며 수군거리는 군사도 있었습니다. 기요마사는 더 이상 병사들을 전투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율의 부대가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승패는 안 봐도 뻔 한 결과였지요. 기요마사는 권율과 협상을 해보아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요마사는 부하를 시켜 물을 한 통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선군에게 가져다 주거라.”

부하 병사는 말에 물통을 말에 매달고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 7) 권율의 계략

기요마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며칠째 왜병들은 꿈쩍도 안 해 더 이상 병사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식량은 거의 바닥나고 물이 툭 떨어졌기 때문이었지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군사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권율은 이미 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내자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물이 떨어졌지만, 왜적들도 마찬가지일거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게.”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장군, 왜병이 할 말이 있다며 성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권율은 왜병을 성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왜병은 말에서 물통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가?”

권율이 물었습니다.

“저희 대장께서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받으시지요.”

물통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긴 권율은 이내 기요마사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이 다 떨어졌으니 항복하고 순순히 성을 내놓으라는 게지?”

기요마사는 물을 보낸 것은 왜병들에게 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권율에게 알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가서 너희 대장에게 전해라, 선물은 고마우나 헛수고를 했다고 말이야.”

왜병이 돌아가자 현덕은 다급한 목소리로 권율에게 물었습니다.

“장군, 이 물이 뭘니까? 왜 물을 보낸 걸까요?”

“허허허, 머리는 아주 좋은 왜놈이구나.”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물이 다 떨어졌는지,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는 속셈이다.”

“우리가 물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권율은 기요마사가 보낸 물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놈들도 오랫동안 지원식량을 못 받고 있으니 물이 넘쳐 날리는 없었습니다. 양쪽이 물이 없어 병사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병들은 산성 안에 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게 분명했습니다.

8) “쌀을 가져 와서 부어라!”

권율이 현덕을 불렀습니다.

“가서 쌀이 있는 대로 전부 갖고 오너라.”

현덕은 뜬금없이 쌀을 가져오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안그래도 적은양밖에 남지 않은 쌀을 아끼고 아껴 밥을 지어먹고 있었습니다.

“장군, 안 그래도 식량이 떨어져가는 판국에 무슨 말씀이세요?”

“어허, 잔소리 말고 어서 쌀을 갖고 산성 꼭대기로 오너라.”

현덕은 장군의 명령이니 할 수 없이 쌀을 있는 대로 모아 산성 꼭대기로 갔습니다. 권율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 말은 왜 데리고 왔습니까?”

권율은 말을 한 번 쓰다듬더니 산성 밑으로 보이는 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솔로 말의 몸을 빗겼습니다.

“히이이잉, 히잉.”

말은 기분이 좋은지 크게 울었습니다.

“장군,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적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보시오, 하는 겁니까?”

현덕은 안절부절 못하며 적들이 있는 곳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적군의 진영에서 왜놈들이 하나 둘씩 나와 산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쌀을 말에게 부어라!”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있던 현덕이 깜짝 놀랐습니다. 현덕은 권율이 왜 뜬금없이 쌀을 말에게 부으라고 하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허허, 멀리서 보면 마치 말에게 목욕을 시키는 건 줄 알 것이야. 빨리 말에게 쌀을 부어라!”

현덕은 권율의 말을 듣자 그때서야 장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현덕과 함께 말에게 쌀을 부었습니다. 권율은 솔을 가지고 말 등을 계속 긁어 주었지요.

“히이이이, 히잉.”

말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 9) 세마대

“아, 아니, 저건.....?”

산성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있던 기요마사는 한동안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물이 많다는 것인가?”

물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던 기요마사는 힘이 썩 빠졌습니다.

“대장, 저 산성 안에 샘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산성 안에 샘터가 있다면 조선군은 다시 싸울만한 기력이 회복돼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기요마사의 군사들만 또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요마사는 여기서 군사를 잃으니 한양으로 돌아가 한양성이나 지키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모두 한양으로 돌아간다. 퇴각이다!”

기요마사의 말에 왜병들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권율과 군사들은 왜병들이 산에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장군, 어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하하”

왜적들이 멀리 떠나자 권율은 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곳은 물이 없어 오래 지키고 있을만한 성이 못된다. 이제 성을 떠나 우리 조선의 수도



한양을 찾으러 가자!”

“우와, 권율 장군 만세, 만만세!”

이후, 독산 산성 꼭대기를 세마대라고 불렀습니다. 권율 장군이 평평한 곳에서 말을 세워 놓고 목욕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 3. 수원 화성 - 정조임금과 능참봉

김 단 아

#### 1) 한달에 스물아홉 번, 화성에 오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임금님이 행차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구만!”

김참봉은 헐레벌떡 현릉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현릉원은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이었지요. 내일 임금의 행차를 맞으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했습니다. 능참봉은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죽어서 묻힌 묘를 관리하며 녹봉을 받는 관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임금의 아버지의 묘가 망가지거나 산짐승이 달려들어 땅을 헤집어 놓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여기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군.”

김참봉은 묘 주위를 한 바퀴 돌아 문제가 있는 곳이 없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매일같이 돌 보긴 했지만 막상 임금이 올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불안했습니다. 임금은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임금이 한번 능행을 올 때면 열흘이 넘도록 수원에 머무르는 건 기본이었고, 현릉원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그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참봉 나리.”

일꾼의 말에 김참봉은 발길을 용주사로 옮겼습니다. 용주사는 임금이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사찰이었습니다. 김참봉은 용주사 입구를 지나 대웅보전 옆의 호성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팔각형 모양으로 생긴 전각인 호성전 안에는 사도세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곳에 들 때마다 새벽부터 자정이 넘을 동안 6번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시켜 매일 6번씩 제사를 정성스레 지내라고 명했습니다.

“자, 내일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테니, 긴장하지 말고 푹 쉬게.”

일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지만 오히려 긴장이 되는 사람은 김참봉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다시 한 번 둘러보아야지.’

김참봉은 다시 현릉원을 둘러본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참봉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차라리 내일이 빨리 와서 임금이 현릉원에 들러 빨리 화성에 머무르기를 바랐습니다.

“김참봉 나리, 이제 들어가십니까?”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이생원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직 초저녁인데 벌써 취해 있는가?”

마침 김참봉도 막걸리가 생각났던 참이었습니다. 김참봉은 이생원이 건네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하도 동네가 시끄러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요. 무슨 임금이 한번 온다고 하면 수원바닥이 들썩거리니,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임금이 수원으로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난 뒤, 임금이 행차할 때마다 수원사람들은 마치 잔치가 열린 듯 기뻐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지나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 행차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이생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스물아홉 번? 그럼 거의 임금이 매일 수원에 오는 게 아닙니까? 하하하.”

“그만큼 자주 온다는 말일세. 허허허.”



임금은 한번 능행을 할 때마다 수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행궁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면 이렇게 자주 수원에 행차하겠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이후로 임금이 능행을 한 달에 스물아홉번이나 온다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지요.

## 2) 사도세자- 세자를 생각하며 슬퍼하다

이튿날 김참봉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현릉원에 나가 임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비롯해 궁에서 수원까지 행차를 한 왕족과 신하들은 모두 화성과 가까운 행궁에서 지냈습니다. 어제 밤늦게 도착한 임금은 화성 행궁에서 아침 일찍 현릉원으로 나올게 분명했습니다. 김참봉이 마지막 점검을 끝내자 마침 임금이 행차하는 긴 행렬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습니다. 김참봉과 신하들은 한참을 허리를 굽힌 채 임금을 맞이하였습니다.

“수고가 많네. 어려운 일은 없는가?”

임금은 제일 먼저 능을 돌보고 있는 김참봉을 찾았습니다. 임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김참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전하.”

임금의 근엄한 목소리와는 달리 김참봉의 목소리는 살며시 떨렸습니다.

임금이 사도세자의 묘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임금의 뒤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김참봉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김참봉은 허리를 바짝 숙인 채 임금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보기에 이 땅이 좋아 보이지 않나?”

김참봉이 임금의 용안을 바라보니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 전하. 이 땅은 산봉우리가 사방으로 묘를 지켜주면서 땅이 따뜻하여 명당으로 손꼽힙니다.”

김참봉의 대답에 임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마마, 이젠 편히 주무세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흐흑.”

임금이 눈물을 흘리자 주변에 서 있던 신하들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는 27살 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금의 할아버지이자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임금이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8일 동안 갇혀두어 굶어 죽고 만 것이었지요.

“전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행궁으로 가시지요.”

신하들은 임금의 건강이 걱정되어 그만 행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지만, 임금은 용주사에서 또 한참을 울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 3) 노인의 예언

집에 돌아온 김참봉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편한 마음으로 잠이 든 김참봉은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문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참봉이 밖으로 나가자 샷갓을 눌러쓴 한 늙은 남자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날 찾아왔소?”

김참봉은 의아해 하며 고객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지나던 길인데, 몸을 다쳐 움직일 수가 없소. 하루만 신세를 저도 되겠소?”

김참봉은 모르는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힘이 없어 보이는 노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먹을 것 좀 내오리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던 김참봉은 손수 밥을 지어 노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노인은 며칠을 굶은 사람마냥 허겁지겁 밥알을 씹지도 않고 삼켜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



참봉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노인의 찢어진 옷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 옷밖에 없소?”

노인은 김참봉의 말에 대꾸도 없이 밥을 먹기만 했습니다. 김참봉은 벽에 걸어두었던 옷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김참봉이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김참봉이 현릉원에 시찰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노인은 꿈쩍도 않고 나갈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김참봉이 일어나자 노인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노인이 김참봉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앞일을 볼 줄 아는 재주가 있는데, 말해도 될지…….”

노인은 김참봉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릴게요. 그럼 자정에 나랏님 산소의 상들 밑창에 가서 도포를 덮고 누워 있으시오.”

노인의 말에 김참봉은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갑자기 나랏님 산소에 가서 누워있으라니, 정신이 나간 노인이라는 생각에 잘 대해 준 것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김참봉은 노인을 얼른 내보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흘 뒤,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 있소!”

김참봉은 그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방문을 획 열었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참봉은 방에 누워 노인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랏님의 산소라면, 내가 돌보고 있는 사도세자의 능?’

‘아니야, 4흘 뒤면 임금님은 벌써 한양에 돌아가 계실 텐데?’

김참봉은 이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노인 말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지요.

#### 4) 비가 오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임금은 행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던 임금이 내관을 불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내일은 꼭 가셔야 합니다, 전하.”

임금은 말없이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임금은 아버지의 묘가 있는 수원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미루고, 또 하루를 미루다 보니 신하들은 빨리 한양으로 돌아가야 된다며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읽고 있던 책을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막 눈을 감았을 때 갑자기 우레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은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현릉원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세지며 우레 치는 소리도 잦아졌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예전에 꿔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도세자의 능은 수원 화산이 아닌, 양주의 배봉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꿈에 사도세자가 매일같이 나타나서는 몸을 떨며 춥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임금은 학자를 시켜 임금의 무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 무덤을 파보니 그곳에는 물이 흥건히 차 있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얼마나 추우셨으면 내 꿈에 나타나셨을까.’

임금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바마마께 불효를 했다는 생각에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학자들을 시켜 자리가 좋은 묘 자리를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 화산에 아버지의 묘를 이장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현릉원으로 가겠다!”

임금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현릉원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되웁니다, 지금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비를 맞으면 위험하오니, 어서 비를 피하소서.”



내관의 말에도 임금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저 많은 비를 홀로 맞고 계신데, 나는 편히 잠을 자란 말이나? 아바마마의 능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란 말이나.”

임금은 꿈에서 보았던 아바마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현릉원은 능참봉이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내관이 임금을 안심시키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임금은 내관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능참봉은 능을 잘 돌보는 일을 하지? 당장 김참봉에 집에 가 보거라. 만일 김참봉이 집에 있다면, 당장 그놈을 밧줄로 묶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 5) 도포를 덮고 산소에 누워

김참봉은 비틀비틀 거리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생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막걸리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지요.

“우르르 쿵쿵.”

“아이쿠, 깜짝아!”

김참봉은 우레 소리에 술이 깨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려나, 우리가 치계?’

김참봉은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잠이 들었지요.

“으아악!”

김참봉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었지요. 김참봉의 꿈속에 며칠 전 집에 묵었던 샷갓을 쓴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자정이 되면 도포를 덮고 산소에 누워라.”

김참봉은 물을 들이켰습니다. 갑자기 꿈속에 나타난 노인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만있자, 사흘 뒤라고 했었지, 오늘이잖아?’

잠시 후, 김참봉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현릉원 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수상한 노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꾸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노인이 샷갯을 쓰고 김참봉의 눈앞에 나타날 것 같았지요.

이내 사도세자의 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능참봉은 무덤 앞에 다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를 흠뻑 맞아 온 몸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나 원.’

김참봉은 도포를 벗은 다음, 무덤의 상돌 옆에 누웠습니다. 비를 맞아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온 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 ⑥ 능참봉에게 벼슬을 내리다

“김참봉은 어명을 받들라!”

임금의 호위관들이 김참봉의 집을 에워싸고는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위관들은 방문을 열고 온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참봉이 없습니다.”

호위대장은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김참봉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는 밤에 김참봉을 찾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호위관이 대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현릉원에 가서 능을 돌보고 있지 않을까요?”

호위관들은 모두 현릉원으로 향했습니다. 능에 가까이 다가가자 호위관들은 으스스한 묘에 비까지 내리니 저절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의 묘 곁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으아악, 누, 누구시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른 호위관은 혹시 귀신이 아닐까 눈을 비비며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김참봉 아닌가?”

김참봉을 발견한 호위관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김참봉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지금 뭐하는 건가?”

“여,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참봉은 호위관들을 바라보며 그들보다 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있어서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자네는 오늘이 제삿날이었다고.”

호위관들은 김참봉을 임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행궁으로 가는 내내 김참봉은 임금이 호위관들을 보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갓을 쓴 노인의 예언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임금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행궁까지 가는 길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임금 앞에 선 김참봉은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르르 떨고 있던 김참봉에게 임금이 물었습니다.

“김참봉, 그 시각에 빗줄기를 온 몸으로 맞으며 산소에 누워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

“대답하거라. 도포를 산소에 덮어 둔 이유가 무엇이냐?”

김참봉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예, 전하, 저는 장헌세자의 능을 지키는 능참봉으로서, 장헌세자께서 비를 맞고 계신데 신하된 자로 편히 누워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도포로 장헌세자의 능을 덮고 그 곁에서 잠들려 했습니다.”

임금은 김참봉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은 두 손위로 임금의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임금은 자신도 하지 못한 효를 하급 관리인 능참봉이 대신 해준 것만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어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다음날 화성으로 다시 오라는 말을 하고는 김참봉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김참봉은 다리가 후들거려 잘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만일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날 김참봉은 행궁으로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임금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뒤

였습니다.

“내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 가기 전에 아바마마를 한 번 더 뵈고 가려고 한다. 네가 같이 가주겠느냐?”

임금과 김참봉은 용주사에서 장헌세자에게 제사를 지낸 뒤, 현릉원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김참봉에게 도포 한 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전하.”

“너의 충심에 내가 감동하여, 너에게 벼슬을 내리노라.”

김참봉은 감격하여 도포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현릉원 쪽을 바라보며 앞으로 더욱 소중히 능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 참고문헌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2000.

## 4. 수원 화성 - 간촌 이생원의 벼락 과거

김 단 아

### 1) 수원 화성을 쌓다

“정약용, 그대는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십시오.”

“신 정약용, 최선을 다하여 성을 쌓겠나이다.”

임금은 정약용에게 책 몇 권을 주었습니다. 임금은 그동안 규장각에서 몇날 며칠을 썼습니다. 수원에 성을 쌓기로 결정한 후 직접 자료를 구하고 외국의 책을 연구하였습니다. 정



약용은 책을 받아들고는 규장각으로 향했습니다. 정약용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임금은 정약용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여 매일같이 정약용을 궁으로 불러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믿어주는 임금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지은 배다리도 임금과 함께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때도 임금은 정약용을 불러 배다리를 건설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중국에는 배다리가 많은 곳에 건설되었는데, 왜 조선에는 아직 없는 것인가? 우리 조선에도 배다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네가 배다리를 건설하게.”

정약용의 생각도 임금과 같았습니다. 임금은 매년 봄, 수원으로 옮겨진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으로 능행을 했습니다. 정약용도 자주 임금을 따랐지요. 그때마다 정약용은 한양과 수원을 연결하는 배다리가 있으면, 배보다 빠르게 한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뒤로 1천 명의 군사들에 의해 조선에서 최초로 배다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배다리는 큰 강에 배를 나란히 붙여 띄우고 그 위에 임시로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 보는 배다리를 신기하게 구경하면서도 한강을 쉽게 건널 수 있어 한양에 쉽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경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제일 안전하게 설계해야 해.”

정약용은 임금이 당부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정약용은 성을 설계하는데 몰두했고 임금도 열심히 정약용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드디어 수원에 화성을 완공하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까지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성을 쌓았군!”

“모두 전하 덕분이입니다.”

임금은 정약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직접 쓴 ‘성화주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네가 쓴 이 책이 지침서가 되었어. 그리고 거중기는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네!”

정약용은 성을 쌓을 때 시간과 노동을 단축시키기 위한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화성 축성에 사용된 거중기뿐만 아니라, 유형거라는 운반 기구를 발명해 오랜 시간 걸리는 축성 시간을 7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임금의 칭찬에 정약용은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장 수원 화성으로 가자!”

임금은 수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수원으로 행차하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던 백성들은 모두 임금에게 환호를 질렀습니다. 임금은 때로 말을 멈추고 친히 내려서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궁궐에 있다 보니 백성들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임금은 백성들의 어려움과 바람을 직접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임금과 일행들은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화성의 북쪽에 있는 정문인 장안문에 선 임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장안문은 조선에서 가장 큰 성문이었습니다. 밖의 상황을 관측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응성은 마치 향아리처럼 벽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조선의 성이란 말인가, 놀랍구나, 놀라워.”

임금을 비롯해 많은 백성들과 정약용은 경이로운 마음으로 성을 올라다보았습니다. 정약용은 2년 9개월 동안 고생했던 일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임금과 정약용은 성곽을 한 바퀴 돌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화성은 그동안 쌓은 조선의 성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본래 적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지은 성은 외관이 깎일 듯 날카로운 모습이어서 적막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모서리가 모두 둥글둥글 하게 지어져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벽돌을 이용하여 성을 쌓고, 성벽의 중간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설계였습니다.

“화성의 성체는 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 앞을 반원 형태로 둘러싸는 응성, 적군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포루와 적루, 이를 감시하는 현안, 화공을 막기 위해 물을 쏟는 장치인 누조 등을 설계하였습니다.”

정약용의 말에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뒤를 따르던 신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관도 아름다우면서 적들이 쏘아대는 화살과 창검, 총포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설계한 방어시설까지 생각해 낸 점에 놀라웠습니다.

“그래, 이 망루는 특히 마음에 드는구나.”



임금은 특히 화성의 망루를 한참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적을 방어하기 위해 높은 벽을 쌓아올린 망루를 지을 때 임금이 직접 정약용에게 설계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화성을 지을 때 무엇보다도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세금을 아껴서 짓기 위해 조선에서 제일 귀한 금속인 동을 사용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고 임금노동자인 모군을 시켜 성을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엽전 사만냥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 2) 아바마마를 참배하다

임금과 정약용은 행궁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행궁은 화성 안에 임금이 머물 수 있도록 지은 작은 궁궐이었습니다. 화성의 문은 동서남북 각 방향에 창룡문, 화홍문, 팔달문, 장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루도 네개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화홍문으로 나가 방화수류정이라는 정자로 올라갔습니다. 방화수류정은 꽃을 찾고 버들을 쫓아가는 정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온통 버드나무로 우거진 용연이라는 연못이 한눈에 내려다보였습니다.

“아바마마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임금이 뒤따라오던 정약용에게 말했습니다.

“예,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임금은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이장시키면서 수원으로 이주시킨 백성들을 위해 화성 축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원 화산은 조선의 명당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조선이 더욱 발전하길 바랐던 것이었지요.

“이제 아바마마께 가자.”

임금은 가까이 있는 현릉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대답도 하지 않는 아바마마의 능을 향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임금의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임금이 정약용에게 성을 쌓겠다고 한 해에 정약용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주 속에 갇혀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으니,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정약용은 이내 마음을 추렸습니다. 자신보다도 임금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 위로의 말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이 나라의 임금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리 반대를 하는 것일까?”  
 임금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라고 불리게 했습니다. 그 뒤에 왕으로 추존하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언젠가는 뜻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전하.”  
 정약용은 임금을 위로했습니다.  
 “백성들도 내 아버지를 왕으로 기억하기 싫어할까?”  
 임금의 말에 정약용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내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그러자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선왕께서 장헌세자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할바마마는 내가 아바마마 얘기 하는걸 싫어하셨지.”  
 임금과 정약용은 다시 행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의 처소까지 따라갔던 정약용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내일은 사복차림을 하고 오너라. 이왕이면 행색을 초라하게 하면 좋겠다.”  
 “네? 전하, 기어코…….”  
 임금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 있는 정약용을 향해 찡긋 미소를 짓더니 처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못 말린다니깐.”

### 3) 간촌 이생원을 만나다

“전하, 그 차림으로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정약용은 하마터면 임금을 못 알아볼 뻔 했습니다.

“그래, 이래야 백성들이 나를 못 알아볼게 아니냐?”

임금은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자, 백성들이 즐겨 먹는 음식도 먹자꾸나.”

행색이 초라한 두 사람은 궁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화산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로 향했지요. 임금과 정약용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주막에 가서 막걸리도 한잔씩 마셨습니다. 그 곳에서 임금은 백성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금을 알아보는 백성은 한 명도 없었지요.

“이제 그만 행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별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가?”

임금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꽤나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임금과 정약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행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을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전하,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뵈, 저기 누가 있네.”

임금은 열린 정약용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시침을 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에서 한 남자가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에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가?”

임금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임금과 정약용을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남는 술 있으면 나도 한 잔 주게나.”

임금이 정자 위로 올라가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당황스러운 듯 임금의 도포자락을 잡아끌었지만 임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요?”

남자는 임금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수원 사람들은 아닌 거 같은데 어디서 왔소?”

남자가 묻자 임금이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아, 우리는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오.”

그러자 남자는 임금과 정약용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남자가 혹시 임금을 알아볼까 긴장이 되어 기침을 연신 해댔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임금의 용안을 본 적이 없어보였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걸 보니, 나 같은 신세 같아 보이는데, 내가 살 테니 술이나 맘껏 드시오. 난 간촌에 사는 이생원이라 하오”

그때서야 마음이 놓인 정약용도 정자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마주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마을 어귀에 얼굴을 쭉 내밀고 있는 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성이 본래 여기에 있었습니까?”

임금이 시치미를 툭 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군, 저게 바로 화성이라고. 몇 해 동안 쌓아올려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댔오.”

“화성이 축성되니 좋소?”

이번엔 정약용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화성을 지으면서 항상 백성들을 생각했지만, 막상 진실로 말을 듣기는 힘들었습니다.

“종구 말구요, 왜놈들이 들어와 전쟁이 나도 저 성벽이 막아 줄 테니 얼마나 든든하오? 저 성 때문에 수원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많이 찾아온다오. 우리 임금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면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겠소?”

이생원의 말을 듣고 있던 임금과 정약용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시름이 싹 날아가는 듯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술잔을 부딪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소나무들이 선선히 부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소나무도 임금께서 손수 심으신 것이오. 소나무가 많아지니 경관도 좋아지고 공기도



좋아지고, 수원 사람들은 나무를 내다 팔아 돈도 벌고, 일석 삼조가 아니겠소?”

임금은 얼마 전부터 수원에 소나무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이생원은 객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자랑하고 싶은 듯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원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금과 정약용에게서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곤 했습니다.

#### 4) 뒤주대왕의 얘기 능

“그렇다면, 저기 태안군 안녕리에 있는 무덤은 무엇ियो, 사람들이 꽤 드나들던데?”

임금이 이생원에게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숨을 죽인 채 이번엔 이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장헌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신하들과 부딪힌 적이 많았습니다. 장헌세자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거나 임금의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무섭게 변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임금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할 이생원이, 행여나 헛소리를 할까봐 조마조마 했습니다. 사실 장헌세자에 대한 소문은 지역마다 무성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지요. 임금은 항상 그런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누구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하하, 밤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정약용은 자리를 피해보려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약용을 찌려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얘기능도 모르시오?”

이생원은 현릉원이 있는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린나이에 죽은 왕자나 공주 등 왕실에 있던 사람이 죽어 묻힌 묘를 얘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도 스물 일곱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어서 백성들은 그의 묘를 얘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묻혀있는 얘기능ियो?”

임금은 이생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생원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알아차려야 되지 않소? 그 가엾은 나랏님의 이야기를 내입으로 해야 되겠소?”

이생원은 화가 난 듯 술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뒤주 대왕이 묻혀계시오.”

임금은 깜짝 놀라 이생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뒤주 대왕이라고 했소, 대왕?”

임금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흥분하는 임금을 바라보며 이생원도 덩달아 일어났습니다.

“저 능이 사도세자의 능인데, 뒤주에 갇혀 돌아가셨다오. 지금 조선의 왕의 아버지니까 대왕이 맞지 않소? 뒤주에서 죽었으니 뒤주 대왕이지.”

임금은 이생원의 말을 듣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약용은 얼른 술을 따라 임금에게 건넸습니다. 임금은 이제껏 자신의 아버지를 대왕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라고 부르거나, 장헌세자라고 불렀지요. 임금이 사도세자를 왕으로 정식으로 추대하여 역사에 대왕으로 기록하고 싶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뒤를 돌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가 뭘 잘못했소?”

이생원은 두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생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느껴지자, 임금은 눈물을 얼른 닦고는 이생원에서 술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약용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들었지? 저자에게 상을 내려야겠어.”

정약용은 임금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자네 덕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 그런데 자네는 소원이 뭐가?”

임금은 이생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대왕이라 불러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생원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전 과거에 세 번이나 낙방했다고, 과거에 불기만 바라시는 부모님을 뵈 면목이 없어서 매일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이나 한다고, 한심하지요?”

임금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좋은 생각이 났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이생원을 위로하며 과거를 다시 한 번 봐 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이나 도전했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아깝다며, 꼭 이번엔 붙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생원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집에 식량은 떨어져 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요.”

그때 정약용이 나서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화성 성벽에 방이 붙여져 있던데 보지 못했소? 열흘 뒤가 과거 시험일이던데?”

이생원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분명 과거시험을 보았는데 또 과거시험을 열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거짓부렁을?”

이생원이 쉽게 믿지 않자 임금과 정약용은 거짓말을 덧붙여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과거 준비를 해서 한양으로 가 시험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이생원은 정말로 열흘 뒤 과거시험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과거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행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한양으로 돌아가자마자 과거시험을 개최한다는 방을 써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갑자기 과거시험을 열겠다는 임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거 시험의 문제를 임금이 직접 낸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금의 행동에 신하들은 당황했지만 임금이 너무나 단호했기에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 5) 벼락 과거

‘정말 과거시험이 열렸나?’

한양에 도착한 이생원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커다란 방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오늘 과거시험이 열린다고 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벼락과거란 말인가?”

주변에 몰려 있던 선비들이 갑자기 열린 과거시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두 사람 말이 맞았군. 말을 듣길 잘했어.’

이생원은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과거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높은 벼슬은 아니라  
도 높은 부모님을 보살피려면 낮은 관직에서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중해서 꼭 합격하겠어!’

이생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장에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고 높은 벼슬아  
치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시험 문제를 펼쳤습니다. 이생원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문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성에서 나눈 간촌 이생원과 어느 선비와의 대화에 대해 쓰시오.”

이생원은 두 눈을 비비며 다시 한 번 문제를 읽어보았습니다.

‘간촌... 이생원이라면, 나잖아?’

시험장에 있던 선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하여 답을 써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기는 이생원도 마찬가지. 과거를 세 번이나 봤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며칠 전에 만난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  
다. 마침 문제를 낸 벼슬아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 과거시험 문제는 임금님께서 직접 내신 것이니, 떠오르는 일을 정성껏 쓰시오.”

그 말을 듣고 이생원의 입이 떠억 벌어졌습니다.

‘설마, 그 선비가.....’

잠시 동안 정신을 놓고 앉아 있던 이생원은 자세를 바로잡고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  
니다. 이생원은 그날 정자에 앉아 임금이 자신에게 물어보았던 것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성과 현릉원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다 보니 자신을 위해  
과거 시험을 연 임금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성심성의껏 글을 쓰고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생원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생원은 소원대로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수원에서 화성을 관리할 수 있는 관직을 얻었습니다.

■ 참고문헌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2000.

## 5. 광주 남한산성 -장경사를 짓게 된 사연

김 단 아

### 1) 남한산성에 사는 검단선사

옛날, 남한산성에는 검단선사라는 도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검단선사는 매일 산에서 명상을 하거나 도를 닦았습니다. 검단선사는 소나무들 사이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산지도 40년, 가끔씩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세상사는 이야기가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검단선사는 계곡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냇물은 퐁퐁 얼어붙었지만 검단선사는 얼음을 주먹으로 광 깨더니 손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퐁뎡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물속에 몸을 담고 있던 검단선사가 붉어진 몸을 하고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 이쯤에서 그만해야겠어.”

검단선사는 바위들이 우뚝 솟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위틈에 난 조그만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겨우 니울 수 있는 좁은 동굴이 검단선사가 머무르는 곳이었습니  
다. 젖은 옷을 벗어던진 검단선사의 손에는 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과 바둑을 두게 될까?”

검단선사는 바둑을 두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높고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바둑을 두곤 했지요. 그런데 높은 산세에 지나가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니다. 대부분 홀로 두는 경우가 많았지요. 사람들은 바둑을 두다가도 해가 지기 전에 금방 일어나곤 했습니다. 해가 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었지요. 검단선사는 홀로 두는 바둑에 익숙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바둑 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속에서만 사는 검단선사가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산을 좋아하는 검단선사는 마을로 내려가 사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네, 날씨가 추워서인가?’

검단선사가 바둑판을 접고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호, 누군가 오는군. 아주 잘됐어.”

검단선사는 기대에 찬 눈을 반짝거리며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바위 위에 앉아 있던 검단선사가 바위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나와 바둑 한 판 두고기슈.”

“으아악, 아악”

웃통을 벗은 채 갑자기 나타난 검단선사를 보고 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검단선사는 지나가던 사람이 열 살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꼬마라서 실망했습니다.

“너야 말로 왜 여길 지나가느냐?”

검단선사는 바둑을 두자고 할 사람이 안 나타나자 심통이 났습니다. 장이는 약초를 넣는 가방을 메고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이는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검단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한겨울에 웃통을 벗고 있는 사람이 신기해보여



말을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쓸데없이 호통을 치는걸 보니 산신령은 아닌 게 확실해보이고, 행색을 보니 속세를 떠나 산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약초를 캐는 중인데, 아저씨는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괜히 호통을 치죠?”

장이의 말에 검단선사는 힐끗 장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바위에 올라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이는 검단선사에게 자꾸만 말을 걸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는 장이였습니다. 끈질기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검단선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이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만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검단선사 옆에 놓인 바둑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저씨, 바둑 잘 두세요?”

장이의 말에 검단선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너 혹시 바둑 둘 줄 아느냐?”

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검단선사가 히죽거리며 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장이를 훌쩍 안아 바위 위에 앉혔습니다.

“나랑 바둑 한 판 두고 가거라. 내가 심심하던 참이야.”

장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단선사는 심심풀이로 꼬마랑 바둑을 둘 생각이었지만 장이의 실력은 예사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바둑만 두며 살아온 검단선사와 맞붙을 만한 실력이었으니까요.

“꼬마야, 너는 어디서 바둑을 배웠느냐, 꽤 잘 두는데?”

장이는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장이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둑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장이는 아버지와 바둑 둘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바둑을 둘 일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이긴 검단선사가 바둑알을 치우며 다시 두자고 할 때였습니다. 장이가 엉덩이에서 먼지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왜, 벌써 가려고? 한 판만 더 두고 가지.”

“빨리 가서 엄마 밥 차려드려야 해요.”

장이의 말을 듣자, 검단선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장이의 어머니는 몸이 아픈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장이가 엄마 밥을 차리겠지요. 검단선사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고 있는 장이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일도 올 테냐? 내일도 바둑 두러 오면 안 되겠어?”

장이는 검단선사를 보며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검단선사는 아쉬운 마음으로 바위에서 내려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바둑을 뒹 봤지만 장이와 두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검단선사의 실력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시시했습니다. 그런데 장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내일도 오면 좋으련만.’

## 2) 소년가장 '장이'

“어머니, 저 왔어요.”

장이가 집에 돌아오자 방문이 스스룩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니, 콜룩 콜룩.”

장이의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병세가 더 나빠졌지요. 게다가 얼마 전 의원에게서 써온 약을 먹고는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 싼 값에 약을 산 것이 잘못이었지요. 장이는 앞을 못 보게 된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에 직접 약초를 구하러 매일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장이는 얼른 밥상을 차려 어머니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밥을 떠서 어머니께 먹여드렸습니다. 밥을 받아 먹던 어머니가 갑자기 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구, 왜 이렇게 손이 차? 여태 약초를 구하러 다닌 거니?”

장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툭툭 떨어트리며 한참동안 장이의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약초를 구하러 나가지 말라고 했지요. 장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그치게 하려고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검단선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산에 갔다가 신기한 사람을 만났어요. 꼭 산신령 같았대구요.”

장이는 한겨울에 옷통을 벗고 있고 바둑을 좋아하는 검단선사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니는 장이가 해맑은 목소리로 기뻐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심성은 착한 것 같으니, 종종 동무가 되어주렴.”

어머니가 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장이는 어머니 밥을 차려드린 뒤에 산으로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약초를 많이 못 캐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캐야만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

장이는 검단선사를 떠올리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계곡물에 목욕을 한 검단선사가 소나무에 등을 부딪치며 기합을 질러댔습니다. 검단선사의 기합 소리에 놀란 새들이 짹짹거리며 여기저기로 날아갔습니다. 검단선사는 동굴에 저장해 놓았던 나무열매를 꺼내 먹으며 바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참, 그 꼬마가 오늘도 오려나?”

검단선사는 나가서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도록 장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 어디 한 번 찾아가볼까?”

맨발로 있었던 검단선사는 짚신을 찾아 신고 동굴에서 나섰습니다. 약초가 많이 있을 법한 곳은 검단선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 가면 분명 장이가 일을 테니 바둑을 한 판 두고 가라고 말해볼 작정이었습니다. 한참을 산을 헤매던 검단선사는 열심히 약초를 찾고 있는 장이를 발견했습니다.

“어이, 꼬마!”

“아이쿠, 깜짝아!”

장이는 갑자기 나타난 검단선사를 보고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맏돼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검단선사는 어제 본 장이를 다시 만나자 반가웠습니다. 장이도 실실거리며 웃고 있는 검단선사를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검단선사는 장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약초를 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이는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며 땅을 파헤치곤 했습니다.

“애야, 거기에 약초가 있을 것 같으나?”

검단선사의 말에 장이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약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장이는 어디에 약초가 많은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 헤매기만 했습니다.

“쯧쯧쯧, 이렇게 해서야 한 뿌리라도 찾을 수 있겠니?”

답답했는지 검단선사는 직접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장이는 그런 검단선사를 쫓아다니며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검단선사는 맨 손으로 차가운 땅을 파헤치더니 금방 약초를 찾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장이는 약초를 받아들고는 폴짝거리며 기뻐했습니다. 장이는 또 약초를 찾아달라며 검단선사의 옷자락을 잡아끌었습니다. 그때 검단선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약초 찾는 걸 도와줄 테니 너는 나와 바둑을 두는 거야.”

장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단선사가 약초를 찾아주면 혼자 찾는 것보다 빨리 캐 수 있으니 바둑 두기에는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검단선사는 장이와 바둑을 둘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검단선사가 꼭 집어 땅을 파헤치기만 하면 어김없이 약초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산에서 나물을 캐며 살아온 검단선사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지요. 장이는 한 가득 약초로 채워진 가방을 메고는 신이 나서 검단선사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울 엄마한테 이걸 다려주면 금방 낫겠어요.”

검단선사도 장이에게 도움을 준 것만 같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태어나서 누구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던 검단선사였습니다.

검단선사의 동굴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바위로 올라가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바둑을 두니 장이의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약초를 다려야 하니 내려가야겠어요.”

검단선사는 아쉽지만 장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장이만 기다리고 있을 장이의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내일 또 올 거지? 내일은 내가 더 많이 찾아주마.”

“우와, 정말요?”

장이는 검단선사를 향해 계속해서 손을 흔들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검단선사는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검단선사와 장이는 매일 약초를 캐고 바둑을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단선사는 장이와 바둑을 두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일부러 저주지 않아도 여러 번 질 만큼 장이의 실력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장이도 검단선사와 지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울 때도 재미있기는 했지만 검단선사와 두는 바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단선사 덕분에 약초를 많이 캘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좋은 약초를 매일 달여 드려서 그런지,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기침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장이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도 검단선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 3) 겨울이 지나가고 여름이 찾아오니

검단선사와 장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 우정도 깊어졌지요. 바둑을 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탓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이와 계곡에서 물싸움이나 할까?”

검단선사는 아침 운동을 마치고 휘파람을 불며 바위 위로 올라가 장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동안 명상을 하던 검단선사가 문득 눈을 떴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위에서 내려와 장이가 올라오던 길을 천천히 내려가던 검단선사는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내일은 오겠지.’

검단선사는 아쉬운 마음을 접은 채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장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장이가 산으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던 검단선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검단선사는 어린 장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검단선사는 간단한 짐을 챙기고 그동안 쓴 일이 없던 삿갓을 눌러 썼습니다. 40년 전, 산에 올라올 때 썼던 삿갓이었습니니다. 막상 마을로 내려갈 생각을 하니 검단선사의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단선사는 산으로 올라올 때 죽기 전까지 다시는 세속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산 속에서 장이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니다. 예의 바르고 명랑했던 장이가 말도 없이 떠났을 리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니다.

검단선사는 마을에 도착해 마을 사람들에게 장이의 집을 물어 겨우 찾아냈습니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지붕이 위태로워 보이는 집에 들어서니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니다.

“콜록, 장아, 너라도 어서 먹으렴. 엄마는 밥을 넘기기도 힘들구나.”

“어머니, 걱정 마시고 드세요. 제가 어떻게든 약초를 구해올 테니.”

장이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았습니니다.

“장아.”

검단선사의 목소리를 들은 장이가 문을 열고 땀을 달러 나왔습니니다.

“아저씨,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장이가 검단선사를 보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니다.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흑흑.”

장이는 검단선사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니다. 장이의 어머니도 앞은 볼 수 없지만 장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니다. 검단선사는 장이의 사정이 딱해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니다. 검단선사는 마을에 있는 유명하다는 의원을 찾아 장이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니다.

“쫓쫓, 이미 늦었습니니다. 회복되기는 힘들겠습니니다.”



의원이 어머니의 진맥을 짚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이는 의원에게 매달려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의원은 마당으로 검단선사와 장이를 불러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추와 꽃감을 다려서 먹이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추와 꽃감이요?”

장이는 눈물을 멈추고 의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여름에 대추와 꽃감을 구할 수가 없구나, 안됐지만 마지막을 편안히 가시게 해 주거라.”

의원의 말에 장이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여름에 대추와 꽃감을 어디서 구한담, 흐흫.”

#### 4) 대추와 꽃감을 찾으러 떠나다

검단선사는 하루 종일 울어대는 장이가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장이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아, 괜찮느냐?”

장이는 검단선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해맑던 장이는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장아, 네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있긴 해. 내가 대추와 꽃감을 구해 오마.”

검단선사가 장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장이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더니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구하러 간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머니가 그사이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검단선사는 장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대추와 꽃감을 찾아오겠다

고 말했습니다. 검단선사는 오랫동안 무술을 연마하여 축지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빨리 걸을 수 있고 높은 산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지요.

“북쪽에 가면 분명히 대추와 꽃감이 있을 거야. 내가 축지법으로 서둘러 다녀오면 돼.”

장이가 검단선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도와주려는 마음에 고마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북쪽으로 무작정 검단선사를 보내는 것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있으렴, 꼭 약초를 찾아올 테니.”

장을 안심시킨 검단선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빨리 북쪽에 가서 약초를 찾으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이의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장이가 집을 나서는 검단선사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저씨, 꼭 약초를 구해 오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 돌아와서 어머니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꾸나.”

검단선사는 그동안 산 속에서 연마했던 축지법을 사용하여 바람과 같은 속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힘들어도 장이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잠시라도 쉬 수가 없었습니다.

몇날 며칠을 달린 검단선사가 드디어 북쪽에 있는 묘향산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검단선사는 온 산을 뒤져 대추와 꽃감을 찾아냈습니다. 검단선사는 대추와 꽃감을 한 아름 담은 가방을 메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대추와 꽃감을 보고 기뻐할 장이를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났습니다.

“장아, 조금만 기다려.”

검단선사는 계곡물로 대추 목을 적시고 난 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오일 동안 달린 끝에 드디어 검단선사는 장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헉헉, 드디어 도착했군. 빨리 이 대추와 꽃감을 달여야 돼.”

해가 솟듯 여러 색의 깃발이 언덕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용골대는 무성한 콩잎 위로 허리를 폈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와 육척이 넓은 덩치를 쭉그리고 발을 매자니 여기저기 좁이 쭈시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용골대는 언제쯤 콩밭을 빠져나갈까 궁리하며 아내의 눈치만 보던 차에 이때다 싶어 허리춤을 올렸습니다.

“어딜 가려고요?”

아내의 말 끝이 올라갔습니다.

“평양감사 얼굴 좀 보려고.”

툭 던지듯 내뱉은 말투에는 말리 떤면 말려봐 하는 오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감사를 태운 가마가 언덕 위로 보였습니다. 가마 뒤에는 비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평양감사 얼굴은 봐서 뭐하게요. 평양감사 얼굴을 보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 시간에 밭을 매면 콩이 더 주렁주렁 열리겠네. 어이고 내 팔자야. 저런 사람은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평양감사를 나가나?”

“그놈의 평양감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팔자타령이야?”

용골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쇠호미도 아니고 나무호미로 콩밭을 매는 주제에 평양감사를 우습게 봐요?”

용골대의 아내도 지지 않고 나무호미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용골대는 피가 얼굴로 쏠린 것 같았습니다. 씩씩거리는 소리가 양다문 입 사이로 나왔습니다. 두 어깨가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불을 뿜은 용골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용골대는 나무호미를 던지며 평양감사 행렬로 달려갔습니다. 비장과 병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요. 영감님을 만나야 하니까.”

용골대는 자신을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했습니다.

“영감님!”

용골대는 소리 높여 평양감사를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게냐.”

평양감사는 비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어떤놈이 영감님을 뵈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간이 얼마나 큰 놈인지 확인하게 데려 오너라.”

평양감사 가마 앞으로 달려든 용골대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영감님! 저를 임시비장으로 써 주십시오.”

평양감사는 용골대를 바라봤습니다. 육척이 넘는 장신에 떡 벌어진 어깨를 보니 무장으로 서 뚫은 다져진 듯 했습니다. 무작정 자신에게 달려들어 임시비장으로 써달라는 것을 보면 담력도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장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

“감사 영감을 따라다니며 보필하는 일입지요.”

대답하는 품이 그까짓 것도 모르면서 임시비장을 자청했겠냐는 듯했습니다. 평양감사는 용골대가 꽤 쓸만해 보였습니다.

“임시비장 자리는 비장들 뒷자리다”

용골대는 눈치껏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 5) 장경사를 짓다

“장아, 장아, 내가 왔다!”

검단선사는 기쁜 마음으로 장이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이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검단선사가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집안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검단선사는 방문을 열어 재겼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검단선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장이의 어머니를 진찰했던 의원을 만났습니다. 검단선사가 의원에게 장이와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말하자 의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이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다네. 장이는 꽤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떠나버렸다네. 어디 갔는지 나도 모르겠네.”

검단선사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검단선사는 장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단선사는 그 곳에서 머무르며 몇 달 동안 장이를 기다렸지만 장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단선사는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산 여기저기에 장이와 함께 지냈던 추억이 새어 있었습니다. 검단선사는 동굴로 들어가 장이와 함께 두었던 바둑판을 매만졌습니다. 검단선사는 그동안 장이와 지냈던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검단선사는 한동안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바람이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검단선사의 머리 카락은 어느덧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어있었고 얼굴도 몰라보게 험쭉해져 있었습니다.

‘장이가 돌아온다면 이 산으로 꼭 돌아 올 거야.’

검단선사가 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를 베고 땅을 다지면 꽤 넓은 평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검단선사는 장이와 함께 바둑을 두던 바위 옆에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절을 지은 검단선사는 드디어 절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장경사라고 지었습니다.

- 남한산성의 동문에서 동쪽을 따라 걷다보면 사찰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찰이 바로 장경사입니다. 남한산성을 지을 때 함께 지어진 이 절에는 검단선사와 한 소년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검단선사는 한 소년을 위해 절을 지었고 죽을 때까지 그 소년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이야기랍니다

## 6. 문수산성 - 평양감사와 용골대

김명옥

### 1) 용골대, 평양감사 임시비장 되다

쟁~에앵

바리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양감사 나가신다.”

포졸이 바리를 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평양감사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해가 솟듯 여러 색의 깃발이 언덕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용골대는 무성한 콩잎 위로 허리를 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육척이 넓은 덩치를 쭉그리고 발을 매자니 여기저기 쭈시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용골대는 언제쯤 콩밭을 빠져 나갈까 궁리하며 아내의 눈치만 보던 차에 이때다 싶어 허리춤을 울렸습니다.

“어딜 가려고요?”

아내는 김새를 찻는지 말 끝이 올라갔습니다.

“평양감사 얼굴 좀 보려고.”

툭 던지듯 내뱉은 말투에는 말리 테면 말려봐 하는 오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감사를 태운 가마가 언덕 위로 보였습니다. 가마 뒤에는 비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평양감사 얼굴은 봐서 뭐하게요. 평양감사 얼굴을 보면 밤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 시간에 밭을 매면 콩이 더 주렁주렁 열리겠네. 어이고 내 팔자야. 저런 사람은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평양감사를 나가나?”

“그놈의 평양감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팔자타령이야?”

용골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쇠호미도 아니고 나무호미로 콩밭을 매는 주제에 평양감사를 우습게 봐요?”

용골대의 아내도 지지 않고 나무호미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용골대는 피가 얼굴로 쏠린 것 같았습니다. 씩씩거리는 소리가 양다문 입 사이로 나왔습니다. 두 어깨가 급하게 울



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불을 뿜은 용골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용골대는 나무호미를 던지며 평양감사 행렬로 달려갔습니다. 비장과 병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요. 영감님을 만나야 하니까.”

용골대는 자신을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했습니다.

“영감님!”

용골대는 소리 높여 평양감사를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게냐.”

평양감사는 비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어떤놈이 영감님을 뵈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간이 얼마나 큰 놈인지 확인하게 데려 오너라.”

평양감사 가마 앞으로 달려든 용골대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영감님! 저를 임시비장으로 써 주십시오.”

평양감사는 용골대를 바라봤습니다. 육척이 넘은 장신에 떡 벌어진 어깨를 보니 무장으로 서 몸은 다져진 듯 했습니다. 무작정 자신에게 달려들어 임시비장으로 써달라는 것을 보면 담력도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장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나?”

“감사 영감을 따라다니며 보필하는 일입지요.”

대답하는 품이 그까짓 것도 모르면서 임시비장을 자청했겠냐는 듯했습니다. 평양감사는 용골대가 꽤 쓸만해 보였습니다.

“임시비장 자리는 비장들 뒷자리다”

용골대는 눈치껏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 2) 용골대, 평양감사 측근이 되다

평양감사 행렬은 여러 고을을 지났습니다. 어느 고을에서는 젊은 사람은 구경조차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 서너 명이 당산나무 아래에서 파리를 쫓으며 자울자울 거리고 있었습니  
다. 그 옆에는 갓난아이가 흙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의 발목에는 끈이 매여  
져 있었습니다. 끈이 팽팽해지자 칠십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허리는 몹시 구부러져서 아이를 안아 올리기에는 힘이 부쳐보였습니다. 용골대는  
아이를 버쩍 들어 돛자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수.”

“애 엄마는 어디 갔습니까?”

“품 팔러 갔지. 내가 꾸물거릴 수 있을 때 품이라도 팔게 애를 봐줘야지.”

할머니는 뼈만 앙상한 손으로 용골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닿  
는 곳은 마치 가마떼기를 잡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짓무러진 두 눈에는 눈곱이 붙어 있  
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하면서도 힘이 든 듯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용골대! 빨리 오지 않고 뭐해.”

비장이 행렬에서 빠져나간 용골대를 못 마땅한 듯 불렀습니다.

“갑니다. 가요.”

용골대는 발을 재게 놀리면서 한시도 틈을 안 준다고 구시렁거렸습니다.

평양감사 행렬은 작은 고을과 큰 고을, 그리고 변화한 고을을 지나서 평양관청에 도착했습  
니다. 평양감사는 관청에 도착하자마자 비장들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평양까지 오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말씀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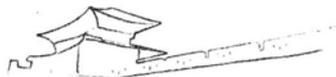
“무엇이든 네가 본 것을 말해 보아라.”

비장은 머뭇머뭇 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말이며 소 닭 등을 봤습니다.”비장들의 말은 한결 같았습니다.

“임시비장을 들라하라.”

용골대는 평양감사의 부름을 받고, 뭐 잘못된 것이 있나 되짚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행렬에서 빠져 나와 할머니에게 아이를 데려다준 것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임시비장



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용골대는 평양감사의 물음에 잠시 멍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나 말이야?”

용골대는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밖에 만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봤습죠.”

“사람?”

“나 같은 무지랭이 농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은 사기꾼도 보고요.”

“사기꾼?”

“지난번에 큰 고을을 지날 때 잠시 쉴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인은 장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닭싸움이 벌어지려는 참이었습니다. 소인은 닭싸움이 궁금했지만 정해진 시간 때문에 다른 것을 구경하려고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때 눈이 찌진 사람과 턱수염이 유난히 많은 사람 둘이서 검은 닭에게 무엇인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닭싸움에 이기려면 힘을 내야 하니까 먹이를 주는 줄 알았지요. 소인은 시장을 구경하면서도 닭싸움이 보고 싶어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닭싸움 장으로 갔습죠. 닭싸움 장에는 검은 닭과 붉은 닭이 있었습니다. 닭 주인은 눈이 찌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마리 다 힘이 세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검은 닭과 붉은 닭을 골라 돈을 걸자 구경꾼들 사이에 있던 털보가 갑자기 검은 닭이 힘이 더 세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검은 닭에 열 냇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닭에 돈을 걸었던 사람도 검은 닭에게 돈을 걸었습니다. 붉은 닭에 돈을 건 사람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닭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닭과 검은 닭 중 어느 쪽이 힘이 더 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검은 닭이 갑자기 힘을 못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닭이 이겼고, 검은 닭에 돈을 건 사람들은 몽땅 돈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두 사람이 싸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낸 것 같습니다요.”

평양감사는 용골대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평양감사는 비장들이 자신의 귀와 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말이나 소의 이야기였고, 사람 사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평양감사는 용골대를 항상 곁에 두고 이것저것을 묻곤 했습니다.

### 3) 용골대의 활약

용골대가 평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땅을 향했습니다. 논과 밭에는 동동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차 있었습니다. 용골대는 밭에서 두고 온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아내도 콩을 거둬들이느라 혼자 애쓰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골대는 조만간 집에 한 번 다녀오리라 마음먹고 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큰일이 생겼는데.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녀. 감사 영감이 찾으시니 얼른 가보게.”

이방이 용골대를 재촉했습니다. 감사의 집무실에는 비장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다 말인가?”

평양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용골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움찔했습니다.

다른 비장들도 이마를 더 낮추었습니다. 용골대는 옆에 있는 비장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말달리기 내기를 하자는 거야. 보나마나 뻔하지. 말달리기 내기를 하면 우리보다 말을 많이 타는 그들이 우세할 것 아니야. 말도 안되는 내기를 해서 뭔가 뜯어내려는 속셈이겠지.”

비장의 말을 듣는 용골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평양감사가 용골대를 바라봤습니다.

“임시 비장에게 비책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뭘 그리 걱정을 한다요.”

용골대의 말에 평양감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물건 값을 흥정하는 시장 바닥인줄 아느냐?”



서슬 퍼런 평양감사의 말에도 용골대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짓달 얼음 위에서 내기를 하자고 그러십시오.”

“마른 땅에서도 이길까 말까 한 내기를 얼음 위에서 하자고?”

“소인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저를 한 번 믿어주십시오.”

“허튼 수작이라면 네 목숨을 내 놔야 할 것이다.”

용골대는 그때부터 대장간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용골대가 만들기 시작한 것은 대장장이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상하게 생긴 물건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어디에 쓸 거냐고 물으면 용골대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뭇잎은 떨어졌습니다. 풀잎은 빛을 잃은 채 바람에 서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옷 속으로 파고든 바람은 선득선득했습니다. 대동강 물이 땡땡하게 얼었습니다. 내기 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강가에는 많은 사람이 구경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입김이 모락모락 올라갔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내기에 참가한 중국 사람들이 말에 썩은 천을 벗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잘 생각하고 튼튼한 말은 처음 본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젖구나 젖어 하는 말도 들렸습니다. 털은 반지르르하게 윤기가 났습니다. 말 다리 하나가 기동만 했습니다. 한 눈에 봐도 좋은 말이었습니다.

평양감사도 걱정이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호마(좋은말)를 어찌 이긴단 말인가?”

“감사 어른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용골대는 끝까지 비책을 말하지 않고 중국의 호마가 서있는 옆으로 말을 세웠습니다. 말은 빼지빼지 말랐습니다. 말의 다리는 사람이 타면 곧 부러질 듯 가늘었습니다. 보나마나 한 승부였습니다. 혀를 차며 이내 발길을 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수가 말에 올랐습니다. 깃발을 내리면 출발해서 저편에 갔다 먼저 되돌아오는 말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내렸습니다.

타타타타 말이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되돌아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힐끗 쳐다보고는 그대로 멈춰섭니다. 얼음 위를 달리는 말은 비쩍 마른 조선의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호마는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용골대에게 물었습니다. 용골대는 말이 되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말 다리를 올려보였습니다. 말굽에는 쇠로 만든 것이 붙어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내기에 지면 무엇을 내 놓으라 할지 조마조마 했는데. 네가 날 살렸구나.”

평양감사는 흐뭇해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국에서 또 다른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동아줄 태운 재를 북경까지 그대로 옮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센 한 겨울에 동아줄 태운 재를 모양 그대로 북경까지 옮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양감사는 중국에서 불가능한 제안만 해 오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요.”

용골대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평양감사는 용골대가 보여준 지략이 있었기에 믿기로 했습니다.

“큰 달구지와 달구지에 실을 두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평양감사는 용골대가 말하는 대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만드니 달구지와 두영은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용골대는 동아줄을 두영에다 틀어넣어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조선이 꼼짝없이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를 톱시다.”

중국의 태수가 말을 하자 용골대는 평양감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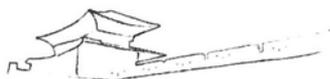
“여태껏 기다려 주셨으니 한 식경만 더 기다려 주시지요.”

평양감사는 화톳불을 가지고 두영에 불을 놓았습니다.

타다타탁

잘 마른 벼짚으로 꼬인 동아줄은 마른가지에 장작불 붙듯 활활 타들어 갔습니다.

그럴수록 태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트집을 잡아 조선을 침략하려는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 4) 용골대, 중국의 도원수가 되어 조선을 침략하다

중국의 태수는 내기의 지략을 편 사람이 용골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골대에게 은근히 접근했습니다.

“조선은 한 번 천민이면 평생 천민인데 중국은 능력만 있으면 도원수가 될 수 있소. 이곳에서 나와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소?”

용골대는 솔깃했습니다. 조선에 가면 평생 밭이나 갈며 살아야 하고 임시비장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 중국에 남는다면 천민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나라에서는 위기를 모면한 평양감사를 내직으로 불렀습니다. 평양감사 일행은 짐을 꾸렸습니다. 용골대도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문득 평양감사를 부러워하며 팔자타령을 하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내로 태어나 자신도 한번쯤 호령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용골대는 짐을 풀고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평양감사 일행이 중국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조선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 남은 용골대는 도원수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용골대는 안동성에서 때를 기다렸다 문수산성을 향했습니다. 진을 치고 싸움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군사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문수산성에는 홍길동 같은 신명을 부리는 장수가 있어서 혼자서 군사를 다 상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이길 도리가 없으니 철수해야 합니다.”

“내가 천기를 읽는 것은 너희도 알 것이다. 신명을 부리는 장수가 있어도 내일은 우리가 유리하니 군사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전해라”

부관은 용골대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용골대를 잘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목소리의 흔들림을 부관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용골대의 말을 전할 때 부관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용골대는 새벽에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군사의 이동을 가려주고, 조선의

군사들은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용골대는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성벽에 사다리를 갖다 대었습니다. 군사들인 하나 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군사가 사다리 중간쯤 오를 때였습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사다리들이 순식간에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어서 펄펄 끓은 기름이 쏟아지더니 불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불덩어리가 된 군사들이 뒤굴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당한 중국 군사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매복을 하고 있던 조선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중국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다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용골대는 군사들에게 싸우라고 다그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용골대의 말이 군사에게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군사를 붙잡느라 전장을 누비는 용골대에게 불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삼십 간에 불이 갑옷을 태웠습니다. 용골대는 땅에 뒤굴며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너울거리는 불길 너머로 조선의 장수를 봤습니다. 조선의 장수는 자신이 모시던 평양감사였습니다.

■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평양감사와 용골대」, 『한국구비문학대계 1-7』, 정신문화연구원, 539~540.

<http://yoksa.aks.ac.kr>



## 7. 북한산성 -효자리의 박효자

김명옥

### 1)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몇 전만 깎아 주구라.”

비단 천을 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몇 푼이나 남는다고 깎아 달래요.”

점원의 대구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골한테 몇 푼도 못 깎아줘?”

“단골이니까 싸게 팔아서 이문이 없어요.”

점방 안에는 물건을 에누리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매일 반복 되는 소리입니다. 점방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박씨 점방은 종로통에 있습니다. 종로통은 사대문 안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종로통은 물건을 파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사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나무 판에 붓글씨로 박씨 점방이라고 써 놓은 간판 아래로 들고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네거리에 있는 데다 크고 없는 물건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도 있고, 여인네들이 좋아하는 연지와 분도 있고, 화려한 비단도 색색으로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서양에서 건너온 물건들이 따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양물건 진열장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물건 값을 에누리하는 곳은 항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점방에는 점원이 여럿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쌀같은 무거운 물건을 배달해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헉헉 주인어른.”

집에서 잔심부름 하는 아이는 숨을 고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방 주인은

점방과 집안일 나눴습니다. 집 안 사람들에게는 급한 일이 아니면 점방에 오지 못하게 했고, 점원들에게는 집 안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점방에 오는 것을 보면 급한 일이 일어난 듯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나.”

책상 앞에서 장부를 보고 있던 점방 주인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큰 어른이 쓰러지셨어요.”

큰 어른이라는 말이 아이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박태성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부를 꺼내느라 돈을 넣어 둔 서랍도 그대로 둔 채 뛰어갔습니다. 집은 같은 종로통에 있었습니다. 십 여분 정도를 달리자 집으로 들어서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점방과 집의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아버지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이 되 돌아보며 손을 입에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원은 환자의 맥을 짚어보더니 상투를 풀고 머리 중앙에 침을 놔습니다. 얼굴과 손과 발에도 신중하게 침을 놔습니다. 침을 놓고, 기다리는 일이 한 없이 길었습니다. 어떤 침은 놓자마자 곧바로 빼는 침도 있었지만, 어떤 침은 한 시간이 넘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따라 침이 흔들렸습니다. 약하게 흔들릴 때도 있고, 흔들리는 간격이 길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박태성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붕들 사이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후유~”

의원은 깊은 숨을 내 쉬었습니다. 침놓는 일에 집중하던 터라 긴장을 푸는 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침구를 챙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네. 기다려 보는 수밖에...”

의원의 눈은 집주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눈빛을 보내며 자리를 뒀습니다. 박태성은 의원을 배웅한 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약간의 움직임만 있더라도 알 수 있도록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촛불이 간혹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창에 비친 박태성 그림자도 흔들렸습니다.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푸우”

긴 한 숨과 같은 소리가 아버지 입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숨이 막혀있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박태성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의 온기를 느꼈는지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태~성아”

입술 사이로 겨우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태~성 ~아!”

아버지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겨우 움직였을 뿐 이었습니다.

“아버님, 나오시거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박태성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버님~.”

조용한 새벽에 태성이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박태성은 아버지가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칠십이 넘은 연세에도 자신보다 부지런 하셨습니다. 집 안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당을 손수 쓸어내곤 하셨습니다. 자신이 마당을 쓸겠다고 하면 점방일로 고단할 터이니 더 자라며, 늙은이는 새벽잠이 없어서 소일거리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꼬박꼬박 한 그릇씩 비우고, 손자들과 바둑을 두며 이것저것 세상일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박태성은 아버님의 건강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니 너무 큰 불효였습니다. 박태성은 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곡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큰일 난다고 했지만, 박태성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대문밖의 산자락에 모시고 온 다음날부터 박태성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의 일을 아버지의 묘소를 다녀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룡을 쓰고 질척거리는 땅을 밟고 가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눈이 와서 미끄러져 다리를 접 질러도 절뚝거리며 아버지께 다녀와야 점방일도 보고 집안일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도, 점방일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어른 중국 비단이 떨어 졌는데 어떡할 갑쇼?”

“그럴 리가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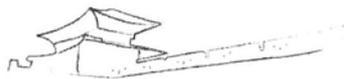
이런 일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박태성은 필요한 만큼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가을철이라 혼인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비단천이 가장 많이 팔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태성은 철에 따라 필요한 만큼을 미리 구입해 놔다가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매일 아버지 묘소에 찾아다니면서부터는 시간에 쫓기어 제대로 장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점방에 신경을 못 쓰니 점원들도 주인 눈치를 보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먼지가 쌓였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씨 점방을 찾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박태성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을 그만 둘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이 아버지를 보고 오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2) 박태성, 호랑이를 만나다

박태성은 그날도 어김없이 4시에 일어나 옷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저벽저벽 창의문을 나섰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라 눈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창의문을 지나니 집들도 띄엄띄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 냄새를 아는지 개들도 짚지 않았습니다. 박태성은 영천마을 지나 무악재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악재는 아름다리나 무가 빼곡히 차있었습니다. 새벽 산중이라 캄캄하지만, 하늘의 별을 길동무 삼아 걷다 보면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악재는 캄캄했습니다. 나뭇잎사이로 종종한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었습니다. 박태성이 이리 가면 이리 와서 막고, 저리가면 저리 가서 막으면서 길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아버님께 인사하러 가는 길인데 어쩌서 못 가게 방해하느냐?”

그러고 나서 박태성은 통곡했습니다.

“나를 죽이려느냐?”

박태성이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말을 알아듣고는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네가 나를 데려다 주려는 것이냐?”

박태성이 다시 물으니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박태성은 무서웠습니다. 사납기로 이름난 짐승을 만난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 등을 타는 일은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으면 진즉 죽였을 것 같았습니다. 박태성은 마음을 다 잡고 호랑이 곁으로 갔습니다. 호랑이에게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호랑이 등에 타려고 털을 움켰습니다. 털이 부드러웠습니다. 박태성은 손에 힘을 주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출렁거렸습니다. 박태성은 떨어지지 않게 호랑이 등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호랑이가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박태성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마치 박태성이 어디에 가는 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의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태성은 호랑이 등에서 내려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보이십니까.”

박태성은 호랑이를 쳐다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저를 태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박태성 곁으로 다가와 등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타라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성은 호랑이 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왔던 것처럼 호랑이 등에 엎드렸습니다.

아직도 날이 새려면 멀었습니다. 호랑이는 무악재를 지나 창의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

고는 내리라는 듯 몸을 낮췄습니다. 박태성이 내리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태성은 집으로 돌아와 자기 불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꿈을 꾸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점방일도 집안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다음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창의를 지나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타라는 듯 몸을 낮췄습니다. 박태성은 호랑이 등에 올라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태성은 매일 같이 호랑이를 타고서 아버지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호랑이를 타고니 그 만큼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방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처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박씨 점방에는 예전처럼 필요한 물건들이 짝 찼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물건 값을 깎으려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점방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 3) 호랑이, 박태성 묘 옆에 묻히다

매일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호랑이를 타고 아버지를 뵙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 날이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새벽 4시가 되자 박태성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바닥이 자꾸 몸을 끌어당긴 것 같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찬바람이 옷과 몸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덜덜덜 떨다보니 이와 이사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불덩이였습니다.

그때 먼 곳에서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그 소리를 들은 박태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한사코 말렸습니다.

“산 짐승이 내려 왔나 봐요. 범도 무섭고 몸도 성치 않으니 오늘은 쉬세요.”

“저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요.”



“잘 못 들으신 거예요. 저 소리는 범 소리예요.”

부인은 남편이 열이 높아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부르는 소리가 맞소.”

그러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부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집마다 호랑이가 포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태성과 그 부인밖에 없었습니다.

박태성은 그날부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날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를 올리려고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짐채만한 호랑이가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박태성 부인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여러 사람이 다쳤을 것 입니다. 호랑이는 계속해서 박태성의 묘 주위를 돌면서 날뛰었습니다. 처음에 도망갔던 사람들도 이상히 여기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호랑이는 묘 주위만을 뱅뱅 돌며 날뛰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 고꾸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니 희귀한 일도 다 있네 그려.”

“그러게 말이여. 이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모르겠네.”

“혹시 저러다 벌떡 일어나 우리한테 덤벼드는 것 아니여.”

여기저기에서 내뿜는 소리였습니다. 박태성 부인이 그런 소리를 뒤로 하고 호랑이에게로 갔습니다. 호랑이이 코에 손을 대봤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숨이 끈긴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호랑이 몸에 손을 얹고 토닥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호랑이와 박태성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 시체를 박태성의 묘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박태성의 묘가 있는 근처 마을을 효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박태성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 대궐 안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님은

박태성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말하고 박태성의 묘 옆에 사당과 효자문을 세우게 했습니다. 북한산성 자락에는 지금도 박태성의 묘가 있습니다.

■ 참고문헌

정동일, 「효자리의 박효자」, 『고양지명유래담집』, 고양문화원, 1991.

## 8. 북한산성 - 노적봉과 밥 할머니

김명옥

1) 조·명 연합군 평양성을 되찾고 한양으로 진군하다

“하하하 왜놈들 달아나는 꼴이라니.”

조·명연합군의 총사령관 이여송이 마치 재미난 구경을 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연합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옆에 있던 조선군의 총사령관 도원수 김명원 장군도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한 달음에 한양을 되찾으려 갑시다.”

이여송의 말에 김명원은 조심스러운 낯빛이 되었습니다.

“장군, 군사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량미며 전투복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군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명군은 압록강을 건넌 후 한 번도 쉬지 않고 전투를 치렀습니다. 군사를 재정비할 겸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한양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평양성을 되찾은 지금 뭘 망설이오. 사기가 가장 높은 지금이야 말로 쉽게 한양도 되찾을



수 있소. 지금 길을 떠나지 않으면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오.”

이여송은 김명원이 한양 진군을 막지 못하게 못 박았습니다. 김명원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한양을 되찾고 왜놈을 조선에서 내모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를 재정비 하지 않고 전투를 치르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명나라에게 있는 이상 조선의 장군은 이여송 장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출발하라는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깃발의 펄럭이는 소리가 십리 밖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바람이 맴찼습니다. 깃대를 든 손이 험겍으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험겍이 미처 닿지 못한 손가락 끝은 빨갳다 못해 시퍼래졌습니다. 얼굴도 같은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은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연합군은 지쳐갔습니다. 더구나 명나라군은 원군을 떠난 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더 지쳤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명군은 틈만 나면 조선백성의 양식과 의복을 약탈했습니다.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왜놈들보다 되놈들이 더 무서워.”

조선의 지휘관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귀로 흘려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명군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군은 오히려 떳떳하게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합군은 점점 한양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일본군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일본군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군은 연합군을 보고 싸우는 척 하다가 달아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김명원장군은 일본군의 행동을 보고 미심쩍어 이여송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말이오?”

“적군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명원 장군은 너무 경계심이 많소이다. 일본군은 우리 연합군의 숫자와 사기를 보고 달아난 것이요.”

김명원 장군은 아무래도 꺼림칙했습니다.

“조선의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여송 장군은 김명원 장군의 말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전투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요, 그리고 연합군 총사령관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 2) 적군의 매복에 걸려들다

김명원 장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연합군은 기병대를 앞세워 벽제의 솥돌고개에 접어들었습니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산새가 제법 깊었습니다. 겨울산은 잎을 떨군 나무들만 있어서 제 살을 들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솥돌고개 주변 산은 제 살을 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워낙 뻥뻥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 뒤에 버티고 있는 큰 산의 그늘이 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 낮인데도 어둡침침했습니다.

솥돌고개만 지나 반나절만 가면 한양이었습니다. 군사들 절반이 솥돌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탕.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연합군이 미처 어디서 난 소리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산골짜기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포병지원을 받지 못한 연합군은 삼시간에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적군은 보이지 않은 채 총알만 비가 오듯 쏟아졌습니다. 총알을 피해 죽은 동료 뒤로 숨어보지만,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연합군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여송은 일본군의 작전에 말려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군은 달아나는 척 하면서 연합군을 솥돌고개로 유인했던 것입니다. 이여송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군은 개성으로 달아나기도 하고, 인근의 북한산으로 피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군의 완패였습니다. 북한산으로 피난한 연합군은 노적봉 밑에 집결했습니다. 일본군은 북한산 밑에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연합군은 뒤에는 산이 가로 막혀있고 앞으로는 일본군이 진을 치고 있어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여송은 장수들을 소집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지요.”

이여송은 한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적에게 투항해서 목숨을 구할 것인가 길은 두 갈래 뿐이지요.”

이여송의 말에 아무도 답하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한숨만 쉴 뿐 누구하나 뾰족한 방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원수 김명원이 고개를 돌려 장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길은 또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가 수세에 몰려 있다고 방심한 틈을 타서 총 반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적군의 기세는 등등 할 것이지요. 우리 군사로는 어렵도 없는 일이지요.”

“총공격을 하면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는 일로 목숨을 잃을 수 없소.”

명나라의 장수 중 한 명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혈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흠어진 병력을 재정비하고 패전의 수치를 씻을 수 있습니다.”

김명원이 장수들에게 열심히 설득했으나 그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는 장수는 없었습니다.

“장군의 말은 맞으나...”

이여송은 말하기 전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김명원의 말을 무시해서 패주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여송은 침통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번의 격돌로 아군은 많은 병력을 잃었소. 반면에 적군은 의기양양해 있을 것이지요. 총공격을 한다면 혈로를 뚫기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지요.”

김명원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장수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김명원은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 3) 밥할머니가 지락을 펼치다

“안된다니까요. 어서 내려가세요.”

몇 명의 병사들이 한 노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한 번 빙게 해주오. 할 말이 있다니까.”

노파는 병사들의 말에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한가하게 할머니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날 어둡기 전에 얼른 내려가시라고요.”

병사의 말 속에 짜증이 묻어있었습니다. 실랑이를 벌인지 오래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나?”

김명원 장군이 물었습니다.

“웬 노파가 장군님을 찾고 있습니다.”

군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초라한 노파가 머리에 함지를 이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솟돌고개 남쪽의 진거리에서 밥장사를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팔면서 연합군이 고립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는디요.”

“나는 부탁을 들어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오. 전투에서 패전해서 쫓기고 있는 것이 안 보이오.”

장군은 노파가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비책이 있는디...”

그리고는 장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노파의 말을 들은 장군의 얼굴은 점차로 밝아졌습니다. 막사로 들어선 김명원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위망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해 어두운 얼굴로 막사를 나갔는데 밝은 낮으로 막사에 들어서자 모두들 의아했습니다. 김명원은 이여송에게 밥할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밥할머니의 계략이 전



해지자 막사의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장졸들에게도 순식간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여송도 크게 기뻐하며 장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처 마을에 내려가서 있는 대로 짚단을 가져오도록 하라.”

장졸들은 며칠 동안 굶주렸지만 힘이 났습니다. 이 계략만 먹힌다면 살아서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희망때문이었습니다. 장졸들은 짚단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짚단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산봉우리 같아보였습니다.

짚단이 쌓이고 나자 이여송은 냇물에 횃가루를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노적봉 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장수들은 연합군과 싸울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겨울이라 몹시 추웠습니다. 진을 치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싸움이라 여겼습니다. 무기를 낭비하며 싸우지 않아도, 연합군은 군량미가 떨어지면 굶주림에 죽거나 산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장군! 이상합니다.”

일본군 총사령관 막사에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이 말이나?”

“냇물이 뿌영습니다.”

포병의 장수가 말을 했습니다.

“물을 마신 자들이 배를 움켜지고 뒹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병대의 장수가 말을 했습니다.

#### 4) 일본군이 물러가다

일본군 막사에 불길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자 군사들은 하나 둘 냇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움켜지며 뒹구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장수들의 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목마름을 참지 못한 한 병사가 몰래 물을 마시려고 산골짜기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노파가 머리에 함지를 이고서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노파를 붙잡아 총사령관에게로 갔습니다.

“할멈이 산에서 내려오는 중이라고 들었소?”

“그렇소.”

노파는 일본군 총사령관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산 중에는 연합군이 있소. 혹시 할멈이 연합군 꼬나풀 아니오?”

“일본군이든 연합군이든 우리 같은 민초들에게는 무슨 상관이라고요. 우리는 그저 밥 세끼 배부르게 먹고 등 따스면 되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로 산에는 들어 간 거요?”

“등 따스게 할려면 나무를 해야지. 불을 땠 나무가 있으면 뭐 하러 이 추위에 산에 갔겠소.”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노파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뭐냐?”

일본군 총사령관은 노파가 이고 온 함지를 가리켰습니다. 노파는 얼굴에 고랑을 만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군인들이 준 쌀 인디요. 자기들은 쌀이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퍼 주던디요.”

그리고서는 노적봉을 향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기 저거 보이지요.”

떡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습니다.

“저게 다 노적가리던만요.”

“노적가리?”

“노적가리 몰라요? 밖에다 쌓아둔 곡식더미를 노적가리인디 곡식이 저리 많은께 떡 해먹는다고 매일 쌀을 씻어대니 물인들 깨끗하겠소.”

밥할머니는 은근슬쩍 물이 흐려진 이유까지 말했습니다. 일본군들은 밥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연합군이 자신들의 군량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은 물까



지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튿날 일본군은 노적봉 기슭에서 철수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연합군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파의 계략이 푹 떨어졌군요.”

“노파가 우리를 살렸군. 노인들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군.”

밥할머니의 지략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연합군은 군사를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석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한말에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이 그 비석의 내력을 알고 석상의 머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진기리 길가에는 머리 없는 석상이 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이 석상을 밥할머니라고 부릅니다.

#### ■ 참고문헌

정동일, 「북한리의 노적봉과 밥할머니」, 『고양지명유래담집』, 고양문화원, 1991.

## 9. 행주산성 - 행주산성에 얽힌 이야기

김명옥

### 1) 임유정이 태어나다

짹짹

조용한 정원에 새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등에 쏟아지는 별이 제법 따스합니다. 정원에는 작은 산봉우리를 모아 놓은 듯한 꽃봉오리들이 여린 잎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비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갯짓을 했습니다. 임처사는 부인과 정원을 산책하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벼슬도 하고, 재산도 풍요로운데 자신에

게는 이것을 물려줄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 새소리가 아이들 소리라면 얼마나 좋겠소?”

임처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언짢은 기색보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금강산에는 영험한 기도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가 정성껏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지요.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차 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서 대를 이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 봅시다.”

임처사의 흔쾌한 말에 부인은 가슴을 쓰러 내렸습니다. 임처사가 쓸모없는 일이라고 단번에 말을 자르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며칠을 보냈던 터였습니다.

다음날 임처사 부부는 짐을 꾸려 금강산으로 들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정성껏 백일기도를 드렸습니다. 돌탑에 하나 올리는 데도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 행여나 조그마한 벌레라도 밟을까봐 조심했습니다. 지나가다 나뭇가지를 꺾지는 않은지 조심 또 조심 했습니다. 임처사 부부는 그렇게 몸가짐을 조심히 하며 정성껏 백일기도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 달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 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처사는 아들의 이름을 유정이라고 지었습니다.

## 2) 원님의 딸을 만나다

임유정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보통아이들보다 총기가 있었습니다.

“하느 천 땅 지.”

세 살이 된 유정이는 발음도 잘 되지 않은 채 천자문을 다 외웠습니다. 일곱 살에는 경서를 다 배웠습니다. 임처사는 아들에게 더 가르칠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이를 가르칠 학식이 높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다 배우면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정은 훌쩍 자랐습니다. 한 번



은 고을의 원님에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유정의 학식과 사람됨을 보고 사위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 수연에게 유정의 사람 됨됨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애야, 이번에 시험 친 아이 중에서 유정이가 단연 돋보이더구나. 글을 아주 잘 지었어. 글씨도 반듯하고 내가 가르쳐 보니 사람 됨됨이도 쓸만하더구나. 유정이를 네 짝으로 맺어주고 싶구나.”

수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연이도 유정이에 대한 소문을 들은 터라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손수건에 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유정과와 부부의 연을 맺을 거라는 걸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를 놓았습니다.

원님은 수연에게 유정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내 딸아이가 차를 아주 잘 끓인단다. 그 차 맛은 아무나 못 보지.”

그리고는 행랑심부름꾼에게 딸아이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이 앉아서 차를 우려냈습니다.

원님은 두 아이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러 유정의 차잔을 옆질렀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옷이 젖었으니 어찌면 좋으냐.”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닦으세요.”

수연은 소매에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꺼내서 유정에게 주었습니다. 손수건을 건네는 수연의 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유정은 손수건이 너무 아름다워 머뭇거렸습니다. 원님의 수연은 아버지가 들려줬을 때보다 유정이가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곧 유정의 집에 매파를 보내면, 바로 혼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그날만 기다리며 수를 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 유정이도 수연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수연이 머무는 담 너머를 바라보다 공부방에 들어 가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 갈

때는 동무들이 다 간 후에 공부방을 나서서 담 너머로 눈길을 준 후에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글을 읽으면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글을 읽다 잠시 고개를 들어 정원의 꽃을 볼 때도 한 참이나 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며 수연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유정은 항상 몸에 지니던 손수건을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이 무척 아름답구나. 네 어머니가 만들어 준 거냐?”

아버지 임처사의 말에 유정은 얼굴을 붉히며 소매부리에 손수건을 열린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처사는 요즘 유정이의 행동이 사뭇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랑아범을 시켜서 유정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고 하던 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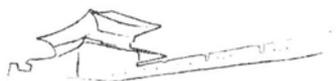
“네가 요즘 너를 보니 평소와는 행동이 많이 다르구나. 글공부에도 집중 하지 못하고, 대체 무슨 일이나?”

“아버님, 실은 스승님 따님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은 수연 남자 찾물에 젖은 제 옷을 닦으라고 준 것이고요.”

임처사는 유정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원님의 딸이라면 참하고, 며느릿감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정이가 글공부를 좀더하고, 학식을 더 쌓은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님에게 배운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난 듯하구나. 이웃 고을에 학문에 조예가 깊은 분이 계시니 그곳에서 배움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정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은 혼인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수연남자와 혼인을 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님은 며칠 전부터 자신에게 가르칠 게 없다고 말해왔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우연이라도 수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글방을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유정은 이웃 고을 선생님에게 글을 배우러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정 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선생님도 유정의 학식과 사람 됨됨이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선생님에게도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남보다 영특했습니다. 사내아이로 태어났더라면, 한 자리쯤 꿰차고 남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딸아이의 영특함을 이해해주고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짝을 맺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유정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니 딸아이라도 유정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정의 옛 스승인 원님으로부터 만나자는 기별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현재 유정의 선생님이 원님에게 운을 떼었습니다.

“유정이 일로 선생님을 보자고 했습니다.”

“유정이 일이라뇨?”

원님은 겸연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처사네 집에 중매를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유정이를 가르쳐 보니 아이가 워낙 관찰아서 사위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유정의 선생님은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유정이를 사위 삼고 싶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사위감을 놓치겠다싶었습니다. 임처사네 입장에서 보면 자신보다는 원님과 사돈을 맺고 싶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정이는 이미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유정의 선생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원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님의 딸은 까무러쳐버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유정과 혼인할 날만을 기다리며 유정을 자신의 짝으로 여겼는데, 이미 정혼처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연은 까무러친 후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던 수놓기도 그만 두었습니다. 밥을 넘기지 못 한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앓던 수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 3) 유정, 서산대사를 만나 사명당 법계를 받다

수연의 소식을 접한 유정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글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다. 산책을 나가도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스러웠습다. 그래서 정해진 곳 없이 길을 떠났습다. 길을 걷다보니 금강사 유정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정사의 지주 스님인, 서산대사는 유정을 절에 목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정을 한 시도 가만두지 않았습다. 나무를 한 짐 해서 놔 두면 어느 새 도끼를 주며 장작을 패라고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땀감을 만드는 일보다 헛질이 더 많았습다. 손이 부르르고 진물이 흘렀습다. 그러다 살이 벗겨지면, 천으로 칭칭 감고 장작을 팠습다. 장작 패는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수연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산대사가 유정에게 절 뒤에 있는 공터로 불렀습다. 그리고는 목검을 유정에게 던졌습다.

“담벼라.”

서산대사는 그 한마디를 던지고 유정을 향해 목검을 휘둘렀습다. 유정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컷 두들겨 맞았습다. 공부방 스님이었던 유정은 목검을 만져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려 할 때마다 거침없는 목검 세례를 받았습다. 유정이 도망갈 것을 포기하고 머리를 웅크린 채 땅에 엎어져 있었습다.

“지금부터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라.”

서산대사는 그날부터 유정에게 칼 쓰는 법, 말타는 법, 진을 치는 법 등을 가르쳤습다. 유정은 열심히 배웠습다.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공부도 재미있었지만, 몸을 움직여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서산대사에게 배운지 어느 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다. 유정은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평화로운 것을 느꼈습다. 그래서 스님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산대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자 서산대사는 직접 머리를 깎아 주고 사명당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느날, 서산대사는 한양에 다녀 올 일이 있다며 사명당에게 유정사를 맡기고 길을 떠났습



니다. 서산대사가 유정사를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 사명당에게 소식을 보내 왔습니다.

왜놈들이 조선을 침략하였다. 선조임금께서는 의주로 피난을 가셨다. 한양은 이미 왜놈들 손에 들어갔다. 사명은 스님을 모아 나라를 되찾는 일에 힘쓰라.

편지를 읽는 사명당은 유정사의 스님들에게 서산대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님들은 활과 칼을 들고 나라를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절을 들릴 때마다 스님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명당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쟁 소식을 물었습니다. 왜놈들은 전쟁을 일으킨 지 20일 만에 한양을 빼앗고, 온갖 약탈로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관군이 한양을 탈환하려고 진을 구축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 중에는 세마대에서 크게 이긴 권율 장군이 한양을 되찾으려고 행주산성으로 근거지를 옮겼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4) 행주산성에서 스님이 된 옛스승의 딸을 만나다

행주산성은 서울에서 20여리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사명당은 승병을 데리고 행주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성 주위에 목책이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목책 끝은 뾰족뾰족하게 깎아서 적군이 쉽게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중으로 세워졌으니 일본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그만큼 걸릴 것 같았습니다. 목책 위로 흙 언덕을 쌓고 도랑을 팠습니다. 사명당은 권율장군의 철저한 전투준비를 보고 장군의 명성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창과 검의 날을 세우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 편에는 흰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아 있었습니다. 사명당은 지나가는 군인 한 명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흰가루로 무엇을 합니까?”

“장군님의 뜻이지요. 무엇에 쓰인지는 전투가 벌어져야 알겠지요.”

군인은 씨~의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명당은 고개를 가웃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벽 가까이에서 또 다른 승병들이 보였습니다. 승병들은 아녀자들과 함께 앞치마에 돌을 넣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성벽주위에 무더기로 쌓인 돌더미 위에 앞치마를 내리자 크고 작은 돌들이 어디에 쓰일 지 아는 듯한 얼

굴이었습니다. 돌무더기는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사명당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고 반갑게 다가오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스님은 사명당 앞에 오더니 합장을 했습니다. 사명당도 합장을 하고 스님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여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스님이 물었습니다.

“제 기억이 총명하지 못합니다.”

사명당은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스님의 이웃 고을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스님의 마지막 선생님이셨지요.”

사명당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불가로 들어오셨습니까?”

“스님이 유정사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스님을 따라 이렇게 절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이곳에서 스님을 만난 것도 다 부처님 뜻이겠지요.”

그리고는 합장을 하며 돌을 나르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사명당은 한참만에야 여스님이 남긴 말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괴로워 할 때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여스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당은 찻찻한 마음을 접어두고 전투에 자신이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같이 온 승병들은 제각기 여기저기 흩어져서 칼날을 세우거나, 무기를 점검하거나, 싸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명당은 열심히 돌무더기를 나르는 여승들과 아녀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화거를 점검하고 있는 군인에게로 갔습니다.

“권율 장군의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장군도 대단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 모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다들 고심하지요. 저 행주에 돌 나르는 것 누가 생각한 줄 아십니까. 저기 저 스님이예요.”

그 군인이 가리킨 곳을 보니 옛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저 스님이 오시더니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앞치마를 만들더라구요. 그리고는



성 안의 부녀자들에게 앞치마를 나눠주고 돌을 모우자고 하는 거예요. 이 번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사명당이 주위를 둘러봐도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명당은 같이 온 승병들에게로 갔습니다.

사명당이 행주산성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권율 장군이 한양을 되찾으려고 행주산성에서 준비한다는 소식이 일본군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일본군은 권율 장군이 공격하기에 앞서 먼저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해 행주산성을 총공격해왔습니다.

일본군이 목책과 도랑을 넘어서 밀려왔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율 장군은 각각의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참모에 따라서 물과 기름을 끓이는 부대, 횃가루를 주머니에 넣는 부대, 돌을 던지는 부대, 물레방아처럼 돌면서 돌을 연달아 쏘는 수거석포만 다루는 부대 등 부대마다 각각 맡은 무기도 달랐습니다. 적군이 목책을 넘으면 화거를 쏘았습니다. 도랑을 지나면 수거석포 차레였습니다. 기계가 물레방아처럼 돌면서 돌을 연달아 쏘았습니다. 일본군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돌을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넘어지거나 다친 일본 병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병사가 뒤에서 밀고 왔습니다. 도랑을 넘어 성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물과 기름을 맡은 병사들이 팔 팔 끓이던 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 안의 여인들은 쉬지 않고 돌을 나르고 던졌습니다. 일본군은 쉽게 성벽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성벽을 다 오른 일본군들 얼굴에는 횃가루가 뿌려졌습니다. 횃가루가 눈에 들어가 앞을 못 보게 한 틈을 타서 공격했습니다. 더러 성벽 오르기에 성공한 일본군들은 대비하고 있는 병사들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기가 높은 조선군을 일본군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벽 밑에는 일본군 시체가 높아졌습니다. 성 안에도 일본군의 시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조선군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수록 일본군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일본군은 동료의 시체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조선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사명당은 권을 장군과 함께 적군이 물러간 뒤 성 안을 수습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전사자들은 따로 모셨습니다. 사명당은 전사자들 중에서 자신을 향해 합장을 하던 여스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명당은 전사자들을 위해 두 손을 모우고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명당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 76~86쪽.

<http://yoksa.aks.ac>.



## 10. 남한산성

### 은혜 깊은 느티나무 이야기 - 행궁 터 느티나무

심재은

#### 1) 산성의 장날

오늘은 남한산성에 장이 서는 날입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에는 산성 안이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장사꾼들은 저마다 자기 물건을 사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깎아보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나없이 어우러져 산성의 장날은 언제나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이로 엿장수는 요란한 가위질 소리를 내며 장터를 돌아다니고 동네 꼬마들은 신이 나서 엿장수를 돌아 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루해가 머리 꼭대기를 지나갈 무렵이면 사람들은 나무 그늘을 찾아 쉬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 좀 쉬었다 가세.”

쌀장수 김서방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러세, 더운데 여기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세, 자네 어머니는 안녕하신가?”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곳은 마을에서 제일 큰 느티나무였습니다.

“그럼, 건강하시다네. 자네 여동생 시집은 보냈는가?”

“올 추수 끝내고 보낼 생각이라네. 허허허.”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쉬어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사람, 한가로이 장기를 두는 노인들의 휴식처로 큰 느티나무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언제 보아도 편안해.”

“아무렴 이 무성한 잎들 좀 보게나. 이 땀별에 얼마나 고마운 그늘인가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같은 느티나무인데 행궁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왜 그리 생겨 먹은 게야.”

김서방은 생각난 듯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앞서귀조차 풍성하지 못하니, 같은 나무라도 다 같은 나무가 아니지. 하하하.”

친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못난이 느티나무라고 부른다네.”

“그래? 못난이 느티나무라고 하하하. 재미있네 그려.”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행궁 터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북적이는 장터를 돌아 한가로이 쉬어 갈만한 곳인데도 지나가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들지 않는 느티나무는 너무나 초라해서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해가 성벽 너머로 꼬리를 감출 무렵 사람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둘씩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산성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 2) 말하는 느티나무

그날 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행궁 터 느티나무에 드디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내가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걸어오더니 나무 밑에 풀썩 주저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폭 잘 자고 일어난 사내는 길게 기지개를 켜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이름은 ‘못난이 느티나무’ 라고 해요. 비쩍 마른 나무기둥에 가지도 삐죽삐죽 한데 다 이파리도 들성들성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하니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놀리기만 해요. 당신의 모습도 말이 아닌걸 보니 집 떠난 지 한참 되었나보군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젊은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느티나무와 젊은이 뿐이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말을 하다니 젊은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티나무는 말을 할 줄 아는 느티나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알

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무 밑에 와준 이가 없어 느티나무가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품에서 쉬었던 사람은 이 젊은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느티나무는 슬며시 젊은이를 톡톡 건드리며 말을 붙였습니다.

“나는 김정수라고 해. 과거시험에 낙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젊은이는 놀랍고 황당했지만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쪽이예요? 아니면 산성마을에 집이 있어요?”

느티나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야. 처자식 볼 면목도 없고 게다가 성공하면 가족들을 돌봐주기로 약속한 친구마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막한 마음에 정처 없이 길을 걷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지.”

김정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없군요.”

느티나무는 그가 몹시 딱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괴로운 마음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그는 가족들 생각에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와 함께 여기서 살면 어때요? 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사람들은 내가 볼품없다고 싫어해요. 나도 다른 느티나무들처럼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절 외면하기만 해요.”

느티나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여기서 산다고?”

그는 나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여기서 과거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에잇, 말도 안 돼. 사람이랑 나무랑 어찌 같이 산단 말이냐?”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며칠만이라도 여기서 지내봐줘요. 제발 부탁해요. 당신은 절 찾아준 유일한 사람이어요.”

느티나무는 더욱 간절히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당장 마땅히 갈 곳도 없었기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당분간 여기서 지내볼게.”

김정수는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먹는 것, 자는 것, 공부하는 것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몸에 기운이 넘치고 희망적인 맘이 새록새록 들었습니다. 낮에는 마을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돈을 벌고 밤이면 나무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느티나무 아래로 반딧불들이 모여 들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나무야, 고마워. 너와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할지 몰랐어. 정말 신기해.”

김정수는 나무를 껴안으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내곁에 있어 외롭지 않아요.”

못난이 느티나무는 길게 가지를 늘어 뜨려 정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다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씨름도 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눈에 비친 김정수는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 사는 것이나 나무와 함께 노는 모습이 괴이하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상관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마음 깊은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 3) 임금님 행차

그러던 어느 날 돌만의 짧은 행복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다른 날처럼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간 다음이었습니다. 행궁을 지키는 군졸이 도끼를 들고 느티나무로 다가왔습니다.

“불쌍사나운 나무 좀 보게. 곧 임금님이 행차하시 텐데, 어서 베어버려야지.”

하면서 시퍼런 날을 번득이며 흉측한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쿵!”

다시 한번 내려치려는 순간에 김정수가 달려왔습니다.

“안 돼! 나무에 손대면 안돼요.”

나무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김정수가 나무를 부둥켜안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저리 비키지 못해! 임금님이 머무실 행궁 앞이다. 이런 못생긴 나무를 더 이상 놔두고 볼 수가 없다. 얼른 베어버리고 튼튼한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하는데 감히 방해할 해!”

군졸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군졸이 김정수를 나무에서 잡아끌었습니다. 김정수는 더욱 안간힘을 쓰며 외쳤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나를 베시오! 이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눈을 감는 것이 나을 테니.”

그때 마침 나팔소리가 울리고 임금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휘이, 물렸거라. 임금님의 행차시다.”

김정수는 재빨리 임금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상감마마, 소인은 이 나무와 동고동락을 하는 김정수라고 하옵니다. 비록 말라비틀어지고 초라해 보여 뭇난이 느티나무라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이며, 제 삶의 희망을 준 나무로 이기도 합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베어버리라는 명령은 거두어 주십시오.”

정수는 인조임금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허허, 무어라? 이 나무가 너에게 가족이라고?”

임금은 그의 황당한 말에 발걸음 멈추었습니다.

“네, 그러하옵니다. 제가 과거 시험에도 낙방하고 갈 곳도 없이 헤매고 있을 때 이 나무는 안식처가 되어 준 가족입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찮은 나무에 대한 너의 깊은 마음을 내 믿으마. 저 나무를 잘 돌보고 앞으로도 둘의 정을 끝까지 이어가거라.”

임금은 나무를 가족이라 부르는 젊은이가 신기하여 느티나무를 베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못난이 느티나무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모두 지나가고 정수는 느티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나무야, 괜찮아?”

나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무야, 어찌 된 거야?”

느티나무를 어루만지는 정수의 손끝에 선명한 도끼 자국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아니, 도끼 자국에 네 말문이 막혔나 보구나.”

정수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다. 죽음은 면하지 않았니?”

느티나무는 가지들을 사랑사랑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잖아. 그치?”

정수는 느티나무를 위로했습니다. 느티나무도 정수를 보듬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자신을 살려준 정수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 4) 지독한 가뭄이 조선 땅을 휩쓸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 해 여름, 비가 오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짝짝 갈라져갔습니다. 계곡물도 말라가고 사람들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인조 임금의 마음도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곧 임금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덕하여 하늘이 노하였나보구나. 어찌 이리 심한 가뭄이 계속 된다는 것이냐.”

임금은 수라상에 수저도 들지 않은 채 물렸습니다. 신하들의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몇 번을 거듭해서 기우제를 지내보았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가려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백성들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면 조선 땅 전체가 말라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김정수는 임금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상감마마 못난이 느티나무아래에서 기우제를 지내보श्य요.”

정수는 느티나무를 믿었습니다.

“이 가뭄만 그치게 할 수 있다면 내 무엇인들 못할 것이 있겠느냐.”

임금은 서둘러 기우제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못난이 느티나무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임금도 나무 아래 서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부덕한 임금이 하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여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는구나.”

임금은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실망한 마을 사람들도 떠나고 임금은 못난이 느티나무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부터 임금은 수라상도 받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을 말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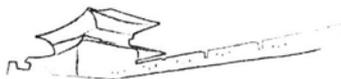
“전하 옥체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이 고통에 겨워 내는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 어찌 편히 지낼 수 있단 말이냐!”

임금의 높은 뜻을 신하들도 어찌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김정수만이 임금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삼일 밤낮을 보낸 후였습니다.

서쪽 하늘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은 못난이 느티나무 꼭대기에 모여 들더니 점점 사방으로 퍼져 나갈 때였습니다.

“뚝!”



“또독!”

김정수의 이마로 빗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은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비다! 비가 내린다.”

김정수는 기빠 소리쳤습니다. 임금도 일어서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비를 맞았습니다.

빗줄기는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덩실 덩실 춤을 추며 비를 맞았습니다. 임금의 용안으로 빗물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뛰어 나와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비를 맞았습니다.

“임금님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셨습니다.”

“임금님의 치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기빠하며 임금을 칭송했습니다.

“여기 하늘을 움직인 또 한사람이 있다. 하잘것없는 못난이 느티나무를 살려준 김정수다. 바로 이 느티나무가 김정수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다.”

임금도 기빠하며 김정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모두들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며 기빠했습니다.

비는 흠뻑 내렸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은 사이로 빗물은 스며들었습니다. 산짐승 들짐승도 뛰어나와 비를 맞았습니다. 메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던 산천이 빗물을 머금고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편안해졌습니다.

## 5) 은혜 깊은 느티나무

“저기 행궁 터 옆 못난이 느티나무에 가서 한번 치성을 드려봐.”

혼인한지 삼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에게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끔찍한 가뭄에 단비를 내려준 느티나무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느티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느티나무 밑으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경사가 벌어졌습니다. 김정수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커다란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늠름하게 행궁 터 느티나무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모두 네가 있어준 덕분이다.”

말에서 내린 김정수는 느티나무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느티나무도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입이 벌어져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느티나무 아래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나없이 기뻐 춤도 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날부터 느티나무의 밑동은 더욱 튼실하게 커져갔습니다. 가지들은 쪽쪽 뻗어 나갔습니다. 산성 안에 어느 느티나무보다도 더 무성한 잎사귀로 멋진 그늘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못난이 느티나무라고 부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몇 백 년이 흘러도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 ■ 참고 문헌:

『너른 고을 옛이야기: 광주설화집』 광주 문화원, 2008

『숲과 역사가 살아 있는 남한산성』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

남한산성문화사업단 : <http://www.ggnhss.or.kr/>



## 11. 남한산성

### 수어장대 - 이회장군과 매바위

심재은

#### 1) 남한산성 성벽을 다시 쌓아라.

겨우내 퐁퐁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남한산성 성벽을 따라 봄 햇살은 곱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쌓여진 성벽은 쌓였던 눈과 함께 녹아내리듯 이곳저곳이 슬며시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담벼락 사이로 봄기운을 머금은 풀싹들이 떼 지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장대 언덕 마루에 투구를 쓴 군인들이 서열에 따라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회색빛 법복을 차려입은 스님들이 합장을 하고 서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열 가운데로 단상이 놓여있었습니다. 산언덕으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 들어 섰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번쩍이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장군이 걸어 나왔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눈매를 번뜩이며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총용사 이서장군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라.”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남한산성은 본래 백제의 시조이신 온조대왕 시절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성이다. 오랜 세월 동안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성이다. 그러나 흙으로 축조되어 많은 곳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이에 임금께서는 남한산성을 돌로 다시 튼튼하게 쌓으라는 명을 내리셨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이 창궐하여 점점 그 세력을 키우며 우리 조선을 넘보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고려 때에도 군인들과 백성들이 단결하여 몽고군을 무리 치고 나라를

구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성을 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명하노라.”

지금 총용사 이서장군은 상감마마를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금께 예를 갖추듯이 모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벽암 각성대사와 이회장군은 이리 나와 임금의 명을 받으시오.”

봄별을 받아서 벽암 각성대사의 머리는 더욱 파랗게 빛나고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후광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님들 속에서 벽암대사는 걸어 나왔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병사들의 선두에 서있던 이회장군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꼭 다물어진 입술과 검고 붉은 눈썹이 무척이나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한산성은 성곽의 길이가 7천보가 넘는 장대한 길이의 성이요. 그래서 두 분이 나누어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남문과 북장대를 기준으로 하여 동남성 축성은 이회장군이 맡아주시고, 서북성은 도총섭 벽암 대사가 맡아주시오.”

이서 장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남한산성 지도와 임금님의 명령이 적힌 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성 쌓는 일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맡기는 것은 커다란 길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외적의 침입에 하루라도 빨리 대비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였습니다. 임금이 살고 있는 한양에서 걸어서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가까운 성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또한 산성의 형태는 밖은 깎아지른 듯 절벽이고 성 안쪽은 완만한 경사에 벼를 심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한 땅이 넓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성을 쳐들어 올 수 없고, 전쟁 중에는 임금이 피신하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걸어서 한나절은 족히 걸리는 커다란 성이기에 다시 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 시절부터 축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임진왜란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될까 걱정되어 미루어 두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한산성을 튼튼한 석성으로 쌓는 커다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2) 이회장군의 성 쌓기

동남쪽 성을 맡은 이회장군은 자신에게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 맡겨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면 일어나 성벽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성벽 주변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려야 한다. 나무는 자랄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그 뿌리가 넓어져 성벽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회장군은 나무를 베는 일까지 일일이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북쪽 성을 맡은 벽암 대사는 나무 베는 일보다는 돌을 쌓아 올리는 일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이회장군은 꼼꼼하게 따지며 일을 진행 시켰습니다.

“돌 하나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돌 쌓는 인부들에게 다짐이라도 받으려는 듯 거듭 이야기 했습니다.

“돌과 돌 사이를 이음새를 특히 신중하게 잘 맞추어야 한다. 이음새가 뒤틀리면 쉽게 허물어지는 성벽이 될 것이야.”

이회장군은 손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며 말했습니다.

“예, 예”

일꾼들은 허리를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회장군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총구의 간격이 일정해야 하거늘 이쪽과 저쪽의 길이가 서로 다르지 않느냐! 허물고 다시 쌓도록 하여라.”

이회장군은 조금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거나 돌이 잘못 다듬어지더라도 했다면 그 자리에서 허물고 다시 쌓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나라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출 수가 없을 줄로 아뢰옵니다.”

군졸 한명이 나서서 걱정하듯 아뢰었습니다.

“북서쪽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다고 하옵니다.”

일꾼들에게 양쪽으로 나뉘어 쌓여가는 성벽이 비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성벽을 쌓는 일이다. 어찌 하나라도 대충 할 수 있단 말이나!”

이회장군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할 뿐이다. 남이 어떻다는 것은 내가 말할 바가 아니니라.”

이회장군은 군졸을 호되게 혼내어 돌려보냈습니다. 그 간간하고 정확함에 일꾼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회장군의 성실함과 꼼꼼함은 일꾼들의 원성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일 아닌가?”

들을 내려놓으며 일꾼 한사람이 투덜거렸습니다.

“누가 아니라나. 이걸 다시 쌓는다면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릴 거 아닌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하난 말일세. 오히려 공사가 늦어지면 혼이나 날것을.”

또 다른 이는 이회장군을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회장군은 성벽 공사장을 일일이 둘러보았습니다. 한참 땅을 다지는 공사장에 다다른 이회장군은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저희가 할 일이옵니다.”

군졸이 황급히 달려와 장군을 말렸습니다.

“아니다. 나도 할 것이다. 누구든지 힘을 보태야 하는 일이다.”

장군은 군졸을 뿌리쳤습니다. 이회장군은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흙을 파고 땅을 다졌습니다.

“장군이 저러게 열심히 하니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겠구먼.”

“췌! 조용히 하게. 들을까 무섭네 그려.”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나없이 열심히 땅을 파고 돌을 날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장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여보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으신 것이지요?”

보다 못한 부인 송씨가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공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금님께서 내려준 공사비마저 바닥이 났구려.”

장군의 얼굴은 근심 걱정으로 회색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굳은 결의를 다짐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중대한 나라의 일을 맡은 내가 이제 와서 되는대로 일할 수도 없는 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공사를 완수해야 하오.”

“여보, 비록 제가 아내자의 몸이 오나 중대한 나라일을 하는데 남자 여자가 따로 있겠어요? 또한 이 나라의 백성으로 가만있는 것이 어찌 백성 된 도리일 수 있겠어요.”

부인 송씨 또한 남편에 못지않은 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금을 하여 축성공사비에 보탬을 드리겠어요.”

부인 송씨는 바로 집을 꾸리고 날이 밝아오는 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의 마음에 힘을 얻은 장군은 공사 일에 더욱 열성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 3) 강직한 이회장군을 헐뜯기

그러나 북쪽의 공사를 맡은 벽암 대사는 벌써 완공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벽암 대사는 백성들을 일꾼으로 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스님들까지 불러 보았습니다. 벽암 대사의 높은 법력은 전국의 승병들을 보여 들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공사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일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또한 벽암 대사는 꼼꼼한 일처리보다는 공사 기한을 맞추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벽암 대사가 맡은 서복성

은 지형이 완만하여 돌을 쌓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회장군이 맡은 동남성은 지형이 가파르고 험하여 돌을 쌓으면 굴러 떨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돌은 비교가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회장군은 원래 게으른 사람인가 보네. 그렇기에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야. 소문에는 말이야. 그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던데. 그래서 공사비를 횡령하여 술타령만 하였다지 뭐야. 그러니 공사가 늦어질 것은 뻔한 일 아니겠어.”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장군을 헐뜯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회 장군은 그런 말들에 아랑곳 하지 않고 꾸준히 정성을 들여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장군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사장을 찾아 일꾼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을 헐뜯는 말들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부풀려졌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이회장군을 모함하는 헛소문은 점점 더 커지고 나빠져서 임금님이 계신 궁 안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임금의 귀에까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이서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이회라는 자가 축성공사에는 별로 힘을 쓰지 않고 나라에서 내린 공사비로 날마다 주색에 빠져있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조정 대신들의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서 장군은 어찌 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다 돼가도록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더냐?”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서북성 축성을 맡은 벽암대사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까지 남겨서 환납하여 국가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에 동남성을 맡은 이회에게 꼭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영의정은 큰소리로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서 장군은 지금 당장 그 까닭을 밝히고 죄 지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 벌하기를 명하노라.”

임금의 명령에 이서장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가 이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서장군은 바로 남한산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댄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 없는 것이야.’

그는 입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당장 이회를 불러 들여라.”

크게 화를 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공사장을 돌며 일꾼들을 격려하는 이회장군은 병사들에 의해 끌려 왔습니다.

“네 이놈 듣거라. 내 너를 믿어 나라의 중대사를 맡겼거늘 어찌하여 너는 신의를 저버리고 공사에 태만하였느냐?”

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제가 게으름을 피운 것은 절대 아니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공사를 맡았기에 흠 한 삼 돌 하나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 공사의 진척이 늦어진 것뿐이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서의 귀에는 모두 하찮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 감히 변명만을 늘어놓고 나를 속이려 한단 말이나. 나라의 중대한 공사를 지연시키고 더군다나 공금을 훔쳐서 주색에 낭비하였으니 그 죄를 다 스리려 하노라.”

이서 장군은 별떡 일어나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회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장군.”

이회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너를 참수형에 처할 것을 명하노라.”

이서의 입에서 참수형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참수형은 나라를 배신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끼친 흉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이 너무나 강직한 이회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 4) 하늘이 증명해준 정직함

이회의 참수형은 서장대(수어장대) 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은 이회를 포박하여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서장대로 향했습니다.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올라가는 이서장군의 마음도 칼로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자신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고 달렸던 부하이며 가장 아끼고 믿었던 그에게 참수형이라는 형벌을 내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법인 것입니다.

이회는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국법에 의해 죽기는 하오나 너무나 원통하오. 내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것을 하늘이 알려 줄 것이며 반드시 후회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 목을 치시오.”

이렇게 말한 그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커다란 칼날이 번쩍 빛을 내더니 드디어 그의 목을 내리 쳤습니다. 머리를 땅에 떨어져 뒹굴고 목에서는 시뻘건 핏줄기가 치솟는 듯하더니 매 한마리가 나와 푸르르 날았습니다. 그 때는 이회의 시체를 몇 번이나 싸고돌더니 뜰 앞 큰 바위에 가 앉았습니다. 그 때는 바위에 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신기하여 다가가려하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뜻밖의 광경에 모두 놀라며 매가 앉았던 바위로 가보았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매 발톱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로세.”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사람 몸에서 어찌 새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것도 ‘매’가 말이야. 그리고 저 바위에 새겨진 발톱 자국 좀 보라구.”

“그러게 저 딱딱한 바위에 새가 발자국을 새겨 놓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야.”

“그냥 새가 아닌 게지. 분명 하늘에서 보낸 매라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회장군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틀림없어.”



“맞아. 맞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앞으로 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걸세.”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모함하여 죽였으니 하늘이 노한 거야.”

사람들은 몸까지 으스스 떨면서 말했습니다. 서장대(수어장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려가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부인 송씨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모은 쌀을 싣고 송파나루를 통해 산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송파 나루로 마중나간 마당쇠는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마님. 주인님께서, 주인님께서.....”

마당쇠는 말을 채 잊지도 못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에 부인 송씨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야?”

“장군님께서 무고한 누명을 쓰고 참수형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부인 송씨는 그만 놀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부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 그의 통곡 소리가 송파나루 전체를 울려 퍼졌습니다. 주체 할 수 없는 슬픔에 부인은 자신 모아온 쌀을 모두 강물에 버리고 자신마저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부인까지 성을 쌓는데 힘을 모았다는 소식을 접한 이서 장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밀려 왔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 마자 한양에서 이름난 기술자들을 불러 들였습니다.

“공사 현장 전체를 다시 꼼꼼히 살펴 조사 하여 보고 하거라.”

조사를 마친 기술자들이 이서에게 아뢰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 한 결과 이회장군이 쌓은 성벽이 안과 밖이 모두 튼튼하고 하나의 빈틈 없이 지어진 성으로 아뢰입니다. 벽암 대사가 지은 쪽에 비해 땅을 더 깊이 다지고 주춧돌을 크고 곧게 세워 더욱 완벽한 성으로 쌓여졌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회가 맡은 동남쪽이 절벽이 가파르고 산세가 험하나 가파른 절벽을 이용하여 더 높이 성벽을 올려 그 누구도 감히 올라 올 수 없게 만들었사옵니다.”

“이렇게 공들여 견고하게 공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공사비가 필요했을 것이 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기술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회의 성벽을 칭찬하였습니다.

“이회의 누명이 벗겨졌구나.”

이서는 크게 후회하고 이 사실을 모두 조정에게 알렸습니다. 조정에서도 경솔한 처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렴하고 결백한 인재를 소문만으로 듣고 죽인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고한 죽음을 슬퍼하여 많은 돈을 내려 청량당이라는 사당을 지어 그의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청량당에는 그와 그의 부인 송씨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또한 서장대 뜰에 서있는 바위는 매바위라고 불러 그의 결백함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 ■ 참고 문헌

『한국의 전설』 제3권, 박영준, 한국문화출판사, 1972

『조선왕조실록』- 인조편

『너른 고을 옛이야기: 광주설화집』 광주 문화원, 2008

『숲과 역사가 살아 있는 남한산성』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 <http://www.ggnhss.or.kr/>



## 12. 남한산성

### 효자 우물 - 효자 우물에 전하는 효자 정남 이야기

심재은

#### 1) 추위와 배고픔을 손발이 얼어붙다.

매서운 바람이 칼날처럼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얼어붙어 가는 손바닥을 연신 비벼대며 한 소년이 이집 저집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립문이 비쪽이 열린 어느 집 앞에 어린 소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계세요?”

소년은 겨우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아무 대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할 수 없이 큰 숨을 몰아쉬고는 미안한 듯 사립문을 살짝 밀고 들어섰습니다.

“저기요 계세요?”

조금 더 큰소리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앞치마에 젖은 손을 쓱쓱 닦으며 한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니?”

“저는 윗마을 산성에 사는 정남이라고 해요. 아버님이 아프셔서요.”

커다란 눈망울에 그렇그렁 눈물을 매달고 앓던 소년이 입을 달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 산성에 산다는 정남이라는 아이구나. 이 추위에 밥을 얻으러 여기까지 온 것이야? 예고.”

정남이가 병든 아버님 대신 밥을 얻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아랫마을까지 퍼져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밥 한 술만 주신다면 제가 커서 이 집에 와서 일을 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정남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컸다면 어떻게든 일을 하고 밥을 얻었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으로 아버지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왔지만 쉽게 남에게 손 내밀어 빌어먹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한 동네 어른들이 모아 주는 감자와 잡곡으로 어찌어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확기인 가을도 지나고 겨울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쌀독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린 정남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무릅쓰고 아랫마을까지 동냥을 나선 것입니다.

“에구구, 쫓쫓”

아주머니는 추위에 불따구니가 빨갭게 얼어 버린 어린 정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살겠다고 저리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고 안쓰러웠습니다. 정남이가 한없이 불쌍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보리밥 한 주걱에 감자 두 알을 바가지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그리 넉넉지가 못하구나.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정남이는 연신 고개를 꾸벅거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 집을 돌지 않고도 밥을 얻었으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바가지를 품에 안으니 정남이는 마냥 즐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데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눈이 오려나보네.”

## 2) 하늘에서 내려 준 인연

눈이 오면 눈싸움 놀이에 마냥 신나하던 정남이가 이제는 눈이 오면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눈이 쌓여 오면 산을 오르기 점점 힘들어 지고 더더질까 걱정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드실 밥에 눈이라도 들어갈까 걱정이었습니다. 옷셔를 열어 바가지를 품고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두 손으로 꼭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서둘러 산성으로 옮겼습니다. 정남이가 산길을 반도 오르지 못했는데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성으로 오르는 좁은 산길이 눈으로 덮여갔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차올라왔습니다. 미끄러질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정남이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순간 미끄러져 눈밭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동시에 가슴에 품었던 바가지가 튀어나와 었어졌습니다.



“엄마!”

정남이가 놀라 외쳤습니다. 보리밥 한 덩이와 감자 두 알이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엄마를 부르며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정남이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남이에게도 엄마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정남이를 품에 포옥 안으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정남이가 백일도 채 되기 전에 시름시름 아파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남이는 엄마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남이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보리밥덩이와 감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산속의 밤은 일찍 찾아옵니다. 눈이 오는 겨울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옆드려 더듬더듬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어린 것이 이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야?”

정남이 깜짝 놀라 고개 들어 뒤를 보니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약초 캐는 걸망을 걸친 모습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레 정남이를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남이는 아저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특한 것. 어린 것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약초를 캐러 이 산 저산을 다니는 이 아저씨는 아픈 사람도 볼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정남이는 반가웠습니다. 아저씨에게 아버지를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정남이는 아저씨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저씨는 먼저 아버지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한 표정을 짓고는 아버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남아, 잘 들어라.”

정남이는 큰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리 큰 병은 아니다만 기력이 너무 쇠약해지셨다. 다른 약을 쓰는 것보다 큰 잉어를 잡아다 푹 고아 드리면 거뜬히 일어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산골 어디서 잉어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어나실 수만 있다면 꼭 잉어를 구할래요.”

정남이는 아버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 3) 아버지를 꼭 살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정남이는 잉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정남이는 잉어를 어찌 잡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선 장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네 어르신들에게 생선 장수가 언제 오는지 물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생선 장수가 오지 않아. 이 추위에 산성까지 생선 팔러 올 생선 장수는 없지.”

마을 어른들은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래도 정남이는 생선 장수를 찾아 돌아다녀도 생선 장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나가 생선 장수를 기다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정남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라. 생선 장수는 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어린 정남이 안쓰러워 말렸습니다. 그러나 정남이는 꼭 잉어를 구하고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생선 장수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잉어를 잡을 테야.’

정남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남이는 남한산성 남문에서부터 성곽을 따라 물이 흐를 만한 곳을 살살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겨울 추위에 계곡물은 얼어붙어 거대한 고드름 더미가 되어 계곡에 버티고 서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을 거야. 꼭 찾고 말거야.”

정남이는 혼잣말을 하면 다짐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 어디예요?”

“물이라니? 무슨 물말이나?”

할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멀뚱하니 정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물이요. 강물 말이에요.”

정남이는 할아버지에게 바짝 다가왔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하, 흠. 물고기가 사는 강물 말이지. 그거야. 한강이 제일이지.”

할아버지는 곰방대에 불을 땡겨 붙이며 말했습니다.

“한강이요? 저기가 어딘데요?”

“으응. 서문 밖을 지나 한양 쪽으로 가다보면 송파 나루가 나온단다. 거기 가면 한강 물을 만날 수 있을 게다. 그런데 강물은 왜 찾아?”

“한강에 가면 잉어를 구할 수 있나요?”

정남은 두 눈을 반짝이며 또 물었습니다.

“한강이야 큰 강이니 물고기도 많이 살지. 그런데 잉어는 뭐하게?”

“우리아버님께 잉어를 잡아 드려야 해요. 그래야 병이 나으신데요.”

“그래도 한겨울에 잉어가 어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남이는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남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바빠졌습니다. 잉어가 있다는 말에 빨리 한강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한줄기 희망의 불빛 본 것 같았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걸어 왔는데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송파나루에 다다른 정남은 어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 한강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도 많이 있을 거야. 누군가는 내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을 거야.’

정남이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어부를 만나면 매달려 부탁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송파 나루 여기저기를 헤매며 어부를 찾아보았습니다.

4) 효심이 하늘을 움직인다.

“여기요!”

“여보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정남이는 소리쳐 누군가를 불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강바람만이 정남이를 세차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마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남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정말, 정말, 잉어를 구하지 못하는 걸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계신 아빠 걱정에 정남은 다시 산성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올 때보다 산성으로 가는 길은 훨씬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산성 성문을 지나 마을에 다다랐을 때 쯤 다시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려는 듯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정남이는 배도 고프고 몸에 힘이 빠져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슬퍼지려 했습니다. 잠깐 앉아 쉬고 싶었습니다. 쉼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데 저만치 우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물가에 잠깐 쉬었다 가자.”

정남이는 우물가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한없이 슬퍼지는 마음을 달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하느님, 제발 잉어 한 마리만 구하게 해주세요.”

정남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더욱 간절해져 갔습니다. 함박눈은 쏟아져 정남의 머리위에 쌓이기 시작하고 해는 사라져 어두워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남이는 자꾸자꾸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잉어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우물 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이상한 소리에 정남은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물 속에 황



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잉어 한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잉어다. 잉어야.”

정남이 기빠 소리쳤습니다. 정남은 잉어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잉어가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쉽게 건져 올려 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남은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건져 올린 잉어를 품에 꼭 끌어안아 보았습니다. 진짜 잉어였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빠서 가슴이 쿵팡거렸습니다.

정남은 집에 오자마자 커다란 솥에 잉어를 넣고 정성스레 삶았습니다. 꼭 고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꼭 고은 잉어를 맛있게 드신 아버지는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기운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남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두 사람 열싸 앓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남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겨울에 잉어를 구해 아버지를 살려 냈다는 정남의 이야기는 빠르게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게야. 이 한겨울에 어찌 우물에 잉어가 있었겠어.”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맞아맞아. 정남의 효성이 하늘에 닿은 게지. 그 어린 것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움직였다니까.”

사람들은 모두 정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효자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한산성을 오르는 사람들은 꼭 그 우물에 들러 물을 마시며 정남의 극진한 효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 ■ 참고문헌

『한국의 전설』 제1권, 박영준, 한국문화출판사, 1972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 <http://www.ggnhss.or.kr/>

### 13. 남한산성 - 임금의 곤룡포를 받은 서훈남

심재은

1) 그해 겨울은 모질게 추웠다.

한반도에 겨울이 찾아 왔습니다. 가을 낙엽이 채 다 떨어지기도 전에 그해 겨울은 일찍부터 찾아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눈도 일찍 내렸습니다. 지붕에는 눈이 쌓여가고 처마 끝에는 길게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둑한 솜옷부터 꺼내 입고 겨울 채비를 했지만 그것으로 몰아치는 한파를 이겨내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흐르는 강물마저 얼어붙었을 때였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청나라 수십만 대군이 조선을 한입에 집어 삼킬 듯이 휘몰아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적병들은 눈보라를 휘몰며 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칼날처럼 빠르게 무섭게 한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북쪽에 사는 백성들은 피난할 겨를도 없이 앉아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적군들은 백성들의 소달구지를 빼앗아 군량까지 풍부하게 신고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궁궐에서는 이제 파발이 도착하여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편전에 모인 삼정승 육조판서들은 묘책도 없이 머리만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적의 군사들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 하옵니다.”

참다못한 영의정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적의 기세로 볼 때 개성에서 서울까지 하루면 닿을 것이 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기가 막혔습니다. 여진족의 무리이며 그래서 오랑캐 나라라고 무시했던 후금이 청이라는 나라를 세워 조선을 한입에 삼키겠다고 시빨건 헛바다를 널름거리며 쳐들어와 코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적병의 숫자는 얼마쯤인가?”

임금의 물음에 병조판서가 대답했습니다.

“적의 무리들이 들관을 뒤덮고 잇달아 계속 내려오고 있어 그 수조차 헤아리기 어렵다



고 하옵니다. 말 탄 기병까지 모두 합하여 십오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

대답하는 병조판서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머리 만 방바닥에 붙였습니다.

“정녕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 것이냐?”

임금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적들의 동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자고 청하는 신하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전하, 일단 피하셔서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싸우시기를 청하옵니다.”

좌의정이 아뢰었습니다.

“저들은 별관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라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강화도에 잠시 피하시면 우리 군이 다시 대열을 정비하여 적들을 물리칠 것이옵니다.”

병조판서가 다시 아뢰었습니다.

“그렇구나. 가야만하는 것이구나.”

임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임금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삼정승 육판서들도 방바닥을 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임금은 서둘러 빈궁과 대군들에게 종묘의 신주를 받들게 하여 먼저 강화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임금은 세자와 함께 날이 밝아 오는 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날리던 눈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 2)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는 길

창덕궁을 떠난 어가 행렬이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홍제원 쪽에서 말을 몰아 달려온 군관이 행렬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땀과 피로 범벅이 된 군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전하, 적군이 이미 강화도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서쪽으로 이르는 길은 지금 치열한 전투 중이옵니다.”

“전하, 어가 행렬을 돌리시어 남한산성으로 피하셔합니다.”

어가 행렬은 황급히 남한산성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 쳤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어가가 흔들리고 임금과 신하 모두가 휘청했습니다. 행렬에 피난민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끌고 나온 소와 말이 어가에 부딪쳤습니다. 어가는 또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 울음소리, 여인네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을 따르던 신하들 중에서는 도망치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궁녀들도 하나 둘씩 제 살길을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난 자들을 잡으러 간 군사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행렬은 수구문(광화문)을 빠져나와 송파나루에 다다랐습니다. 강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얼마 남지 않은 신하들을 이끌고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지직!”

강 한복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강 안쪽 얼음이 어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깨져 나갑니다. 어가를 끌던 말의 뒷다리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어가는 쓰러지고 임금은 재빠르게 뛰어나와 화를 면했습니다. 허우적대던 말이 어가와 함께 물속에 잠겼습니다. 임금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신하들도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은 어가도 버리고 젠 걸음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뒤에서 적병들의 말발굽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강을 건너 잠시 숨을 돌리는 새도 없이 임금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임금의 입에서는 탄식이 절로 흘러 나왔습니다. 남한산성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눈 쌓인 산길을 걸어올라 가야 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흩어져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얼마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태어나서 오랜 길을 걸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눈 쌓인 산길은 한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몇 안 되는 신하들이 번갈아 가며 임금을 등에 업었습니다. 임금을 업은 신하들도 험난한 산길을 오래 걷지는 못했습니다. 발이 눈에 파묻혀 얹어질 듯 휘청거리려 얼마가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해 모두들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어느새 날은 저물



어 아들이 내려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 3) 임금, 천민 서혼남을 만나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총각이 보였습니다. 짙은 눈썹의 주먹코가 우직해 보이는 자였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짐채만큼 지고도 성큼성큼 걷는 모습이 씩씩해 보였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이 난리 통에도 나무를 하러 다니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천하게 태어나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촌무지렁이오라 하루라도 일하지 않는 날이 없사옵니다.”

총각의 대답에 임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인 것이지.”

임금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급하게 산성에 가야하는 일이 있는데 네가 나를 업어서 산성 안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도망가는 임금의 처지가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함부로 명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엄을 잃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총각은 임금인 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자태는 미천한 총각의 눈에도 지체 높은 사대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미천한 놈의 등에 업히시지요.”

그러면서 총각은 굽 높은 나막신을 꺼내더니 거꾸로 신었습니다. 널찍한 등을 내밀어 임금을 번쩍 업어 올렸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산길은 눈감고도 오르는 길이옵니다.”

총각은 씩씩하게 말을 하며 휘적휘적 걸어 나갔습니다.

굽 높은 나막신의 거꾸로 신고 걷는 총각이 임금은 신기하고 괴이하였습니다. 발이 아파

한걸음도 못 걸을 성 싫은데도 총각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산길을 뛰듯이 걸어 올랐습니다.

‘왜 나막신을 거꾸로 신고 산길을 오르는 것일까?’

무사히 산성에 도착한 임금은 총각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에 자리를 한 임금이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예, 소인은 산성에 사는 서흔남이라고 하옵니다.”

그제야 임금을 알아 본 총각은 머리를 깊숙이 조아렸습니다.

“참으로 고맙구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너는 발이 불편 할 텐데 왜 나막신을 거꾸로 신고 산길을 올라 온 것이냐?”

임금은 정말로 궁금해 물었습니다.

“적에게 ◎기는 분이시라는 생각에 신을 거꾸로 신은 것이옵니다. 제가 만약 신을 바로 신고 산길을 오르게 되면 눈 위에 난 발자국을 보고 적군들이 ◎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위험에 빠지실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오호 그랬구나. 아주 지혜로운 자로구나.”

임금은 모처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에게 큰 빛을 쬐구나. 소원이 있으면 말해 보거라.”

임금은 그가 신통하고 고마워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제 소원은 딱 한가지 이옵니다.”

“무엇이냐?”

흐뭇한 미소로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께서 지금 입고 계신 옷을 벗어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고 자란 서흔남은 사대부 양반네들이 길게 늘어뜨린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휘휘 걷는 모습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또한 무명웃만



으로 평생을 보내야하는 상것들에게는 비단옷은 꿈의 옷이기도 했습니다.

붉은 비단에 앞 뒤 금박으로 용무늬를 아름답게 수놓은 곤룡포는 그에게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대신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무례하구나. 어찌 감히 전하의 곤룡포를 벗어 달라하느냐.”

그랬습니다. 곤룡포는 임금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며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전하, 당치 않은 말이옵니다. 미천한 백성이 임금님을 모신 것은 마땅한 일이옵니다.”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흔쾌히 벗어줄 것이다. 네 비록 신분은 미천하나 생각이 깊고 지혜로워 내 목숨을 구했구나. 받아라.”

임금은 그 자리에서 곤룡포를 벗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서흔남은 남한산성에서도 소문난 천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하는 이가 그였습니다. 소, 돼지를 잡는 일에서부터 죽은 시체를 염하는 일까지 모두 서흔남이 도맡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아무지고 사리분별이 뛰어나서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 그를 임금은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큰 공을 세우는 것이다.”

임금은 서흔남에게 벼슬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천민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을 반대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서흔남이 전쟁 중에 큰 공을 세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 4) 전쟁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공을 세운다.

임금이 남한산성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청나라 군사들이 남한산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산성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모든 산성 문밖에는 적의 군사들이 두 겹 세 겹으로 지키며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한 임금은 산성 밖의 사정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또한 남쪽 지방에 파발을 띄워 지원군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옆친 데 대친 격으로 산성 안에서는 점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점점 부족해져갔습니다. 누군가 적군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동정을 살피러 나간 군사들조차도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살아서 도망을 간 것인지 성 밖을 나간 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행궁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흔남을 불러라.”

임금은 서흔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체 높은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근본도 알 수 없는 천한 자이옵니다. 그자가 어찌 전하의 소중한 교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이 반대했습니다.

“맞습니다. 흑시라도 적군에 붙잡혀서 간첩 노릇을 할지도 모르는 자이옵니다.”

좌의정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굴 보낸단 말ियो? 당신들이 직접 성 밖으로 나가기라도 할 것이요?”

임금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반대만 일삼는 신하들이 임금은 답답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임금이 내행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서흔남은 내행전 마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수고를 다시 한번 빌려야겠네.”

“분부만 내려 주십시오. 이 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서흔남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지금 청나라 군사들이 성 밖을 쾨쾨이 에워싸 우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적들의 동향을 살피고 강원도와 삼남지방으로 내려가 지원군을 요청할 자가 필요하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 산성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비가 삼엄해도 나갈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마당으로 내려와 서흔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다. 괜찮겠느냐?”

“나라를 구하는 길이옵니다. 어찌 이 미천한 목숨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비장한 각오로 말했습니다. 임금의 밀서를 받아든 서흔남은 그길로 짐을 꾸려 길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좁쌀 한주먹과 옷가지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꾸리는 짐은 단출했지만 서흔남의 행색은 괴이하였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더니 입고 있던 옷을 여기저기 찢어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부엌 아궁이를 해집어 숯검정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은 영락없는 미치광이 모습이었습니다. 서흔남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자 그는 남문에서 동쪽으로 뻗은 성벽을 따라 가파른 능선을 기어올랐습니다. 성벽에 나있는 배수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수구는 이미 막혀있었습니다. 서흔남은 예상했다는 듯이 배수구를 지나 동문 끝으로 다시 산을 타 넘었습니다. 그 쪽에는 서흔남이 어린시절 놀던 개구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수풀로 막아놓은 개구멍으로 성 밖으로 나온 서흔남은 진을 치고 앉아 있는 청나라 군사들의 숫자에 놀랐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곳곳에 불을 지피고 앉아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눈으로는 모두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였습니다. 더구나 남문 앞에 청나라 군사들은 군막을 치고 민가에서 빼앗아 온 솜이불을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성안의 우리 군사들은 추위 얼어 죽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데 저들은 마치 자기 집 인양 앉아 쉬고 있구만.’

그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임금의 앞날이, 조선의 앞날이 걱정이었습니다. 걱정도 잠시였습니다. 달빛에 빛나는 눈빛을 햇불삼아 남한산성을 내려갔습니다. 눈감고도 다니는 길이기는 하지만 적군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산길을 내려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아무도 몰래 살금살금 조심스레 내려오는 길에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네 이놈 조선의 첩자가 아니냐?”

청나라 군사가 서흔남의 목에 창을 들이댔습니다. 서흔남은 간이 떨어질 듯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닌 척 하며 입에 게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는 입에 머금은 게거품을 푸푸거리며 뱉어댔습니다. 그리고는 헛소리하듯 말했습니다.

“배고파 밥 줘. 밥 줘.”

한쪽 손을 뻗어 흔들어 대기도 하고 왼쪽 다리는 질질 끌면서 절룩절룩 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미친놈 아니냐?”

“배고파 밥 줘. 밥 줘.....”

서훈남은 눈까지 까뒤집고는 청나라 군사에게 매달리며 미친 짓을 했습니다.

“에잇, 더러운 놈. 어디 돌림병이라도 율을까 걱정이구나. 저리가거라.”

청나라 군사는 서훈남을 뿌리치더니 자신의 몸을 탈탈 떨어냈습니다. 정말 병이라도 율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장 저리가.”

병사는 서훈남을 향해 돌팔매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서훈남은 다리까지 절룩거리며 도망치듯 뛰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무사히 남한산성을 빠져나와 용인을 지나 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임금의 밀서를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여 다시 산성으로 돌아 온 서훈남에게 임금은 정3품의 가의대부라는 큰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서훈남 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미치광이로 변장하고 때로는 청나라 군사로 변장하여 임금의 뜻을 전국 각지의 아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남한산성에서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병자년의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는 군사가 다수였고, 청나라 군사의 숫자에 기가 놀려 싸울 의지를 갖은 군사 또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한산성을 피난 왔던 인조는 1637년 1월 30일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소현 세자와 신하 500명을 이끌고 송파 삼전나루에 얹드려 청나라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서훈남은 곤룡포를 부여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 5) 곤룡포와 함께 묻힌 서흔남

서흔남은 임금에게 하사 받은 곤룡포를 임금처럼 지극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곤룡포와 함께 묻어 달라는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겼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서흔남을 곤룡포와 함께 남한산성 아래 중부면 검복리 병풍산아래 묻었습니다.

그의 무덤을 지날 때면 아무리 지체 높은 벼슬아치라고 하여도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천민 출신 서흔남이 묻혀 있는 무덤이라도 임금의 곤룡포와 함께 있는 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 ■ 참고 문헌

『한국의 전설』 제2권. 박영준 한국문화출판사. 1972.

『산성일기』. 작지 미상. 김광순 옮김. 서해문집. 2004.

『너른 고을 옛이야기: 광주설화집』. 광주 문화원. 2008.

『숲과 역사가 살아 있는 남한산성』.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

『땅이름 역사산책: 남한산성과 병자호란』. 김기번 편저.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남한산성문화사업단 : <http://www.ggnhss.or.kr/>

## 14. 이성산성 - 사리고개 석불

심재은

### 1) 빼뚫어진 믿음

이성산성에 오르면 손에 잡힐 듯 한강이 굽이져 흐르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춘궁동 마을을 감싸 안은 듯 말발굽모양의 이성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산성에 올라 마을을 여기저기를 굽어보던 김부자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할 것인가? 물려줄 자식하나 없는 걸.”

그는 탄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부자는 춘궁동에서 제일가는 부자였습니다. 김부자의 땅에서 일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별로 없고 김부자 땅을 밟지 않고는 춘궁동을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실감하려고 종종 이성산성에 올라 마을을 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신이 부자인 만큼 걱정도 태산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은 어찌 할 것이며, 내 제사는 또 누가 지낸다 말인가!”

김부자의 신세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옆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인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죄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한 다음날부터 자식을 지독히도 바라던 남편 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수태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백일기도를 드려 보려고 해요.”

부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백일기도는 작년에도 올리지 않았소?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김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김부자는 곰방대만 빨아대며 뒷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의 약도 먹을 만큼 지어 먹었던 김부자 부부였습니다.

“옳지.”

하며 김부자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고서는 급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마누라 우리가 여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부인은 고개를 가우뚱하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바로 그거라고, 저 고개에 있는 석불에 당을 치어 부처님께 치성을 올리면 부처님께서 우리의 정성에 탄복해서 애를 보내줄 것 아니요?”

김부자는 자신이 정말 좋은 수를 생각해냈다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석불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부인은 느닷없는 남편의 생각에 기가 차다면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버럭 성을 냈습니다.

“그 따위 미신을 당신은 믿고 있는 거요?”

김부자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당에 자신이 못할 짓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일기도정도의 치성으로는 부족하다는 말ियो. 더 큰 정성을 올려야 아이가 생길 것 아니요?”

그는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그곳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괜히 잘못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요.”

부인은 왠지 꺼림칙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무엇이요?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치성을 올릴 준비나 하시오”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라.”

김부자는 마당쇠를 불러 들여 일렸습니다.

“내 땅을 붙여 먹는 소작인들을 모두 모아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저 사리고개 석불에 당을 짓도록 하거라.”

## 2)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김부자

김부자가 석불에 당을 짓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자 동네는 순식간에 떠들썩거렸

습니다.

“아니, 석불에 무슨 짓을 하려는 게야?”

박영감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자식을 얻으려고 치성을 드리자고 하는 짓 아닌가.”

옆에 있던 박영감 친구가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안 생기는 자식이 생기더라도 한탄 말인가? 그곳은 신성한 곳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누가 아니라. 예전에도 그곳에 괜히 무당들을 불렀다가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가.”

이영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나서서 말려야 하는 것 아닌가?”

박영감은 마을일이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말게. 우리 마을에 김부자 땅에서 소작하지 않는 집에 어디 몇 집이나 되냐는 말일세. 그러다가 내년 농사도 못 짓게 될걸세.”

이영감은 손 사례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누구 한사람 나서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몇몇이 모여서 속닥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김부자가 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치려 하는 게야. 나라도 나서서 말려야겠어.”

박영감은 이영감의 말류를 뿌리치고 김부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부자님 그래도 제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오래 산 늙은이입니다.”

박영감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요?”

김부자는 눈 꼬리를 치켜 올리며 못마땅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리고개 석불은 그냥 석불이 아니옵니다. 괜한 일로 화를 부르시면 아니 되웁니다.”

박영감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 방해를 놓겠다는 거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궤방을 놓으려는 박영감이 꽤 씩씩해보였습니다.

“그런다고 안 생기는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뭣이라?”

아이라는 말에 김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감히 네가 내 일에 함부로 말하려는 것이냐? 네 이놈을 당장 끌어내 곤장을 치고, 당장 땅을 빼앗아라.”

김부자의 불호령에 마당쇠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박영감을 끌고 나와 곤장을 쳤습니다. 박영감을 매를 스무 대나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부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 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일도 놓고 사당을 짓는데 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당은 짓는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석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사당이 완성되었구려.”

김부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내의 몸에 아이가 생길 듯싶었습니다.

“네, 여보 열심히 치성을 드릴게요.”

김부자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올렸습니다. 사람들도 먹어보지 못한 귀한 과일을 올리고 쌀을 올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에게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 3) 재앙을 불러오는 김부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비가 오지 않네 그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레 둘러 모였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가물어서야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겠구먼.”

비가 오지 않은지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리고개 석불에 당을 짓고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 아닌가?”

누군가 불쑥 내뱉듯 한마디 했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니 딱 맞아 떨어지네 그려.”

“아이고, 자네 그런 말 말게나. 김부자 영감이 들었다가는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먼.”

사람들은 김부자가 무서워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닌가 말일세.”

마을은 점점 더 가물어 갔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껍질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도 말라버려 사람들이 마실 물조차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옆 마을에서 물을 길어와 겨우 목을 축이는 날이 계속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산 천초목이 모두 점점 타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를 삼일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가뭄에 단비가 아니라 이번에는 홍수가 난 것입니다. 집이 물에 잠겨 살림살이마저 모두 비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이성산성으로 비난을 떠났습니다. 가뭄에 찌들었던 농작물들까지 이제는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이를 어찌.”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난리여.”

동네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어찌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왔지만 비를 피하지 못한 소, 닭, 돼지가 떠내려 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 사리고개 석불에 당을 지은 탓이야.”

한 두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부자가 무서워 나서서 이야기 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달 열흘 동안 내리는 던 비가 멈추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에 잠긴 살림살이를 챙기는 마을 사람들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멀쩡하던 동네 아이들이 하나 둘씩 죽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흉수에 굶주리고 몸이 약해질 데로 약해진 아이들이 먼저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

죽어서 늘어진 어린 자식을 부여잡고 부모들이 통곡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한 집 걸러 한집씩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만있다가는 마을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저마다 손에 삽과 곡괭이를 들고 몰려 나왔습니다. 이제 김부자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 모여서 저 사당을 부수어 버리세.”

박영감이 먼저 나서서 외쳤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김부자를 혼내주어야 한단 말일세.”

젊은이들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그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달려가 당을 부수고 불 질러 버렸습니다. 사당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김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하늘에서 노여움을 산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너무 내 욕심에 눈이 멀었구려.”

김부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 욕심에 마을에 재앙이 몰려 온 것이예요.”

사람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자신으로 인해 마을에 불어 닥친 재앙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 4) 용서를 구하는 김부자

김부자 부부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그 날 이후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부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김부자를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쉽게 풀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자는 자신의 곡간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쌀도 나누어 주고 가축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가져다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땅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부자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김부자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김부자는 마을에 잔치를 열어서 베풀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김부자 부인은 임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은 부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울여야 하는 것을 하늘이 날 일깨워 주었구려.”

김부자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졌습니다.

#### ■ 참고 문헌

『역사 도시 하남/ 하남시 편』, 하남시, 2001



## 15. 군자상행 - 군자봉 이야기

최서현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날, 마을 어귀 정자에서 유씨노인과 김진사가 바둑을 둔다. 유씨노인은 바둑돌을 놓을 곳을 살펴보았으나 어느 곳에 놓더라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유씨노인의 눈치를 보고 앞서 두었던 바둑돌을 무르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씨노인은 손에 쥐고 있는 바둑돌을 던졌습니다. 바둑돌은 돌의 대국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바둑돌을 피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바둑돌은 길가에서 구르다 멈췄습니다. 유씨노인은 김진사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어째서 무르는 것이야!”

김진사는 유씨노인의 호통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물러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유씨노인은 바둑판을 엮었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흩어졌습니다. 유씨노인은 벌떡 일어나 김진사에게 다시 호통쳤습니다.

“네 놈이 얼마나 잘 두는지 모르지만 정신부터 글러먹었어!”

유씨노인은 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씨노인이 바둑판을 뒤엎자 모두 흩어졌습니다. 유씨노인은 길 위에 떨어진 바둑돌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씨노인이 멀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정자에 다시 모여 바둑돌을 주으며 유씨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말했습니다.

“귀신은 뭘 하는지… 저 노친네나 잡아가지.”

유씨노인은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 여전히 툭툭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씨노인은 첫째 아들의 방문을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글은 읽고 있는 것이냐? 요즘은 왜 임금이 널 찾는게 뜬해진 것이야!”

그러나 입궁하였는지 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유씨노인은 차례대로 자식들의 방문을 열어

보았지만 모두 빈 방이었습니다.

“어디로 간 것이야!”

유씨노인은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유씨노인은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부치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늙은 종이 아들과 함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유씨노인은 늙은 종에게 다가가 종에게서 빗자루를 빼앗았습니다.

“왜 이렇게 먼지가 날리게 마당을 쓰는 것이냐!”

카랑카랑한 유씨노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은 대구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유씨노인은 입꼬리를 올려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마당에 내팽개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기침이라도 하길 바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냐?”

유씨노인은 빗자루로 종에게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은 노비라는 신분 때문에 유씨노인의 매질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씨노인은 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를 맞은 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유씨노인은 매질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발 밑으로 한줄기 핏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종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이는 종을 일으켰지만 이미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아이는 유씨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유씨노인은 빗자루를 멀리 던지고 자신을 노려보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놈들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야.”

유씨노인은 부채를 주워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유씨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엌에서 발만 구르고 있던 여종이 유씨노인이 방에 들어가자 헛간에서 멍석을 가져와 늙은 종의 시신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



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멍하게 있더니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겠어요.”

“어디로? 갈 곳은 있니?”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올 거예요.”

여종은 부엌으로 들어가 주먹밥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나오리가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이니 지금 얼른 떠나. 나오리가 물어도 모른다고 할터이니 붙잡히지 않게 아주 아주 멀리 가. 뒷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왼쪽으로 가면 이 마을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 이 길은 나만 아는 길이니 그 쪽으로 얼른 뛰어가.”

아이는 급히 집을 꾸러 집을 나섰습니다. 여종이 일러준대로 마을 뒷산으로 올라 재빨리 마을에서 벗어났습니다. 유씨노인의 집이 보이지 않자 아이는 길가에 앉아 여종이 챙겨주었던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딱딱하게 식은 주먹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집을 뛰쳐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으며 수중에 돈도 없었기에 거렁뱅이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금강산의 절에 지술에 능한 스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스님을 뵈고 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아이를 거두어 잔심부름을 사키며 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스님은 매달 보름이 되면 시주를 받으러 근처 마을로 떠났습니다. 보름달이 뜨자 스님은 어김없이 새벽 기도가 끝난 후 붓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새벽 기도를 도와드린 후 아이는 잠시 하늘을 보더니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도 시주받으러 마을로 가십니까?”

스님은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붓짐을 어깨에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스님은 신을 신기위해 허리를 숙였고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나무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주지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스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하늘에는 별과 달만 보였습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느냐?”

아이는 스님의 말에 거침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부는 바람은 습기가 차서 눅눅하고 나뭇잎이 떨어질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새들도 낮게 날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후 스님은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대로 신을 벗고 붓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말대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따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처음 너를 보았을 때부터 또래아이에 비해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너의 소원은 무엇이나?”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스님에게서 지술을 배워 지관이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술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에게서 배우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 청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여겨 청년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거라. 네가 익힌 지술을 활용하여 중생을 깨우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청년은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고 자신이 어렸을 적 살던 유씨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문을 두드려 유씨노인을 뵈기를 청했습니다. 유씨노인은 귀찮은 표정으로 청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 하루 머물렀으면 하는데 이 마을에서 하루 머물만한 곳은 이 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씨노인은 청년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뜨내기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집에서 신세를 지려는 것이냐! 썩 물러나지 못할까?”  
청년은 유씨노인의 호통에 굴하지 않고 붓집에서 돈을 꺼내어 유씨노인에게 건네며 녀살  
좋게 말했습니다.

“노인께서는 훌륭한 관상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이리 냉정하십니까. 이건 제 성의입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을터이니 부탁드립니다.”

유씨노인은 청년이 건네는 돈을 곧바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투명스러운 목소리  
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네의 성의를 생각해서 우리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네. 그렇지만 오래  
는 안 되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유씨노인은 청년을 사랑방에 들였습니다. 청년은 사랑방을 향하면서 유씨노인의 집을 재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십년이 훨씬 지났지만 노인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유씨노인도  
정정했으며 집안 식구들도 모두 무사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들을 전부 알  
아보았지만 그들은 청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씨노인은 십년 전에도 그러  
했듯이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유씨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룻밤 머무를 수 있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씨노인은 심술긋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청년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술로 노인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금강산에서 지술에 능하신 스님  
께 십년을 배웠습니다. 조상 묘를 알려주시면 지금보다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  
습니다.”

“우리 조상 묘는 앞산에 있소.”

“과연…….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허나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흠?”

유씨노인은 어느새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군자봉 산봉우리가 문제죠.”

유씨노인은 청년을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군자봉 산봉우리가 석자 세치만 낮았더라도 어르신 집안은 지금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유씨노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청년의 말대로 산봉우리만 낮춘다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씨노인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유씨노인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마을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 군자산 산봉우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유씨노인은 다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군자봉 산봉우리를 낮추었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고친다면 더 좋아질 것 입니다.”

“무엇이냐?”

“산소 밑에 있는 신도비를 산소 쪽으로 열자만 끌어 올려 위치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산소 옆에 있는 별바위를 깨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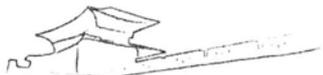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허나 이 일은 위험부담이 있어서 일을 하는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제가 떠나고 한나절 후에 시행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계산하여 떠나겠습니다.”

“알았네.”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청년은 유씨노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유씨노인은 청년이 간 것을 확인하고 청년이 일러준 대로 한나절 후에 신도비를 산소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비석의 받침돌인 거북이 모양의 발에서 선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르신, 피가 쏟아집니다!”

신도비를 옮기던 마을사람들이 놀란 목소리로 유씨노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씨노인



은 흐르는 피를 보고 마을사람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고여 있던 피가 나오는 것이니 길조다. 요령 피우지말고 벌바위를 찾아 깨뜨려라.”

유씨노인의 말과 달리 마을사람들은 흉조일 것이라고 수군거리며 마을사람들은 벌바위를 찾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왕벌 두 마리가 바위틈에서 튀어나와 청년이 간 곳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상한 청년은 무쇠 솔을 머리에 쓰고 김포나루터로 갔습니다. 왕벌 두 마리는 총각이 뒤집어 쓴 가마솔을 빙글빙글 돌면서 무쇠 솔에 침을 쏘았습니다. 벌침은 무쇠를 통과할리 없었기에 왕벌 두 마리는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총각은 벌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쇠 솔을 벗어놓고 김포나루를 건너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유씨 집안은 권세가 차츰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군자봉은 다른 봉우리에 비해 세 치 정도 낮아 보입니다.

#### ■ 참고문헌

시흥군지

## 16. 남한산성 - 적장의 편지

최서현

충남 보인에 김진사 내외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혼 한 지 십여년이 지났으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 부인이 새벽녘에 꿈을 꾸었습니다. 부인은 꿈이 잊히지 않아 다음 날 김진사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지난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들어와서 저에게 불쑥 거울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항상 잘 닦아서 지니라 이르고는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말을 듣자 얼굴에 미소가 절로 생겼습니다. 김진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꿈은 예로부터 아들을 낳을 꿈이라고 하오.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려나봅니다. 우리 다시 백일동안 기도를 드려봅시다.”

김진사 내외는 후원에서 정성껏 백일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의 효험이 있었는지 김진사 부인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있어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몸짓이 컸으며 울음소리 또한 우렁찼습니다.

“부인, 사내아이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는 처음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으로 각성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을 앞. 항상 더 나은 것을 이루며 자라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김진사 부인은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김진사를 보며 힘겹게 미소를 띠었습니다.

“각성…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꼭 그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성은 김진사 내외의 바람에 따라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네 살 때 천자문을 떼었으며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항상 대장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성이 열 살이 되었을 때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앓아 누웠습니다. 김진사 내외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렀지만 병명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각성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똑똑똑똑”

어느 아침 대문 앞에서 목탁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 부부가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남루한 복장을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김진사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주인어른의 아드님은 부처님께서 점지해주신 분인데 지금 잡귀에 시달리고 있으니 절에 데려다가 불공을 드리라는 분부를 부처님이 소송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사 내외는 스님의 말에 당황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스님의 말을 쉽게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로 김진사는 스님을 아들의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방에서 앓고 있는 각성을 본 스님은 다시 김진사 내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어른께서는 저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십시오. 아이의 상을 보아하니 출가를 해야만 생명을 길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불제자가 되어 차란다면 분명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김진사 내외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호한 스님의 말에 김진사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각성의 얼굴을 한참동안 쳐다보다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말대로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정말 확실한 것입니까?”

스님은 김진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목탁을 쳤습니다. 결국 김진사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각성을 스님에게로 보냈습니다. 스님은 각성을 업고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로 온 각성은 금세 병이 나았습니다. 각성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스님은 각성에게 벽암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벽암의 글솜씨와 무예 실력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였습니다. 벽암이 스무 두 살이 되는 날, 스님은 벽암을 불러 당부하였습니다.

“내가 내 등에 업혀 이 산에 온지 십년이 지났다. 지금 사바세계에서는 너를 낳은 부모가 애타게 너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 나라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산하여 너의 부모를 만나고 너의 무술로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데 힘쓰도록 하여라.”

벽암은 스님의 말에 따라 암자에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미 죽은 뒤

였으며 집은 폐허가 되어있었습니다. 벽암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부모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길이 닿지 않은 묘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벽암은 잡초를 뜯으며 눈물을 흘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벽암의 꿈에서 스님이 나와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벽암아. 눈물을 거두어라.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이다. 너로 하여금 사사로운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을 극락세계로 모셔간 것이다. 슬픔을 거두고 한양으로 가거라. 머지않아 이 나라는 외적의 침략으로 위태로워 질 것이다. 한양에 당도하면 네가 할 일이 생길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얼른 이 곳을 떠나거라.”

꿈에서 깨어난 벽암은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는 무과시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벽암은 무과시험에 응시하여 자신의 무술실력을 발휘하며 결선까지 올랐습니다. 결선의 상대는 몸집이 거대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벽암은 기죽지 않고 사내의 검을 재빨리 피하면서 공격하였습니다. 몇 번의 공격 끝에 상대의 목검이 부러졌습니다. 벽암은 곧장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으나 뒤로 물러서 상대가 다른 목검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때 상대가 심판관을 향해 외쳤습니다.

“진검을 주시오! 이 자와 진검승부를 하고 싶소!”

“진검은 규정에 어긋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검승부를 하고싶소!”

상대와 심판관의 실랑이가 시작되어 시험이 중단되었습니다. 벽암은 심판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진검 승부를 허락한다!”

무술 시험을 보고 있던 광해군이 외쳤습니다. 심판관은 광해군의 명령에 당황하였습니다.

“하오나 전하. 진검승부는 규정에 어긋날뿐 아니라 잘못하면 이들 중 목숨을 잃는 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무술 실력이 뛰어나니 이 시험을 좀 더 지켜보고 싶구나. 이번만큼은 진검승부를 허락하노라.”



광해군의 허락아래 벽암은 진검을 들었습니다. 검과 검이 몇 번이나 부딪혔으나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대가 있는 힘껏 내리치는 칼을 벽암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상대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벽암은 칼을 들고 매서운 눈으로 상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벽암이 망설이는 사이에 상대는 관중들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승리자입니다!”

심판은 벽암의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심판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과 시험에 합격한 벽암은 광해군으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전하. 북의 오랑캐들이 곧 이 나라를 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북방 경계선을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오랑캐들의 침략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명의 세력이 약해지고 청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 경이 얘기대로 청이 고려를 침입할 가능성도 충분하지. 허나 잘못하면 그것이 오랑캐들을 자극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청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에 청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중립외교로 고려를 지켜야 한다.”

“하오나, 전하. 외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너 또한 청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지금 명은 지는 해고 청은 떠오르는 해다. 우리 조선처럼 강한 나라 사이에 있는 국가는 지금 이 순간의 강자를 찾아 그들과 타협해야 살아 갈 수 있다. 진정 우리 조선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거라.”

벽암의 주장에도 광해군의 뜻은 굳건했습니다. 벽암은 자신의 주장을 외면하는 광해군에 실망하여 벼슬을 버리고 암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암자는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었습니다. 벽암은 그 자리에 움막을 짓고 부지런히 불경을 외우며 무술을 연마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러갔습니다.

“어찌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너는 빨리 세상에 내려가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라.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얼른 내려가 나라를 구할 성을 쌓아라!”

벽암의 꿈에서 스님이 호통쳤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벽암은 다시 속세로 내려갔습니다. 벽암이 산 속에 머무르던 동안 임금이 광해군에서 인조로 바뀌었습니다. 벽암은 그 길로 대궐로 들어가 인조를 찾았습니다.

“전하, 소인 광해군 시절 잠시 벼슬을 하였던 벽암이라고 하옵니다. 소인 전하께 간청드릴 것이 있어 전하를 뵈옵니다. 광해군께도 간청 드렸으나 외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종묘사직이 걸린 시급한 일이옵니다.”

“무엇이냐. 말하여라.”

인조의 말에 벽암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다.

“곧 북쪽에서 오랑캐 무리가 쳐들어 올 것이니 성곽을 튼튼히 하여야 하옵니다.”

인조는 벽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은 남한산성을 튼튼하게 쌓도록 하여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벽암은 혼신을 다하여 남한산성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벽암은 의병을 일으켜 청나라 군사와 맞서 싸웠습니다. 부평벌에서 청나라 군사와 벽암의 의병 부대가 마주쳤습니다. 벽암의 부대는 엄청난 수와 각종 무기를 갖춘 청나라 군사의 기세에 눌러 사기를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수세의 우세도 중요하지만 사기를 잃는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벽암은 홀연히 말을 타고 적진 앞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조선의 팔도도총섭 벽암이다. 대장은 나오너라. 나와 승부를 겨루자!”

잠시 후 적진에서 장수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군의 이름은 무엇이오?”

적진 장수의 질문에 벽암은 칼을 뽑으며 응수했습니다.

“원수끼리 만났는데 이름은 알아 무엇하오.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으시오!”

“장군의 본명이 혹시 김각성이 아니오?”

“그렇소.”



적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은 옛날 과거장에서 칼을 잃고 도망갔던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요. 그때는 조선의 정세를 몰래 살피러 왔다가 조선의 인재를 알아보려고 과거장에서 무술 시합을 해봤던 것이요. 그러다가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 했었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무술 시합을 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어떻소?”

적장은 벽암의 도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잘 알겠소. 하지만 싸우기 전에 옛일을 생각하며 내가 장군을 초청해서 술을 한 잔 나누고 싶소. 어떠시오?”

“적으로 만난 사이에서 술은 가당치도 않소. 무술 시합의 승패가 결정 난 후에 진 사람의 간으로 안주로 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요.”

벽암은 적장의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적장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벽암의 말에 응수했습니다.

“좋소. 그럼 싸움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

적장은 말머리를 돌려 청나라 군사의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벽암 또한 자신의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벽암은 군사를 점검하고 적장과 대결하기 위하여 청나라 군사의 진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젯밤까지 청나라 군사가 있던 곳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벽암은 창 하나가 꽃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에는 적장의 편지가 매달려있었습니다.

김각성 장군. 나는 이대로 물러가요. 우리 군사들은 장군의 군사들을 한 순간에 몰살시킬 수도 있소. 하지만 옛날에 장군이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만 물러가는 것이요.

벽암은 적장의 편지를 다 읽고 말을 타고 자신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모

두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은 군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벽암은 적장의 편지를 태웠습니다. 가늘게 피어난 한 줄기 연기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힘없이 사그라졌습니다.

■ 참고문헌

남한산성 문화관광 사업단

## 17. 남한산성 - 기운 센 바위

최서현

태종의 명을 받은 용골대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레 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용골대의 뺨을 스쳤습니다. 낮은 시각에 새들까지 잠들었는지 사방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태종의 처소에 도착한 용골대는 작은 목소리로 고하였습니다.

“폐하. 용골대 들었사옵니다.”

잠시 후에 태종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들거라.”

용골대는 태종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읽던 책을 덮고 용골대를 맞았습니다. 태종은 용골대가 들어온 후에도 문이 닫히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용골대에게 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은 것이 확실하느냐?”

“예, 폐하. 소인이 여기에 온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제껏 명이 지배하던 땅을 모두 차지하고 게다가 명의 옥새까지 차지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명을 섬기고 우리를 오랑캐라 하며 우리가 제시한 군신관계의 예를



다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조선에서는 우리를 공격하지는 말들이 많다고 한다.”

“십년 전의 전쟁에서도 그랬듯이 그들은 바다에서의 전쟁은 강할지 모르나 땅에서의 전쟁은 형편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선을 완전히 항복 시켜야 한다. 그러니 용골대는 조선에 잠입하여 남한산성의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라.”

“남한산성을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남한산성은 그 위치뿐만 아니라 산성 내에 연못이 있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조선에게 유리한 장소가 될 것이다. 조선의 임금이 만약 강화도로 도망가지 못한다면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험한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남한산성으로 가서 내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라.”

“용골대. 폐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용골대는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용골대는 어렵지 않게 조선에 잠입하였습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대피하여 청과 전쟁을 하자는 주장과 개성에 머무르며 전쟁준비를 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조는 그들의 구체적인 전쟁준비의 청사진을 들으면서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의논만 거듭했습니다.

용골대는 태종의 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곧장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남한산성은 도성 근처에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쉽게 찾았습니다. 용골대는 남한산을 무작정 올랐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용골대는 등산을 시작한 지 한참 후에 남한산성에 도착했습니다. 남한산성은 남한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태종의 말대로 산성 내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고 주위에는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용골대는 마을을 둘러보다 남한산성을 따라 걸었습니다. 흙과 돌로 쌓여진 남한산성은 산봉우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성의 밖에는 커다란 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가파른 산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산성 안에 큰 마을이 있다. 그래도 이정도쯤이야 우리의 흥의포 한 방이면

이까짓 산성쯤 무너지는 거야 시간문제지.”

용골대는 산성을 따라 걸으며 산성이 산을 어떻게 두르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퀴를 돌고 난 후 용골대는 인적이 뜸한 산봉우리에 앉아 가지고 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솥을 들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둥글게 산을 두르고 있는데 한쪽은 흑처럼 툭 튀어나와있고…….”

용골대는 종이위에 남한산성의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남한산성의 문을 표시하다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어느 쪽이 동문이었지?”

용골대는 문의 이름을 적다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골대는 다시 되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조선쪽이야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굳이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어?”

용골대는 하늘을 보며 지금 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이리저리 바꾸어가며 생각하다가 솥을 쥐었습니다.

“여기가 동문이 맞는 것 같아.”

용골대는 문 이름을 모두 적고 난 후 남한산성 벽에서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단 강의 위치부터 그리고…논밭은 특별한 것이 아니니 넘어가고…참, 여기에 저수지가 있었어. 폐하께서 저수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위치가 여기쯤이었고 종각 따위 전쟁에서 무슨 쓸모가 있어. 그냥 큰 절이나 그려 넣자. 이정도면 되겠지?”

용골대는 대충 남한산성의 지도를 그려서 조선을 떠났습니다. 청나라에 다다르자 용골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용골대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다시 태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용골대는 남한산성지도를 챙긴 후, 새벽녘에 궁으로 향했습니다. 태종은 용골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용골대는 남한산성 지도를 태종에게 건넸습니다.

“폐하께서 명하셨던 남한산성 지도입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다.”



태종은 용골대가 건넌 지도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지도에는 산성의 위치와 강과 산의 위치가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태종은 지도를 계속 보며 용골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강의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강은 산성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도성은…도성은 강 건너편에…있었습니다.”

용골대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용골대의 대답을 듣고 태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칼을 뽑아들어 용골대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네 말과 같이 강과 도성이 서편에 있으면 남한산성의 산세는 응당 남북이 길고 서북이 짧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반대로 서를 길게 하고 남북을 짧게 그려왔는가?”

용골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태종은 칼을 한참을 겨누다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용골대는 연거푸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태종은 용골대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그려 오라.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그려오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네 목을 벨 것이다!”

태종의 명에 겁을 먹은 용골대는 서둘러 다시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찾는 남한산성은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골대는 남한산성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남한산성의 성곽, 바위, 골짜기, 언덕 등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살펴 지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청으로 돌아가 태종에게 지도를 바쳤습니다.

“폐하. 남한산성 지도이옵니다.”

태종은 용골대가 건넌 지도를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종은 지도를 상 위에 펼쳐 용골대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곳은 벌봉이라는 바위가 있는 곳이다. 이 바위는 남한산의 정기가 깃든 바위이다. 만

일 조선 국왕이 별봉을 안에다 두고 성을 쌓았더라면, 우리가 쉽게 남한산성을 공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허나 다행히 별봉이 성 밖에 있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 편이라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 이 지점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사옵습니다.”

“조선을 공격할 때 우리는 조선 국왕이 강화도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김포나루를 막고 재빨리 조선을 칠 것이다. 그러면 조선 국왕은 분명 남한산성으로 피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 우리 군사가 산성 밖에 있는 별봉으로 가서 바위를 먼저 깨트려 남한산의 정기를 없앤다면 산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태종의 말에 용골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종은 지도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용골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선 침략을 구체화 할 것이다. 수고했다. 물러가거라.”

태종은 조선과의 전쟁에 앞서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의 별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별봉을 깨트렸습니다. 별봉이 깨지자 바위 위로 연기가 나면서 별봉에 갇혀있던 남한산의 정기가 흩어져 마치 별뿔이 하늘로 흩어지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달 후, 태종은 조선을 공격하였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인조는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청나라는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인조의 항복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는 매서운 추위와 식량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게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까지 듣자 인조는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찧으며 항복했습니다. 태종은 인조의 항복을 받고 바로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조선에서 별봉에 얽힌 이야기를 알게 되어 다시는 임금이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별봉 밖에다 성을 다시 쌓았다고 합니다.

#### ■ 참고문헌

남한산성 문화관광 사업단



## 18. 보개산성 - 잃어버린 미륵국

최서현

궁예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시끄러웠던 대전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궁예는 한참동안 침묵을 지키다 말을 꺼냈습니다.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길 것이오.”

궁예는 말을 끝내고 바로 왕건을 살폈습니다. 왕건은 궁예의 말에 잠시 생각하다 궁예에게 예를 취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도읍까지 옮기게 된다면 백성들이 혼란해 할 것 입니니다.”

“개성은 풍수지리상 수덕이 나빠서 해마다 수해를 입는다. 하여 풍수가 좋은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인 일천호를 철원으로 옮긴다.”

신하들은 궁예의 뜻에 반대하는 간청을 드렸으나 궁예의 뜻은 이미 단호했습니다. 대전회의가 끝난 후 신하들은 왕건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다니 큰 일 아닙니까. 게다가 청주인까지 철원으로 옮긴다구요? 허허.”

“청주인이라면 신라계와 고구려계에 반대하는 철저한 백제의 후예가 아닌가.”

“며칠 전에는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마진으로 바꾸시더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청주인 일천호를 철원으로 옮긴다면 임금께서 적어도 이천의 병력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왕건은 한참을 생각하다 책상을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크고 둔탁한 소리가 방안에 울렸습니다. 신하들은 놀라 말을 멈추고 왕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께서 우리 고구려계를 제압하고자 백제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일천호나 되는 많은 호를 철원으로 옮긴다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길테니 추이를 좀 더 살펴

봅시다. 지금 임금은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으니 선불리 나설 수는 없습니다.”

궁예가 청주시민 일천호를 철원으로 옮긴다는 명을 내렸다는 것이 온 궁궐에 퍼졌습니다.

강씨부인 또한 이 사실을 듣고 급히 궁예를 찾았습니다. 강씨부인은 궁예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청주시민을 철원으로 옮길 것이라는 명을 내린 것이 사실이옵니까?”

궁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씨부인은 잠시 생각을 한 후 조심하 말을 꺼내었습니다.

“어찌 왕건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려는 것입니까? 왕건은 차근차근 고구려계 사람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청주시민을 철원으로 옮긴다면 고구려계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 왕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왕건과 더 이상 등을 지면 안됩니다. 전하는 호족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주시민을 도읍인 철원으로 옮겨 이 땅의 모든 백성과 함께 궁궐에 살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미륵국을 만들 것이요. 나만 누리는 특별한 생활을 모두 함께 누리며 차별 없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요. 그것이 나의 꿈이었소. 이제 나의 꿈을 실행하고자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감수할 것이요.”

강씨부인의 만류에도 궁예의 뜻은 굳건했습니다. 결국 궁예는 도읍을 바꾸고 청주인을 철원으로 옮기는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고 뜻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날 밤 궁예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나는 미륵국을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 꿈을 저지하려는 호족들, 특히 왕건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도 모르게 산성을 쌓아라. 훗날 왕건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궁예의 명대로 아무도 모르게 밤에만 산성을 쌓았습니다. 보개산성을 비롯한 여러 산성이 도읍 근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청주인들이 철원에 옮겨지자 처음에는 궁예에게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청주인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지태가 궁예를 찾았습니다. 아지태는 궁예의 미륵국에 대한 신념을 지지하여



궁예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폐하께 급히 알리고자 뵙기를 청했습니다. 지금 입전, 신방이 왕건과 함께 반란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을 벌하여 반란의 무리에게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이냐?”

궁예는 아지태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아지태는 주위를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그러합니다. 폐하께서는 청주인으로 왕건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청주인끼리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왕건이 그들을 포섭한 것이옵니다. 소인을 믿어주시옵소서.”

궁예는 아지태의 말에 화를 내었습니다.

“내 내에 대한 얘기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있다. 그런데 어찌 서로 모함을 하는 것이냐!”

아지태는 궁예의 의외의 반응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지태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간청하였습니다.

“폐하, 소인을 믿으시옵소서. 소인이 폐하에게 청주인을 철원으로 옮기자는 의견을 내지 않았사옵니까. 어찌 소인이 폐하의 뜻과 반하는 의견을 낼 수 있사옵니까. 그들은 왕건의 편에 서서 벼슬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궁예는 아지태의 말에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왕건에 대한 불안함에 바로 명을 내렸습니다.

“아지태는 입전과 신방을 참소하라.”

다음 날 아지태는 공개적으로 입전과 신방을 참소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본 청주인들은 궁예가 내린 처벌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왕건에게 누명을 벗겨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왕건은 아지태의 모함을 쉽게 알아채고 아지태를 참소하였습니다.

왕건이 아지태 사건을 해결하자 젊은 지식인들이 왕건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기존 고구려세력뿐만 아니라 신진세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예는 궁궐을 완성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궁예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 중 홍유, 배현경, 복지겸, 신승겸이 궁예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궁예의 신망을 받는 무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궁예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드렸습니다.

“폐하. 왕궁 신축을 잠시 멈추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무리한 조세와 노동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의 신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렇게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것으로는 이를 수 없습니다. 부디 백성들을 살피시옵소서.”

“폐하가 꿈꾸시는 미륵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멀리보시고 지금은 민심을 살피고 왕건과 고구려계의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충심어린 간청을 끝까지 들은 후에 궁예는 대답했다.

“내가 꿈꾸는 미륵국이 이제 완성되어가고 있어. 왕궁만 지어진다면 이제껏 힘들었던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그때가 되면 민심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더 나를 믿어주게.”

그들은 궁예의 신념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아 왕건을 찾았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미륵국에 대한 집착으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무리한 조세와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살피주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지지해준다면 폐하를 물러나게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믿어주겠느냐?”

왕건의 질문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궁예의 충신이었던 그들의 지지에 힘을 얻은 왕건은 반란을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왕건은 고경문이라는 시를 만들어 저잣거리에 뿌렸습니다.

강씨부인이 고경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 고경문을 가지고 궁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강씨부인은 소매자락에서 비단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잣거리에 들리는 고경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경문?”

“이 안에 고경문의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온 도성에 퍼져있습니다. 한번 보



시지요.”

삼수중(三水中)과 사유(四維) 아래  
상제가 진마(辰馬)에 아들을 내려보내  
먼저 닭을 잡고 나중에 오리를 칠 것이니  
이것은 윤이 차 3갑을 하나로 뒀을 이른 것이다  
몰래 하늘에 올라가 밝게 땅을 다스릴 것이니  
자의 해에 대사를 일으킬 것이다  
종적과 이름을 어지럽게 하니  
뒤섞여 누가 진과 성을 알 수 있으랴  
법뇌를 떨게 하고 신전을 휘두를 것이다  
사년 중에 두 용이 나타나  
한 용은 몸을 청목(靑木) 속에 감추고  
한 용은 흑금(黑金) 동쪽에 나타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볼 것이나 어리석은 자는 못 볼 것이다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며 사람들과 함께 정벌에 나선다

때로는 성하기도 때로는 쇠하기도 하는데  
성하고 쇠함은 악한 세상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 한 용의 아들 서너명은  
대를 바꾸어 가며 6갑자를 이으리라  
이 사유는 반드시 축년에 멸망할 것이니  
바다를 건너와 항복하는 것은 모름지기 유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글이 밝은 왕에게 발견된다면  
국태민안하고 왕의 제업이 영원히 창성할 것이다

나의 기록은 무릇 147자이다.

궁예는 고경문을 여러 번 읽었으나 그 속에 의미한 뜻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궁예는 학자를 불러 고경문의 숨은 뜻을 파악하라 명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고경문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고경문 속의 삼수중은 태봉의 ‘태’ 자의 파자이며 사유는 신라의 ‘라’ 자의 파자였습니다. 또한 청목은 송악을 의미하고 흑금은 철원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고경문의 숨은 내용은 궁예의 나라가 망하고 이어 신라가 망한 후 천하가 왕건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내용을 궁예에게 알려야 하는지 숨겨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경문으로 인해 민심이 점점 왕건으로 기울 것을 예감하고 궁예에게 고경문의 숨은 뜻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궁예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여 난을 일으키려 한 강씨부인과 그의 아들을 유배시켰습니다. 그리고 궁예는 궁궐 신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궁궐이 거의 완성될 무렵, 왕건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패주 궁예는 왕건의 심판을 받으시오!”

왕건의 반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궁예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보개산성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나중을 기약하며 비밀리에 움직였으나 왕건의 첩자에 의해 궁예의 위치가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왕건은 군사를 이끌고 보개산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수세에서 훨씬 앞선 왕건은 보개산성 공격에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결국 궁예는 왕건에 쫓겨 명성산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쫓겨 운악산성에서 평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궁예는 삼봉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그 곳에서 한 승려를 만났습니다. 궁예는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를 닦고 계십니까?”

궁예의 질문에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예는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패주 궁예입니다. 저의 천운이 어떤지 물어봐도 되겠는지요?”

승려는 궁예의 얼굴을 한참 살피더니 대답했습니다.



“폐하는 한때 하늘의 뜻으로 천하를 호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천운이 다한 것 같습니다.”

궁예는 승려의 대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신하여 산봉우리에 선 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궁예의 죽음에 슬퍼하며 금관을 만들어 선 채로 석봉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길따라 유적따라 한국역사기행』, 『포천 보가산성과 궁예』,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 형설출판사

『궁예의 나라 태봉』, 김용선, 일조각

『태봉의 궁예, 철원에 살아 있다』, 이재범, 철원군·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 19. 영랑산성 - 돌아온 돌거북

최서현

경북 영양에 불심이 깊은 이씨가 살았습니다. 이씨 집안은 풍족하였으나 아이가 없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쉰이 넘는 부인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오랜 산고를 거쳐 낳은 아들을 안은 이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등에 한문으로 ‘三幕寺水角施住金豊淵(삼막사 수각시주 김풍연)’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이의 등에 한문이 적혀있습니다.”

이씨의 말에 이씨 부인은 아기의 등을 보았습니다. 열 글자가 또렷이 적혀있었습니다.

“에구머니.”

이씨 부인은 산파에게 물을 적신 수건을 달라하여 아기의 등을 닦았습니다. 닦을수록 아기의 등만 빨갛게 달아오를 뿐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씨는 아기의 등에 적힌 글자를 다시 살폈습니다.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연? 삼막사…절 사? 그럼 삼막사가 절 이름이라는 것 아닙니까? 삼막사라…….”

이씨는 아들 등에 적힌 글의 비밀을 풀고자 아이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던 절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공덕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이씨의 말에 합장하고 관세음보살을 외었습니다.

“허나 스님, 이상합니다. 아들의 등에 이상한 글이 있습니다.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연’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삼막사가 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허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이가 전생에 삼막사와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삼막사라…며칠 뒤에 떠돌이 스님이 들른다고 했으니 한번 여쭙어보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이씨는 스님에게 합장하여 반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님이 이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씨는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다과를 대접하였습니다.

“삼막사는 관악산에 있다고 합니다. 안양에 위치한다 하였으니 그 쪽을 찾아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이라면 긴 여정이 되겠네요.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갓 낳은 아기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잘 알아보고 업을 소멸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날 밤 이씨는 붓집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에 적힌 글자를 종이에 옮겨 적고 붓집 속에 넣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깊은 사연이 있기에 전생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곳에 왔을까요?”



아이를 안은 이씨 부인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이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아봐야겠지요. 저 먼 도성에서 이 촌구석까지, 게다가 어찌 유명한 집안이 아닌 평범한 우리 집안에 오게 되었는지…….”

다음 날 이씨는 나귀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알려준 길로 삼막사에 당도하였습니다. 이씨는 삼막사에서 주지스님을 뵈기를 청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이씨는 주지스님을 향해 반배하였습니다. 주지스님은 이씨의 반배를 받고 손에 있는 염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경상도 영양에서 왔습니다.”

“경상도? 그 먼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혹시 여기 수각이 있습니까?”

주지스님은 이씨를 수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수각은 돌 거북의 모양이었으며 등을 파서 물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에 있는 한문 글인 ‘三幕寺 水角施住 金豊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이씨는 자신이 삼막사에 온 이유를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스님.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노산이여서 걱정했으나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헌데 아이의 등에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연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어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수각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글입니다. 스님께서 혹시 김풍연이라는 수각시주께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이씨의 말에 스님은 잠시 염주를 돌리며 불경을 외었습니다. 한참 후에 스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김풍연 거사님이 저 수각을 시주하신 분입니다. 김거사님께서 저희 절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생전에 저희 절에 자주 들러 참배하고 재가 생활 중에도 신행을 지킨 독실한 염불도였습니다. 병진년에 노사했지요. 그 분이 살았던 곳은 황토마루재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곳에 가면 김거사님의 아드님이 있을 것입니다.”

이씨는 주지스님이 알려준 황토마루재의 김풍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풍연의 집은 이씨의 집보다 컸습니다. 이씨는 김풍연의 아들에게 과객이라 하고 묵어갈 수 있도록 청하였습니다. 김씨는 이씨의 청을 수락하여 이씨는 김풍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집을 살폈습니다. 안에는 상청이 차려져 있었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김풍연’이었습니다. 상제의 이름을 확인한 이씨는 김씨를 뵈기를 청하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의 제사인지 여쭙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가친상입니다.”

“김풍연...이 죽은 자 성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씨는 심호흡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뛰는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씨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번도 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생전에 저희 부친과 인연이 있으셨는지요?”

그제야 이씨는 김씨에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며칠 전 얻은 아들에게서 김풍연이라는 글이 쓰여있어 그 이유를 알고자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다 듣고 정중히 이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드님을 한번 뵈 수 있을까요?”

이씨는 김씨와 함께 경북 영양으로 떠났습니다. 영양에 도착하자 이씨는 김씨에게 사랑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아들이 찾아왔으니 당연히 보여줘야 하지만 이 곳 풍습이 귀한 아기는 남에게 보이지도 밖에 내놓지도 않는 것이라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이씨는 약속대로 며칠 후 김씨에게 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는 김씨를 보자마자 김씨를 향해 기어가서 무릎에 기대어 었드렸습니다. 아기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아기의 옷을 헤쳐 등을 보았습니다. 이씨의 말대로 ‘三幕寺 水角施住 金豊淵’ 열 글자가 뚜렷했습니다. 김씨는 아기의 등을 보고 일어서 의관을 단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앞에 정중히 두 번 절하였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아기를 이씨 부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기를 안방에 눕히고 저녁 상을 준비해왔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아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보니 아기가 제 선친임을 부정할 수 없네요. 생전에 절을 좋아하고 염불외우는 것을 즐겨하시더니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지 불가와 인연이 깊은 이 님으로 다시 오셨군요.”

이씨의 집은 넉넉했으나 김씨 만큼의 재산은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재산인 논 이백석을 이씨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아들 재산이 된 아버지 재산의 일부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간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집안은 한 동기와 같이 오래 도록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 ■ 참고문헌

『월간 불광』, 「금생 속의 내생」, 석옹, 1975년 5월 통권 7호.

## 20. 11월 14일 - 처인성전투

최서현

### 1) 임금이 사라졌다

백현원의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김윤후는 염불을 잠시 멈추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평소 김윤후를 잘 따르던 마을 향리였습니다. 향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이…우리를 버렸습니다. 스님도 어서 피난 갈 준비를 하세요.”

“임금님이 우리를 버렸다?”

“네. 스님. 임금님이 도성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도성이 온통 난립니다. 다시 몽고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른 피난 준비 하시고 나오세요.”

김윤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현원을 나서 향리와 함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에는 당장 몽고군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소문과 고종의 강화도 천도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향리가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임금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강화도로 간다고 합니다. 몽고의 침략으로 숙대밭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임금님과 조정신료들은 강화도로 가는데 우리들은 이 곳에 남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 임금님이 우리를 죽음이 불 보듯이 뻔한 이 곳에 남겨둔단 말입니까?”

향리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윤후는 향리가 가리키는 고종을 보았습니다. 고종은 최우와 함께 강화도로 향하는 나루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낮빛은 어두웠으며 앞을 보지 못하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허허. 어찌 한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을 버리는 것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무아미타불.”

김윤후는 고종의 행렬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 사람이 향리와 김윤후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 지금 이려고 있으십니까? 임금이 백성을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성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살 길을 찾아 떠나야지요. 곧 몽고군이 쳐들어 올테니 얼른 피해야 합니다. 처인성으로 서둘러 가야합니다. 처인성은 작은 산성이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니 안전할 것입니다.”

향리 또한 시급한 목소리로 김윤후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처인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지요? 산성 안에 조그만 암자가 있다하니 스님은 그



곳에서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식솔들과 먹을 것을 챙겨서 뒤따르겠습니다.”

김윤후는 그들이 알려준 처인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김윤후는 고종의 행렬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고종의 행렬을 뒤따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의 모습이 애처로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 2) 처인성에서 머물다

고종이 강화도로 옮길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몽고군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몽고군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몽고군의 침략을 경험한 마을 사람들은 도성으로 돌아가기를 꺼렸습니다.

김윤후는 처인성의 조그만 암자에서 머물렀습니다. 향리는 김윤후를 찾아 의심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 성으로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 몽고군의 침입이 없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요?”

향리의 질문에 김윤후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언제 일어나는지가 문제 될 뿐입니다. 몽고에서 요구한 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데다 임금님까지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으니 몽고군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몽고에 대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윤후의 말에 향리는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무는 자들은 한낱 천민일 뿐입니다. 지난 날 몽고군은 무서울 정도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몽고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자신감이 넘치는 김윤후의 말에 향리는 처인성에 머무르고 있는 남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소년에서부터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윤후는 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십년 전부터 우리는 몽고군에 의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몽고군이 쳐들어 왔을 때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몽고군이 물러갔을 때는 그들이 요구하는 공물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님은 우리를 버리고 강화도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아직 몽고군이 침입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시간문제입니다.”

김윤후의 말에 그들은 몽고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두려움어린 말들이 오갔습니다. 김윤후는 그들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몽고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김윤후의 말을 듣고 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김윤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김윤후는 재빨리 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처인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몽고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인성에서 울리는 김윤후의 당당한 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승이 군사기술을 익힌 호국승이니 여러분들에게 무술을 가르쳐드릴 것입니다.”

김윤후는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소년과 중년층에게는 활쏘기를 연습시켰으며 청년들에게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무기제작과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의지로 열심히 훈련에 임했기에 그들의 무술실력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필요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윤후는 성에 머무르는 여자들에게 농사를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인성에서는 믿음직한 군사가 양성되고 식량이 쌓여갔습니다.



### 3) 몽고군이 침입하다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진 가을에 몽고군이 고려에 침입했습니다. 김윤후의 예상대로 도성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고종이 강화도에 있었기에 도성에 있는 백성들은 몽고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몽고군은 순식간에 도성을 함락하고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은 향리가 김윤후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 나라가 온통 피비린내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몽고군이 이곳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몽고군이 두렵고 그들의 군마도 두렵고 그들의 무기…소리도 파괴력도 큰 그 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그때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올 것이니 그것도 두렵습니다.”

김윤후는 향리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눈을 뜨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향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윤후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구름에 가려진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향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죽는 것이니 필사적인 힘으로 싸울 것이기에 분명 이길 것입니다.”

김윤후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 사이 해는 지고 어둠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향리는 김윤후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향리의 질문에 김윤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시주받으러 다녔겠지요.”

향리와 김윤후는 잠시 웃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 온 단풍잎이 그들의 발밑으로 떨어

졌습니다. 그들은 단풍잎을 밟고 지나 활쏘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 4) 처인성을 지켜라

조용하던 처인성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북소리가 처인성에 울렸습니다.

“몽고군이다! 몽고군이 쳐들어온다!”

처인성 주위를 정찰하던 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김윤후는 암자에서 나와 성벽 위로 올라 몽고군의 이동방향을 살폈습니다. 몽고군은 처인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윤후는 칼을 뽑아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명령하는대로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김윤후의 말에 그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김윤후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년들과 저는 매복조가 되어 성 밖으로 나가 매복할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 화살조가 되어 몽고군을 향해 활을 쏘십시오. 성벽에 뿌려놓은 물이 얼어 몽고군이 성벽을 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간혹 올라오는 자들이 있으면 목벽으로 공격하십시오. 몽고군이 고전하고 있을 때 매복조가 기회를 노려 공격할 것입니다. 성에 남은 사람들은 몽고군이 성벽에 오르지 못하도록 성을 지켜야합니다!”

화살조는 김윤후의 명령대로 화살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김윤후는 매복조와 함께 성밖으로 나갔습니다. 몽고군은 느리게 처인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몽고군의 대장 살레탐은 처인성 앞에 진을 치고 몽고군을 향해 외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산성의 함락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뿐 고려와의 싸움에 진 것이 아니다! 이 산성을 함락시킨다면 남한산성 공격이 더 쉬워질 것이다! 보다시피 이 산성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산성일 뿐이다. 위대한 몽고군의 이름으로 공격하라!”

살레탐의 명령에 몽고군은 소리를 지르며 처인성으로 뛰어갔습니다. 산성위에 앉아있던 화살조가 몽고군이 공격하는 소리에 일어나서 몽고군을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들이 쏘는 화살은 정확히 몽고군의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몽고군은 미끄러운 산성 벽을 타다



떨어져서 죽거나 김윤후의 군사들이 쏘는 화살에 죽었습니다. 살례탑은 거듭 외쳤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몽고군이고 그들은 하찮은 고려 천민일 뿐이다! 그들에게 우리의 무서움을 알려주어라!”

살례탑은 처인성을 계속 공격하였으나 김윤후의 화살조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몽고군의 시체가 처인성 앞에 쌓이자 살례탑은 다음 전략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때 김윤후와 매복조는 성 밖에서 몽고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매복조의 공격에 몽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몽고군은 김윤후가 이끄는 매복조와 화살조의 공격에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다 말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뒤이어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몽고군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공격을 멈추어라! 대장이 죽었다!”

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 죽은 경우에는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 몽골의 관습이었습니다. 몽고군은 살례탑의 시신을 수습하고 후퇴하였습니다.

몽고군이 물러가자 처인성을 지키던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김윤후는 몽고군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살례탑의 시신을 가지고 물러가는 그들을 향해 나지막하게 불경을 읊었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살례탑이 죽은 후 몽고는 고종과 급히 조약을 맺은 후 전쟁을 끝내었습니다. 고종은 도성으로 돌아 온 후 김윤후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처인성 전투에서 살례탑을 죽인 김윤후인가? 나의 군사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 자네가 고려를 구했네. 내 자네에게 상장군의 임무를 주려고 하네.”

김윤후는 고종에게 예를 취한 후 대답하였습니다.

“소승이 한 일이 아닙니다. 처인성 전투는 저를 믿어주던 자들과 함께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허니 소승 혼자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장군으로의 임명을 없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섭랑장의 직위는 맡아주게.”

김윤후는 고종의 명령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섭랑장의 직위를 받았으며 고종에게서 받은 재물을 처인성 전투를 함께한 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처 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국역 고려사23, 열전 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도서출판 민족문화, 2006

『산전수전 고려사』, 박선식, 푸른나무, 2000

『야사로 보는 고려의 역사 2』, 최범서, 가람기획, 2005

『고려사 열전』, 고려송의회, 고려송의화 사과편집실, 1997

『길따라 유적따라 한국역사기행』, 『용인 처인성과 살레탑』,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 형설출판사

## 2. **안녕 죽죽 산님** - 오누이 성 쌓기 내기

최윤정

### 1) 오누이 장사

옛날 한 어머니가 남매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매는 마을에서 소문난 장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컸던 아들 송문주는 이미 세 살 때부터 씨름판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애기씨름 판에서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을 예사로 넘어트렸고, 다섯 살이 되면서부터는 마을 대표로 어른들과 힘을 겨뤘습니다. 아무리 크고 힘 센 어른이라도 송문주의 주저앉히기, 등배지기 한번이면 꼼짝을 못 했습니다. 송문주가 나타났다면 장터에서 무뢰짓을 하던 짝패들도 슬금슬금 피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송문주가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송문주의 동생 송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송문주와는 달리 딸인 송희는 꼭게 커서 참한 색시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송희는 여느 계집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방색실이니 자수 매듭에는 관심이 없고, 특히 무예 경기를 구경 다닌다느니 매 사냥을 따라 나선다느니 설쳐댔습니다.

“오라버니! 말바위에서 수박희(택견)를 한다던데 구경 안 갈라우?”

“팔관회 격구 경기는 여자 선수도 받아준다던데, 나도 한 번 나가볼까?”

입만 열면 오라비를 조르며 기마술이니, 궁술이니 사내아이들처럼 떠들어대는 딸 때문에 어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계집애가 송허게 어딜 사내들 겨루기에 나간다는 게냐? 아서라, 아서. 제발!”

“무슨 상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어머니 단속에도 아랑곳 않는 송희는 보란 듯 싸리문가에 있던 바위를 치마폭에 싸더니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문 밖을 살폈습니다. 행여 누가라도 볼까 창피했습니다. 힘 센 아들이면 몰라도 힘 센 딸은 흥이면 흥이었지, 결코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흥 중에서도 아주 큰 흥거리였습니다.

어느 사내인들 심심풀이로 치마폭에 바위를 싸들고 집에 들어왔다 산으로 옮겼다 힘자랑 하는 극성맞은 여자를 색시로 맞을까요. 어머니는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송희는 또래 여자 아이들이 녹두 갈아 세수하고 창포에 머리감고 모양내는 나이로 자랄 때도, 여전히 제 힘만 키우는 처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무리 쉬쉬해도 동네에 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은 어느 덧 송문주와 송희를 ‘오누이 장사’로 불렀습니다.

## 2) 불안한 기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년 시월상달에는 곡식을 거둔 기념으로 무술대회가 열렸는데, 올해는 무술대회에서 일등한 사람은 특별히 나라에서 일할 인재로 뽑는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나랏일을 하는 무인이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무술대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예

의 달인이라는 험객, 잔인하기가 금강산 호랑이도 떨며 간다는 검계의 우두머리, 호위 무사 출신이었다는 무관집안의 아들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인 무사들 틈에 송문주도 끼었습니다.

“어이, 애송이! 오늘 앓은뱅이를 만들어 주련? 곱사등이를 만들어 주련?”

“네가 오누이 장사라는 그 오라비나? 고작 계집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사라니. 집에 가서 네 누이랑 소꿉장난이나 하지 그러냐? 아니면 네 갈빗대가 쇠로 만들어졌어도 오늘은 가루가 되고 말 걸! 으하하하!”

대회에 나갈 장사들 중 몇몇이 송문주에게 대 놓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송문주는 웃음을 지을 뿐 묵묵히 제 순서만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했으니깐요. 그 때였습니다.

“왔다, 왔어. 그치가 왔어!”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한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송문주도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을 봤습니다. 송문주 역시 내심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려간 사람들이 우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과연 사람들 틈에 우뚝 솟은, 머리를 산발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바로 팔공산 장사였습니다. 팔공산 장사는 팔공산에서 무예를 닦은 자로, 키가 구만길이나 되는 거인의 후손이라는 소문답게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쿵쿵 울리는 발은 땅에 구멍이라도 뚫을 듯 컸습니다. 대회에 참가할 장사들도 입을 벌렸습니다.

송문주는 오늘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것 같아 설레었습니다. ‘오누이 장사’라고는 하지만 송희야 적수라기보다 동생이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풍물패들의 흥겨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술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장사들이 앞으로 나섰고, 사람들의 들뜬 소리가 주위를 메웠습니다. 송문주도 경쟁자와 마주 섰습니다. 첫 상대자는 아까 애송이라고 놀리던 우악스러운 얼굴의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송문주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덩치만 클 뿐, 송문주가 자신했던 대로 힘겨루기라고 할 것도 없는 손길 한 번에 맥없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상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지워나가기 식으로 장사들이 돌 씩 맞붙었고, 장수 후보는 두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송문주와 팔공산 장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누가 이길 것인가 내기를 거느라 술렁였습니다. 관에서 일하는 순군(경찰)까지 일을 팽개치고 나와 두 사람의 시합을 구경 했습니다.

“왕씨와 송씨의 힘 가름이오!”

드디어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 앞으로 나선 팔공산 장사가 송문주를 노려봤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산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송문주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내기와 경쟁에 익숙했지만 거인 같은 장사와 마주 서고 보니, 자신이 바람에 날아가는 나뭇잎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척 하는 장사들 앞에서도 당당하던 기가 팔공산 장사 눈빛에는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숨어 보는 어머니도 애가 달았습니다. 장사 앞에 선 아들 송문주가 오늘따라 한없이 작게만 보였습니다. 팔공산 장사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싸움인데 진즉에 말리지 못한 게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런 날 같이 있어주면 든든하련만, 딸 송희는 오늘따라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공연히 송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송가가 이겼네! 송가가 천하 장수가 됐네! 천하 장수가 났어! 와—!”

왁자지껄한 소리에 눈을 뜬 어머니는 어리벉벉했습니다. 어느 새, 송문주가 팔공산 장사를 이기고 천하 장수가 된 것입니다. 저 멀리 꿈쩍 않고 뻗어버린 팔공산 장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눈을 깜박이며 다시 한 번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나가 장수가 된 송문주를 에워싸며 만세를 불러대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기를 한 두 번 하는 아들도 아니건만, 그 때마다 떨리는 가슴은 어미로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풍물패의 악기 소리가 다시 흥겹게 울리고 어머니는 집으로 달려가기 위해 뒤돌아섰습니다. 동네잔치라도 벌이려면 떡쌀도 담그고 술도 걸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막 아래로 내려설 때였습니다.

“잠깐! 내기 신청이오!”

어찌나 큰 소리인지 풍물패도 소리를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걸음을 멈추고 다시 아래를 봤습니다. 송문주 앞에 웬 사내가 나섰습니다. 사람들 눈길이 동시에 사내에게 쏠렸습니다.

사내가 송문주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제 시간에 맞추지 못했구려. 이제라도 맞서 준다면 내 기꺼이 그 천하 장수 자리를 뺏어 줄 터인데.”

건방진 말투였습니다. 송문주는 자세를 고쳐 잡고 빠르게 사내를 훑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가린 사내는 마르고 작았지만 구름에서나 나온 귀인처럼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송문주와 사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팔공산 장사와 맞섰을 때보다 더 흥미진진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조무래기들과 어울리며 힘깨나 행세하나 본데, 죽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상대해 주지!”

사내가 다 된 밥에 코나 빠트리려고 나타난 꺾이니, 송문주도 시비조로 말이 나왔습니다. 동네잔치를 열려던 어머니도 뜬금없이 나타난 사내가 밍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응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정정당당히 힘을 겨루자며 여러 사람에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사내의 의연한 태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송문주는 더 약이 올랐습니다. 이겨도 본전이요, 만에 하나 지기라도 하면 망신을 당할 내기니 약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풀이라도 하듯 송문주가 먼저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사내는 마치 여인네의 치마가 휘돌아가듯 몸을 가볍게 돌리며 송문주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힘은 막상막하였고, 싸움이라기보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이 묘기를 부리듯 아름다워 사람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싸움은 날이 저물어도 끝 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은 누구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비실거리며 일어난 팔공산 장사도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못지않게 몸을 재게 놀리는 사내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구경하던 어떤 스님만이 하늘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불안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짐승 무리가 달려오는 것 같은 바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던 송문주와 사내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바람은 세상을 휩쓸기라도 할 것처럼 점점 거세졌습니다.

“오랑캐가 몰려 올 것이오! 오랑캐가 이 들판을 새까맣게 덮을 것이오!”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스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송문주와 사내도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중 이 마을을 지킬 자는 단 하나의 장수니라. 장수가 돌이면 모두 죽을 것이오, 장수가 하나면 모두 살 것이니, 이는 하늘에 해가 둘 일수 없는 이치와 같은 뜻이다!”

스님은 남해산기슭에서 나라를 위해 기원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소미타라는 이름 난 스님이었습니다. 소미타 스님은 오로지 산 속에만 머물러 오십년 동안 한 번도 번잡한 세상을 밟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스님이 장터 씨름판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이 일어난 조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스님 앞으로 바짝 서며 물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죽어야 하다니요?”

“머잖아 전쟁이 날 것이오. 아주 기나긴 전쟁이, 산천은 피로 물들 것이니…….”

스님은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예언에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전쟁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던 때였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던 사람들은 스님의 얼굴만 뚫어져라 봤습니다.

“적군이 쳐들어 올 때, 저기 두 장수 중 하나가 마을을 살릴 것이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살아있다면 두 사람은 물론, 마을 사람 중 어느 한 명도 살아남지 못 할 것이오. 저 두 사람이 서로 공을 세우려 다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나, 마치 씨줄이 끊어지면 날줄이 풀리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기운을 잃으면 다른 사람도 무릎을 꺾게 될 것이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오.”

그 때, 송문주와 대결을 하던 사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스님, 엉터리 말씀 마십시오. 둘이 있으면 힘도 두 배나 세질 텐데 죽다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호호호호.”

사내의 웃음소리에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내가 얼굴을 가린 천을 벗겨내고 모습을 드러내자 송문주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내는 다름 아닌 송희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송희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망아지 같은 팔자야. 어찌자구 이런 델 나서누, 나서길. 아이고!”

“아아아! 아파요, 어머니!”

사람들이 놀라 건 말 건 송희는 응석을 부리며 장난스런 소리를 냈습니다. 힘겨루기 할 때의 노련한 몸짓과는 달리 타고 나기를 말괄량이로 타고 난 송희를 어머니도 어찌지 못했습니다. 송문주도 누이를 흘려 볼 뿐, 달리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심상찮았습니다. 오누이 장수 중 하나는 죽어야 마을이 산다니, 사람들은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니 헤아리시길.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은 어머니에게 합장을 한 후,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내 하늘은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 3) 파랑새의 비명

스님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적군이 쳐들어 온 것입니다. 적군은 산 진승을 먹고 사는 족속이라 하여 푸른 이리떼라고 불렀습니다. 푸른 이리떼가 곧 마을에 닥칠 거라는 소문이 불안하게 떠돌았습니다.

“개성은 벌써 속대밭이 되었다는 소문ियो. 어린애고 노인이고 사람들을 남김없이 도륙을 한다니,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오!”

“처녀들은 모조리 잡아간대요. 노비로 팔고, 푸른 이리떼들이 장사를 지낼 때 산채로 문으려고요. 그래서 처녀들이 차라리 둠벙에 빠져 죽고, 울다가 눈이 멀기도 한 담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사람들은 어머니를 붙잡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오누이 중 얼른 한 장수를 뽑아 마을을 지켜야 한다며 한 명을 죽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태웠습니다. 송문주도 딱히 나서질 못했습니다. 내기라면 어떤 것이든 자신 있지만 누이와 목숨을 건 내기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송희였습니다.

“내기를 다시 하겠어요.”

송희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송문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송희는 침착한 눈빛으로 송문주를 봤습니다.

“오라버니! 전 이제부터 오라버니를 오라버니라고 생각지 않겠어요. 저는 오라버니가 아닌 천하제일 장사와 겨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감추려고만 했던 제 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겨루다 죽는다면 억울할 것도 없겠지요. 대신, 오라버니도 누이라 생각지 말고 저를 천하제일의 적수로 받아주세요.”

당당히 말하는 송희는 며칠 전의 말괄량이 송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부를 내고 싶은 결의가 보였습니다. 그런 송희를 보고 송문주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네가 그런 뜻이라면 나도 받아들일겠다. 우리의 운명이니 어쩔 수 없구나.”

두 사람의 결심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 밤,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내기는 시작됐습니다.

“문주 너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송아지를 끌고 개성에 갔다오너라. 내일 아침밥을 먹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송희 너는 저기 죽주산에다 성을 쌓아라. 너도 내일 아침까지 외성, 본성, 내성 겹겹으로 쌓아야 한다.”

이미 장터에서 두 사람의 무술겨루기를 본 어머니는 두 사람이 각자 잘 할 수 있는 다른 내기를 붙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방팔방 재계 돌아다니 아들에게 개성까지 다녀오는 것은 식운 죽 먹기일 터였고,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치마폭에 돌을 나르던 딸에게 성 쌓기

또한 식은 죽 먹기일 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 승부가 가려지지 않겠지,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는 결과였습니다.

두 사람은 내기를 하러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해는 지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또 다시 밤을 뜬 눈으로 지낸 어머니는 다음 날, 마당에 내려서 밖을 보았습니다. 새벽이면 오겠지 했던 송문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다. 멀리 죽주산이 보였습니다.

“.....!”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는 눈을 부비고 다시 산을 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성이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산 아래를 아무리 훑어봐도 아들 송문주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송희가 내기에서 이긴 듯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 한 사람도 이기거나 지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급히 부엌에 들어가 송희가 좋아하는 팔죽을 쑤었습니다. 펄펄 끓는 팔죽을 들고 어머니는 죽주산으로 내달렸습니다.

“애, 송희야! 배고플 테니 이거 먹고 하거라. 어서.”

어머니가 팔죽을 끓이는 새 이미 성을 다 쌓은 송희는 마지막 남문을 만들려고 돌을 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문만 생기면 성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구잡이로 뜨거운 팔죽을 송희 입에 퍼 넣었습니다.

“뜨거! 아아아아, 어머니 이 성 마저 쌓고 먹을게요.”

어머니는 어떡하든 송희가 먼저 성을 쌓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송희가 성을 쌓으면 아들 송문주가 죽어야 하니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팔죽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 맛인데. 내가 너를 위해 더 맛나게 쑤었으니, 어여 먹고 해라.”

어머니가 팔죽을 들이대니 일이 더디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얼른 팔죽을 먹고 성문을 쌓는 게 빠를 듯싶어 송희는 팔죽 사발을 받았습니다. 팔죽은 입천장이 벗겨지게 뜨거웠고, 팔이 설익어 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팔죽을 좋아하는 송희는 주저앉아 후 후 팔죽을 식혀가며, 팔 알갱이도 꼭꼭 씹으며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멀리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개성으로 떠난 송문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그새 팔죽 한 그릇을 다 비운 송희는 배를 두드리며 다시 치마폭으로 돌을 낚았습니다. 팔죽을 먹으니 돌을 나르고 쌓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문 맨 위에 돌 하나만 얹으면 시험은 끝날 것입니다. 송희가 마지막 돌을 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 돌아보니 송문주가 서 있었습니다.

“아!”

송희의 팔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툭! 송희 손에서 마지막 돌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송희는 내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구할 장수가 정해졌다며 내기에서 이긴 송문주를 들어 올려 행가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딸이 이기지 못하게 뜨거운 팔죽을 먹인 것이 결국 딸을 지게 했다는 당연한 사실에 어리벙벙했습니다.

어머니와 송문주는 어쩔 줄 모르는 눈으로 송희를 봤습니다. 그러나 송희는 웃었습니다. 내기의 결과를 인정하는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송희는 움직이는 듯 아닌 듯 뒤 걸음질쳐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벼랑가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눈에는 처량한 노랑 빛깔 치마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송희는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파랑 새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벼랑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그 비명이 송문주의 귓가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 4) 신명 장군

겨울이 닥쳤습니다. 그 동안 나라꼴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적국의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고, 임금은 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 결국 적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살지 막막했습니다.

송문주는 소라나팔을 불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적군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남기지 말고 감춰놓거나 쪼어지고 산성으로 들어가시오!”

송문주는 곧 적군이 쳐들어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어제 밤 꿈에 송희가 죽던 벼랑에서 날아오른 파랑새가 보였습니다. 파랑새는 비명을 지르며 죽주성의 우물가를 맴돌았습니다. 송문주는 그 비명소리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피난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빈정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돌 성 하나에 물러갈 적군이 아니라는 소문이던데, 차라리 항복을 하는 게 군사 백성을 위한 일 아니겠소?”

마을에 사는 양반치가 일찌감치 적군의 요구를 들어주고 무릎을 꿇는 게 목숨을 지키는 일 아니겠냐며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때 같으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며 양반에게 손가락질 했을 텐데, 오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이 닥치고 보니 마음속으로 우선은, 목숨을 지키는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임금도 무릎을 꿇은 판에 일개 장수에게 목숨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왈가왈부하기에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적군이다! 적군이 몰려온다!”

저 멀리서 먼지가 길을 따라 하늘로 뿌연게 솟았습니다. 적군이 쳐들어 온 것입니다. 송문주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의심 많은 몇몇 양반네들은 뒷문을 통해 성을 빠져 달아났습니다.

득달같이 몰려온 적군의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죽주성은 항복하라! 항복하는 자는 살려둘 것이요, 대항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적장은 열 손가락에 상처를 주느니, 한 손가락이라도 잘라 없애는 잔인한 성질이라 했습니다.

송문주는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부터 치는 적의 심보에 대거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 여기저기서 항복하자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녀자들은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떨어졌습니다. 적군에게 걸리기만 하면 ‘공녀’가 되어 오랑캐 나라로 끌려가게 되니 눈앞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았습니다.

그때 송문주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파랑새의 비명이었습니다. 파랑새가 쉼나무에 앉아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 새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송문주는 파랑새의 비명이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아, 곧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을 모으고 흙을 퍼 담아라! 진흙물을 만들어라! 너무 묽지 않게 만들라!”

불안에 떨던 사람들은 무엇에 쓰일지도 모르고 명령에 따라 흙물 구덩이를 파고 진흙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진흙물이 다 만들어지자 과연 적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불이야, 불!”

적군은 화공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적군은 쉼나무가지와 쭉 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성안을 공격했습니다. 마른풀에 붙은 불길은 맹렬히 치솟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성이 타버릴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흙물을 부어라! 불길을 잡아라!”

송문주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이 흙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두었던 흙물을 성 가까이 준비해 두었던 터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흙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름으로 피운 불은 물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흙물이어야 불을 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납던 불이 맥없이 사그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화공 작전에 실패한 적군은 후퇴했습니다. 승리를 한 군사들은 소리를 지르고 백성들도 기쁨에 겨워 얼싸 안았습니다. 몰래 빠져 나갔던 양반네들

도 슬며시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신명하기 그지없네 그려. 적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은 피신시킨 것도 그렇고, 화공 작전에 미리 손을 써 놓으니, 귀신이 따로 없구먼.”

양반네는 큰 소리로 송문주를 칭찬했습니다. 도망갔다 다시 들어온 게 멋쩍어 너스레를 떠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양반네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둘씩 송문주를 ‘신명장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온갖 조화를 꿰뚫는 신령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송문주는 숲나무 위에서 적의 화공 작전을 알려 준 파랑새 송희를 떠올리며 ‘신명’이라 불릴 사람은 바로 송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차 공격에 실패한 적군은 더 강한 공격을 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습공격에 대비해 특공대까지 만들어 성 밖을 정탐하게 했는데도 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하고만 물러 설 적군이 아닌데 말입니다. 밤이 될 때까지 조용하자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송문주는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아까부터 어디선가 파랑새의 비명이 자꾸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먼 곳에서 우는지 들리는 듯, 아닌 듯 헛갈렸습니다.

‘지금 성을 비우면 아니 될 터인데.’

송문주는 새 소리를 따라나서고 싶었으나 그러자면 성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정확히 파랑새의 소리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새 소리는 또렷이 들려 왔습니다.

송문주는 허깨비에라도 흘린 듯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랑과 치성을 지나 점차 북쪽으로 꺾어갔습니다. 성을 벗어나자 소리는 더욱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와는 새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 더 긴 것 같기도 하고…….

그 때였습니다. 북쪽 성 아래 뭔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 쇠가죽으로 덮어 쓴 커다란 나무 상자가 수풀 속에 여러 개 감춰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송문주는 상자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상자에서는 새 소리, 아니 쇠로 훔을 헤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즐고 있는 적군의 보초병을 뒤로하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밤에 말씀이십니까?”

난데없이 떨어진 명령에 부하는 궁금한 얼굴을 했습니다. 성으로 돌아 온 송문주는 북쪽 성벽 아래에 구멍을 내라 명했던 것입니다. 송문주는 부하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않고 다른 군사에게 이번에는 쇠를 녹이라 했습니다. 군사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신명장군에게 미리 듣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문주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새벽녘 군사들은 남 몰래 일어나 바빠 움직였습니다.

“구멍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부터 쇠 물을 부어라!”

낮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군사들은 송문주의 명에 따라 북쪽 성 아래 파 놓은 구멍에 뜨거운 쇠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땅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 밖을 보니 북쪽 성 아래 땅 속에서 적군들이 엉덩이에 불이 붙은 듯 놀라며 뛰어나왔습니다. 적군들은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려고 어제 땅굴을 몰래 파던 것입니다. 숲 속에 놓였던 가죽 천을 씌운 상자는 소리 나지 않게 땅굴을 파려고 적군들이 준비한 몸을 숨기는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문주가 귀신 같이 적의 작전을 알아낸 것입니다.

“총공격 하라!”

송문주는 달아나는 적군을 향해 포차를 내다놓고 돌을 날렸습니다. 적군은 뜨거운 쇠맛에 돌비까지 맞으며 물러났습니다. 아무리 수를 써도 척척 막아내니 적장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적장은 죽주성을 원망스레 바라보며 쓰러졌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신명 장군 만세! 신명 장군 만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죽기를 각오 했는데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적을 물리쳤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송문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만세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은 곳 파랑새도 멀리 날아갔

습니다.

■ 참고문헌

〈자치안성신문〉 2008년 9월 29일자

『한국서사의 전통과 설화 문학』, 최운식, 민속원, 2002.

『한국구비 전설의 연구』, 최래옥, 일조각, 1981.

## 22 여주군 파사산성 -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최윤정

경기도 여주군에는 파사성(婆娑城)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성의 이름 ‘파사’를 한자로 풀이하면 할미 파(婆), 춤출 사(娑)입니다. 할미는 늙은 여자를 뜻하지요. 그러니까 파사는 ‘늙은 여자가 춤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파사(婆娑)의 우리말 풀이는 가볍다거나, 쇠하고 가냘프다거나, 잎이 성기다거나 하는 등의 형용사로 확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별다른 게 다른 말과 관련지을 뜻도 없는 단순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한자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뜻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옛적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한 페르시아의 한자 이름이 바로 파사입니다. 그렇다면 파사성의 파사는 외국에서 온 이름일까요?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을까요?

다행히 ‘파사’에 관한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보며 파사라는 말이 정말 외국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 1) 중국 보주

옛날 중국 보주 땅에 허황옥이라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황옥의 집은 손수레 하나도 다닐 수 없는 좁은 길 끝, 잡목이 우거진 언덕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을은 모두 잠든 것 같이 어두운데 황옥의 집에서는 걱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씀 좀 해보세요. 한 번 떠나면 이제 못 볼 터인데, 어린 딸을 이렇게 무정하게 떠나 보내야 하겠습니까?”

황옥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황옥의 아버지는 마치 귀라도 막은 듯 대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는 애만 더 달았습니다.

스산한 이 밤, 이제 열여섯 살 된 딸 황옥은 낮설고 먼 가락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황옥이 가락국의 김수로왕에게 시집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약속된 거라면 혼인은 경사 중에 경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락국이라는 나라에 김수로왕이 산다는 말만 들었을 뿐, 아유타국에서 가락국을 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혼인을 약속한 일도 없었습니다. 황옥은 가락국에서 받아줄지 확신도 없이 무작정 가락국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락국까지는 바다를 건너야 하므로 뱃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황옥이 처녀의 몸으로 어찌 외국으로 갈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황옥의 아버지 역시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마당에 더 이상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딸을 받아 줄 곳은 가락국뿐이었습니다. 황옥의 아버지는 이제 이름조차 잊혀져가는 자신의 나라 아유타국이 명맥을 이을 길은 황옥이 가락국의 왕비가 되는 길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을 떠나보내려니 황옥의 아버지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김수로왕이 어떤 됴됨이의 사내인지, 자신의 계획이 옳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외국 처녀라고 그곳에서도 쫓겨나면 딸의 운명은 어찌 될지 그 동안 걱정을 안 하던 바는 아니지만, 마지막 짐을 싸는 딸을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황옥은 방 한 쪽에서 쌍어(마주보는 물고기 두 마리)로 아유타국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물

고기들이다)가 그려진 바지를 마지막으로 보따리에 챙겨 넣고 끈을 여몐습니다.

황옥이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걱정 마세요. 풍랑은 파사석탑이 막아 줄 것이며, 가야국의 왕비가 되는 것도 제 할 탓이니, 그저 저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황옥의 의전한 말투에 어머니 얼굴이 조금 피졌습니다. 그러나 황옥이 짐 보따리를 문 앞으로 밀자,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어 다시 명치끝이 아렸습니다.

“파사탑 덕분에 뱃길 걱정은 접는다만……그래도 뱃길에 무서운 것이 풍랑뿐이겠느냐? 해적도 있을 것이고 여린 네가 뱃멀미를 이기기나 할지…….”

기어이 어머니는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이든 뭐든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이 딸을 품에 안고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의 운명까지 짊어지고 공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황옥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황옥의 아버지도 오늘 만큼은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황옥의 아버지도 아내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아유타국의 운명을 딸 혼자 짊어져야 하니 고개가 절로 숙여질 뿐이었습니다.

## 2) 인도 아유타국

오래 전 황옥의 가족과 백성들은 인도의 왕족이었습니다. 황옥은 인도의 아유타라는 곳에서 귀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족의 침입으로 황옥의 가족과 백성들은 살던 집을 버리고 이 곳 중국 보주까지 피난 와 살게 된 것입니다. 아유타국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피땀을 흘려 허허벌판 황무지인 보주 땅을 일궈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먹던 음식과 옷, 제사 등 관습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특히 아유타국 백성들은 쌍어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굳게 믿는 아유타국 백성들은, 옷이며 그릇 신발 어느 것이든 쌍어 그림을 그려 넣고는 했습니다.

황옥은 가야국에 도착하면 입으려고 챙긴 결혼 예복 바지를 떠올렸습니다. 여자가 결혼



을 하면 쌍어 그림이 있는 바지를 벗어 신랑에게 주는 것도 아유타국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주 땅에서는 아유타국의 관습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보주의 관습을 따르라 명령 했습니다. 쌍어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 강요한 것입니다. 쌍어를 버리라 하는 것은 아유타국 백성들에게는 조국의 정신을 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유타국 백성들은 정부 몰래 쌍어를 받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아유타국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황옥이 공주인 것도 말 뿐 형편은 늘 궁색했습니다. 아유타국 백성들은 억울했습니다. 버려진 땅을 일껏 일귀 비옥하게 만들었더니, 양식이란 양식은 모두 세금으로 내라하니 나중에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고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살길이 막막한 아유타국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금을 적게 거두라 청하고 아유타국의 쌍어를 섬기고 관습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군은 정부군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반란 도중 목숨을 잃었고, 결국 백성들은 양쯔 강 아래 허허벌판으로 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칠천 명이 넘는 백성들은 짐 보따리를 챙겨 이미 강 아래로 쫓겨 갔고, 이제 왕족인 허황옥의 가족과 신하 몇 명만이 과사탑을 옮겨가기 위해 보주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정부군은 눈이 벌게 황옥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땅을 개척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하니 살려주지만, 왕족은 모두 죽이라는 비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황옥의 가족은 한시바삐 강 아래로 떠나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보주 땅에서 아유타국의 명맥을 이어 온 황옥의 아버지는 이제 강 아래로 쫓겨 가면 아유타국은 더 이상 나라로써 존재하지 못 할 것을 짐작했습니다. 강 아래 산다는 것은 비천한 족속이 된 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황옥의 아버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양쯔 강 중류를 거쳐 강을 따라 바다를 건너면 가락국이라는 나라가 나온다. 그곳 왕이 아직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황옥이 그곳에 가 왕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아유타국이 이대로 다른 나라에 영원히 종속 될 수는 없다. 황옥아! 네가 가락국에서 우리 쌍어신을 섬기고 아유타국의 뿌리를 내려다오.”

이렇게 해서 황옥은 낮 선 가락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 3) 마지막 밤

황옥은 아버지의 명을 떠올리며 옷 안에 숨긴 보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붉은 색 보물은 황옥의 품속에서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황옥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가난한 백성들이 모아 온 것입니다.

“공주 마마, 제가 아끼던 것입니다. 공주마마의 혼인 예물로 써 주십시오.”

끓기를 밥 먹 듯 하면서도 간직한 고향의 보석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향과는 더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된 백성들도 황옥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유타국이 이어질 길은 황옥이 가락국의 왕비가 되는 길 뿐이라 생각하여 숨겨 온 보물을 황옥의 결혼 예물로 바친 것입니다.

황옥은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 된다! 가지 말거라. 어린 너를 바다로 보내고 내가 어찌 살겠느냐, 더군다나 혼인길을 부모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을……, 가지 말거라. 못 간다, 못 가!”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황옥을 붙잡았습니다. 황옥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렸습니다.

“우리 아유타국의 피를 이을 사람은 황옥이 뿐인 걸 잊었……!”

그 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일입니다.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어서! 어서 피하십시오!”

황옥의 오라비 장유화상이었습니다. 한시가 바늘 끝처럼 위태로운 상황인지라 장유화상은 바깥의 동정을 살피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저들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들은 아유타국의 왕족인 우리 가족을 없애면 아유타국 백성들을 쉽게 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속셈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급 합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들키는 날에는…….”

장유화상은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운명이 비참하기만 했



습니다. 황옥은 서둘러 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황옥의 아버지가 명했습니다.

“신보와 조광은 공주를 보필하라! 속히 약속한 배가 당도했는지부터 살피고, 어서! 어서!”

명이 떨어지자마자 황옥과 가족들, 하인들은 어둠을 틈 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황옥이 마을을 빠져나와 강에 닿았을 때는 초승달이 희부영게 떠 있었으나, 물안개가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물비린내만이 코끝에 스쳐 물가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혹시나 뒤 쫓는 군사가 있을 까 조심하며 모두 몸을 굽혀 움직였습니다.

“과사탑은 실었느냐?”

황옥이 짐을 들고 따라오는 신하 조광에게 물었습니다. 붉은 돌로 쌓아진 과사탑은 고향인 아유타국에서 가져 온 것이었습니다. 과사탑을 배에 실고 바다로 나가면 아무리 사나운 풍랑도 이길 수 있는 신비로운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과사탑의 한 쪽 귀퉁이라도 얻어가려고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조광이 주위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웬걸요, 공주마마. 군사들이 우리 쌍어가 그려진 사당을 불태우고 무덤도 파헤치니, 과사탑인들 남겨두려 했겠습니까. 일단 탑을 숨겼다가 밤에 이리로 몰래 실어오기로 했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아! 저기!”

강에서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황옥이 가락국으로 타고 갈 배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태우고 양쯔 강 아래로 피난 갈 배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오기로 한 과사탑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떠나셔야겠습니다. 저는 과사 탑이 오면 실고 뒤이어 가겠습니다.”

황옥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출발…….”

그 때였습니다.

“웬 것들이냐”

저 만치서 횡불을 든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장유화상은 발을 굴렀습니다. 잘 훈련된 심복부하들을 시켜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작전을 썼는데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장유화상은 황옥을 배로 끌었습니다.

“먼저 배를 부리거라. 나는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뒤에 떠날 것이니.”

군사들의 횡불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황옥이 머물 거리지, 황옥의 아버지가 나무라 듯 명을 내렸습니다.

“어서 타래도! 어서!”

달리 작별의 인사를 나눌 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비의 성화에 황옥의 몸이 강으로 밀려들어 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찼으나 황옥의 가슴은 꿇듯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비는 강제로 황옥을 배에 태웠습니다. 떠밀리다시피 배에 오른 황옥이 남겨진 부모를 찾기도 전에 샷대잡이는 상앗대를 움직였습니다. 배는 강 가운데로 빠르게 밀려갔습니다.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옥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황옥은 물을 향해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가족들을 남기고 혼자 배를 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공주마마! 어차피 모두 탈 수 없는 배입니다. 지금 마마께서 내리시면 오히려 모두를 위협에 빠트리시는 겁니다. 진정하소서.”

조광과 신보, 그들을 따라 온 아내들이 울며 황옥을 말렸습니다.

“공주마마, 이제 소인들의 목숨은 물론 우리 아유타국이 모두 공주 마마 손에 달려있습니다. 부디 대의를 생각하소서.”

뱃전을 부여잡은 황옥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탈이 없기를 바랄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바람은 그런 황옥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배를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배를 잡아라! 게 섰거라!”

바람과 함께 군사들의 소리가 뒤 쫓아왔습니다.

#### 4) 머나 먼 바다

강을 벗어나 바다를 만나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간혹 비가 내렸지만 바람은 시원했으며 바닷물의 흐름도 순조로웠습니다. 배는 우직이 가락국을 향해 갔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도 이제 걱정보다는 새로운 땅에 대한 설렘으로 들떴습니다. 하지만 쫓기는 가족을 생각하는 황옥의 마음은 내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 두 방울 비가 오기 시작했지만 황옥은 냇을 놓고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공주마마 안으로 드시지요. 오늘은 비가 제법 내릴 모양입니다.”

조광이 아뢰었습니다. 그제야 황옥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날보다 어둡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하고 거칠지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황옥은 자신의 인생도 바다를 건너는 일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옥이 멍했습니다.

“과사탑이 있다면 걱정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전부 헤쳐가야 합니다. 배가 기울지 않게 뱃머리에서 선미까지 단단히 살피도록 하세요.”

황옥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때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일어서려던 황옥이 기우뚱 했습니다. 황옥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뭐 대수라 싶었습니다. 쫓아오는 군사들 속에 가족들도 놓고 왔는데 까짓 비바람 쫓 맞설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황옥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는 걸까요? 하늘에서는 곧 사나운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물거품을 내는 파도가 배전을 때렸습니다. 기운은 금세 성난 날씨로 변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악—!”

“살려줘!”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덮쳐오는 파도는 발톱과 송곳니를 드러내며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과 같았습니다.

황옥이 생각한 지금까지의 바다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배가 흔들리며 내는 부서질 것 같은 소리는 부모도 고향도 가락국도 모두 잊게 했습니다. 황옥은 옷을 찢어 배에 몸을 묶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난 파도가 황옥의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식량보따리가 물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황옥이 간신히 기둥을 부여잡고 주위를 살폈지만 조광과 신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락국은 구경도 못한 채 이대로 물고기 밥이 되는 구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배를 돌려라! 배를 돌려라!”

황옥이 명을 내렸습니다. 풍랑은 칼을 들고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기껏 피하는 것 만이 방법이지만 그 역시 용이치 않다는 걸 황옥은 알았습니다.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파사탑 뿐이었습니다. 황옥은 파사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회항하시오! 배를 돌려라!”

황옥은 허리에 묶인 끈을 길게 늘어뜨려 잡으며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바닥은 이미 물로 출렁거렸습니다. 번쩍!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불빛에 발아래가 보였습니다.

“공주마마!”

신보가 쓰러진 짐 보따리에 눌러 허우적댔습니다. 황옥이 신보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배는 파도 끝에 걸려 공중을 떠 다녔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모든 건 끝이었습니다.

“모두 힘을 한 곳에 모으세요! 배를 돌려야 합니다.”

“공주마마, 지금은…….”

벧사람 하나가 비에 젖어 덜덜 떨며 입을 열었지만 황옥은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아무 소리 말거라! 뭇 들 하느냐? 배를 돌려라!”



“악—!”

배가 파도에 쓸려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한데 뭉쳐져 배 끝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노를 잡아라! 노를 놓치지 마라!”

황옥의 소리는 비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황옥은 끝까지 노를 놓지 않았고, 목이 터지게 사람들에게 힘을 모으라 소리쳤습니다. 날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에는 오랫동안 거대한 파도 소리 속에 간간히 황옥의 외침만이 여리게 들렸습니다.

황옥은 몸을 돌려 이불을 찾았습니다. 잠든 황옥은 자신이 지금 고향 집 방 안에서 자는 걸로 알았습니다. 방금 어머니 아버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잠자리에 든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황옥은 이불을 찾던 헛손질에 부스스 잠에서 깰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마마, 공주 마마.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공주마마! 마마!”

주위의 소리에 황옥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찌릿하며 밝은 빛이 눈을 쭈시듯 들어와, 곧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나! 공주 마마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습니다! 마마!”

사람들의 들뜬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옥은 손 그늘을 만든 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부영계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옥이 눈을 비볐습니다. 황옥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차근차근 보았습니다. 옆의 사람은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신보, 조광, 모정, 모량…….

아아! 황옥이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결려 다시 털썩 쓰러졌습니다.

“마마! 마마!”

모량이 짹째 배 안에 고여 있던 빗물을 황옥의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황옥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폭풍이 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배 안을 덮치는 순간 황옥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에 휩쓸려 배는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는데…….

황옥은 그제야 자신이 있는 곳은 고향 집이 아니라 돛대마저 쓰러진 배 안 이라는 걸 깨달

있습니다. 황옥의 입에서 갈라진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 어찌들, 어찌들 되었소?”

아까부터 목이 메어 있는 신보가 아뢰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공주 마마. 모두들 무사하옵니다. 마마께오서 며 날 며칠 주무신지 아십니까?”

조광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조광은 이마가 깨졌는지 풀어헤쳐진 머리와 얼굴에 피가 말라있었습니다. 그래도 눈 빛 만은 기쁨에 겨웠습니다.

“폭풍이 그치지 삼 일 쯤 지난 것 같습니다. 모두 어제, 오늘 정신이 들었습니다. 몇 몇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으나, 숨 줄은 붙어있으니 그나마도 다행인 노릇있읍죠. 이게 다 쌓어신이 돌보신 덕입니다.”

여기저기 누워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쓰러진 돛대도 보였습니다. 붉은 천에 그려진 쌓어 돛대. 황옥은 조심스레 일어나 돛대의 쌓어를 쓰다듬었습니다. 둘러보니 배 안은 쌓어를 빼고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잔잔한 물살에도 배 바닥은 삐거덕거리며 힘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갈라진 바닥 틈 사이로 바닷물이 들락날락했습니다.

황옥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바람은 선선했지만 하늘은 더 없이 높고 맑았습니다.

그때 고개를 돌리던 황옥의 눈에 저 멀리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건……! 저기 저건 흑, 물이 아니오? 저기 저거 말이오?”

저 멀리 작은 점 만 한 육지가 보였습니다. 황옥은 다리에 힘을 주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신보가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요. 하지만 저희도 그계……, 적의 땅인지, 흑시 가락국은 아닐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밤까지도 온통 바다였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땅이 보여 무작정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기는 하는데, 공주마마! 흑시 보주 땅이 아닐까 염려…….”

“적군의 땅이든 어디든 가릴 게 무언가? 어느 땅이든 육지로만 가세!”

황옥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배의 상태로 봐서는 더 이상 항해도 무리일 듯싶었습니다.



바다에 내려앉느니 적국의 땅이라도 반가울 판이었습니다.

“혹시 가락국이면 어쩡니까? 명색에 혼인길인데 저희 몰골이…….”

모정이 찢어져 너털너털한 제 옷을 가리키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걱정도 살 만하니 하는 걱정이네. 수로왕이 날 더러 누구냐 하면 거지 공주라고 하면 되잖은가?”

황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풍랑과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도 모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황옥의 말마따나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황옥의 웃는 얼굴이 더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햇별이 내리쬐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의 쌀쌀함은 사라졌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지만, 배는 더 고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에 쓰러졌던 사람들도 일어나 꼳꼳한 자세로 다가오는 육지만 뚫어져라 봤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육지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습니다. 마땅한 무기도 없는 판에 혹시 적군의 땅에라도 내리면……, 사람들은 다시 폭풍을 만난 것 같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황옥은 아까부터 꼼짝 않고 육지 위의 한 점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있고, 옹기종기 집도 보였고 바닷가를 오가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황옥의 눈은 그 작은 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너무 작아 좀처럼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황옥은 그 점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가 점점 다가가자 그 점도 황옥의 눈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 필력였습니다. 필력이는 깃발! 황옥이 소리쳤습니다.

“쌩어다! 쌩어! 저길 보게.”

모두들 놀라 황옥이 가리키는 작은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깃발이 하도 작아 어떤 사람은 고개만 돌리고 황옥이 가리키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보다 한껏 예민해져있던 사람들은 황옥이 가리키는 걸 쉽게 찾았습니다. 살고자 하던 욕망이 컸던 사람들이 어떤 기운에 이끌려 깃발을 보게 됐을 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것은 쌩어깃발이었습니다.

“만세! 싸어다, 싸어. 만세! 만세!”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소리쳤습니다. 황옥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싸어가 그려진 깃발이 펄럭이며 황옥이 탄 배를 맞이했습니다.

### 5) 양쯔강 아래 땅

배에서 보이던 육지는 양쯔강 아래쪽에 있는 무한지방이었습니다. 인도의 아우타국을 거쳐, 보주에서 다시 쫓겨 황옥의 가족들이 간, 아우타국 사람들에게는 제 3의 땅이었습니다.

배로 몰려온 사람들은 가족을 만난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장유화상도 황옥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황옥은 가족이 무사히 보주 땅을 탈출했다는 오라비의 말에 뿔 듯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라비를 따라 집에 간 황옥은 막상 부모를 보자 민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집가 쫓겨 온 딸이 이런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혼인하러 간 가락국은 구경도 못하고 되돌아온 것이 죄만스러웠습니다.

“그게 어디 네 탓이나? 마음 쓰지 말거라.”

어머니가 황옥이 까맣게 탄 얼굴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네가 돌아 온 것이 다 싸어신의 보살핌 같다.”

잠시 후, 장유화상이 황옥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네게 보여줄 것이 있다.”

장유화상은 집 뒤쪽 구석으로 황옥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땅 바닥을 덮어 놓은 가마떼기를 말없이 거뒀습니다. 황옥은 궁금했지만, 오라비가 하는 양을 지켜만 봤습니다. 가마떼기 아래 땅에는 커다란 구멍이 파져있었는데, 그 안에 붉은 물건이 황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걸! 오라버니!”

황옥이 기빠 펄쩍 뛰었습니다. 구멍 안에는 다름 아닌, 파사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황옥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가 떠나던 날, 나는 영락없이 군사들에게 잡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장유화상은 신나는 모험이야기나 하 듯,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너를 보내고 우리는 숨어 파사탑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 그들은 우리를 찾으며 한 쪽에 서는 배를 대어 강도 막더구나. 파사탑이 실려 와 간신히 배에 실었을 때 결국 들키고 말았지 뭐냐. 우린 움짱달썩도 못했지.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파사탑을 배에 싣는 순간 배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더냐.”

오라비의 눈이 커지자 황옥의 눈도 따라 커졌습니다. 장유화상은 그 날 일이 아직도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군사들의 불화살도 세 척이나 되는 배도 다 소용없었다. 하하하하! 우리 배가 요리조리 피해서 나가니, 우리도 그렇지만 적군들은 그 때 벌어진 입을 아직도 벌리고 있을 게다. 하하하하!”

황옥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소 호탕한 오라비는 허풍을 잘 떨었지만, 파사탑이 가족을 구했다는 사실을 황옥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황옥은 붉은 돌의 파사탑을 쓰다듬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황옥이 돌아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 사람들은 점차 힘을 얻어 몸도 마음도 좋아졌습니다. 황옥은 다시 바다로 나갈 뜻을 부모에게 아뢰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옥은 자신의 결혼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는 나라에 대한 의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주로서 책임감을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가락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황옥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아유타국의 공주로서도 아니고, 사내를 찾는 처자로서도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한 길이라 꼭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황옥은 미지의 세상을 모험하고 싶었습니다. 황옥의 자신감이 전해졌는지 이번에는 어머니도 편안히 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벧사람들은 다시 달의 차고 이지러짐을 꼼꼼히 관찰하여 배가 나갈 적당한 날과 물때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황옥은 파사탑을 실은 배를 타고 다시 가락국으로 향했습니다.

## 6) 가락국

황옥이 배를 띄운 이 때, 가락국에서는 나라 일을 맡은 아홉 촌장들이 수로왕 앞에 모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가락국이 세워진지도 육 년이 지났지만, 아직 왕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왕의 춘추 정정하시운데 나라에 후사가 없으니 더 이상 국혼을 미루시는 건 불가하나다.”

아홉 촌장들은 수로왕에게 왕비감이 될 처녀를 천거했습니다. 하지만 수로왕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고개만 저으며 도통 혼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은 염려 말고 내일 남쪽 바다로 나갈 준비나 하시오.”

왕의 뜬금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촌장들도 왕의 대답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왕의 혼인은 중요한 나라일이었습니다. 왕이 혼인을 해야 왕자가 생기고 왕자가 있어야 비로소 나라가 안정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정을 모를 수로왕도 아니건만, 혼인 말만 나오면 엉뚱한 일로 말을 돌리니 촌장들은 애가 달았습니다.

촌장은 다시 아뢰었습니다.

“이번 처자는 그 용색이 찬한 숙녀이시고 어릴 적부터…….”

수로왕이 촌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 것은 하늘의 명이고, 왕후의 자리 역시 하늘의 명일 것이요, 머잖아 그대들의 청이 이루어 질 것 같소.”

수로왕은 더 이상 말을 앓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수로왕은 지난 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오는 스무 이레 날 남쪽 바다에 나가면 인연을 만날 거라고 예언한 꿈이었습니다. 수로왕은 꿈에서 본 배의 붉은 돛과 붉은 깃발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목련 키와 계수나무 노를 저어 오는…… 그 여인…….”

다음 날, 스무 이레, 수로왕은 남 쪽 바다로 나가 막사를 짓고 꿈에서 본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붉은 돌과 두 마리의 물고기 그림, 꿈에서 본 낫설고 신기한 물건들, 시간이



지날수록 꿈속에서 본 모습들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수로왕이 생각에 잠겨있을 때 막사 바깥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서쪽 바다에서 웬 낫 선 배가 보입니다! 친히 보소서.”

수로왕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붉은 돛을 펼터이 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두 마리의 물고기 그림이 있는 돛이었습니니다.

배에는 황옥이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주 땅을 떠난 지 일 년. 황옥은 드디어 가락국에 온 것입니다. 수로왕은 채비를 하고 배가 닿을 곳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황옥도 혼인 바지를 입고 내릴 채비를 했습니다.

혼인은 자연스레 이루어졌습니다. 수로왕은 꿈의 예시대로 황옥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황옥은 아유타국의 전통에 따라 수로왕 앞에서 예복 바지를 벗어 받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 공주인 허황옥과 가락국 수로왕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 가 언덕위에 지은 막사에서 이틀간의 신혼 생활을 마친 뒤, 궁궐로 돌아와 아들 열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 스물 이레는 가락국의 국경일이 되었고, 쌍어 그림은 가락국의 국장이 되어 현재 가락국이었던 김해시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황옥이 가져 온 파사탑도 김해에 있는 허왕비 능 오른쪽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어부들도 바다에 나갈 때마다 풍랑을 피하려고 파사탑을 떼어 가고는 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로 볼 때 ‘파사’라는 말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락국이었던 경상남도 김해 지역으로 들어 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산성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파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 참고문헌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김병모, 역사의 아침, 2008년.

## 23. 여주군 파사산성 - 피로 두 나라를 얻은 왕

최윤정

### 1) 왕의 판결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신라와 이웃 나라인 음집벌국과 실질곡국을 통일하여 하나의 큰 나라로 만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야 힘이 커져 북쪽의 오랑캐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집벌국과 실질곡국 두 나라는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말이 통일이지 힘이 약한 자기네 나라들은, 세 나라 중 가장 힘이 센 왕에게 땅을 빼앗기는 결과라며 말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왕은 두 나라를 상대로 무작정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약한 나라 땅에 욕심을 부린다면 주위의 원성을 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가소성과 마두성이라는 두 산성을 쌓아 전쟁 준비를 했는데, 가락국의 수로왕이 먼저 화해를 청해오는 바람에 괜히 민망하기만 했습니다. 늙은 수로왕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예의를 갖춰 손을 내미는데, 고집을 부려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손가락질만 받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실질곡국은 왕이 아끼는 신하 보제와 사돈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 왕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음집벌국의 타추간이 왕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실질곡국이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왕께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뒤 따라 온 실질곡국 사람도 소리쳤습니다.

“무슨 망발이요? 그 땅이 왜 음집벌국의 땅이요? 오래 전, 그 땅은 우리가 빌려 준 땅이란 걸 잊었는가? 여기 증거도 있네!”

“그건 거짓 증거요!”

음집벌국과 실질곡국 사이에 국경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는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니 세 나라 중 만형 격인 신라의 왕에게 땅의 주인을 가려 달라 달려 온 것입니다.

왕은 선불리 나서지 못 했습니다. 만약 음집벌국의 편을 들면 아끼는 신하인 보제가 실질 곡국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하여 서운해 할 것이고, 그렇다고 실질곡국 편을 들자니 신라에게 재물을 많이 바치는 음집벌국과 사이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볍게 웃고 그르다 판단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물러들 가게. 내, 꼼꼼히 따져 판결을 내려 볼 테니, 삼 일 뒤에 다시들 오게나.”

왕은 당장은 한 발 물러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집벌국과 실질곡국 두 나라의 신하들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삼 일을 기다리더라도 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곧, 육부의 우두머리들을 궁에 들라 명했습니다. 육부는 나라 일을 나누어 하는 기관인데, 실질곡국의 사둔인 보제는 육 부 중에서 한기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왕은 음집벌국과 실질곡국 두 나라 사이의 국경선 분쟁에 대해 신하들에게 설명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를 원망하지 않을지 생각들 해 보오.”

신하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로 두 나라사이에 잘 못 끼었다가 이득은커녕, 나라 체면만 구겨지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를 구슬러 통일을 해야 할 판에, 원망 살 일을 하면 일만 복잡해질 것입니다. 워낙 민감한 판결이라, 신하들은 이리저리 머리만 굴릴 뿐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때 보제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흠흠!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 실질곡국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부터 갖고 있던 땅인데, 그 옆치없는 음집벌국이…….”

다른 부의 우두머리들이 화를 내며 보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사로운 연을 앞세워 그릇된 판단을 하지 마시오!”

“나라일이 보제 당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인지 아오?”

얼굴이 벌게진 보제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듣자들자 하니, 지금 무슨 말들을 하는 거요? 나를 제 이익만 챙기는 소인배 취급하는 거요?”

“그럼 아니요? 지금 실질곡국이 사돈이라 하여 편을 들고 있는 거잖소!”

“뭐라! 말조심 하시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연히 남의 일에 집 안 싸움만 일어난 꼴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살피던 신하 명선이 슬며시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끼리도 이런 데……, 이런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게 최선인줄 아십니까. 소문에 듣자오니 가락국의 김수로왕도 남의 일에 나서기 좋아하다…….”

“가만!”

왕이 명선의 말을 막았습니다. 왕의 얼굴은 대번에 맑아졌습니다.

“그래! 수로왕이 있었지.”

왕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 일을 가락국의 수로왕에게 맡기시다. 늙은 수로왕에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 수로왕은 자신을 어른 대접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좋아할 것이오. 그럼, 지난 번 내가 가락국을 치려고 산성을 쌓았던 것에 대한 남은 감정도 풀 것이 아니요? 우리는 앉아서 인심을 얻게 되고.”

명선이 장단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 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수로왕이 질 것이니,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될 뿐 모든 책임은 가락국이 진다는 말씀이시오니까?”

“그렇지!”

왕은 이래저래 자신의 외교정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집벌국과 실질곡국에게는 고민한 흔적을 보이는 것이고, 가락국에게는 대접을 해주는 것이니, 세 나라는 자연히 왕에게 고마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인심이 뒷날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왕은 즉시 가락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 2) 남의 일에 끼여든 왕

모든 것은 왕의 생각대로였습니다. 신라왕의 속셈을 알 리 없는 늙은 수로왕은 자신의 지



혜로움을 알아주는 거라 여겨 흔쾌히 두 나라의 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음집벌국과 실질곡국의 국경은 예부터 명백하지 않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 허나,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음집벌국의 조상이 터를 닦고 뿌리를 내린 바 그 세월이 길다. 이제 와서 실질곡국이 다시 다툼을 일으키는 건 그 동안 무관심했던 태도에 비추어 도리에 어긋난다. 그러니 실질곡국은 한시라도 빨리 음집벌국의 땅을 돌려주도록 하라.”

수로왕은 땅은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음집벌국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내린 이상 실질곡국은 더 이상 어찌지 못했습니다. 수로왕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것은 자기들 보다 강한 나라인 가락국에 도전한다는 뜻이고, 이웃나라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실질곡국 사람들은 결과를 인정한 패자처럼 조용히 자기들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소국이라 입도 병국 못하는 처지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실질곡국과 사돈인 보제도 수로왕의 판결이 못마땅해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편, 신라의 왕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판결을 해준 수로왕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잔치에는 신라의 육부 우두머리들을 모두 참석케 했습니다. 가락국의 왕이 오니,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게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곡국과 사돈인 보제는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제는 육부의 우두머리인 이찬이란 관직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보제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로왕을 맞도록 했습니다. 보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수로왕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잔치에 온 수로왕은 육부의 우두머리 중 보제가 보이지 않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보제가 실질곡국의 왕과 사돈이라 하여, 음집벌국의 편을 들어 준 자신에게 예를 다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수로왕의 신하 탐하리 장군은 보제가 껄뻐하여 이가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매를 가진 탐하리는 처음부터 신라의 왕을 의심했습니다. 가락국을 치기 위해 산성을 쌓던 사람이 갑자기 가락국의 왕에게 판결 부탁을 하다니,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탐하리는 다른 때보다 철저히 수로왕의 신변을 보호했습니다.

수로왕이 신라왕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한기부장인 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모른 채하고 있던 신라왕이 그제야 보제 대신 나온 한기부의 관리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보제는 늦는 것이냐?”

한기부 관리가 보제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니옵니다. 한기부장께서는 다만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하여 나오  
시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어, 어어. 그, 그러냐.”

신라왕은 순간 당황했지만, 한 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수로왕이 어떤 표정일지 궁금해 힐끗 옆을 살폈습니다. 수로왕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어리석은 자’라 함은 자신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신라왕은 겉으로 노여운 척하며 보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탐하리는 그 거짓됨을 눈치 챈습니다. 수로왕도 그제야 자신을 깔보는 신라인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가락국보다 약한 음집벌국과 실질곡국 왕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로왕은 분을 삭였습니다. 왕들의 감정싸움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아야 했습니다. 성격이 급한 탐하리가 수로왕 대신 나섰습니다.

“당장 가서 보제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탐하리는 한 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탐하리는 보제의 집에 쳐들어가 보제를 죽였습니다. 탐하리를 막지 못한 수로왕은 서둘러 가락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탐하리는 보제의 목을 들고 뒤 쫓아 온 신라 군을 피해 국경 문제로 가락국과 사이가 좋아진 음집벌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음집벌국의 타추간은 탐하리를 숨겨주었습니다.

군사를 내어 탐하리를 쫓게 한 신라의 왕은 결국 보제가 죽었다는 소식에 노발대발 했습니다. 가락국의 수로왕에게 책임을 물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잘만 이용하면 원하던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축대밭이 된 잔치에 육부의 우두머리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제가 비록 예에 어긋났다하나, 그렇다고 다른 나라 군사가 우리 육부의 관리를 죽이는



건 저희 모두를 모욕하는 행동이 아니다. 명을 내리시어 저들을 벌하여 주소서!”

“군사를 일으켜 당장 가락국에 쳐들어가야 합니다.”

신하들이 다투어 말해도 왕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제가 먼저 실수를 한 마당에 가락국의 책임만을 묻는 건 억지일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락국은 국경 문제 판결로 실질곡국에게 인심을 잃었습니다. 신라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가락국의 입장은 점점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음집벌국을!’

왕은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사람 몇을 음집벌국에 보내어 탐하리를 내어 달라 청하라.”

흥분해 있던 육부의 우두머리들은 왕의 명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신라를 모욕한 일입니다. 탐하리 한 명만 잡아 올 일이 아닌 줄 아뢰입니다.”

“청하다니요? 군사를 풀어 음집벌국에서 탐하리를 잡아오면 될 것을 굳이…….”

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칼을 보이지 마라. 군사가 가셔도 안 되느니라. 음집벌국 타추간에게 죄인을 내어 달라고 반드시 정중하게 청하라. 단, 두 번은 청하지 마라. 한 번 거절당하면 즉시 돌아오라.”

왕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군사를 보내면 신라를 무서워하는 음집벌국은 탐하리를 금방 내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목적은 탐하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적은 음집벌국이었습니다. 신라에서 점잖게 탐하리를 내어 달라하면 음집벌국은 신라가 화가 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탐하리를 보호 할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꼬투리 잡고 싶었습니다. 음집벌국을 침략하는 정당한 명분으로 말입니다. 왕의 숨은 계산을 모르는 육부의 신하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음집벌국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 3) 음모를 모르는 타추간

그 사이 음집벌국의 타추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경 문제로 가락국의 은혜를 입었으니 탐하리는 당연히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인 신라의 비위도 맞춰야 했습니다.

떨떨매는 타추간을 신하들은 걱정 없다며 위로했습니다.

“이번일은 보제가 먼저 잘못된 일이니 신라가 막무가내로 화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하의 말에 타추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찝찝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때 신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왕께서 청하시기를 죄인을 넘겨주시라 하십니다.”

타추간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신하들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신라에서 온 사람은 군사도 아니고 태도는 더 없이 정중했습니다. 타추간은 지금까지 웅졸하게 겁먹고 가슴 졸였던 제 자신이 민망했습니다. 타추간은 곧, 대범하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께 전하시오. 탐하리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걱정 마시라고 말ियो.”

신라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며 바로 물러났습니다.

‘거 봐. 저렇듯 조용히 물러가는데. 괜히 걱정 했잖아.’

신라는 이 일을 조용히 넘기려 하는 게 분명하다고 타추간은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 땅을 찾아 준 가락국과 의리를 지켜 만족스럽기도 했습니다. 타추간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타추간이 탐하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소식을 들은 신라의 왕은 드디어 명을 내렸습니다.

“음집벌국은 신라의 육부 우두머리를 죽인 죄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신라에 대한 선전포고다. 군사들은 음집벌국으로 진군하라!”

신하들은 그제야 왕의 계획을 눈치 챘습니다.

“감정싸움으로 변질 보제 사건은 덮어두고, 죄인을 내주지 않는 명백한 잘못만을 건드리시겠다! 과연 우리의 왕이시오.”

신하들은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음집벌국은 꿈쩍달짝도 못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자신들만 탓할 뿐이었습니다. 통일을 꿈꾸었던 신라의 군사들은 준비된 병력이었습니다. 음집벌국은 삼시간에 속대밭이 됐습니다. 타추간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을 죽인 죄인을 너희 나라가 다스릴 권리가 있는가?”

신라왕의 호통에 타추간은 찢찢 맏습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사옵니다. 제가 주제넘은 짓을…….”

신라가 음집벌국을 정복했다는 소문은 다른 나라에도 퍼졌습니다. 실질곡국은 신라가 강한지는 알았지만, 자신들과 비슷한 힘을 가진 음집벌국이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을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실질곡국은 이웃인 압독지역의 우두머리와 상의를 했습니다. 두 우두머리는 음집벌국도 신라에 항복한 마당에 차라리 칼로써 무릎을 꿇느니 스스로 항복하여 신라의 지배를 받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실질곡국과 압독국도 신라에 항복을 했습니다. 신라의 왕은 이 둘 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힘을 합쳐 더 강해진 신라는 보제를 죽인 가락국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왕이 바로 신라의 제 5대 이사금인 파사왕입니다.

파사왕은 주변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 산성을 많이 지은 왕입니다. ‘월성(月城)’이라 불리는 성도 파사왕이 지은 것입니다. 지금도 경주에는 신라 시대에 궁궐이 있었던 월성이 남아 있습니다. 첨성대에서 남쪽을 향해 언덕배기를 오르다보면 현재도 그 흔적이 있으며, 성의 한쪽에서는 얼음 창고였던 석빙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월성은 다른 이름으로 초승달을 뜻하는 ‘신월성(新月城)’, 임금이 사는 성이라 해서 ‘재성(在城)’이라고도 불렸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 ‘반월성(半月城)’은 조선시대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성이 월성, 또는 신월성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겨 그에 맞게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파사’라는 명칭은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근동지역에는 옛적에 달, 그중에서도 초승달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동지역에는 예로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역(The fertile crescent district)’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까지 이어지는 비옥한 구릉지대를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 지역을 인류 첫 문명의 요람

지로 추정합니다.

가락국의 황옥왕비가 가져 온 파사석탑과 같은 한자의 파사라는 호칭이 붙은 왕. 여주의 파사성은 이 파사왕 때 지어졌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신라왕의 시호였던 파사와 허황옥이 가져왔다는 석탑의 파사, 여주에 있는 산성인 파사. 이들이 이름이 같은 건 과연 우연의 일 치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 참고문헌

『한권으로 읽는 신라 왕조실록』, 박영규, 웅진닷컴, 2007년

## 24. 이천시 효양산성 - 은혜 깊은 사슴

최윤정

옛날 어느 산비탈에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장날이면 나무 짐을 짊어지고 장에 내다파니, 장에서는 나무꾼이라고도 불린 이 사람의 이름은 서신일(神逸)이었습니다. 신(神)의 도움으로 복을 받아 편안하게 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서신일은 원래 조정에서 나라 일을 하던 양반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신의 도움을 받아 평평거리며 살 수 있는 벼슬아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신일은 농사꾼이 되면서 비로소 신의 도움을 받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자손손 대대로 말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신일은 아간이라는 벼슬아치였습니다. 아간은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신일은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신일이 받들던 왕조는 몰락하고 나라에는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새 왕조에 대한 기대에 백성들은 들떴고 많은 벼슬아치들도 새 왕조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서신일은 옛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어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서신일은 효양산으로 들어가 산기슭에 희성당이라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서신일은 하나 둘 모여드는 학동을 가르치는 일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서신일을 ‘서처사’라고 불렀습니다. 서처사는 비록 벼슬자리는 아니지만 훈장 노릇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같이 벼슬을 내 놓고 효양산까지 따라온 동생 신통도 함께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신통은 날이 갈수록 형 서처사가 안쓰러웠습니다. 서처사의 충직한 성품에 벼슬자리를 버린 건 그렇다 치고, 정작 형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산에 들어 온지도 십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신통은 날을 잡아 서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형님 연세도 있으시니 제 아들을 형님 양자로 삼으심이 어떠신지요?”

서처사 또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동생말대로 나이도 많으니 더 이상 아들 생산을 바랄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서당일도 제자들에게 미루고 마음 편히 밭일로 소일을 삼고 사는 터였습니다.

신통은 이참에 서처사를 설득하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마을 아랫것들도 대 끊기는 집안이라고 괜히 무시하는 것 같고…….”

하지만 신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건 하늘의 뜻일진 데, 쓸데없는 말로 형의 마음을 더는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형님 연세 올 해로 여든 이십입니다. 더는 다른 말씀 마세요. 무조건 제 아들을 양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나 서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양자 문제를 의논했었지만 서처사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신통은 벼슬자리로 내놓을 정도로 옹고 그림이

대쪽 같은 성품인데 오죽하랴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문제에 있어서 신통은 고집만 부리는 형이 야속했습니다.

서처사가 동생의 마음을 읽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네게도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다. 당연히 네 처에게도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지. 그런 아들을 뺏어오는 건 인정에 반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양자문제는 꺼내지 마라.”

신통은 도대체 서처사의 마음을 알다가도 몰랐습니다. 남들은 새 왕조에 충성하고, 가문을 빛내는 일이라면 굶은일도 마다않는 판에 형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말만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처사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밭일을 더 해야겠다. 산밭을 일구는 건 평지를 일구는 것보다 품이 열 배는 더 드는 것 같구나.”

서처사는 마당에 나가 호미와 녀가래 등을 챙기며 아예 판청을 했습니다. 신통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처사는 일찍 밭에 나갔습니다. 서처사는 농사를 짓기 시작 한 후부터 효양산에 내려 온 걸 더 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벼슬자리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자연의 이치를 농사를 지으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어 머리로만 알았던 지혜도 땅에서는 몸으로 부대끼며 실천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처사는 작은 풀포기 하나 곡식 알갱이 하나, 개미 한 마리가 곧 우주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지 팔십이 넘은 나이도 아랑 곳 않고 서처사는 밭일에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끼니때도 잊은 체 산 아래 고랑을 흙으로 메울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 속에서 뭔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풀이며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로 보아 돌덩이라도 굴러오는 듯싶었습니다. 서처사는 호미를 든 체 어디로 피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커다란 검은 덩어리가 서처사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크어어억, 크어어억!”

“.....!”

커다란 덩어리는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괴로운 소리를 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



슴의 등에는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리까지 흘러내린 피로 갈색 털은 붉게 젖었습니다. 서처사가 어찌지 못하고 안절부절 할 때였습니다. 숲 속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오는 듯 빠른 발자국 소리와 웅웅 울리는 외마디 소리. 사슴의 뒤를 쫓는 사냥꾼인 듯싶었습니다. 서처사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사슴이 비틀대며 일어섰습니다. 사슴은 서처사를 바라봤습니다. 서처사는 사슴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사슴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서처사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사슴을 풀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슴도 서처사의 마음을 읽었는지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서처사 손에 맡겼습니다. 서처사는 풀숲에 사슴을 숨기고 태연한 척, 다시 호미질을 했습니다. 잠시 뒤, 아니나 다를까 화살 통을 멘 사냥꾼이 험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노인장, 흑시 학학! 등에……, 아이고 숨차. 흑시 말이오, 화, 화살을 맞은 사슴이 이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못 보았소? 학학.”

얼마나 달렸는지 사냥꾼은 몸을 반쯤 숙인 채 숨을 골랐습니다. 서처사는 능청스럽게 웃기까지 하며 잡아땀습니다.

“일껏 활 질까지 해 놓고 놓친 모양이구려, 쫓쫓. 어찌나, 사슴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보았는데.”

서처사는 다시 호미질을 했습니다. 태연한 척 했지만 손에 힘이 풀려 자주 헛손질만 했습니다. 사냥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짐승 털처럼 덤수룩한 수염 속에서 불거져 나온 고집스런 입매와 세모진 사냥꾼의 눈은, 서처사의 따돌림 정도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노련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냥꾼은 두리번거리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행여 남이 다 잡아 놓은 먹이를 가로채려는 건 아니겠지? 그랬다가는 나이고 뭐고 상관 없을 줄 아슈! 저 고랑에 패대기를 칠 테니. 정말 못 봤수?”

서처사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내 알기로 사슴처럼 연약하고 겁이 많은 짐승들은 원래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피해 다닌다 들었소. 그러니 제 아무리 도망치기에 바쁜 사슴일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

왔을 리가 있겠소? 댁은 사냥꾼이니 더 잘 알거 아니요?”

“그야, 그렇기는 하지만…….”

그제야 사냥꾼은 희번덕대며 주위를 살피던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더 달아나기 전에 어여 쫓아가 보시오.”

서처사는 허리를 굽혀 다시 땅을 일구며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숲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처사는 사냥꾼이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슴을 꺼내주었습니다. 사슴은 피를 너무 흘려 제대로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기품 있어 보이는 빨마저 시든 풀처럼 처져 보였습니다. 서처사는 화살을 뽑고 저고리를 찢어 상처에 댔습니다. 사슴은 괴로운 듯 꿈틀댔지만 이내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서처사는 급히 약초를 구해 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옆에서 지키며 약초를 갈아주고 입을 다셔 준 덕분인지 사슴은 다음 날 밤, 눈을 떴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너는 기백이 넘치는 그 옛날 신라의 화랑들 나이로구나. 죽은 듯 자더니, 언제 그랬냐 싶게 이리도 번쩍 눈을 뜨느냐? 허허허.”

서처사는 사슴이 제 자식이 되는 듯 좋아했습니다.

서처사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사슴은 힘이 넘치는 청년이었는지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상처도 거의 아물었습니다. 쪽 뺨은 다리와 당당하게 솟은 뺨을 가진 사슴을 보며 서처사는 대견해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사슴이 다가와 입으로 서처사의 손을 톡톡 쳤습니다.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게구나. 그래, 이제 안심해도 좋을 것 같으니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게도 널 기다리는 가족이 있겠지.”

서처사는 어서 떠나라는 뜻으로 사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슴은 고맙다는 듯 다시 한번 돌아서 보고는 숲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날 밤이었습니다. 서처사의 마음이 유달리 쓸쓸했습니다. 아들을 키워 세상에 내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서처사는 곡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랠습니



다. 그러다가 서처사는 자신도 모르게 설핏 잠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웬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서처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효양산의 신령인데 그대가 살려준 사슴이 바로 내 아들이요. 그대 덕분에 내 아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 은혜에 보답하러 이렇게 찾아왔소.”

서처사는 뭐라 말하려 했으나 말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머지않아 소망하던 아들을 얻게 될 것이요. 그 아이가 자라면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터이니 부디 잘 키우도록 하시오. 또한 사슴이 일러준 곳에 묘소를 정하면 그 아이의 후손들도 모두 귀한 인물이 되고, 대대손손 크게 번성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이번에도 서처사는 뭐라 말했으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흰 수염의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처사는 노인을 잡으려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 잠깐만……!”

서처사는 잠에서 깬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허허. 그 사슴이 잘 생긴 청년으로 느껴지더니만 결국 이런 꿈을 꾸었구먼. 허허허허.”

서처사는 신령도, 아들이 생길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팔십이 넘은 나이에 아들이 생긴다니 말이 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년이면 여든 두 살인 서처사가 아이를 가진 것을 신기해했지만, 서처사는 사슴이 효양산 신령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음 해, 서처사의 아내는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문중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물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통은 손자보다 어린 조카를 안고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의 장손이 태어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형님의 이름이 이제야 효험을 보나 봅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경사가…….”

신통은 아기를 보며 똑 같은 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처사의 아들로 인하여 효양산의 신령에게 더욱 예를 다했습니다. 산신령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몰려 와 기도를 합네, 고사를 지내네 하며 범석을 떨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기는 네 살이 되었습니다. 필이라 이름 지어진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서처사는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몸져누웠습니다. 나이 이기는 장사 없다고 이제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서처사 역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가는 구나 느꼈습니다.

서처사는 조용히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봤습니다.

벼슬자리를 버리고 훈장질, 농사꾼, 나무꾼이 되어 살았던 인생. 효양산으로 들어가 산다 했을 때 입 가진 사람은 모두 말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농사꾼이 되어 살았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뒤 늦게 아들을 얻어 평생 느낄 행복을 몇 년 사이에 모두 누리며 산 것도 넘치는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처사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네 살 배기 어린 아들을 남기고 눈을 감자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 명이 붙어있으면 좋으련만…….”

서처사는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몇 년 더 살기를 바라는 것인 줄은 예전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살았고 많은 복을 누렸다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 년, 아니, 삼 년, 일 년만 더 살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신의 도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처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못내 아쉬워하던 어린 아들 필이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의 도움은 이제부터 받게 되니, 서처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처사의 장례식이 조촐히 시작됐습니다. 어린 아들 필은 상주가 되었습니다. 상복에 파묻혀 아장아장 걷는 상주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상여가 마련되고 서처사의 관이 집을 나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산 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산 어귀에서 사슴이 난데없이 상여꾼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히, 어히! 비키거라. 비켜! 아무리 산짐승이라도 저승길을 막으면 쓰나. 어히, 어히, 물  
러트거라!”

상여꾼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깊은 눈은 눈물이라도 고  
인 듯 슬퍼보였습니다.

“에잇! 어서 비키래도.”

상여꾼 하나가 돌을 집어 사슴에게 던졌습니다. 그래도 사슴은 꼼짝을 안 했습니다. 사슴  
은 어린 필에게 고개를 주억거렸습니다. 뭐라 말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린 필은 사슴  
이 나타나니 좋기만 했습니다. 필은 아비도 잊은 채 사슴이 손바닥을 간질이니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어린 상주의 천진스런 웃음에 사람들도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웃었습니  
다. 어른들 멧이 나무랐지만 나무라는 소리에는 귀애하는 정이 묻어났습니다. 사슴 때문  
에 장례는 생각지도 않게 눈물보다는 웃음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갑자기 필이 산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슴이 손을 간질이다 따라오라는  
듯 웃기를 끄니 필이 냉큼 달려간 것입니다.

“필아! 필아!”

사람들은 필이를 쫓아갔습니다. 상여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있을 뿐이었  
습니다. 상주가 길 안내를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주가 장사는 팽개치고 산 짐승과 놀자고 하는구나, 허허.”

“백발에 생산을 하셨으니, 저승길 가시는 분도 이 정도는 눈감아주시겠지요.”

“하하, 하하하하!”

쫓아간 사람들이 필이를 붙잡아 올 동안 웃음소리는 이어졌습니다.

필이는 계속 사슴을 쫓아갔습니다. 사슴은 길 안내라도 하는 듯 필이의 발걸음에 맞춰 되  
돌아서기를 반복하며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쫓아간 어른들은 필이를 금방 잡을 수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잡았다 싶으면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나뭇가지가 팔을 때리거나 해서 필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필이는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었  
습니다.

“자네는 저쪽으로 돌아가 미리 앞으로 가 있게나.”

할 수 없이 사람들은 패를 나누어 필이를 쫓아갔습니다.

필이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새삼 느꼈습니다. 산 아래서만 봐왔던 효양산은 들어갈수록 다른 세상처럼 신기했습니다. 길은 큰 뱀이 숲 속을 헤쳐 기어오르듯 구불거렸지만 땅이 부드럽고 발걸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는 길이 편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갈수록 평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필이를 잡으려는 것보다 모두 사슴을 쫓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 만치서 사슴이 멈췄습니다. 필이도 곧 사슴 곁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필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이, 이진!”

달려간 사람들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 한 채 더 떡 벌렸습니다. 산꼭대기에는 큰 뱀이 기어와 꼬리를 튼 듯 평평한 땅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지금껏 못 본 땅이 숨어있다 튀어 나온 듯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하늘이 내린 혈자리로구먼.”

“그, 그럼 이 자리가 처, 천교혈자리인가?”

사슴이 필이를 이끌어 안내한 자리는 다름 아닌 서처사의 묘지자리였습니다. 천교혈(天巧穴)이라 함은 하늘 궁정 같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찾지 못한다는 혈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에는 청룡 백호처럼 비슷한 산들이 혈 자리를 둘러 감아주고 있었고 땅은 축축했습니다. 큰 뱀과 함께 혈자리에 모인 물들이 땅으로 솟아 나와 흙을 적신 듯 했습니다.

“부덕한 사람이 천교혈을 쓰면 천벌이 내린다고 했습죠?”

“천벌은커녕, 이런 혈자리는 부정한 사람 눈에는 애초부터 보이지도 않는다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묘자리는 팔 십 팔 방향 중에서 가장 좋다는 정양향 자리입니다.”

팔십팔 방향은 풍수지리에서 방향을 나누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해 땅의 길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안내한 자리는 그중 가장 길한 자리였습니다.

과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슴이 혈자리에 서더니 발과 입으로 땅 파는 시늉을 하



는 거였습니다. 필이도 덩달아 조막만한 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필이는 사슴이 흙장난을 하지는 걸로 아는지 연신 헤헤거렸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저길 보시오!”

사슴과 필이가 헤쳐 놓은 땅 속에서 오색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은 서처사의 손길이라도 되는 듯 필이 몸을 휘감고 돌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는 곧장 내려가 원래 묘자리로 향하던 상여를 사슴이 안내한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처사는 신이 내린 명당자리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명당의 효험은 자자손손 이어졌습니다.

필이는 처음에는 구슬아치라는 낮은 관직으로 조정에 등용됐으나 곧 왕의 명령을 문서로 꾸미는 내사성의 으뜸 자리인 태사내의령이 되었습니다. 서필의 아들은 거란의 80만 대군의 침입 때 혼자 몸으로 적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하여 거란군을 철수시킨, 바로 ‘서희의 담판’으로 유명한 서희입니다. 서희는 칼 대신 말로써 청천강 이북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고려 영토를 압록강변까지 확장하는데 기여한 외교가였습니다. 서희 아들 서눌 역시 문과에 장원하여 중승, 형부시랑, 상서이부시랑겸 지이부사 등의 자리에서 나라 일을 하였고,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서눌의 딸은 왕비가 되었고, 증손인 서정은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판비서성사 등을 지냈습니다. 또 서정의 동생 서공은 지략과 무예가 뛰어나 벼슬이 평장사에 이르렀고, 이 밖에 서린, 서능, 서연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고려와 조선 조정에서 나라 일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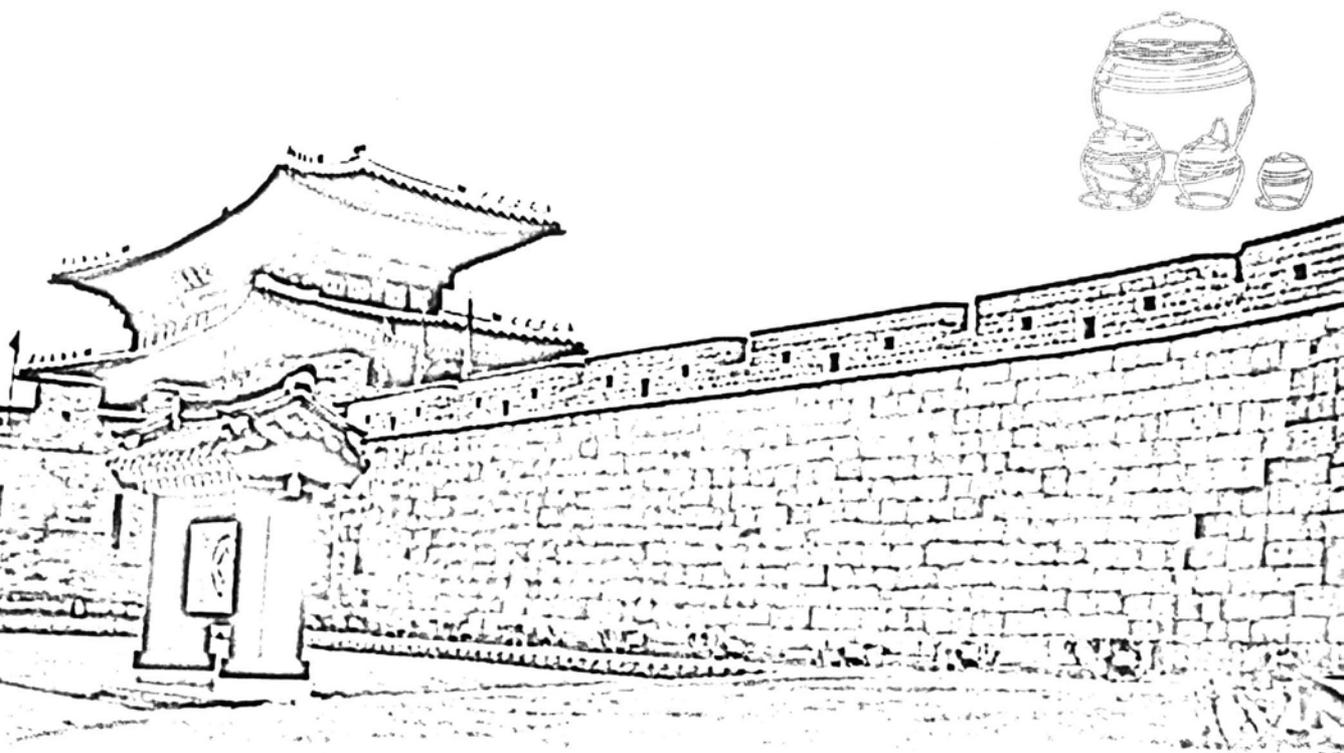
사슴의 보은은 서처사의 자손 대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 ■ 참고문헌

『이천시지13』, 이천시편찬위원회, 2001년.

동화로  
산성편 읽는  
경기도설화

Ⅲ. 부록



## 1. 원문으로 읽는 생애전화

### 1) 벼락과거(간촌 이생원 이야기)

-정조로부터 벼락으로 벼슬하게 된 이생원의 이야기란다.

간촌 이생원에 벼락과거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사자 : 아, 벼락과거요.) 벼락과거죠. 간촌 이생원 그제 벼락과거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정조 대왕께서 그 아버님에 산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이 화산으로 모셔서 여기는 인제 현릉원이고 또 저 창헌세자루 인제 그(조사자 : 그렇죠.) 명칭을 고쳐 가지구 인제 모신 뒤에 뭐 상당히 참 거 그제 효성이 지극했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 어른에 어느 왕 못지 않고 또 어느 일반인 뭐 못지 않게 상당히 그 뭐 효성이 지극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나라에서는 인제 그 어 창헌세자를 그 추종할려구 했으나 그 선왕께서 절대루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유지에 받들어서 하지두 못했구 또 물론 할려구 했었으나 인제 그 다 인제 대신들이 반대하구 인제 있었던 거구 했었는데 그 인제 그 왕이 된 아들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었겠다.

그러니 인제 그래가지구 한 날은 사복차림을 하고 그 능 근처에, 어느 그 농촌 지대를 쪽-이 돌면서 인제 능이 좋은 데니까 지금에 그 능 있는 데가 화산능 일대 거기가 용주사 (조사자 : 네.) 거기가 지금 안현리입니다. (조사자 : 안현리.) 화성군 태안면 안현리 일대에 그래 거기서 인제 댕기다 보니까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구 있더라요. (조사자 : 네.) 그래서 그 인제 지나가다가 저 담대 한 대 같이 이렇게 피면서 저 인제 뭐 길두 묻구 그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루다가,

“저 위 저거 저 무어를 하는 데냐?”

구. 자길 속였으니까 어이 아버지 산술 뻔히 알면서두. 으 시치미 딱 떴놓구. (조사자 : 네.)

“저게 뭐냐?”

구 하니까 그 농부가 하는 소리가,

“여보, 당신 보아하니 이거 차림새 하고(조사자 : 음.) 선비가 틀림이 없는데 그것두 모르



느냐?”

그 말이야.

“여기 도대체 뭐 하는데 그것두 몰르구 여길 댕기 왔느냐?”

“지나가는 거냐?”

“아 난 정말 적시 몰랐다.”

구 하니까,

“뭐 하는 데냐?”

구 하니까 일러주기를 으 뒤주 대왕이신 얘기능이라구. (조사자 : 응, 얘기능.)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추존을 못하니까 현명원요. 장헌세자 밖에는 칭호가 안 되는데, 에 뒤주에 들어가 가지구서 돌아갔다고 그래서 뒤주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조사자 : 예.) 대왕, 이 왕에 묘를 그래구 그래구 저기하는 거니께 말하자면 그 임금님이라야 인제 명을 칭할 건데(조사자 : 그렇죠.) 이거인제 정(正)으로다간 임금이 아니었구 하니까 그걸 낮추어서 적을 낮추어서 불르는지 모르겠으나 얘기란 이름을 불렀어요.

(조사자 : 네.)

“얘기능이라오.”

하니까, 나라에서두 추존을 못하구 그 백 이 저 대신들이 다 반대를 하구 그래는 판에 일개 농부가 말이지, 자기 아버님에 참 자기에 그 속 시원하게 생각했던 바와 똑같이 뒤주 대왕이란 얘기를 하구 능이라구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느냐.(조사자 : 네.) 그래 인제 그래 가지구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인제 그

“공부나 좀 했느냐?”

구 하니까,

“아 글은 좀 읽었지마는 뭐 가서 그 과거두 봤는데 맨날 낙방만 했다.”구.

“아 난 못 봤는데요.”

“아니요. 나 지금 오다 막 봤는데 붙었음디다.”

그래 인제 얘기를 하기를,

“아 그 이번엔 좀 보지 그러느냐.”구.

“아이 글썄 좀 가 보까요?”

하니까 옆에서 자꾸 권해서,

“가 보라.”

구 말야.

“그럼 가 보지요.”

하구선 그 옛날 사람이야 말 한 마디면 서루 다 믿구 할 때니까 거짓말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 인제 과걸 보러 갔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냥 즉석에서 수원같은 데만 붙이면 되니까 뭐 뭐 서울 안 붙여두 되구 사람 몇 명 왔으나 제목을 글 제 제목이 에 그 어느 간촌 이생원과 어느 선비와의 대화(조사자 : 음.) 내용을 써라. (조사자 : 음, 어.) 그런 식에 글제가 낫단 말야. (조사자 : 웃음, 그 사람 아니면 진짜 아무도 못쓰는...(웃음) ) 못 쓰는.(조사자 : 아, 네.) 그러니까 아 거 선비가 와서,

“이거 뭐하는 데냐?”

뭐 했다는 얘기며 (조사자 : 아, 네.) 자초지종 그 얘기를 죽 자기 나름대루 그저 배운대루 그 써서 내니까 그 뭐 제껴 그 사람만 하나만 붙였다는 거예요. (청중 : 웃음.) 그래서 간촌 이생원에 벼락과거다(조사자: 네, 네.) 그런데 인제 지금 그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간촌 이생원이란 분에 후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구, 간촌두 없구, 그런 얘기만 떠돌구 있어서 이게 전연 근거가 참 알 수가 없어요.

(출처 : 구비문학대계 1-5권, 경기도 수원시 설화 P58-61)

## 2) 능참봉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조사자 : 그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네. 에 모처럼 능참봉을 하나 얻어 하니까 한 달에 거동이 스물 아홉 번이라. 능참봉에 입장에서 얘긴데(조사자 : 네, 네.) 임금님에 인제 거동이 스물 아홉 번이라 이거야. (조사자 : 어 그렇게 많이...) 현



데(조사자 : 어 그렇...많이 왔었다는, 오셨다는 얘기지요.)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서울서 여  
기가 (청중 : 그저 얘기가 돼요, (웃음)) 하루 저녁인데 스물 아홉 번 왔다는, 한국 사람은  
거 과장을 잘 하거든요.(조사자 : 잘 하지요.)

그전 어떤 인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 세 길만 돼두 키루, 삼 천 척이라 그런답니다. (청중  
: 그렇죠.) 이 저 저기 저 있잖아요. 왜 그 비류죽화 삼천 척, (조사자 : 네.) 그계 세 길이래  
요. 그런 걸 그렇게 과시해서 문장상 문학상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것은 하나에  
(조사자 : 한문에.) 작업이면서두 그건 하나에 그 방법이겠지요. (청중 : 아이 거 중국에 그  
북경을 가면 먼지가 어떻게 많이 나는지 흥진이 만장이라.) 흥진이 만장이지, 네. (청중:  
흥진이라구 그러면서 말이요.) 네, 글썸, 네, (청중 : 과장을 그렇게 하면서.)  
과장을 네.

그래서 한 날은 임금님이 참 이십 구 일은 아니고, 와서 오셨는데 거기 오셨다가 (조사자  
: 네.) 되돌아 가시는 길에 비가 와 가지고(조사자 : 그 자리에.) 수원 행문에서 주무셨어  
요. (조사자 : 네.) 주무시는데 안 인제 날이 어두워 가지구서 초저녁 때 쯤 됐는데 비가 그  
저 모질게 주룩주룩 쏟아지니까 임금님 생각이 원래두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분이시라.  
“자 이거 나는 이렇게 참 지붕두 있고 뗏뗏하게 아주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말야. 이  
렇게 요래구 앉아서 술을 이 저 비두 안 맞구 이러구 있는데, 아 우리 아버님이야 한 데서  
말이지, 이렇게 억수 같이 쏟아지는 비를 그냥 맞고 계실테니 얼마나 이 참 저저한 일이나.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말야. 나졸을 시켜서 가 가지고 어 능참봉이 불이라두 사랑방에 켜  
놓구 있으면 되거니와(조사자 : 으, 그렇지.) 안 그렇구 그놈이 쿨쿨 잠을 자거던 잡아 매  
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런 날은 서루 관심을 가지구(정중 : 봐 달라 이거지.) 자기 마음만큼만 쯤  
가져 주었으면 (청중 : 네.) 일방적인 생각이지. 능참봉이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칩니까?  
어디.

아, 그래서 인제 가 보니까 사랑방에 불 켜 놓 게 문제가 아니라 없거든요. 그래 산소에  
가 보니까 산소에 가 옆드려 있어. 관복, 정복을 입구. 옆드려서 (조사자 ; 아.) 비를 쪽 맞

으면서, 이래 있다 이거야. (청중 : 웃음.)

“아 그게 어찌된 일이나?”

하니까, 간 사람이 물어 보니까,

“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참 얼마나 차. 이 비를 다 맞구 계시니...”

이 임금님에 생각하구 똑같으다 이말이야.

“얼마나 애처로우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제가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참 (청중 : 비를 맞구 있노라구.) 그래, 같이 맞구 있노라.”

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 그러니까 그 임금님한테 와서 보고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우. 그러니까 그래 관복을 하사하구, 계급을 올려 주구 그러구 승진시켰다.(조사자 : 네.) 이런 애긴데 그럼 그 그 저 그 능참봉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엎드려 있었느냐. 어느날 집에서 이렇게 인제 있을라치니까 웬 그 뭐 옛날 얘기론 종이랑 얘기두 있구(조사자 : 네, 예.) 문묵가(文墨家)란 얘기두 있구.

이런데 하여간 대개 옛날에 그 종이 그런 그 저 예언을 많이 왔다는 얘깁니다. (조사자 : 네.) 기나다가 인제 동냥을 달라구 그래서 인제 아간 그 동냥을 잘 안 줬다는 얘긴데, (조사자 : 웃음.) 여긴 잘 봤어요 (조사자 : 네.) 잘 주니까 예약을 하구 갔다는 거야.

“아 댁에서 그 모월 모일 모시에 말이지요. 그 좋지 않은 불길한 일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구 이렇게 여운을 딱 뱉겨놓구 갔는데 흔히 그때 시래루서는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모월 모일쯤 가니까, 시(時)는 그만두고라도 모일쯤 가니까 임금님이 오셨거든. (조사자 : 예.) 아 웬지,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말야. (조사자 : 웃음.) 선견지명, 어떤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뒤에 비가 오니까 반드시 그 확인이 올 거 같다, 요새 말루. (청중 : 그렇지요.) 하니까 나가서 엎드려 있다가 오히려 화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좋은 저기를 당했다 하는 거 얘기가 하나 있지요.(조사자 : 네.)

(출처 : 구비문화대계 1-5권 경기도 수원시 설화, 61~63쪽)



## 2) 세마지대 - 오산시 독산성

물이 부족한 이 곳의 조건을 알고 왜병이 물을 한 지게 올려 보내 조롱하자, 권율장군이 백마를 산 상에 세우고 말에 쌀을 끼얹어 말을 물로 씻는 시늉을 해 보이자 왜군은 성내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속아 퇴각하였다는 세마대의 전설이 전해오기도 한다. 세마대는 독산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독산성 축성 후 전승을 기리기 위해 창건된 보적사가 성내에 자리하고 있다.

(출처 : <http://www.osan.go.kr>)

## 3) 행현리의 백정고개 전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서낭당에서 제를 올리면서 농사가 잘 되게 도와달라고 빌었다. 마을에는 백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백정은 천대를 받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고기를 잡아 주지만 정작 자신은 고기를 먹어볼 수 없었다. 그는 고기를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다. 제를 올리기 전, 백정은 머무나 고기가 먹고 싶어 그만 고기 한 점을 훔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먹어치웠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백정에게 내리쳐 단번에 죽고 말았다. 그 후 사람들은 고기를 훔쳐 먹은 백정에게 산신령이 노하여 벌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고개를 백정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 4) 망두메기고개 전설

옛날 어떤 농부가 한밤중에 소를 끌고 이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는 고개 중턱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소가 달려들어 호랑이를 받아 넘어뜨렸다. 그런데 이 때 어디선가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새로 나타난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면서 망두 옆 산소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바라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농부는 황급히 옷을 벗어 망두에 걸치고 옆으로 엎드렸다. 성난 호랑이는 자신의 짝을 죽인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입을 벌리고 옷을 걸쳐놓은 망두를 향해 돌진했다. 망두를

사람으로 오인한 호랑이는 거기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고 한다. 그 후 농부는 이곳에서 죽은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 팔아서 부러진 망두를 다시 세워주었다고 한다.

(출처: 『기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학교박물관, 1999.)

### 5) 죽주산성의 송문주

고려 고종 13년 송문주가 죽주방호별감이 되었는데 몽고가 죽주성에 이르러 항복을 권유하자 성안에서 사졸이 나아가 싸워 쫓았다. 몽고가 다시 포로 성의 사방을 공격하자 성문이 곧 무너졌다. 성중에서도 또한 포를 가지고 공격하자 몽고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몽고는 다시 사람의 기름을 준비하여 짚에 붙여 놓아 공격하였지만 성안에서 포를 가지고 마주 공격하자 몽고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성안에서 사졸이 일시에 문을 열고 돌격하니 몽고군 중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몽고는 여러 방법으로 성을 함락시키려 하였으나 결국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몽고군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이유는 송문주가 귀주에 있을 때 몽고가 성을 공격하는 술책을 익히 알고 있어 그 계획을 속속이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들에게 고하기를 ‘오늘은 적이 반드시 아무 기계를 쓸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아무 기계를 준비하라.’ 하면 과연 그 말이 같으니 성안에서는 그를 모두 귀신이라 일었다. 즉 송문주는 지방민과 수령들을 독려하고 계책을 발휘하여 대몽고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산성 내에 사당이 있다.

### 6) 죽산

죽산현 먹골에는 감영에서 죄인을 수감 관리했다. 양성이나 안성의 죄인들이 일단 이곳으로 호송되었는데 죄인들은 삼죽과 죽산의 분수령에 있는 두들기고개를 넘지 않으려 했다. 이 고개를 넘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지 않으려 두들기고 지나가서 두들기고개라 한다.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렇고, 또 이 지역의 토질이 황토 진흙이어서 올라와 쉬면서 신을 벗어 두들겨 떨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다. 이곳은 새색시가 첫아들을 낳아야 흙이 떨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진흙이 많았



다고 한다.

### 7) 비봉산 장수바위

비봉산에서 뛰어내려 알미산을 한 발로 밟고, 다시 뛰어 올라 도구머리의 탐산에 두 발을 내려놓았다는 비범한 장수 이야기. 이 장수가 누워 있던 자리와 칼을 놓아두었던 자리가完연하게 남아있다. 이 장수는 탐산에서 알미산을 한 발로 디디고 다시 비봉산으로 돌아가다가 아롱개에 있는 쌍미륵 중 여자 미륵을 발로 차 이 미륵의 머리를 부러뜨린 후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전해진다.

### 8) 무양산성 - <송갑주 장군의 세마 전설>

송갑주 장군이 몽고병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성안에서 쌀로 세마를 하여 물이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너무 빨리 성 밖으로 나왔다가 몰살당했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출처: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최운식, 민속원, 2002)

### 9) 서운산성 - <홍계남과 관련된 설화>

진재봉성지는 규모가 작고 방어력이 취약하여 장기간에 걸친 입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재봉성지는 서운산성의 부성으로 소규모 부대가 주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왜군은 거침없이 조선의 수도인 한양까지 이르게 된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조선군은 선조가 신의주까지 후퇴하기에 이르고 조선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가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홍계남은 그의 아버지와 안성에서 서운산성을 교두보로 왜군과 대항하였다.

### 10) 고성산성(탐라고성)- <고성산 설화>

옛날 이 마을 뒤에는 고성산과 특왕산이 맞닿아 있어 원래 상봉우리가 아주 많았다. 그런데 어느 해의 큰 장마에 산사태가 생겨 다른 봉우리들이 다 떠나려갔는데 이 마을 뒤에 있

는 산만은 떠내려가지 않아 덕이 많다하여 덕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출처 : 안성 설화 자료집: 『한국구비문학대계』경기도 안성군편, 『안성군지』중 민담·설화편, 월간 『애향』경기·안성편, 『내고장호자호부사료』)

### 11) 오산시 독산산성-세마대

왜군이 쳐들어와 권을 장군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왜군은 삼천병마골 뒤에 숨어서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듯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면서 성안의 물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을 장군은 적군의 이런 동정을 살피고는 군량미를 모두 꺼내어서 으스름 달밤에 전부 말에 뿌리게 하였다. 왜군은 이것을 보고는 성안에서는 물이 없어서 금방 죽는다고 했는데 물로다 말을 씻는 것을 보고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쳐서 권을 장군이 왜군을 크게 무찌를 수가 있었다.

(출처 : 구비문학대계 제6권 경기도편)

### 12) 수원시 화성-정조와 능참봉

정조가 어느 날 화산릉을 참배하고 환궁하기 위하여 화성에 도착했을 때 마침 비가 오기 시작하여 가지 못하고 성내에 있는 행궁에 머물게 되었다. 비가 밤새도록 오자 정조는 땅속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는 즉시 가서 묘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리고는 능참봉이 만약에 불이라도 켜놓고 있으면 괜찮지만 편안히 자고 있으면 압송을 해오라고 시켰다.

군졸들이 가보니 능참봉이 정장을 하고는 퍼붓는 빗속에서 묘에 엎드려 있었다. 돌아와서 사실대로 전하니 정조가 기뻐하여 관복을 다시 내리고 상금과 벼슬을 주었다. 원래 능참봉이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날 능참봉이 지나가던 초라한 사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서 아무 날 아무시만 잘 넘기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마침 그날에 임금이 행차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환궁을 못할 것을 미리 알고는 이렇게 처신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넘기고 복이 되게 하였다.

(출처 : 구비문학대계 6권 경기도편)

### 13) 수원시 화성-벼락 과거(간촌 이생원 이야기)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은 애처롭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에 모시고는 자주 참배를 하러 오셨다. 어느 날 정조가 사복차림을 하고는 안녕리 근처를 지나다가, 마침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간촌 이생원이라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다. 정조는 임금의 신분을 속인 채 아버지 산소를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농부는 화를 내며 뒤주대왕이신 얘기능도 모르나면서 정중하게 일러주었다. 정조는 기뻐서 농부와 더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진 농부를 위해 과거를 보게 하였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 갑자기 과거를 시행하게 하고는 제목도 ‘간촌 이생원과 어느 선비와의 대화’라고 내니 정답을 써 낸 사람은

농부밖에 없었으므로 그 농부가 장원급제를 하여 금의환향을 하게 된 것이다.

(출처 : 구비문학대계 제3권 경기도편)

### 14) 광주시 남한산성-임경업장군을 낳게한 매화나무터의 무덤

남한산성 서쪽 등성이에는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다. 이 무덤에는 병자호란 때의 명장 임경업 장군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임경업 장군은 충주 달촌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묻혔다. 그런데 이 무덤이 주목받는 것은 임경업 장군을 태어나게 한 임씨 가문의 선조의 무덤인데다 다음과 같이 임경업 장군의 출생을 예견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지기 때문이다. 먼 옛날 한양에서 흠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가난한 총각이 광주 친척집에 식량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도중에 날이 저물어 산 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날씨는 비바람까지 몰아쳐 그 총각은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비를 맞으며 산길은 한참 동안이나 헤매던 총각의 눈에 불빛이 들어왔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을 발견한 총각은 그 불빛을 따라갔다. 그랬더니 웬 집이 하나 나타났다. 그 집의 문을 두드리니 놀랍게도 어여쁜 처녀가 나왔다. 깊은 산 속 외딴 집에 처녀 혼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총각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무엇에 홀린 듯 처녀가 이끄는 대로 방에 들어갔고 차려주는 밥도 먹었다. 그리고 총각은 그 처녀와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한양에서 굶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한 총각은 서둘러 광주 친척집으로 떠났다. 그러나 길을 걷는 총각의 뇌리엔 어젯밤 그 처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총각은 마침내 그 처녀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다시 어제 묵었던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바로 그때 온 산이 짹짹 울리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듣거라! 나는 이산의 산신령이다. 너는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어서 네 갈 길이나 가거라. 어제 밤을 함께 보낸 그 처녀는 오백년 묵은 암구렁이다.” 총각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총각은 잘못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어제 묵었던 집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처녀의 집은 보이지 않았다. 집의 자취는 온데 간데 없고, 다만 한 그루의 고목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총각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산발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산발한 여인은 바로 어젯밤의 그 처녀였다. 처녀는 숨가쁘게 뛰어온 총각을 보며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다. “저는 산신령의 말대로 오백년 묵은 암구렁입니다. 세상 남자 중의 남자인 당신을 만나게 되어 이제 승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당신의 덕입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에 비늘 세 개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 비늘이 떨어진 자리를 이후에 당신의 묘 자리로 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손 중에 나라를 구할 유명한 장수가 꼭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처녀는 말을 마치자 곧바로 모습을 감췄다.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늘로 올라가자 하늘에서 비늘 세 개가 떨어졌고, 그 비늘은 매화 나무 세 그루로 변했다. 그 후 임총각은 죽을 때, 처녀의 말대로 무덤을 매화 나무가 있는 자리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처녀가 승천하면서 남긴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총각의 자손 중에서 유명한 장수가 태어난 것이다. 그 장수가 바로 병자호란을 전후해서 큰 공을 세운 임경업 장군이다.

(출처 : <http://www.ggnhss.or.kr>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 15) 남한산성-장경사를 짓게 된 사연

남한산성 동문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m 정도 가면 사찰이 하나 있는데, 이 사찰이 바로 장경사이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5호로 지정된 이 사찰은 인조 원년(1624년)에 승군을 소집하여 남한산성을 쌓을 때 지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장경사를 짓게 된 사연이 전하고 있어 흥미롭다.

도승인 검단 선사는 남한산성의 한 고개 길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서 바둑 두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검단 선사와 함께 바둑 두는 상대는 그 근처에 사는 소년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소년과 이 바위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한 검단 선사는 소년의 맑은 심성에 흠뻑 빠져 있었다. 혈육 이상의 정이 느껴진 정도로 검단 선사는 소년과 친해졌던 것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검단 선사는 바위에 앉았다. 바둑을 둘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제 시간에 맑은 얼굴로 나타나 바둑을 두어 주던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나타난 소년은 눈물과 시름이 가득한 얼굴로 늦게 된 사연을 말하였다. 자신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병으로 누워있었으며, 오늘은 병환이 더욱 심해지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가 없다고 했다.

동네의원이 ‘어머니의 병은 대추하고 꽃감을 구하러 다녀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여름에 대추와 꽃감을 구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소년은 북쪽으로 가면 가을이 일찍 찾아온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밤낮을 쉬지 않고 북쪽으로 가서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할 약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소년의 효성을 알아챈 검단 선사는 자신이 약을 구해오겠다고 소년에게 제의를 했다. 북쪽으로 약을 구하러 가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날것이니 소년은 어머니 곁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검단 선사는 오늘부터 이렛날 후에 해가 머리꼭대기에 오거든 이 바위에 와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때까지 약을 구해오겠다고 한 것이다. 소년은 어머니 약을 구해 와서 병환이 나오시면, 이제 검단선사와 하루 종일 바둑을 둘수도 있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꼭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검단 선사가 약을 구하러 간 사이에 소년의 어머니 병환은 더욱 악화되다가, 다섯째 되는 날 소년의 어머니는 죽고 말았다. 한편 소년과 헤어진 검단 선사는 축지법을 써서 북쪽 묘향산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서 대추와 꽃감을 구했다.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그 바위에 도착했다. 소년의 기쁜 모습을 상상하며 돌아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은종일 기다려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역시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년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리움에 검단 선사는 매일 고개길 옆 바위에서 소년을 기다렸으나 끝내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검단 선사는 그 소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소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돌이 자주 만나서 바둑을 두고 정을 나눴던 바위 옆에 다 절을 지었다. 그 절이 바로 장경사라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근 하남시에서도 전해진다. 하남시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장경사를 짓게 된 사연이 아니라 검단산이라 부르게 된 사연인 점이 다르다. 즉, 검단 선사가 소년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소년의 어머니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소년을 떠올리며 아직도 깨우침에 이르려면 멀었다고 탄식하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검단 선사는 그 산에서 작은 암자를 짓고 일체의 인연을 끊고 수도에 전념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검단 선사가 주도를 한산이라 하여, 검단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www.ggnhss.or.kr>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 16) 남한산성 - 인조의 꿈에 나타난 온조대왕

남한산성 서문 안 일장산 서북쪽 중턱에는 숭열전(崇烈殿)이라는 사당이 있다. 이 사당에는 백제 시조인 온조왕과 남한산성을 쌓는데 큰 공을 세웠던 완풍부원군 이서(李曙)를 함께 모신다. ‘온조묘’, ‘온왕묘’, ‘은왕묘’, ‘은묘’ 등으로도 불리는 이 사당을 세우고, 온조왕과 이서를 함께 모시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은 인조의 꿈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옮겨와서 청나라 군사와 맞서 싸울 때였다. 그날도 밤이 깊도록 청나라 군사와 대치하고 우리 군사들을 돌아보다가, 몹시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웬 사람이 나타나, “적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북성을 오르는데 어쩌서 막지 않는가?”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인조는 난데없는 사람의 출현에 놀라 누구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는 성주 온조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인조는 놀라서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꿈에서 말한 대로, 즉시 북성 근처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꿈에서의 말과 같이 청나라 군사가 북성 벽을 오르는 것이었다. 즉시 우리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몰래 성벽을 오르던 청나라 군사들을 격퇴시켰는데, 잡아 죽인 청나라 군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렇게 온조왕의 은혜를 입은 인조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이후, 남한산성에 온조왕의 묘를 짓고 봄, 가을로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인조가 제사를 지낸지 몇 일이 안되어 온조왕이 꿈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대왕이 내 사당을 지으시니 진실로 감사하오, 그러나 혼자 있기가 몹시 외로우니 대왕의 신하중에서 명망있는 신하 한사람을 나에게 보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인조는 간밤의 꿈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한산성의 수어사로써, 산성을 쌓는데 공을 세웠던 이서가 간밤에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인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지난 밤의 꿈을 다시 상기하고 이서를 온조왕 묘에 함께 모시도록 하였다. 온조왕이 이서를 선택해서 데려간 것이라 여긴 것이다.

(출처 : <http://www.ggnhss.or.kr>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 17) 수원시 화성 - 송충이를 깨물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이장해 놓고는 자주 산소 참배를 하였다. 그리고 지지대 고개에서부터 화성 일대까지 각종 나무를 심어놓고 종자를 파종하며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세워 조림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소나무에 송충이가 많아 아무리 정성을 들여 나무를 심어도 송충이가 다 갉아먹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상금을 주어 잡아들였으나 근절시킬 수가 없자 정조가 친히 산에 남시어서 나무에 있는 송충이를 하나 잡아서는 ‘너희 같은 미물이 정성들여 가꾼 솔잎을 갉아먹어서야 되겠느냐’고 야단을 치며 씹어먹었다.

그러자 임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에 있던 송충이들이 다 떨어져 죽었다.

(출처: 구비문학대계 제3권 경기도편)

### 18) 남한산성 - 정조에게 벼슬을 받은 소나무

동문 밖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주필암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 주변은 정조 3년(1779) 정조 임금이 여주에 있는 영릉에 행차하던 길에 쉬었던 자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조 임금이 쉬어갔던 장소라고 해서 당시 광주 유수였던 김종수가 ‘己亥駐’ (기해주필)이라고 바위에 새긴 글씨가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정조 임금이 이 곳에서 쉴 때 소나무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온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하다가 이 곳 주필암에 앉아 쉬고 있었다. 쉬면서 주변 언덕을 천천히 살펴보던 정조 임금의 눈에 문득 언덕 위에 소나무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다. 마치 일산을 편친 것처럼 절묘하게 생긴 소나무였다. 정조 임금은 주변의 신하들에게 너무도 절묘하게 생긴 소나무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는 “저 소나무가 하도 절묘하여 과인이 정삼품의 벼슬을 내릴 것이니, 나무 기둥에다가 옥관자를 붙여주도록 하시오.” 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벼슬을 받은 소나무라 해서 ‘대부송’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벼슬을 받아 대부송이라 불리던 소나무는 지금은 고사한 송암정의 소나무였다고 한다.

### 19) 바보 온달

“온달(溫達)은 고구려 평강왕(平岡王) 때의 사람이다. 얼굴이 못생겨 남의 웃음거리가 되



었지만 마음씨는 밝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을 신고 저자 거리를 왕래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 온달로 불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희롱하기를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는 대장부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보내야 하겠다.” 하였다. 왕은 매양 그렇게 말하였는데 딸의 나이 16세가 되어 상부(上部) 고씨(高氏)에게로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가 대답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된다.’ 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씀을 고치시나이까? 필부도 식언(食言)을 하지 않으려 하거든 하물며 지존하신 분께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헛된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오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내 딸이 될 수 없으니 어찌 함께 있을 수가 있랴? 너는 갈 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에 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매고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그 집에 이르렀다. 눈 먼 늙은 할멈이 있음을 보고 앞으로 가까이 가서 절하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물으니, 늙은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추하여 귀인이 가까이할 인물이 못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이상하고, 손을 만지니 부드러움이 풀숨과 같은즉 반드시 천하의 귀인이요, 누구의 속임수로 여기에 오게 되었소?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산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공주가 그 집에서 나와 걸어서 산 밑에 이르러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고, 공주가 그에게 마음 속에 품은 바를 말하니 온달이 성을 내며 “이는 어린 여자의 행동할 바가 아니다. 분명코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며 그만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 공주는 혼자 온달의 집으로 돌아와 사립문 아래서 자고, 이튿날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와 아들에게 상세히 말하였는데, 온달은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

리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 자식은 지극히 누추하여 귀인의 배필이 될 수 없고, 내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귀인의 거처할 곳이 못되오.”

공주가 대답하였다.

“옛 사람의 말에, 한 말 곡식도 방아 찿을 수 있고, 한 자 베도 꿰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한 후에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금팔찌를 팔아 농토와 집, 노비, 우마와 기물 등을 사니 살림살이가 다 갖추어졌다. 처음 말을 살 때에 공주는 온달에게 말하였다.

“아예 시장 사람들의 말은 사지말고 꼭 국가의 말을 택하되 병들고 파리해서 내다 파는 것을 사오도록 하시오!”

온달이 그 말대로 하였는데, 공주가 매우 부지런히 먹여 말이 날마다 살찌고 건강해졌다.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면 낙랑(樂浪)의 언덕에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냥을 하고, 그 날 잡은 산돼지·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온달도 기른 말을 타고 따라 갔는데, 그 달리는 품이 언제나 [남보다] 앞에 서고 포획하는 짐승도 많아 서, 다른 사람은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이 불러 그 성명을 물어보고 놀라며 또 이상히 여겼다. 이때 후주(後周)의 무제(武帝)가 군사를 보내 요동(遼東)을 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이산(隸山)의 들에서 맞아 싸울 때, 온달이 선봉장이 되어 날쌔게 싸워 수십여 명을 베자, 여러 군사가 승세를 타고 분발하여 쳐서 크게 이겼다. 공을 논할 때에 온달을 제일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이 가 상히 여기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사위다.” 하고, 예를 갖추어 맞이하며 작위를 주어 대형(大兄)을 삼았다. 이로 해서 은총과 영화가 더욱 많아졌고, 위엄과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영양왕(嬰陽王)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었다.

“신라가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 군현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심히 한탄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잇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어리석은 이 신하를 불초하다 하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왕이 허락하였다. 떠날 때 맹세하기를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 이서(以西)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나가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阿耽城) 아래에서 싸우다가 [신라군의] 흐르는 화살[流矢]에 맞아 넘어져서 죽었다. 장사를 행하려 하였는데 상여가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돌아갑시다!” 하였다. 드디어 들어서 장사지냈는데, 대왕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출전 : 삼국사기 열전 온달편)

## 20) 아차산성 - 구리 온달샘 석탑 [九里—石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차산의 온달샘 옆에 있는 석탑으로 고려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암에서 동남쪽으로 300m 정도 가면 해발 200m 지점에 ‘온달샘’이라 불리는 약수터가 있다. 석탑은 이 약수터를 정리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운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 탑은 기단부와 옥개석(屋蓋石) 일부만 남아 있을 뿐 다른 부재(部材)들은 소실되어 탑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기단부는 하대석(下臺石)과 중대석(中臺石)이 남아 있으며, 옥개석 두 개는 형태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뿐 다른 부재들은 전혀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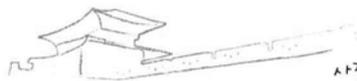
현재 맨 아랫 부분에 놓여 지대석(地臺石)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돌은 기단부의 하대석이다. 하대석은 한 장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다소 거칠게 다듬어져 있다. 중대석 역시 한 장의 돌로 만들었으며, 네 모서리와 각 면마다 모서리기둥인 우주(隅柱)와 버팀기둥인 탕주(撐柱)가 새겨져 있다.

전체적인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아 탑의 크기나 층 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다소 둔중하고 정교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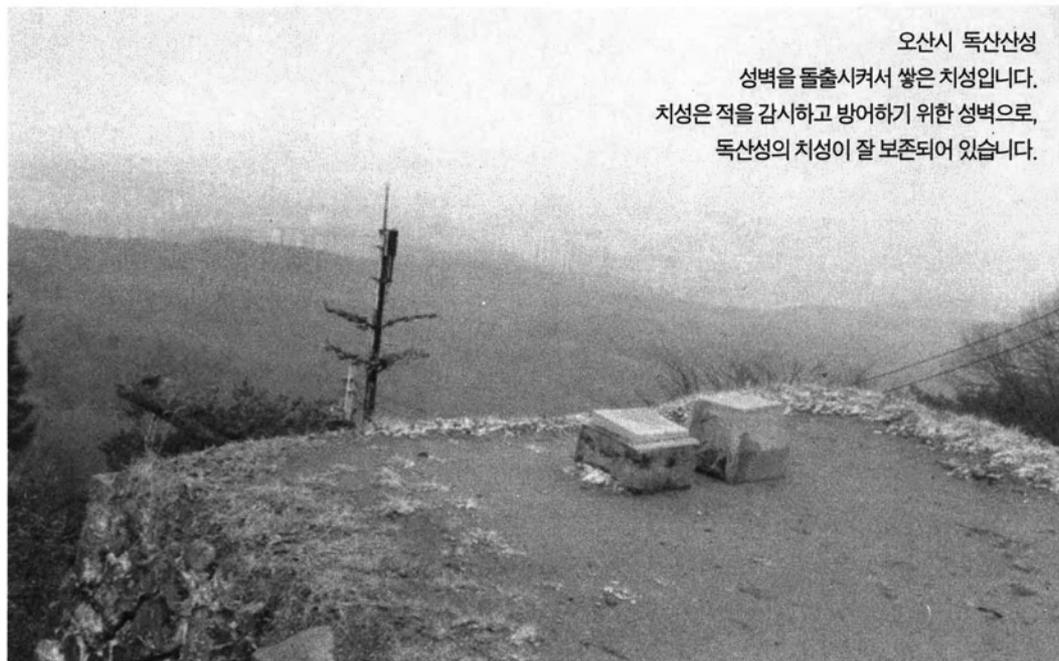
## 고사건으로 보는 경기도 산성



고봉산성 - 한씨미녀설화



# ☉ 독산산성



오산시 독산산성  
성벽을 돌출시켜서 쌓은 치성입니다.  
치성은 적을 감시하고 방어하기 위한 성벽으로,  
독산성의 치성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독산성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세마대입니다. 권율장군이 임진왜란 중 이곳에서 말을 끌어다가 흰 쌀을 말 등에 끼얹어 씻기는 사냥을 해보이자, 왜군은 성내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속아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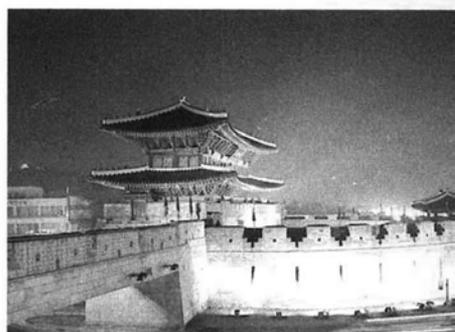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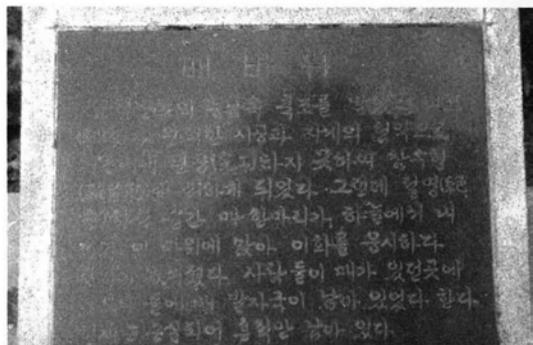
화성





남한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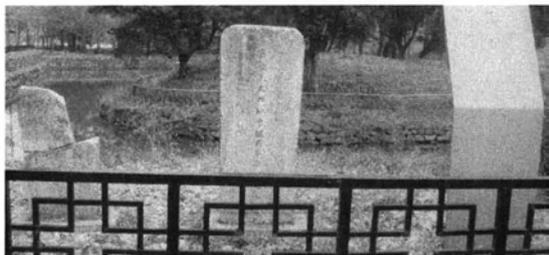






**서운님과 곤룡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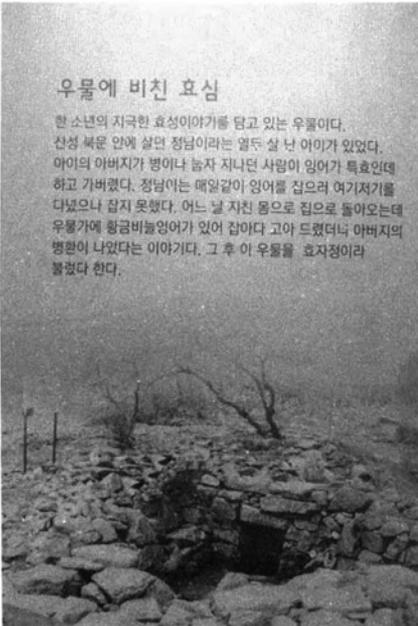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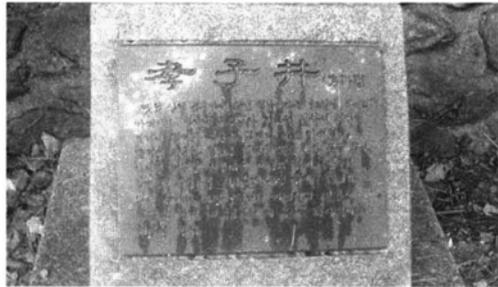
영지초의 영사 임금이 서운을 영지나 북한산성으로 오려던 도중 밀고 기뢰관공에 살인계산으로 놓여져 내리쳐 산악들이 번갈아 기뢰 관공 풀리자던 곧 산악을 해치 지쳐 죽을 겨를 오르지도 내리까지 죽하는 상상이 되었다. 이 때 서나기던 서운왕이라는 나무꾼이 임금을 밀어내고 허자 서운님은 바로 밀어서 금빛으로 빛나는 임금이 곤룡포를 아다거한다. 임금은 산악을 서켜 곤룡포 한 쌍을 허사하는 데 이를 왕인 서운님은 해당 곤룡포에 실을 하여, 죽을 때에도 감이 놓여달라고 할 정도로 고이 간직하였다고 한다. 서운님은 김홍도의 초상 '남한산성'에서도 서운이라는 인물로 등장하여 재미와 감동을 더하였다.





### 우물에 비친 효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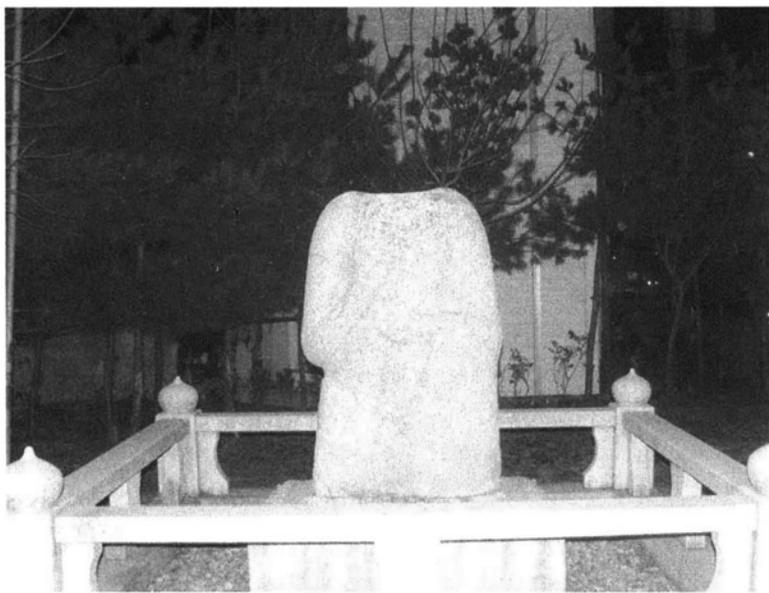
한 소년의 지극한 효성이아가를 담고 있는 우물이다. 산성 북문 안에 살던 정남이라는 열두 살 난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병이나 늙자 지나던 사람이 잉어가 특효인데 하고 기버렸다. 정남이는 매일같이 잉어를 잡으러 여기저기를 다녔으나 잡지 못했다.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물가에 황금비늘잉어가 있어 잡았다 고야 드켰더니 아버지의 병환이 나았다는 이야기다. 그 후 이 우물을 효자정이라 불렀다 한다.



문수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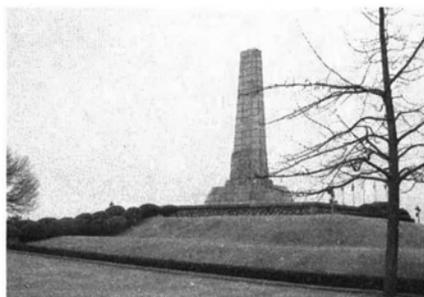


북한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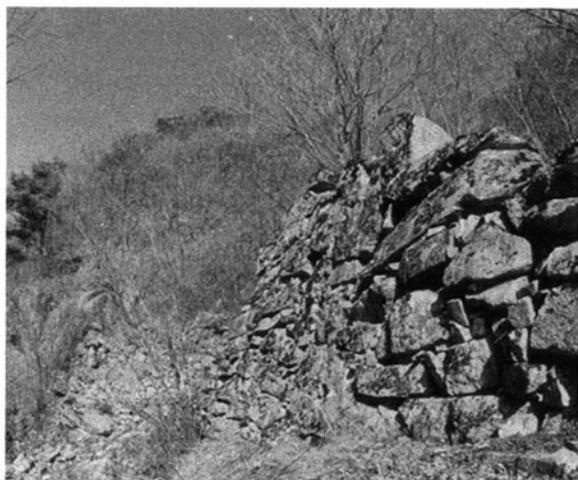
행주산성





보개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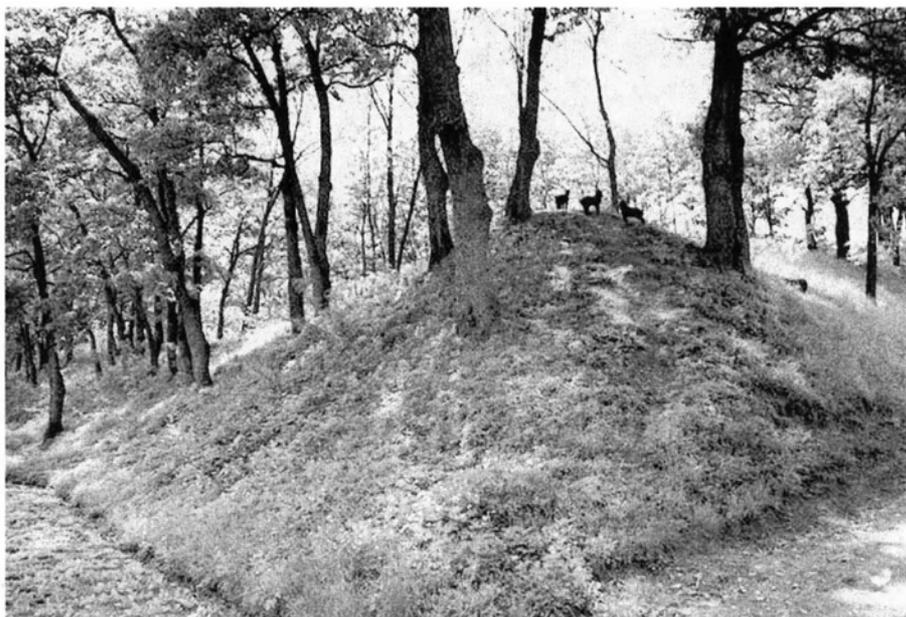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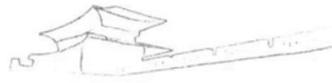
영랑산성





처인성





☉ 처인성



죽주산성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6번지 죽주산 일대
- 규 모 - 내성 270m 본성 1,690m 외성 1,500m
- 관 련 전 투 - 대몽항쟁, 임진왜란
- 지 정 사 항 - 경기도 기념물 제69호
- 동 문 지 - 새로 복원된 동문



북문



대웅전



포루 : 대포를 쓸 수 있게 장치한 누각이다.



우물자리 : 대웅전 앞에 있는 옛 우물터



복원 중인 외성



내성 ②



복원된 내성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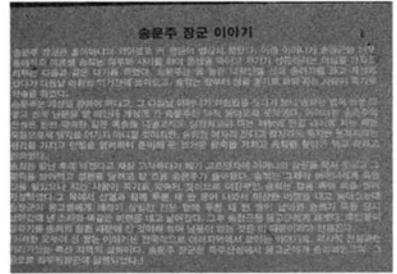
복원된 외성



복원된 내성



복원된 내성모습



송문주 장군 설화: 여동생 송희와 성 쌓기 내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하는 '오누이 성 쌓기 설화'.



송문주시당 충의사: 1236년 6월 이차 고려를 침공한 몽고군은 8월 하순 죽주성을 침략했다. 이때 죽주성에는 방호별감 송문주가 군민 3천여 명을 이끌고 성을 지키고 있었다. 몽고군은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송문주는 이를 거부하고 돌연히 성문을 열고 몽고군을 기습하여 타격을 입혔다. 이에 몽고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으나, 송문주는 포석 공격에 대비하여 성 안에 미리 포를 준비하여 몽고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몽고군은 수주에 걸쳐 갖가지 방법으로 죽주성을 공격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죽주성 공격에 실패한 몽고는 후퇴했다.



죽주산성 안내표지판



복원된 외성



내성



남문



복원된 내성



복원된 외성



동문 입구에 있는 죽주 산성 기념비

파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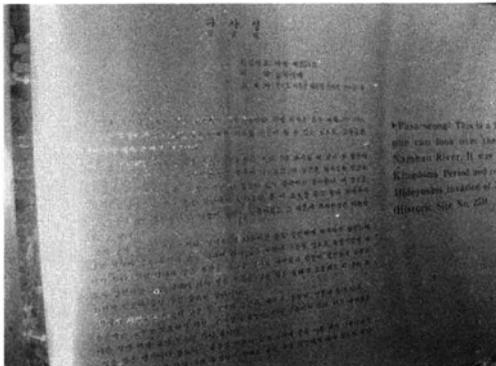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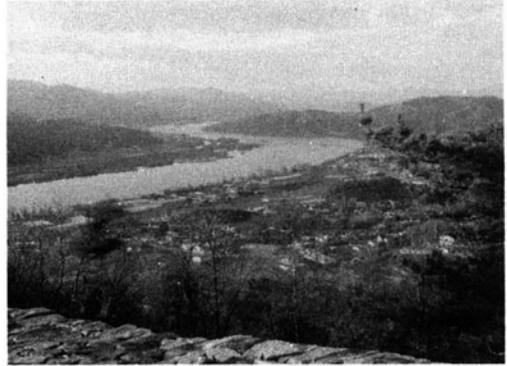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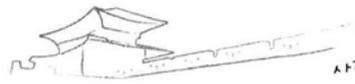


돌계단



성벽돌





남문지 ①



남문지 ②



남문지 ③



성터①



성터②



성터③



정상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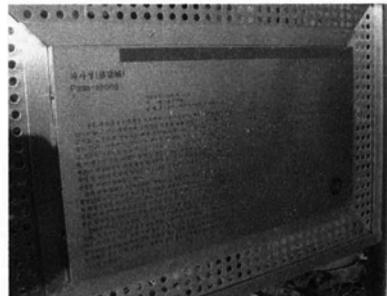
정상풍경



정상풍경



파사성 입구



파사성 안내판



효양산성



물명당 약수



물명당 약수



물명당 약수 표지판



은선사



정상



정상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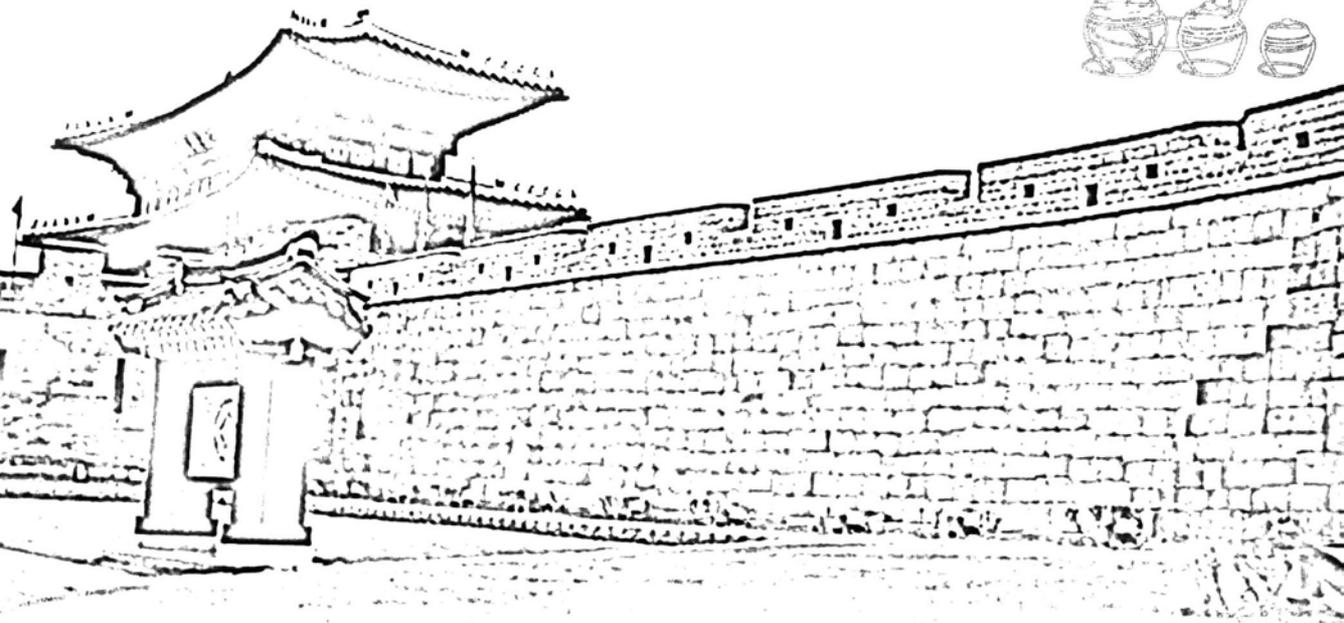


효양산 금송아지

여 백

동화로  
산성편 **읽는**  
경기도설화

IV. 영문초록



## 1. Understanding of the Sanseongs (the Mountain Fortress Walls) in Gyeonggi-do

Sanseongs (Mountain fortress walls) are the representative castle of Korea. The mountain walls are facilities which are constructed on strategical places to protect the land from external attacks. The walls have advantages in terms of military tactics and strategies. This can be found in the historical records such as SamgukSagi, SamgukYusa.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mountain walls are not only to defend people against external aggressions. Sometimes they are also used as the ruling center of local administration. Fending off external attacks and protecting territorial integrity, the mountain walls served as the role of local administration from the late Wissi Chosun to Chosun dynasty.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he Gyeonggi-do sanseungs were constructed mainly by Baekje and Goguryeo, but hardly built in the era of the Unified Shilla. A few of them were rebuilt and renovated during the Goryeo and Chosun Dynasty. At the tim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Gyeonggi-do was a competing place for Baekje and Goguryeo. Although some sanseungs were built by Shilla, many were constructed by Baekje and Goguryeo. Baekje which occupied Gyeonggi-do first built more mountain walls than the other kingdoms. these walls were used till the time of Chosun. In the era of Goguryeo, the mountain fortress walls were constructed in terms of Goguryeo's position. By observing their direction, location and terrain, we can notice their functions. The mountain fortress walls of the Baekje era are Seolbongsanseong, Banwolsanseong, Bukhansanseong, Namhansanseong, Komorisanseong, Doksanseong. It is said that the ruined walls of Banwolsanseong in Pochun, Seokseongsanseong, Eundaeriseong in



Yeunchun were made by Goguryeo, and that Suansanseong was built by Shilla. It is unknown who constructed Haengjusanseong, Ahmiseong, Jukjusanseong, Bipasanseong. Hwaseong in Suweon, Deokpojin and Moonsusanseong were built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 2. Types of Sanseong Folktales in Gyeonggi-do

Gyeonggi-do Sanseongs have produced many folktales. Wherever people form a community many people live together, there will be stories. Many tales are made especially in a sanseong where people have experienced wars. Many stories are associated with Sanseongs. There are as many types of Sanseong tales as much as the number of Sanseongs. From the reincarnation story of Sangaksa Sugaksiju Kim Poongyeon to stories of war, filial piety, love, gratitude, mediation and many more, stories are endless. The following tales are the main examples of Sanseong folktales.

### 1) A Story of a War: 〈Nojeokbong and Baphalmeoni〉

Baphalmeoni, a sturdy female warrior is six tall, asked her husband to lead the neighborhood at night to Nojeokbong at Bookhansan and cover the mound with straw. Japanese soldiers who came to drink water asked her why the water was cloudy. Baphalmeoni pointed to Bookhansan Nojeokbong lied that it was the gunryangmi (military provisions) and that it was the water that washed the rice to feed the tens of thousands of Chosun Army. The Japanese enemies were so thirsty that they hastily drank the water and also let their horses to drink it. Soon after drinking water, the Japanese enemies grabbed their own stomachs and tumbled on the ground in pain. Baphalmeoni passed on this news to the Korean soldiers and they were able to use this chance to defeat the Japanese army.

## 2) A Story of a Filial Son

: "The Well of the Filial Son in Namhansanseong"

Jeongnam, a 12-year-old boy, lived with his poor father within the North Gate of Namhansanseong. One day his father was very ill with an unknown disease. Jeong Nam offered food that he earned from begging only to his father.

One day a passerby who took the pulse of the father said he could regain his strength by eating a soup made from a carp. And from that day, Jeong Nam began to look for a carp. Exhausted and thirsty, Jeong Nam sat to rest by a well at the foot of the mountain. Jeong Nam prayed with all his heart. And just then he saw a carp. Jeong Nam gave thanks to heaven and took the carp from the well. Jeong Nam came back home happily and offered it to his father. As a result his father completely recovered from his illness. The people of the village began to admire Jeong Nam and believed that heaven was moved by the boy's filial piety and sent the carp. Since then, the well was named as the well of the filial son which means it is a well that is able to recognize a filial son.

## 3) A Story of Love "A Brother and Sister Who Built Jukjusanseong"

There is a famous shrine for Songmunju in Jukjusanseong. Songmunju was a Goryeo general who defeated one of the forces of Genghis Khan's descendants. Songmunju had a sister called Songhui. Since her mother only favored the son, jealous Songhui made a bet with her brother. The bet was that while Songhui builds a castle, her brother should put on high-heeled wooden clogs and go to Gaeseng the capital then return to the Sanseong. Songhui built most of the castle and the mountain walls. Then her mother handed roasted beans to Songhui. Her son, Songmunju could come over while she ate the beans. Songhui who finished the beans ran to the South



Gate, but her brother had come back already. Then Songhui killed herself on the spot. As soon as Songhui took her own life, a pair of blue birds came out of Songhui's neck and flew off with a strange sound. The stranger fact was that the birds sang in the same voice on the day when Songmunju lost a battle against the Monggolian army. That is why there is no gate at the south of Jukjusanseong.

#### 4) A Story of Gratitude

: "The Deer Who Repaid Kindness in Hyoyangsan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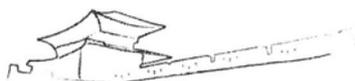
A deer hit by an arrow was on the run and appeared in front of Seo Sinil. He saved the deer that was shot by an arrow. Then a figure appeared in his dream and said, "the deer you saved that day is my son. Thank you so much. So to repay your kindness, I'll make your descendants become chancellors for generations." Although Seo Sinil was an 80-year-old man, his wife had given birth to a son after the mysterious figure's appearance. His son, Seopil became a chancellor of the early Goryeo dynasty and Seohui is his grandson, Seonul a greater grandson. They all became chancellors.

#### 5) A Story of Medium: "A Tale of A Hawk's Beak"

General Li Kui who was in charge of constructing Namhansanseong was a person with very prim and precise manners and strong patriotism, so he tried to be perfect in the construction mission. However he did not finish it in time and left behind a great shortage of the budget. And a lot of people spread rumors that General Li Kui wasted money for spending on wine and women. Due to this incident, Gen. Li Kui was beheaded.

Gazing at the sky General Li Kui said just before the execution, "If nothing

happens after my death, it means I committed the crime." After General Li Kui was beheaded, a hawk flew out of the general's neck sitting on a rock and cried over the death. Then the hawk left sharp claw marks on the rock. Since then, people examined the mountain walls and found that the stone layers were very tightly enclosed without gaps. So people knew General Li Kui was executed with no sin.



산성편

# 동화로 읽는 경기도설화

---

발행인 : 오용원

편집인 : 김성문 · 나명철 · 진숙

집필자 : 박혜숙 (건국대학교 교수)

이우학 (건국대학교 교수)

서동수 (건국대학교 강사)

작가 : 김명옥 · 김단아 · 심재은 · 최서현 · 최윤정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 2009년 12월 20일

발행 : 2009년 12월 31일

인쇄처 : 연세기획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34-3 전진빌딩 3층

Tel. 031)655-9360

Fax. 031)657-8747

---

\* 이 책자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 <비매품>



산성에 얽힌  
역사적 사건보다  
더 역사적인  
백성들의 풍자와 해학이  
새겨져있음

동화로  
읽는  
경기도설화

산성편